

2010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교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국립국어원



한글 학회



▲ 2007 전문가 초청 연수: 유적지 답사(경주 불국사)의 한 모습.



▲ 2007 전문가 초청 연수: 수료식을 마치고.



▲ 2007 전문가 초청 연수: 강의(한국역사)의 한 모습.



▲ 2007 전문가 초청 연수: 강의(한국역사)의 한 모습.

2010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시간표

날짜 (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3:30 ~ 14:20	14:30 ~ 15:20	15:30 ~ 16:20	16:30 ~ 17:20
10/18 (월)	■■■ 국외 한국어 전문가 환영(환영회: 오후 3시, 입소: 오후 5시)						
10/19 (화)	개강식	원장특강	원장특강	한국어의 이해	한국어의 이해	한국어의 이해	한국어의 이해
10/20 (수)	한국어 문화교육론	한국어 문화교육론	한국어 문화교육론	한국어 이해교수법	한국어 이해교수법	한국어 이해교수법	한국어 이해교수법
10/21 (목)	한국어 표현교수법	한국어 표현교수법	한국어 표현교수법	한국어 표현교수법	한글의이해	한글의이해	한글의이해
10/22 (금)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어 표기법	한국어 표기법	한국어 표기법	한국어 표기법
10/23 (토)	■■■ 한국 문화 체험(서울 유적지와 명소)(경주교육문화회관, 1박)						
10/24 (일)	■■■ 한국 문화 유적 답사(경주 문화 유적)(경주교육문화회관, 1박)						
10/25 (월)	■■■ 산업 시찰(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서울로 출발)						
10/26 (화)	한국음악의 이해	한국음악의 이해	한국음악의 이해	한국어 번역론	한국어 번역론	한국어 번역론	한국어 번역론
10/27 (수)	한국어 화용론	한국어 화용론	한국어 화용론	한국어 화용론	한국음식의 이해	한국음식의 이해	한국음식의 이해
10/28 (목)	회장특강	회장특강	동아리 토론	한국역사의 이해	한국역사의 이해	한국역사의 이해	한국역사의 이해
10/29 (금)	종합 토론	수료식	환송				

□ 2010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강사



□ 특강 □

- 한글학회 회장
- 경북대 명예교수

✉ kimjt@hangeul.or.kr

김중택



□ 특강 □

- 국립국어원 원장
- 서울대 교수

✉ kwonji@korea.kr

권재일



□ 한국어의 이해 □

- 전, 대구가톨릭대 총장
-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위원장

✉ kse1829@hanmail.net

김수업



□ 한글의 이해 □

- 연세대 명예교수
- 전, 한국언어학회 회장

✉ ksd31102@hanmail.net

김석득



□ 한국어 화술훈 □

- 상명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 상명대 국어문화원 원장

✉ hyunjkoo@smu.ac.kr

구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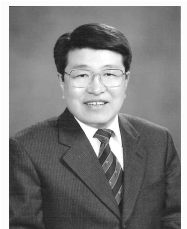


□ 한국어 번역론 □

- 국제회의 통역사
-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한불과 부교수

✉ wafwaf@ewha.ac.kr

최미경



□ 한국어 표기법 □

- 춘천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 한글학회 총무이사

✉ daegok@cnue.ac.kr

리의도



2010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강사 □



김중선

□ 시해 교수법 □

- 경희대 국제교육원 원장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 jskim@khu.ac.kr



이해영

□ 표현 교수법 □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교수
- 이중언어학회 부회장

✉ youngewha@ewha.ac.kr



조항록

□ 문화 교육론 □

- 상명대 교육대학원 교수
- 전,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 hrcho@smu.ac.kr



이만열

□ 한국 역사 □

- 숙명여대 명예교수
-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mahnyol@hanmail.net



오동춘

□ 한국 문학 □

- 조선문학회 회장
- 한글학회 외사이사

✉ sgodc@hanmail.net



송혜진

□ 한국 음식 □

-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
- 숙명가야금연주단 대표

✉ hjsong@sookmyung.ac.kr



천성옥

□ 한국 음식 □

-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한국어교실 팀장
- 세프한국어 저자

✉ csok1000@naver.com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010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교재

○ 때: 2010. 10. 18. ~ 10. 29.

○ 곳: 호텔아카데미하우스(서울 수유동)



국립국어원



한글학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010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2010. 10. 18.~10. 29.) 강의 교재…

— 차례 —

연수회 시간표	i
강사 소개	ii ~ iii
 [특강] 한국어의 특질과 언어 예절	김종택 5
한국어와 한국어 정책	권재일 11
 [한국어의 이해] 한국어 이해(배달말 알기)	김수엽 23
[한글의 이해] 훈민정음의 이해와 한글살이의 역사	김석득 45
[한국어 화용론] 한국어 화용론	구현정 65
[한국어 번역론] 통역 · 번역, 이론과 실제	최미경 89
[한국어 표기법] 한국어 표기법	리의도 111
[한국어 이해 교수법] 한국어 이해 교수법	김중섭 165
[한국어 표현 교수법] 한국어 표현교육	이해영 187
[한국어 문화 교육론]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조항록 203
[한국 역사의 이해] 한국 역사의 이해	이만열 229
[한국 문학의 이해] 한국 문학의 이해	오동춘 265
[한국 음악의 이해] 한국 음악의 갈래와 특징	송혜진 279
[한국 음식의 이해] 한국 음식의 이해와 한국 문화	천성옥 295
 간추린 한글학회 발자취	307

한국어의 특질과 언어 예절

김종택

1. 한국어의 특질

영어는 화자(speaker) 중심의 서술형 언어인 데 대하여 한국어는 상대(hearer) 중심의 대화형 언어이다. 여기서 현저한 문법 체계의 차이가 나타난다.

(1) 서술어의 화계(speech level)가 분별되어 있다

하오체(높임법)	{		하십시오: 손위(手上) 높임
	{		하시오: 손위(手上) 높임
	{		하오: 손위(手上) 높임
	{		하계
	{		하네
	{		하세
			손아래(手下) 높임

하라체(예사말법)	{		하라
	{		해

※ 문법 체계에서는 예사말법(평대)과 높임법(존대)이 있을 뿐 낮춤법(하대)은 없다.

가까운 친구에게 ‘먹자, 먹어라’고 말하는 것은 예사말법(평대)이지 낮춤법(하대)이 아니다. 낮춤법은 어휘 차원에 있을 뿐이다.

친구에게: 먹어라, 먹어 } 문법적 형태소가 같다.
 적에게: 처먹어라, 처먹어

(2) 말할이(화자)와 듣는이(청자)가 주어진 현장성이 전제된 대화형 언어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등 성분 생략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겠는데 ...
 (너) 어제 전화했니?
 (우리) 점심 뭘 먹을까?
 (당신이)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잘 가십시오.

(3) 거리 표현

영어 { 근칭: this, here } 철저한 화자 중심
 { 원칭: that, there }

한국어 { 근칭 { 화자 근칭: 이(것) | ↑
 청자 근칭: 그(것) ↓ } 문답에서 자동 교체
 { 원칭: 저(것)

(화자): 이것 좋지? 그것 어디서 샀니? }
 (청자): 그것 어디서 샀니? 이것 수퍼서 샀어. } 근칭

여기서 ‘이것, 그것’은 화자와 청자의 처지가 바뀌었을 뿐 거리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철저한 화자 중심인 영어에 비해 청자를 중심으로 하는 형태가 따로 하나 더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this = 이것, 그것

그런데, 언제나 자동 교체되는 ‘이-그’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것이 있다.

{ 화자: 너 내일 그것 가져 와.
청자: 그래, (내일) 그것 가져 올게.

{ 화자: 너 내일 거리(그곳으로) 와.
청자: 그래, 내일 거리(그곳으로) 갈게.

여기 나타나는 ‘그’는 거리를 표시하는(자동 교체하는) ‘그’가 아니다. 이것은 근칭의 ‘그₁’가 아니라 특칭의 ‘그₂’로서 영어의 ‘the’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에는 거리를 표시하는 ‘그₁’과 특칭을 나타내는 전혀 다른 동음어인 ‘그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₁: this
그₂: the

(4) 한국어가 상대 중심의 대화형 언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특징은 친족어 어휘 체계의 대립에 있다.

<자타(自他) 대립>

나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와 너의 어머니
나의 아내와 너의 아내
나의 남편과 너의 남편

을 나타내는 어휘가 철저하게 대립되는 상보적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한국인의 전통 예절의 기본이 된다.

F ₁	나의 아버지	←————→	남의 아버지	F ₂
	아버지	←————→	아버님	
	가친(家親)	←————→	대인(大人)	
	가군(家君)	←————→	춘부장(椿府丈)	
	나의 어머니	←————→	남의 어머니	
	어머니	←————→	어머님	
	가자(家慈)	←————→	자당(慈堂)	

모친(母親)	←————→	대부인(大夫人), 북당(北堂)
나의 아내	←————→	남의 아내
아내	←————→	부인(夫人) (婦人 ×)
집사람, 안사람	←————→	합부인(閤夫人), 영부인(令夫人)
형처(荊妻), 내권(內眷)	←————→	현합(賢閤), 내상(內相)
나의 남편	←————→	남의 남편
바깥주인(시아비)	←————→	부군(夫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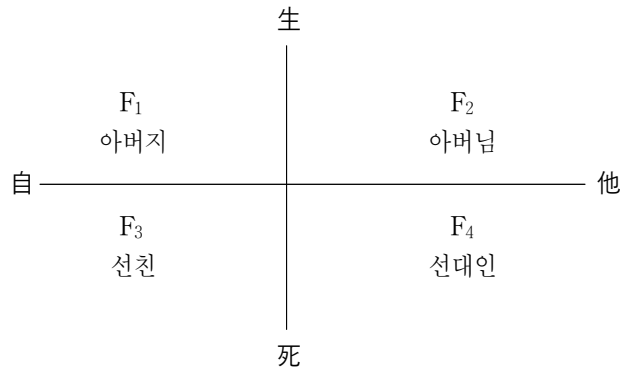
이런 현상은 ‘my father’ ↔ ‘your father’, ‘my wife’ ↔ ‘your wife’로 통합된 영어와는 너무도 다른 엄격한 대립 구조이다.

<생사(生死) 대립>

나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가 대립되듯이 ‘살아있는 나의 아버지’와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가 다르고 ‘살아있는 너의 아버지’와 ‘돌아가신 너의 아버지’가 다른 대립 체계를 보인다.

F ₃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	돌아가신 너의 아버지	F ₄
선친(先親)	←————→	선대인(先大人)	
선고(先考)	←————→	선(고)장(先考丈)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	돌아가신 너의 어머니	
선비(先妣)	←————→	선대부인(先大夫人)	
죽은 나의 아내	←————→	돌아가신 남의 아내	
선처(先妻)	←————→	선부인(先夫人)	
망처(亡妻)	←————→	곤위(坤位)	
죽은 나의 남편	←————→	돌아가신 남의 남편	
망부(亡夫)	←————→	선부군(先夫君)	

철저하게 내 쪽은 낮추고 상대 쪽은 높이는 것인데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위상(位相) 대립>

한국어에는 명사나 동사에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에 따른 위상 대립 체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명사류의 대립

이 ↔ 치근(齒根)
낮빔 ↔ 안색(顔色)
아침 ↔ 조반(朝飯)
밥(식사) ↔ 진지
순가락 ↔ 수저

○ 동사류의 대립

먹다 ↔ 드시다
죽다 ↔ 돌아가시다
자다 ↔ 주무시다
있다 ↔ 계시다 등

2. 전통적인 언어 예절

(1) 어휘 선택에서 자타 대립, 생사 대립, 위상 대립을 분별한다.

(2) 자기 쪽은 철저히 낮추고 상대 쪽은 철저히 높인다.

내 할아버지 ↔ 자네 할아버님
내 처(집사람) ↔ 자네 부인

‘-님’은 언제나 상대 쪽에만 붙인다.

(내) 큰형	——	(자네) 큰형님
누나	——	누님
어머니	——	어머님
(우리) 고모	——	(자네) 고모님
(내) 장인	——	(자네) 장인어른
(내) 장모	——	(자네) 장모님

(3) 친족어에서 부름말(호칭), 가리킴말(지칭), 존수말을 분별한다.

부름말(호칭): 통합적	——	가리킴말(지칭): 논리적 분별
할아버지	——	조부, 종조부, 재종조부, 증조부, 고조부
아제	——	당숙, 재종숙, 삼종숙, 아저씨뻘
형(언니)	——	종형, 재종형, 삼종형, 형뻘

어떤 경우라도 호칭과 지칭을 분별해야 하고 존수말을 써서는 안 된다.

외삼촌(x) → 외아제, 삼촌(x) → 작은 아버지

시집간 여자가 시동생을 ‘삼촌’이라 부르는 것은 망발이다. (도련님, 아주버님)

(4) 대우의 기준, 호칭의 기준은 상대에 있다.

내 제자의 아버지가 나보다 나이가 열 살이 적어도 ‘자네 아버님’, ‘자네 형님’, ‘자네 부인’, ‘자네 장인어른’이다. 그것은 나보다는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내 제자(상대)보다는 어른이기 때문이다.

시아머님 앞에서 자기의 남편을 지칭할 때에는 자기 중심으로 ‘우리 그이’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 ‘할머님 손자’, ‘고모님 조카’이다. 철저하게 상대 중심 지칭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어 대중가요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는 말 가운데 자타 분별, 말이 되는 노랫말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은 참으로 딱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그 밖의 남은 말 ~~❖~~

한국어와 한국어 정책

권재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토론한다. 외국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여러 특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며 또한 한국어 교수방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대상으로 삼은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유익할 것이라 생각한다.

1. 한국어의 위상

한국어는 사용하는 사람은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제1언어로, 즉 모국어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한국과 북한의 주민이 여기에 속한다. 대략 7천만 명 정도이다. 둘째는 제2언어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중국, 일본, 미국, 중앙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 나라에 살면서 각각 중국어[漢語],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 등 자기 나라의 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면서 가정언어, 지역사회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워 사용하는 경우이다. 최근 한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세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의 수가 처음 실시한 1997년에 2천여 명이던 것이 작년에는 20만 명 가까이로 늘어난 것을 보면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정말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상당한 수에 이르러 세계 여러 언어 가운데 12위이다. 그리고 영향력으로 보면 9위쯤 된다고 한다.

또한 2007년 9월 제43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한국어가 국제공개어로 채택되어, 한국어로 특허를 제출할 수도 특허 내용을 열람할 수도 있게 되어, 국제어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적는 글자인 한글의 위상도 대단하다. 작년에 훈민정음학회가 인도네시아의 한 소수민족 언어인 짜아찌아말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한 일은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함께 기뻐할 일이다.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어만의 글자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였던 한글이 드디어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로 진출한 것이다. 바로 한글 해외 보급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지속된다면 장차 한국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 한글을 지구촌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는 길이 열릴 것이며 또한 문맹 타파라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념을 널리 펼치는 길이 될 것이다.

2. 한국어 정책과 국립국어원

2.1. 국어기본법

한국에는 국어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국어기본법”이 2005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쓰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제2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어발전기본계획 수립, 국어심의회 설치, 국어문화원 설치, 그리고 정부 각 부서에 국어책임관 지정을 비롯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2. 한국어 정책의 수행 기관

한국에서 국어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담당부서: 국어민족문화과)는 국어 및 언어 정책에 관한 중

합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국어 관련 제도 정비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과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을 관장한다.

국어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며, 국립국어원은 국어 정책에 관한 연구와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외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의 예를 들면, 세종학당의 기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세종학당을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며,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재를 편찬하고, 교원을 연수하는 일은 국립국어원이 담당한다.

한편 국립국어원의 간략한 역사는 다음과 같다.

- 1984년 문교부 소속의 대한민국 학술원의 부설 임의기구로 “국어연구소” 설치함
- 1991년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국립국어연구원”을 개원함
- 2004년 “국립국어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국어 정책을 총괄함
- 2009년 국어 정책 수립 업무를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함

그러면 지금부터 국립국어원이 펼치는 한국어 정책 사업을 “연구”, “지원”, “교육” 등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다.

2.3. 연구 사업

첫째, 한국어 정책을 위한 기반 연구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사업에 앞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연구 사업이다.

[1] 어문규범 연구와 관리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어문규범에 대한 연구와 관리
- 어문규범에 대한 영향 평가와 개선

[2] 국어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

-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 국어 정책 통계 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 국어 정책 관련 자료 발간: “국어연감”, “새국어생활”, “쉽표, 마침표”

[3] 국어 정책 학술대회 개최 및 국제 교류

- 국어 정책 토론회
- 국어 정책 국제학술대회
- 국외 배포를 위한 “훈민정음 해례본” 번역

[4] 지역어 발굴 및 보전

- 지역방언 조사 및 “지역어구술자료총서” 발간
- 민족생활어 조사 및 “민족생활어자료총서” 발간

[5] 남북 언어 통합 사업

- 남북 언어학자 학술대회 개최
-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자료집 발간

[6] 한글박물관 건립 지원

- 전시 기획, 교육-체험 개발

둘째, 한국어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연구 사업, 즉 한국어 정보화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21세기 세종계획(www.sejong.or.kr 및 www.korean.go.kr/sejong)

- 말뭉치, 전자사전 등 연구 결과물 관리
- 언어 정보 자원 통합 관리
- 국어생활의 정보화

[2] 디지털 한글 박물관(www.hangeulmuseum.org)

- 한글 문화유산 콘텐츠 구축

[3] 국어 정보 통합 시스템 관리

- 한국어 정보화 통합 관리

셋째, 한국어 사전을 구축하는 연구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표준국어대사전” 웹 제공 및 지속적인 보완

-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 발간
-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 웹서비스

[2] 수요자 중심의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 편찬

- 뜻풀이 보완
- 생활용어 / 방언 / 신어 / 전문용어 구축

[3] 위키피디아형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

- 개방형 지식대사전 수집, 분석, 등록 시스템 개발

[4]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다국어 웹사전 구축

2.4. 지원 사업

- 쉽고 품격 있는 공공언어를 위한 지원 -

[1] 공공기관 언어 개선

- 공공기관 쉬운 언어 쓰기 체계 구축
- 공공언어 지원을 위한 국어종합상담실 운영 (“가나다전화” 1599-9979)
- 공공언어 지원을 위한 전문용어 정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010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교재

- 공공언어의 순화 및 보급: “말터” (www.malteo.net)
- 언어 예절을 비롯한 생활언어 향상을 위한 표준화법 제정

[2] 방송통신 언어의 품격 향상

- 방송 언어의 품격 향상
- 신문 언어의 품격 향상
-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 언어의 품격 향상

[3] 교과서, 교육 언어의 개선

- 교과서 표기와 표현 감수
- 국어의 수준별 기본 어휘 선정
- 청소년의 국어 생활 향상

2.5. 교육 사업

교육 사업은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사업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사업을 소개하겠다.

[1]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방안 연구

- 어문규범 실용 교재 및 온라인 교재 개발
- 국어능력 평가 체계의 표준화 및 국어능력 검정 지원

[2] 국어문화학교 운영

- 국어문화학교 운영(일반과정, 특별과정)
- 찾아가는 문화학교 운영

[3] 국어 교육 소외자를 위한 교육 지원

- 새터민 국어 능력 향상(표준발음, 표준어휘 프로그램 개발)
- 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언어(수화, 점자) 표준화

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정책

다음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사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국립국어원은 1991년 개원한 이래 국외에 있는 교포를 비롯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져왔다. 초기에는 한국어 교원을 초청하여 연수하거나, 아니면 현지에 연구원을 파견하여 연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종학당”을 개설하여 한국어 교육을 원하나 교육 사정이 어려운 지역을 지원하였다. 이제 새롭게 정립한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육 목표와 주요 사업 내용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 목표: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기반 강화”

● 주요 사업

- (1) 한국어 교육의 기반 연구
- (2) 한국어 교재 발간 및 보급
- (3) 한국어 교육자 연수
- (4) 한국어 학습 지원

3.1. 한국어 교육의 기반 연구

[1]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 한국어 세계화·현지화를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 국외 세종학당, 국내 한국어 양성기관 등에 전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 영어권 표준 한국어 교재 개발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권별, 수준별 말뭉치 구축

[2] 한국어 교육 관련 조사 연구

● 한국어 교육 연감 발간

△ 국내외 한국어 교육 수요 및 동향 분석, 한국어 교육 관련 기초 통계 및 현황
자료 관리, 한국어 교육 활동 성과 분석, 교육의 개선 연차보고서 발간

-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 실태 조사
-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조사
-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의식 조사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문 규정 연구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표준 문법 연구

3.2. 한국어 교재 발간 및 보급

[1]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 및 발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외용	초급한국어* (영,중,베,몽,타,태)	교재	발간						
		지침서			개발	발간			
	중급 1 (한,영,중,베,몽,타)	교재	개발	발간					
		지침서		개발	발간				
	중급 2 (한,영,중,베,몽,타)	교재		개발	발간				
		지침서			개발	발간			
	고급	교재				개발	발간		
		지침서					개발	발간	
	학습자용 워크북 및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개발	발간
국내용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재	1,2 개발	1,2 발간/ 3,4 개발	3,4 발간	4,5 개발	4,5 발간		
		지침서		1,2 개발	1,2 발간	3,4 개발	3,4 발간/ 5,6 개발	5,6 발간	
	부부공동학습 교재 “알콩달콩한국어” (중,베)	교재	개발	발간					
		지침서							
	이주노동자 교재 “아자아자 한국어”	교재		1 개발	1 발간	2 개발	2 발간		
		지침서				개발	개발	발간	

* 초급 교재: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 초급 교재 추가 발간 계획: 프랑스어, 러시아어

[2] 한국어 교재 보급

- 세종학당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 교재 배포

[3] 한국어 교재 추천/인증 제도 추진

- 민간 발간 한국어 교재 중에서 우수한 교재를 발굴, 추천하여 보급

3.3. 한국어 교원 양성

[1] 국외 한국어 교원 연수

-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 △ 한국인 교원 교육: 한국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급 수준의 한국어 교수법 위주의 연수
 - △ 현지인 교원 교육: 현지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교육 및 한국어 교수법 연수
 - △ 세종학당 우수 학습자 초청
-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2] 국내 한국어 전문 교원 양성 및 파견

- 다문화가정, 주한미군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원 양성
- 국내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개발
- 전국 주요 한국어교실에 대한 교원 파견

[3]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 한국어 교원 자격증 연도별 현황(2006년~2009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010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교재

연도	1급	2급	3급	계
2006	-	269	599	868
2007	-	185	454	639
2008	-	341	501	842
2009	-	613	424	1,037
총 인원	-	1,408	1,978	3,386

* 국어기본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2006년부터 국립국어원이 한국어세계화 재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다가, 2009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어 교원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	신청 절차
1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외국)대학 또는 부설과정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① 2급 자격자가 신청 ② 자격심사위 심사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① 학위과정 전공 및 복수전공수료자가 신청 ② 자격심사위 심사
	나.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① 3급 자격자가 신청 ② 자격심사위 심사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① 학위과정 부전공 수료자가 신청 ② 자격심사위에서 심사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①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자 ②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 ③ 시험 합격자가 자격심사 신청 ④ 자격심사
	부칙 경과조치: 국어기본법 시행령 이전에 800시간 이상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 합격자	① 경과조치 요건해당자가 신청 ② 자격심사

[4] 한국어 전문 교원 양성 기관 인증 제도 추진

[5] 한국어 교원 재교육을 위한 전문 연수학교 개설 추진

3.4. 한국어 학습 지원

[1] 주한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학습 지원

- 주한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글쓰기 대회
- 주한 외국인들의 참여형 한국어 학습 지원

[2]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확대

- EBS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제작 방영
 - DVD, MP3 등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 자료 개발
 - 포켓용 한국어 회화 책자 개발, 보급
 -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방문학습지 개발
- △ 제1단계(2009년, 3-4세), 제2단계(2010년, 5-6세), 제3단계(2011년)

3.5. “세종학당”

[1] 세종학당 개요

- 세종학당 정의 :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기관의 브랜드 통합과 표준화된 관리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
- 세종학당 종류 : 세종학당 본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세종학당’과 다른 부처 및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인증 세종학당’으로 나뉨
- 세종학당 교원 :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고, 개원 후 1년 이내에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 보유 의무
- 세종학당 사업기간 : 10개월 운영 원칙
- 세종학당 교육과정 : 초급1,2, 중급1,2의 10개월 과정

[2] 세종학당 추진 성과

- 2009년까지 세종학당 16곳 운영 지원
- “누리-세종학당” 구축 (<http://www.sejonghakdang.org>)
- △ 세종학당 운영자·교원·학습자 온라인 교육 및 정보 제공 통합 사이트 구축 ~~●~~

한국어 이해(배달말 알기)

김수업

〈차례〉

- | | |
|------------------|---------|
| 1. 잘못된 소문들 | 3. 참고삼아 |
| 2. 우리말 속살 | 1) 마고할미 |
| 1) 사람을 세상 임자로 보고 | 2) 먹거리 |
| 2) 사람과 삶 | 3) 보다 |
| 3) 하늘과 땅 | 4) 쌀 |
| 4) 풀이말의 쓰임새 | 5) 서낭 |
| 5) 뜻가림 | 6) 아름답다 |

1. 잘못된 소문들

- 1) 우리말은 불품없고 하찮다: 우유는 칠 백 원이고, 밀크는 천 원인데요.

<소젖-우유-밀크>, <뜰-정원-가든>, <집-건물-빌딩>

- 2) 우리말은 이름씨가 가난하다: 그림씨와 어찌씨는 넉넉한데 이름씨는 모자란다.

(1) 쌀

씻나락-볍씨-모-벼-나락-짚-북데기-우케-쌀-겨(왕겨-등겨)-뉘-밥-매-고두밥-흰죽-미음 (※구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 / 북데기 밟고 줄 탄다)

(2) '강한 비' - '약한 비'

먼지젼-눈개-이슬비-가랑비-보슬비-부슬비-모종비-뭇비-날비-말비-된비(작달비-장대비-동이비)-무더기비-한비 (※소나기-산돌림-여우비-개부심-복물-옷비-꽃비)

- 3) 들온말로 우리말이 넉넉해졌다: 국어사전을 보면 7할이 한자말 아니냐?

(1) 산 : 뫼-재-갓

(2) 강 : 가람-내- 시내-개천-실개천 (※개울-도랑) (※개천에서 웅 났구나!)

2. 우리말 속살

1) 사람을 세상 임자로 보고

(1)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학교가 방학했다. / 책이 출판되었다. / 나무가 베어졌다.

△(3) 집이 무너졌다. 빨래가 말랐다. 열차가 섰다. 대문이 닫혔다.

○(4) 봄이 왔다. 저녁이 되었다. 전기가 나갔다. 신이 뒤집어졌다. 배가 뒤집혔다.

2) 사람과 삶

(1) 사람 = 몸 + 마음 + 얼

(2) 마음 = 느낌 + 생각 + 뜻 / 알다 + 깨닫다

(3) 얼 / 녀

- (4) 어버이
- (5) 가시버시(내외법)
 - ① 반말
 - ② 부르는 말 = 임자
 - ③ 가리키는 말 = 이녀
- (6) 인사
 - ① 편히 주무셨습니까?
 - ② 점심 드셨습니까?
- (7) 아름답다

3) 하늘과 땅

- (1) 하느님과 꿈
단군 이야기와 주몽 이야기 / 삼성혈 이야기와 수로 이야기
- (2) 서낭
- (3) 굿 / 지신밟기
- (4) 마고할미(설문대할망 / 갱구할미)
- (5) 고맙습니다

4) 풀이말의 쓰임새

- (1) 과녁에 맞추어 달라지기
밥을 하다 / 매를 짓다 / 죽을 쑀다 / 국을 끓이다 / 시루떡을 찌다 /
감자를 삶다 / 나물을 데치다 / 뼈다귀를 고다 / 약을 달이다
- (2) 과녁의 속살에 맞추어 달라지기
불을 켜다 / 불을 피우다 / 불을 사르다 / 불을 지피다 / 불을 태우다 /
불을 때다 / 불을 지르다
- (3) 과녁이 달라도 버티기
밥을 먹다 / 술을 먹다 / 돈을 먹다 / 마음을 먹다 / 나이를 먹다 / 귀가 먹다

5) 뜻가림

- (1) <속>과 <안> / <쌔>과 <우물> / <금>과 <줄> / <값>과 <샅>

- (2) <쉬다>와 <놀다> / <넘어지다>와 <무너지다> / <달리다>와 <뛰다>
- (3) <기쁘다>와 <즐겁다> / <무섭다>와 <두렵다> / <파랗다>와 <푸르다>
- (4) <매우>와 <몹시>와 <아주>와 <너무>
- (5) <참말>과 <거짓말> / <옳은말>과 <그른말> / <할말>과 <못할말>

3. 참고삼아

1) 마고할미

우리나라 곳곳에는 아직도 마고할미 자취가 두루 널려 있다. 북으로는 평안도에서 남으로는 제주도까지 놀랄 만큼 큰 돌이 있는 곳이면 으레 마고할미 이야기가 거기 살아 있다. 제주에서는 설문대 할망 충남 바닷가에서는 갯구할미라고 이름을 조금 달리 부르기도 하고, 이야기 줄거리도 곳곳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야기 꼬투리는 모두 서로 비슷해서 본디는 커다란 하나의 이야기에서 흩어져 나간 것들임을 짐작케 한다.

꼬투리들을 대충 들어보면, ① 마고할미는 하늘에서 내려온 여인이며(충북 단양), 본디 하늘에 살던 하느님의 딸이었다(지리산). ② 키가 하늘에 닿아서 해를 가리고(경남 통영), 한라산 꼭대기를 베개 삼아 베고 누우면 발은 제주 앞 바다 관탈섬에 앉혔고(제주), 옷을 입고 춤을 추자 삼남 지방에 그들이 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충남 바닷가). ③ 자연을 만드는 힘이 있어서 치마폭에 흙을 담아 나르다가 터진 구멍으로 흘러서 오름들이 되고 마지막 날라다 부은 흙은 한라산이 되었으며(제주, 임금님에게 쫓겨나서 주리고 목이 말라 흙을 먹고 바닷물을 마시다가 설사를 하였더니 우리 강산이 되었고(충남 바닷가), 치맛자락에 담아 오던 금은보화를 다급하게 바다에 내버려서 장좌섬이 되었으며(경남 통영), 장독 바닥에 깔려고 치마에 싸서 가져가던 모래가 해진 치마 구멍으로 흘러서 신선너덜이 되었고(경남 산청), 잃어버린 비녀를 찾느라고 손으로 땅을 헤집은 것이 아흔아홉 마지기 논이 되었다(충북 단양). ④ 힘이 엄청나게 세어서 커다란 바위로 공기놀이를 하고(경남 산청), 평평한 바위는 머리에 이고 길쭉한 바위 둘은 겨드랑이에 끼고 뭉툭한 바위는 등에 지고 와서 고인돌을 만들어 살았으며(황해 봉산), 고생하는 장수들을 돕느라고 바위를 날라다 고인돌을 만들어 주고(평남 영덕과 맹산, 전북 고창), 물렛돌을 하려고 치마에 싸서 가져가다가 작다고 내버려서 돌장승이 되고(경남 진주), 선돌이 되고(충북 제천), 고인돌 핑메바위가 되었다(전남 화순). ⑤ 신통력이 놀라워서 도술을 부려 하룻밤에 폐왕성을 쌓고(경남 거제), 혼자서

성을 쌓아 독녀성이 되고(경남 산청) 할미성이 되었다(경기 용인). ⑥ 오줌발이 굉장히 힘차서 성산 바닷가에서 일출을 감상하다가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 식산봉과 일출봉 사이에 발을 디디고 앉아 오줌을 누었는데 오줌발이 파낸 곳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우도가 섬으로 떨어지고(제주), 하룻밤에 성을 다 쌓고 나니 날이 흰히 새고 소변이 마려워 오줌을 누 것이 넷물이 되어서 지금까지 흐르고 있으며(경남 통영),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인돌인 평매바위 위에 안자 오줌을 누어서 구멍이 뚫려 있다(전남 화순). ⑦ 옷을 벗고 살아서 속곳 한 벌만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했는데 속곳 한 벌에 명주 백 통이 들어 제주 백성이 있는 명주를 모두 모았으나 아흔아홉 통밖에 안 되어 속곳을 만들지 못하니까 다리를 조금 놓다가 그만두어 그 자취가 조천읍 앞바다에 남아 있고(제주), 키가 무척 커서 나뭇잎으로 겨우 아랫도리를 가리고 살면서 옷을 해 입는 것이 소원이라 임금님에게 빌었더니 삼남의 공포 한 해 치를 모두 주어서 옷을 해 입고는 좋아라고 춤을 추자 삼남 지방이 온통 햇빛을 보지 못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충남 바닷가). ⑧ 도사 반야를 사랑하여 딸 여덟을 낳아 팔도 무당의 시조로 만들었고(지리산 반야봉 전설), 불제자 범우화성을 남편으로 맞아서 여덟 딸을 낳아 팔도 무당의 시조가 되게 했다(이능화의 『조선무속고』).

이처럼 우리 강산 곳곳에 마고할미가 이야기로서 널리 살아 있지만 가장 깊이 뿌리박힌 자리는 아무래도 지리산일 것이다. 지리산은 우리 겨레에게 가장 줄기찬 우리름을 받아오는 피다. 백두산보다는 사람이 다가들기에 한결 부드럽고, 한라산보다는 언저리에 붙어 살아가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지리산은 곧 마고할미의 터전이다. 마고할미는 지리산의 산신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리산을 우러른다는 말은 지리산 산신령 마고할미를 우러른다는 뜻이다.

이런 우리름이 언제 비롯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예로부터 삼한의 백성들이 하도 굳은 믿음을 걸고 살았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실이 지리산 마고할미를 끌어안기에 안간힘을 다했다. 먼저 신라는 삼한을 통일하면서 지리산을 남악으로 삼고 산신령 마고할미를 시조 박혁거세 임금을 낳아준 서술성모(선도성모)라며 끌어안았다. 그래서 꼭대기에 ‘남악사’를 세우고 남쪽 등성이에 ‘노고단’을 무어서 왕실이 봄가을 제사에 게으르지 않았다. 신라를 이어받은 고려는 산신령 마고할미를 왕건 태조 임금을 낳아준 위숙성모라며 끌어안고는 남악사를 헐어내고 ‘성모사’를 세워 노고단 제사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통일신라나 고려 왕실이 마고할미를 그들 시조의 어머니로 끌어안은 이야기는 그분의 위력이 시들해진 뒷날의 자취에 지나지 않는다. 고조선 시절에는 이보다

훨씬 드높고 힘센 신격으로 우리름을 받았던 자취가 있다. 중국 하북성 천진의 발해만 바닷가에도 ‘마고성(麻姑城)’이 있는데, 한나라 무제(기원전 141~87년 다스림)가 동녘을 둘러보면서 여기에 이르러 마고할미에게 제사를 올렸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 권3, 1461). 제사를 올리던 때가 한무제의 고조선 침략 앞인지 뒤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고조선 사람들이 믿고 우러르던 마고할미의 위력을 한무제까지도 두려워했다는 사실은 짐작할 만하다.

그렇다면 마고할미는 과연 누구일까? 신라 충신 박제상(363~419?)이 지었다고 하는 『부도지(符都誌)』에는 마고할미를 지상에서 가장 높은 마고성에서 현세 만물을 만들 어낸 창세의 어머니라고 했다. 마고는 선천을 남자로 삼고 후천을 여자로 삼아 배우자 없이 궁희와 소희라는 두 여인을 낳고, 또한 궁희는 선천과 후천의 정기를 받아 배우자 없이 황궁씨와 청궁씨를 낳고 소희는 백소씨와 흑소씨를 낳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 네 천인과 천녀가 올려로써 세상과 사람과 그것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만들 었다는 것이다.

갑골문의 소리에 권위자인 유창균 교수는 “하늘과 땅을 춤추고 오르내리며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린 갑골문 ‘巫(무)’의 소리가 ‘마기’인데 그것이 곧 ‘마고’라고 했다(2007년 5월 26일, 우리말교육대학원 특강 끝에 필자와 나눈 대화). 마고할미는 “하늘과 땅을 춤추며 이어주는 사람”, 곧 태초의 무당이였다는 말이다.

2) 먹거리

‘먹거리’라는 낱말이 한때 제법 쓰였으나 요즘은 거의 자취를 감춘 듯하다. 한때 제법 쓰인 데에도 어느 한 분의 애태움이 있었고, 자취를 감춘 말미에도 어느 한 분의 걱정이 있었음을 나는 안다. 나처럼 이런 속내를 아는 사람은 말이라는 것이 저절로 생겨났다가 저절로 죽어 버린다는 통설을 끝이 믿기가 어려워진다. 말이라는 것이 더 붙어 쓰는 사람들의 소리 없는 약속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죽어 버리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반드시 맨 처음에는 누군가가 씨앗을 뿌려야 하고 마침내 누군가가 싹을 자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나는 ‘먹거리’를 살리려 애태우던 분을 만나지는 못했으나, 그분이 ‘먹거리’라는 낱말을 살리려고 애를 태우던 시절의 한 고비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대학에 있던 1970년대 후반에 그분은 우리 대학으로 ‘먹거리’라는 낱말을 써도 좋으냐고 글을 보내 물어 왔다. 그분이 보낸 글들에는 자신이 세계식량기구에서 일하며, 우리말에는 영어 ‘food’처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싸잡는 낱말이 없어 찾아 헤맨 사연이 붙

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먹거리’라는 낱말을 찾았으나 우리말을 연구하는 이름난 두 학회에서 조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쓸 수 없다고 해서 실망에 빠져 있다는 사연도 들어 있었다.

이름난 두 학회에서 한결같이 쓸 수 없다고 했는데도 굳이 우리에게 그런 물음을 보낸 데에는 까닭이 있었다. 바로 그 해 우리 대학 학장의 졸업식사에 ‘먹거리’라는 낱말이 쓰였고, 그것이 학보에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던지 그분은 학장에게 그 낱말을 쓰게 된 말미를 편지로 물었고, 학장은 식사 초안을 잡은 교수에게 그분이 보낸 글들을 그대로 주면서 답변을 당부했다. 그래서 졸업 식사 초안을 잡은 교수와 나는 ‘먹거리’라는 낱말은 당당히 쓸 수 있으며 마땅히 살려 써야 한다는 사실을 논리에 맞추어 알려 주었다. 그분은 우리의 답변을 복사하여 여러 곳에 두루 알리고 마침내 그 낱말을 쓸 수 없다던 학회에서까지 쓸 만하다는 대답을 다시 얻어서 ‘먹거리’의 전도사 노릇을 부지런히 했다. 그런 덕분에 ‘먹거리’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쓰는 낱말로 살아났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말을 남달리 사랑하고 몸소 깨끗한 우리말로 세상을 살리려 애쓰시던 분이 ‘먹거리’라는 낱말은 마땅하지 않다는 뜻을 글로 써서 밝히자 사정이 달라졌다. 그분이 ‘먹거리’라는 낱말은 못마땅하다는 뜻을 두루 밝히니까 우리말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먹거리’라는 낱말은 갑자기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나는 ‘먹거리’를 못마땅하다고 하신 분을 잘 안다. 자주 뵈었고 그분의 삶은 나에게 우러러 보이는 거울이 되기도 했다. 그분은 말이란 이름 없는 백성들이 나날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쓰는 것을 본으로 삼아야 하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괜히 머리를 굴려서 억지 낱말을 만들어 퍼뜨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이런 가르침의 속뜻은 말을 사랑하고 우리말을 살리려 애쓰는 사람이 지녀야 할 올바른 잣대가 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나는 ‘먹거리가 참으로 백성들이 쓰던 낱말이 아닌가?’, ‘배웠다는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 낸 낱말임에 틀림없는가?’ 하는 물음을 다시 일으켜 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나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라며 ‘먹거리’라는 말을 더러 듣고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 끼니를 마련하면서 아침거리, 저녁거리, 반찬거리, 고음거리, 횃거리, 국거리 같은 낱말을 자주 썼다. 일을 하자면 일거리가 있어야 하고, 명절이나 잔치에서 벌이는 놀이판에는 놀거리가 많아야 하고, 구경이 벌어지면 볼거리나 구경거리가 좋아야 하고, 장터에 나가서는 장거리를 빠뜨리지 않아야 하고, 가난한 집에서는 나날이 끼니마다 먹거리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런 말을 자주 주고받으며 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요즘 고향에 가면 ‘먹거리’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지난날에는 썼던가를 물어봐도 모두들 긴가민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내 기억을 장담하지 못하여 속으로는 어정쩡하다.

한편, 처음에 ‘먹거리’를 조어법에 맞지 않는 낱말이라고 판단했던 두 학회의 논리도 따지고 보면 백성들이 두루 쓰지 않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백성들이 두루 쓰는 말이면 학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쓰이는 논리를 찾아내고, 그런 논리를 조어법이라 부르기 때문이다. 처음에 두 학회에서 쓸 수 없다고 내세운 논리는 ‘먹거리’가 움직씨의 몸통인 ‘먹’에 ‘거리’라는 이름씨가 붙은 낱말인데, 우리말에는 그런 조어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거리’ 같은 이름씨는 [반찬+거리]처럼 이름씨 밑에 바로 붙거나 [불+거리]처럼 움직씨의 매김꼴 밑에 붙는 것이 우리네 조어법이라는 것이다. ‘먹거리’를 쓰지 말라 하신 분도 굳이 쓰려면 ‘먹을거리’라고 해야 옳다고 하셨는데, 그것 또한 움직씨의 매김꼴 밑에 붙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 학회가 애초에 판단을 잘못된 것이었다. 예로부터 우리 겨레 백성들은 움직씨의 몸통에 이름씨를 붙여서 ‘먹거리’ 같은 낱말을 두루 만들어 썼다. ‘씩돌에 불난다.’ 하는 속담이 있다. 여기서 ‘씩돌’은 움직씨 ‘씩다’의 몸통 ‘씩’에 ‘돌’이라는 이름씨가 사이좋게 붙어서 이루어진 낱말이다. 디룩디룩 잘 쪼으나 힘을 쓰지 못하는 살을 뜻하는 ‘씩살’, 쪼은 짚이나 억새풀이 쌓여 있는 더미인 ‘씩새’ 더미, 이리저리 방향이 헛갈려서 쓸모가 없는 바람인 ‘씩바람’, 아직 설익은 박으로 만들어 쉽게 깨지는 바가지인 ‘씩바가지’, 이런 낱말들은 보다시피 모두 움직씨의 몸통 ‘씩’에 이름씨 낱말 ‘살’, ‘새’, ‘바람’, ‘바가지’ 같은 것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낱말이다.

‘먹거리’와 꼭 같이 움직씨 ‘먹다’의 몸통에 이름씨가 붙는 낱말도 적지 않다. 먹는 데에 이골이 난 사람인 ‘먹보’나 ‘먹쇠’를 비롯하여, 먹는 것에 남달리 타고난 성미나 성질이라는 ‘먹성’, 먹는 분량이나 정도를 뜻하는 ‘먹새’ 같은 낱말들이 모두 그렇다. 남부 지역에서는 먹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언제나 어디서나 결코 마다하지 않는 사람을 ‘묵돌이(먹돌이)’라 하는데, 이도 그렇게 만들어진 낱말이다. 입으로 먹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인 ‘먹보’도 조어법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갓을 치면서 높은 소나무 가지를 꺾을 적에 장대에다 매어 걸어 당기는 ‘꺾낫’, 기둥이나 서까래처럼 도막난 나무를 하나로 이을 적에 서로 걸어서 박는 ‘꺾쇠’, 목수들이 쓰는 ㄱ자 모양으로 꺾여지게 만든 잣대인 ‘꺾자’, 창날의 끝을 꺾여지게 만든 ‘꺾창’도 모두 움직씨 ‘꺾다’의 몸통에 이름씨가 붙은 낱말들이다. 하늘과 땅을 이어서 서낭님들이 오르내리는 장대인 ‘숫대’ 같은 낱말도 보다시피 움직씨 ‘숫다’의 몸통에 이

름씨가 붙어서 이루어졌다.

막국수, 막사발, 막일 같은 낱말은 어찌씨 ‘마구’에 이름씨가 붙었지만, ‘막둥이’, ‘막말’ 같은 낱말은 움직씨 ‘막다’의 몸통에 이름씨가 붙은 낱말이다. 마지막에 태어난 ‘막내’, 마지막에 맺은 ‘막매듭’, 마지막에 걷어 들이는 농산물인 ‘막물’, 마지막에 맞은 손님인 ‘막손’, 마지막에 떠나는 ‘막차’, 마지막에 먹는 ‘막참’, 막다른 곳까지 들어간 ‘막창’, 마지막으로 벌인 ‘막판’, 이런 것들이 모두 움직씨 ‘막다’의 몸통 ‘막’에 이름씨를 붙여서 만든 낱말이다.

‘날개’, ‘덮개’, ‘지개(지계)’, ‘노래(놀애)’, ‘마개(막애)’, ‘얼개(엷애)’, ‘홀태(훑애)’ 같은 낱말도 움직씨 ‘날다, 덮다, 지다, 놀다, 막다, 엷다, 훑다’의 몸통에 이름씨 ‘개(애)’를 붙여서 만든 것들이다. ‘날치’, ‘놀부’, ‘놀거리’, ‘들물’, ‘밀낫’, ‘밀물’, ‘울보’ 같은 낱말도 움직씨 ‘날다, 놀다, 들다, 밀다, 울다’의 몸통에 이름씨가 붙어서 이루어진 낱말들이다. 이것들은 마치 움직씨의 매김꼴에 이름씨가 붙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들 움직씨는 몸통이 본디 ‘ㄹ’로 끝나 매김꼴 ‘ㄹ’과 모습이 같아서 그럴 뿐이다.

요즘에도 이런 조어법으로 생겨나는 낱말이 없지 않다. 값싼 식당의 차림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덮밥’은 ‘덮다’는 움직씨의 몸통에 이름씨 ‘밥’이 붙은 낱말로서 쓰인 지가 꽤 오래 되었다. 보기로 가져오기가 참으로 꺼림칙하지만, 한때 때를 지어서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른 젊은이들이 스스로 ‘막가과’라 했는데, 이것도 ‘막가다’는 움직씨의 몸통에 이름씨 ‘과’를 붙여서 만든 낱말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움직씨의 몸통에다 이름씨를 바로 붙이는 조어법을 예나 이제나 꺼리지 않는 것이므로, 지난날 우리 고향에서 썼다는 내 기억이 틀렸다 하더라도 ‘먹거리’를 억지로 만든 낱말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움직씨의 매김꼴에다 이름씨를 붙여서 낱말을 만드는 조어법도 우리 겨레는 꺼리지 않는다. ‘갈길, 날물, 볼거리, 볼낫, 잘새, 썰물’ 같은 것들이 모두 그런 낱말들이다. 보다시피 이들은 ‘가다, 나다, 보다, 자다, 써다’ 같은 움직씨의 매김꼴에 ‘길, 물, 거리, 낫, 새’ 같은 이름씨를 붙여서 만든 낱말들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런 낱말은 참된 낱말이 아니고, 두 낱말이 모여서 이루어진 어구다. 그래서 글말에서는 ‘갈 길’, ‘날 물’, ‘볼 거리’, ‘볼 낫’, ‘잘 새’, ‘썰 물’처럼 매김을 하는 움직씨와 매김을 받는 이름씨를 따로 띄어서 적어야 마땅하다. ‘먹거리’를 ‘먹을거리’로 쓰자고 하면 그 또한 낱말을 어구로 바꾸어 놓는 것이기에 글로 적을 때에는 ‘먹을 거리’처럼 띄어 써야 옳다.

이처럼 이름씨 낱말 위에 움직씨 매김꼴을 놓아서 어구로 쓰는 말법은 두루 널리 있는 것이다. ‘먹거리’를 시비하여 굳이 ‘먹을거리’를 쓰자고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절로 쓸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먹거리’를 버리고 ‘먹을거리’를 쓰는 것은 우리말의 보배로운 낱말만 하나 죽이는 노릇일 뿐이다. ‘먹거리’가 예로부터 쓰던 낱말이 아닐지라도 우리말의 말본에 맞는다면 새로운 낱말로 받아들여 쓰는 것이 남달리 뛰어난 우리말의 생명력을 살리는 길이 된다는 말이다.

3) 보다

사람을 몸으로만 보면 누리 안에 잠시 머무는 한낱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옳다. 그러나 사람은 온 누리를 모두 받아들여 갈무리하고도 남을 만한 크고 넓고 깊고 높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그날부터 몸으로 온 누리를 받아들여 마음에 갈무리하면서 끝없이 자란다. 그러고는 스스로 ‘작은 누리(소우주)’라 뽐내기를 서슴지 않는다.

사람이 누리를 받아들이는 몸의 창문을 다섯 가지로 꼽는다. 얼굴에 자리 잡은 네 구멍, 곧 눈과 귀와 코와 입에다 온 몸을 덮고 있는 살갗 하나를 더해서 다섯이다. 이들 다섯 가지 창문이 누리를 받아들일 적이면 눈은 ‘보다’, 귀는 ‘듣다’, 코는 ‘맡다’, 입은 ‘맛보다’, 살갗은 ‘느끼다’ 같은 노릇을 한다. 이들 가운데서도 ‘보다’는 가장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창문이라는 사실을 세상 학자들이 두루 밝혀 놓았다. 게다가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하는 속담은 ‘보다’가 가장 또렷하고 알뜰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도 말해 준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열어 보면 움직씨 ‘보다’의 뜻풀이를 스물여덟 가지나 내놓았다. 게다가 ‘보다’가 다른 움직씨를 돕는 도움움직씨로 쓰이는 뜻풀이로 네 가지, 다른 그림씨를 돕는 도움그림씨로 쓰이는 뜻풀이로 네 가지도 내놓고 있다. 모두 보태면 ‘보다’는 서른여섯 가지 뜻으로 쓰인다는 말이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영어에는 ‘본다’는 낱말이 ‘see, look, watch, gaze, glance, stare’ 같이 여러 가진데 우리말에는 그런 낱말들이 없다.”라고 하면서 안타깝다고 했다. 서른여섯 가지나 되는 뜻을 ‘본다’는 낱말 하나에다 겹겹이 쌓아서 담아 놓았으니 누가 헛갈리지 않고 쓰겠느냐, 어째서 여러 낱말을 만들어 뜻을 서로 나누어 가볍고 또렷하게 쓰도록 하지 않았느냐, 하는 뜻으로 나는 들었다.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로 받아들일 만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런 걱정의 과녁은 우리말이 아니라 우리 국어사전이며 우리 국어 교육이야야 옳바르다. 국어사전이 이처럼 뜻풀이를 마구잡이로 너절하게 쌓아 놓고 사람들이 헛갈리도록 만들고, 국어 교육이 낱말의 뜻풀이를 제대로 가려서 가르치지 않으니

까 사람들이 헛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알고 보면 우리 토박이말 ‘보다’는 영어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뜻을 서로 나누어 드러내는 낱말들을 거느리고 있다.

우선 보는 자리를 안과 밖으로 나누면 ‘내다보다’, ‘들여다보다’, ‘넘어다보다’, ‘넘겨다보다’를 쓴다. 안에서 바깥으로 보면 내다보는 것이고 바깥에서 안으로 보면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때 집이나 방처럼 둘러싸인 빈자리를 안이라 하고 그런 안을 둘러싸고 열려 있는 빈자리를 밖이라 하지만, 어둡고 밝은 자리로 나누어지는 곳에서는 어두운 쪽을 안이라 하고 밝은 쪽을 밖이라 한다. 그런데 안과 밖으로 갈라놓는 울이나 담이 하늘 쪽으로 열려 있으면 안에서나 밖에서나 담이나 울 위로 눈을 올려서 내다보거나 들여다보거나 하는데 이는 넘어다보는 것이다. 게다가 마음에 무슨 욕심을 감추거나 어떤 짐작을 하면서 넘어다보면 그것은 넘겨다보는 것이 된다.

보는 자리를 안팎이 아니라 높낮이로 나누면 ‘바라보다’, ‘굽어보다’, ‘쳐다보다’, ‘도두보다’, ‘우러러보다’, ‘낮추보다’, ‘깔보다’ 같은 일곱 가지를 쓴다. 보는 눈이 보이는 무엇과 높낮이 없이 평평한 자리에서 보는 것은 ‘바라보다’, 보는 눈이 보이는 무엇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은 ‘굽어보다’, 보는 눈이 보이는 무엇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것은 ‘쳐다보다’라 한다. 이때 높낮이는 실제로 보는 사람이 몸으로 보는 눈의 높낮이를 뜻하지만, 실제로 보는 사람의 눈 높낮이와는 상관없이 마음으로 보는 눈의 높낮이에 따라 쓰는 낱말도 있다. 마음의 눈을 낮추고 보이는 무엇을 높여서 보면 ‘도두보다’가 되고, 마음의 눈을 아주 낮추고 보이는 무엇을 매우 높여서 보면 ‘우러러보다’가 된다. 거꾸로 마음의 눈을 높이고 보이는 무엇을 엽신여겨서 보면 ‘낮추보다’가 되고, 마음의 눈을 한껏 높이고 보이는 무엇을 아주 낮추어서 보면 ‘깔보다’가 된다.

보는 눈이나 마음의 높낮이가 아니라 보는 이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돌보다’, ‘엿보다’, ‘노려보다’, ‘쏘아보다’, ‘흘겨보다’, ‘찌려보다’ 같은 낱말들도 있다. ‘돌보다’는 도와 주려는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언저리를 떠나지 않은 채 맴돌며 눈을 떼지 않고 보살피는 것, ‘엿보다’는 저쪽 사정을 훑치려는 마음가짐으로 제 모습을 감추고는 뭔가를 버리며 살피는 것, ‘노려보다’는 틈만 나면 달려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과녁을 겨누듯이 매섭게 바라보는 것, ‘쏘아보다’는 틈만 나면 쏘아 맞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과녁을 노리듯이 눈을 곤두세워 바라보는 것, ‘흘겨보다’는 몹시 못마땅하다는 마음가짐으로 눈알을 옆으로 굴리어 노려보는 것, ‘찌려보다’는 몹시 못마땅하여 참을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눈알을 옆으로 굴리어 쏘아보는 것이다.

이제까지 살핀 열일곱 가지 ‘보다’는 주로 겉모습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겉모습 속

에 감추어진 속살까지 겨냥하는 ‘보다’도 여러 가지 있다. 우선 속살까지 겨냥은 하되 겉모습조차 별로 보고자 하는 뜻이 없으면 ‘거들떠보다’, 속살까지 겨냥은 하되 겨를이 없어서 뼈대만 추려서 보면 ‘훑어보다’, 보이는 겉모습만 눈에 들어오는 대로 놓치지 않고 꼼꼼히 보면 ‘(눈)여겨보다’, 보이는 겉모습에만 눈을 못 박았으나 이리저리 옮기고 뒤집으면서 살살이 보면 ‘살피보다’를 쓴다. 이들 네 가지는 아직 속살을 보는 데까지 다다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무엇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모저모 헤쳐서 보는 ‘뜯어보다’, 요모조모 뜯어서 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눈으로 본 바를 마음으로 맞추어 보는 ‘따져보다’, 따져보는 것보다 할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마음으로 셈하여 보는 ‘헤아려보다’로 들어가면 겉모습을 지나 속살까지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따져보는 것과 헤아려보는 것은 모두 눈과 마음이 겉모습과 속살을 아울러 보는 것이지만, 거기서도 따져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겉모습에 좀 더 쏠리고 헤아려보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속살에 좀 더 쏠리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겉모습과 마음으로 보는 속살의 나뉘름을 뛰어넘으면, 마침내 보아야 하는 그것을 겉모습에서 속살과 속내까지 온전히 하나로 보아내는 ‘알아보다’에 이른다. 그리고 ‘알아보다’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키워 나가면 그 걸음에 따라 속살이 환히 보이는 ‘뚫어보다’에 닿았다가, 드디어 속살의 구석구석까지 남김없이 보이는 ‘ 꿰뚫어보다’에 다다른다. 여기에 이르면 비로소 더 보아야 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움직여 ‘보다’라는 낱말과 비슷하면서도 저마다 다른 뜻을 지니고 자주 쓰이는 낱말을 살피보았다. 우선 겉모습을 보는 것에서 보는 자리의 안과 밖에 따라 네 가지 낱말, 보는 자리의 높낮이에 따라 일곱 가지 낱말, 보는 이의 마음가짐에 따라 여섯 가지 낱말, 이렇게 열일곱 가지 낱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속살까지 겨냥하는 것에서 아직 속살까지 다다르지는 못한 네 가지 낱말, 속살까지 닿아서 깊이 보는 세 가지 낱말, 겉모습과 속살까지 온전히 보는 세 가지 낱말, 이렇게 열 가지 낱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는 것과 속살까지 보는 것을 모두 보태면 스물일곱 가지 낱말이 ‘보다’와 비슷하면서도 저마다 다른 뜻을 지니고 자주 쓰이고 있는 셈이다. 영어 낱말 예닐곱 가지를 어찌 우리말에다 견주겠는가?

4) 쌀

땅 위에 몸 붙여 사는 사람 가운데 열에 여섯은 쌀을 으뜸 먹거리로 삼아서 살아

간다고 한다. 말할 나위도 없지만 우리 겨레도 쌀을 으뜸 먹거리로 삼아서 살아왔다. 그런데 쌀은 본디 어디 사람들이 맨 먼저 먹거리로 삼아서 온 누리로 퍼져 나갔을까? 그리고 우리 겨레는 언제부터 쌀을 먹거리로 삼았을까?

이제까지 육종학이 밝힌 바로는 쌀(나락)을 맺는 벼가 중국 양자강 먼 상류 쪽에 처음 나타나 서남쪽으로 퍼져서 인도로 들어가고, 동남쪽으로도 퍼져서 일본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세상 사람들의 먹거리로 올라섰다고 한다. 그리고 고고학이 밝힌 바로서도 사람이 맨 먼저 벼를 길러 쌀을 먹거리로 삼은 것은 중국 양자강 남쪽 언저리였다고 맞장구를 쳤다. 거기서도 하남성 도현의 옥섬암 동굴에서 찾아낸 볍씨 네 알이 기원전 일만여 년의 것으로 밝혀져 여기가 사람들이 벼농사를 지은 첫 자리라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기원 어름에 일본에서 건너온 벼를 김해 언저리에서 맨 처음 길러 먹거리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 여주 혼암리에서 기원전 천 년 즈음의 벼가 많이 나타나 우리 벼농사가 일본보다 앞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잇달아 평양 남경리, 부여 송국리, 하남 미사리, 서산 휴암리, 안면도 고남리, 승주 대곡리, 합천 봉계리, 거창 대야리, 울주 검단리 같은 여러 곳에서 바닥에 볍씨 자국이 찍힌 민무늬그릇이 나타나고, 논산 마전리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를 짓던 논이 드러나 이때 벌써 온 나라에 벼농사가 퍼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청동기의 이런 우리 벼농사는 모두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새로운 세기로 넘어서면서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양자강 남쪽 하남성 도현 옥섬암 동굴의 볍씨보다 무려 삼천 년이나 앞선 기원전 일만 삼천 년 즈음의 구석기 토탄층에서 쉰아홉 알의 볍씨가 드러난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1997년 11월에서 1998년 4월과 2001년 9~10월 사이에 일만 이천오백 년부터 일만 사천팔백 년 이전에 이루어진 구석기 토탄층에서 이른바 인디카(indica)형과 자포니카(japonica)형의 볍씨 열여덟 알을 찾아내고, 그보다 더 오래된 깊은 토탄층에서는 아직 벼로서 완전히 진화하지 않은 원시벼(유사벼) 볍씨 마흔한 알을 찾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덩이 위에서 맨 먼저 벼농사를 짓기 비롯한 곳이 중국 하남성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부 지역이며, 쌀을 맨 먼저 먹거리로 삼았던 사람도 중국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겨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인류 문명의 새벽이 우리 땅에서 동터 나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 과학의 사실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우리 토박이말에는 벼와 쌀에 따른 낱말이 놀랍도록 푸짐하다. 우선 내년 농사에 씨앗으로 쓰려고 챙겨 두는 ‘췌나락’에서 시

작해 보자. 나락을 털어서 가장 알찬 것들만 골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듬해 봄까지 건드리지 않도록 깊숙이 감추어 두는 것이 췌나락이다. 그러나 귀신까지 속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배고픈 귀신이 췌나락을 찾아 까먹으면서 미안하다고 혼자 군소리라도 하는 것일까? 알아들을 수도 없고 쓰잘 데도 없는 소리를 이른바 ‘귀신 췌나락 까먹는 소리’라 한다.

봄이 오고 사월이 되면 무논에 모판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췌나락을 꺼내서 물 채운 항아리에 담근다. 물에 담가 싹이 잘 나도록 돕는 것인데 물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췌나락은 ‘볍씨’로 이름이 바뀐다.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볍씨는 씨눈 쪽에 껍질을 뚫고 움이 트고 싹이 나서 모판에 내다 뿌려야 한다. 모판에 떨어진 볍씨는 곧장 위로 싹을 밀어올리고 아래로 뿌리를 내리며 자리를 잡는데, 이때부터 볍씨는 다시 이름을 ‘모’로 바꾸어 부른다.

모가 모판에서 한 뼘 남짓 자라면 철에 맞추어 모내기를 한다. 모내기는 아침 일찍 모판에서 모를 찌서 잘 다듬어 둔 무논에다 옮겨 서너 날씩 포기를 잡아 못줄에 맞추어 심는다. 이렇게 모심기를 끝내면 그때부터 모는 다시 이름을 ‘벼’로 바꾸어 부른다. 벼는 농사꾼의 갖은 정성을 다 받으며 자라나 마침내 새끼를 배고 몸 안에 뱃 새끼가 자라면 위로 솟아올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바로 ‘나락’이다. 그러나 열매만을 따로 떼어서 나락이라고 하지만, 우선 나락을 뱃 그날부터 벼를 모두 싸잡아 나락이라 부른다. 그래서 벼농사라는 말이 곧장 나락농사라는 말로 이어지고, 그것을 옴니암니 가리지는 않고 넘나들며 쓰는 것이다.

철이 들어 나락이 익고 고개를 숙이면 때에 맞추어 낫으로 벼 베기를 한다. 뽕 벼는 가지런히 널어 말린 다음 벧단으로 묶어서 타작을 하지만 비가 잦은 곳에서는 베면서 곧장 벧단으로 묶어 세워서 말린 다음 타작을 한다. 벼가 타작마당에서 나락을 떨어내면 저는 곧장 이름을 ‘짚’으로 바꾸어야 한다. 짚과 갈라지면 나락은 가마니나 섬에 담아서 가장 소중하게 간수하지만, 찢으려면 언제나 명석이나 덕석에 널어서 말려야 한다. 말리려고 널어놓았을 동안에도 나락은 이름을 바꾸어 ‘우케’라 한다. 아침까지 가마니에 담겨 있던 나락이 낮에는 명석에 널려서 우케가 되었다가 저녁이면 다시 가마니에 담겨서 나락이 되는 것이다.

마른 나락을 방아나 절구에다 찢으면 껍질은 벗겨져 ‘겨’가 되고, 드디어 알맹이는 ‘쌀’이 된다. 방아를 아무리 알뜰하게 찢어도 게으른 나락은 끝내 껍질을 벗지 못하고 쌀에 섞여 있는데, 이런 놈은 틀림없는 나락이지만 ‘뉘’라고 부른다. 겨도 쌀눈과 함께 잘게 가루가 된 것은 ‘등겨’라 하고, 굵은 껍질이 남은 것은 ‘왕겨’라 한다. 등겨는 소

나 돼지 같은 짐승의 먹이가 되지만,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더욱 잘게 뺏아서 겨떡(‘겨’가 낫설어지면서 겨떡을 ‘개떡’이라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을 만들어 주린 배를 채우기도 했다. 왕겨는 소와 돼지의 우리에 넣어서 밟히면 좋은 거름이 되기도 하고, 불을 피우면 불땀이 좋은 땀감이 되기도 해서 끝까지 알뜰하게 모든 것을 사람에게 내어준다.

쌀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알맞게 부어 불을 때서 끓이면 ‘밥’이 된다. 다 같은 밥이라도 사람이 먹으려고 한 것은 밥이지만 서낭에게 바치려고 지은 것은 ‘메’다. 요즘 메를 더러 ‘메밥’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메’라는 낱말에 불안을 느껴 ‘밥’을 덧붙인 것이다. 세상이 달라져 조상 서낭이나 하늘 서낭에게 메를 지어 올리는 일이 사라지는 풍속에서 절로 빚어진 모습이다. 누룩과 함께 술을 담그려고 쌀에다 물을 조금 적게 부어서 고들고들하게 찌면 ‘고두밥’이 되고, 물을 아주 많이 부어서 휘저으며 끓이면 흥건한 ‘흰죽’이 되고, 물을 더욱 많이 부어 쌀 날이 허물어지도록 마음 놓고 고면 ‘미음’이 되고 만다.

5) 서낭

‘서낭’은 사람에게로 와서 사람과 더불어 지내면서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슬프고 괴로운 삶을 어루만져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바꾸어 주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다. 아직도 온 나라 곳곳에 지난날 삶의 자취가 남은 마을에는 서낭의 자취도 온전히 사라지지 않고 조금씩 남아 있다. 우리 고향에도 여태 ‘당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새마을운동이 일어나 배어 버릴 때까지 아름다리 ‘당나무’가 한 해 내내 왼새끼를 발목에 두르고 서 있었고, 당나무가 서 있는 동산 위에는 일체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혈어서 불태우던 날까지 ‘당집’이 있었다. 당집은 서낭이 와서 머무는 집이라 ‘서낭당’이 본디 제 이름이고, 당나무는 서낭이 하늘과 땅으로 오르내리도록 사다리 노릇을 하는 거룩한 나무이며, 당산은 서낭당과 당나무가 있던 동산을 두루 싸잡아 서낭이 노닐던 거룩한 터전이었다.

서낭을 서낭당 바깥으로 모셔 내려면 마땅히 머무를 자리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서낭대’다. 정월 초나흘부터 보름까지 마을에 지신밟기가 벌어지면 풍물패 맨 앞에는 언제나 서낭이 내린 서낭대가 앞장서서 이끌었다. 초나흘 새벽 그 해 당산을 책임진 산주를 앞세운 풍물패가 서낭당에 가서 내림굿을 벌여 서낭을 내려 모신 서낭대를 마을로 데려온다. 그리고 마을에 집집마다 지신밟기가 모두 끝나면 보름밤에 달집을 태우고 마무리 파지굿을 치고 나서 다시 서낭당으로 데려가, 서낭은

방 안 제단에 모시고 장대만 추녀 밑에 걸어 둔다. 글자에 매달린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서낭을 중국 ‘성황(城隍)’이 들어온 것이라 하지만, 알고 보면 오히려 우리네 서낭이 중국으로 건너가 저들의 글자에 적힌 것이다.

서낭의 모습은 여느 사람의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서낭은 자연을 뛰어넘은 신령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서낭을 부리며 심부름을 시키는 하느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다. 그러나 사람들은 삶의 굵이 굵이를 지나면서 서낭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 있다는 체험을 하고 느낌을 받아서 그것을 믿는다. 그런 믿음으로 서낭당도 지어서 서낭이 계시도록 하고, 서낭대도 만들어 서낭을 모시고 다니고, 당나무를 지키고 당산까지 가꾸며 거룩하게 섬긴다. 이런 믿음은 물론 서낭을 보내신 하느님이 온 세상을 마련하고 다스린다는 더 큰 믿음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여느 사람은 서낭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서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힘을 받는다. 그런 사람을 무당이라 부른다. 무당은 서낭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낭과 더불어 이야기도 나누고 마음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느 사람들이 바란다면 서낭을 불러다 모시고 사람의 바람을 서낭에게 건네고 서낭의 말씀을 사람에게 건네는 노릇, 곧 곳을 벌일 수 있다.

서낭은 맡은 몫에 따라 아주 여럿이다. 우선, 온 나라를 맡아서 지키고 돌보는 서낭도 있고, 커다란 고을을 지키고 돌보는 서낭, 마을을 지키고 돌보는 서낭, 집안을 지키고 돌보는 서낭도 있다. 그리고 집안을 지키고 돌보는 서낭에도 대문을 지키는 서낭, 마당을 지키는 서낭, 뒷간을 지키는 서낭, 뒤란을 지키는 서낭, 샘터를 지키는 서낭, 고방을 지키는 서낭, 마구간을 지키는 서낭, 장독간을 지키는 서낭, 부엌을 지키는 서낭, 마루를 지키는 서낭, 안방을 지키는 서낭이 모두 따로 있다. 이처럼 자리를 지키며 돌보는 서낭과는 달리 목숨을 다스리는 서낭, 출산을 돕고 돌보는 서낭, 질병을 다스리는 서낭, 재물을 다스리는 서낭, 벼슬을 다스리는 서낭, 농사를 다스리는 서낭, 냇을 돕고 돌보는 서낭처럼 삶의 어천만사를 맡아서 돌보는 서낭들이 따로 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일이든 어느 자리든 남다른 몫을 맡아서 돌보아 달라고 빌면 얼마든지 그것을 맡아서 돌보아 주는 서낭을 모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맡은 몫의 뜨레에 따라 우리 겨레에게 서낭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이런 사실을 두고 우리 겨레가 믿고 살아온 무교는 여러 신을 모시는 다신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이들 서낭은 모두 가장 높은 서낭인 하느님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수많은 서낭들은 너나없이 하느님으로부터 저마다의 몫과 힘을 받아서 서낭 노릇을 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사실

은 곳관에서 무당이 서낭을 모시면서 노래하는 ‘본풀이’에 또렷하게 드러나 있다. 무교의 곳에서 노래하는 본풀이란, 모두가 서낭이 어떻게 하느님한테서 남다른 몫과 힘을 받았는지를 밝혀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겨레가 믿고 살아온 무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 유일신교라 해야 옳다.

6)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그림씨 낱말이다. 그것을 국어사전들이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

- 1) ① 사물이 보거나 듣기에 좋은 느낌을 가지게 함 맛하다. ② 마음에 듣게 가늠하고 훌륭하다.
- 2) ① 사물, 현상의 상태나 모양이 조화를 이루어 마음에 만족한 느낌을 자아냄 만큼 이쁘고 곱다. ② 들리는 소리가 감정·정서에 맞게 조화를 이루어 마음에 만족한 느낌을 자아냄 맛하다. ③ (사람들 사이의 관계 곧 언행, 소행, 덕행, 도덕, 동지애, 협조 정신 등)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바르고 훌륭하다.
- 3) ① 보이는 대상이나 윤창,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줌 맛하다. ②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가늠하다.

보다시피 1)과 3)은 두 몫으로 나누어 풀이하고, 2)는 세 몫으로 나누어 풀이해서 크게 다른 듯하다. 그러나 1)과 3)은 보는 것(눈)과 듣는 것(귀)을 하나로 묶어 풀이했는데, 2)에서는 그것을 따로 몫을 나누어 풀이했을 뿐이기에 속내로는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국어사전들은 ‘아름답다’는 낱말을 잘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뜻 풀이를 했다. 첫째,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느낌(즐거움)을 자아내면 아름답다는 것이다. 둘째, 귀에 들리는 것이 좋은 느낌(즐거움)을 자아내면 아름답다는 것이다. 셋째, 무엇(사람 사이의 관계?, 일이나 마음씨?)이 가늠하고(바르고) 훌륭하면 아름답다는 것이다. 이것을 간추리면, 아름답다는 낱말은 보이거나 들리는 것(겉모습)과,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속살)으로 두 가지 속살의 뜻을 지닌다. 그리고 겉모습은 좋은 느낌(즐거움)을 자아내면 아름답고, 속살은 가늠하고(바르고) 훌륭하면 아름답다는 것으로 풀이한 셈이다.

이런 뜻풀이는 그럴듯하지만, 뭔가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겉모습이 ‘어떻게 되면’ 좋은 느낌(즐거움)을 주는 것인지, 속살이 ‘어떻게 되면’ 가룩하고(바르고) 훌륭한지를 말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겉모습이든 속살이든 ‘어떻게 되어야’ 아름답다고 하는 것 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 겨레가 아름다움을 어떻게 알고 사는 것인지도 밝혀질 수가 있겠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겉모습이든 속살이든 ‘어떻게 되어야’ 아름다울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풀어 보자면 이야기가 너무나 길어진다. 그뿐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물음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온갖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도 할 이야기는 끝없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우리 겨레가 쓰는 ‘아름답다’라는 낱말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겨레가 ‘아름답다’라는 낱말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첫걸음은 그 낱말의 짜임새를 살펴보는 일이다. 그런데 보다시피 아름답다는 ‘아름’과 ‘답다’가 나란히 이어졌다. ‘아름’을 몸통으로 삼고 ‘답다’를 꼬리로 삼아서 만들어진 낱말이다. 그러니 ‘아름답다’라는 낱말은 ‘아름’과 ‘답다’를 살펴보면 뜻이 쉽게 드러날 듯하다.

‘답다’는 널리 쓰이는 낱말꼬리로서 ‘사람답다’, ‘어른답다’, ‘아이답다’, ‘사장답다’, ‘직원답다’, ‘학생답다’, ‘교사답다’, 이렇게 사람을 뜻하는 낱말을 몸통으로 삼고 거기에 붙는다. 그리고 그 몸통이 마땅히 있어야 할 거기에 넘칠 만큼 잘 있다는 뜻을 드러낸다. 일테면, ‘사람답다’ 하는 말은 ‘사람으로 갖추어야 할 것을 남김없이 갖추고 가장 바람직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하는 뜻이다. 그러나 ‘답다’는 사람을 뜻하는 낱말만을 몸통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참답다, 꽃답다, 실답다, 가정답다, 학교답다, 회사답다’ 하다가 나아가서 마침내 ‘고양이답다, 개답다, 개나리답다, 진달래답다’ 해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만큼 ‘답다’는 쓰임새가 열려 있는 낱말꼬리인데, 무엇을 몸통으로 삼든지 드러내는 뜻은, 그 몸통이 마땅히 있어야 할 거기에 넘칠 만큼 가장 바람직한 그것으로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낱말의 몸통이 마땅히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것, 한자말로 하면 ‘이상(理想)’ 또는 서양말로 하면 ‘이데아(idea)’를 뜻한다고 하겠다.

그러면 몸통인 ‘아름’은 무엇인가? 그것은 ‘알람’이고, ‘알람’은 곧 ‘알밤’이다. 알밤은 본디 ‘알뼉’이었다가 ‘알뿔’을 거쳐 ‘알옴(알람)’이 되고, 이제 ‘ㅂ’이 사라지니까 ‘ㄹ’이 아래로 흘러내려서 ‘아름(아람)’으로 바뀌고, ‘·’가 사라지면서 ‘ㅡ’로 바뀌니까 마침내 ‘아름’이 되었다. 그런 사정은 한글을 만들어 쓴 15세기 뒤로 적힌 자료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낱

말의 뿌리는 ‘알밤답다’는 것이다. 그런데 ‘알밤답다’의 속살이 어떻게 ‘아름답다’의 속살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물음의 대답 안에 우리 겨레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감추어져 있다.

알밤은 무엇인가? 밤의 껍데기를 모두 벗기면 맨 마지막에 드러나는 알맹이가 알밤이다. 알밤은 어떠한가? 살결이 보양고 깨끗한 빛깔을 내면서 속까지 단단하다. 입에 넣고 깨물면 오도독 소리를 내고 깨어지면서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낸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어른들이 남의 집 아기를 처음 만나서 가장 좋은 말로 기려 주려면 반드시 “아따, 그놈 참 알밤같이 생겼네!” 하거나 “아따, 그 녀석 꼭 깎아 놓은 알밤 같네!” 했다. 아기의 생김새가 알차며 깨끗하고 단단하다는 뜻인데, 그것을 언제나 굳이 알밤에다 빗대었던 것이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깎아서 드러난 알밤만으로 알밤의 아름다움을 헤아린 것은 아닌 듯하다. 우리 겨레가 알밤을 아름다움의 뿌리로 바라본 것은 밤이라는 열매를 모두 생각했기 때문이다. 밤이라는 열매는 우선 겉으로 험상궂은 ‘밤송이’에 싸여 있다. 손이 닿으면 찢리는 가시투성이인 밤송이 안에 알밤은 깊이 감추어져 있다. 이 거칠고 험상궂은 밤송이를 애써 까고 나면 거기에는 반들거리는 ‘밤톨’이 드러난다. 밤톨도 매끄럽고 딱딱한 껍질로 알밤을 단단히 감추어 싸고 있다. 이 딱딱하고 매끄러운 밤톨 껍질을 벗기면 이제는 또 트실트실한 ‘보늬’가 드러난다. 보늬는 부드럽지만 텁텁한 맛을 내어서 그냥 먹으려고 달려들기 어렵고, 벗기려 해도 단단히 달라붙어서 쉽지 않다. 그만큼 알뜰하게 감싸고 있는 보늬를 공들여 벗기면 그제야 마지막으로 알밤이 모습을 드러낸다. 저마다 깊은 뜻을 지닌 세 겹의 껍질로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이것이 밤이라는 열매의 모습이다.

겉모습으로 보고는 험상궂어서 쉽게 다가갈 마음도 먹기 어려운 밤송이를 한사코 벗겨 내고, 한결 나아졌지만 그래도 매끄럽고 딱딱한 밤톨의 껍질도 애써 까내고, 한결 더 부드러워졌지만 텁텁하여 입에 대기 어려운 보늬까지 벗겨 내고야 만날 수 있는 알밤. 세 겹의 만만찮은 껍질을 벗기고 들어온 이에게는 하얗게 깨끗하고 단단하면서 깨물면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남김없이 보여 주는 알밤. 그런 알밤은 온통 보양 살결로만 이루어져서 어디를 뒤져 보아도 흠도 티도 없는 그 깨끗한 살결뿐이다. 겉으로 드러내어 떠벌리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좀처럼 닿아볼 수 없도록 겹겹이 깊숙하게 감추어진 알밤. 이런 알밤을 우리 겨레는 아름다움의 참모습으로 알고, 이런 알밤다우면 그것이 곧 아름다운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알밤은 서낭에게 바치는 제물의 맨 윗자리를 차지한다. 알다시피 서낭에게

제물로 바치는 열매는 모두 꼭지 쪽으로만 자르고 껍질을 벗기지 않는 법이지만, 오직 맨 윗자리에 놓는 밤만은 세 겹의 껍질을 모두 벗겨 내고 알밤으로 바쳐야 한다. 알밤을 아름다움의 알맹이로 여기는 우리 겨레의 마음이 서낭에게 바치는 제물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말이다.

‘아름답다’라는 우리 토박이말의 속살이 놀랍고, 이런 낱말을 만들어 낸 우리 겨레의 슬기와 설미가 참으로 자랑스럽다. 그런데도 안다는 사람들과 배웠다는 사람들은 아직도 아름다움이라는 토박이말을 가꾸어 쓸 궁리는 하지 않고, 굳이 ‘미(美)’라는 한자말을 부려 쓰려고 한다. ‘미적, 미술, 미학, 미감, 미관’ 같이 다른 글자를 보태서 만든 낱말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냥 외자인 ‘미’를 낱말로 삼아서 ‘미에 대하여, 미를 위하여, 미는 고사하고, 미와 함께’ 이렇게 쓰기를 밥 먹듯이 한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중국의 옛 사람들이 뜻을 담아 만든 글자인 ‘미’를 우리 선조들이 만든 아름다움과 견주면, 저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 마음을 지니고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 알 만하다. 저들의 ‘미’는 ‘염소 양(羊)’ 자 아래 ‘큰 대(大)’ 자를 붙여서 만들었다. ‘염소가 크다’는 것이 미, 곧 아름답다는 말이다. 염소가 크면 어쩌서 아름다울까? 그건 염소를 알면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는 물음이다. 염소는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중국 사람들의 염소는 이른바 면양이라는 털염소를 뜻한다. 이 털염소는 우선 해마다 털을 깎아서 온갖 입성의 감으로 값지게 쓰인다. 그리고 털염소를 잡으면 고기 맛이 좋아서 예로부터 중국 사람들이 가장 값진 고기로 여겼다. 오죽 했으면 ‘만두 속에는 값싼 개고기를 넣으면서 만두집 대문 위에는 염소 대가리를 내다 건다.(양두구육)’라는 속담까지 생겼을까! 염소는 중국 사람들에게 먹고 입는 일에서 가장 보배로운 짐승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가장 좋은 입성의 감, 가장 좋은 먹거리의 감이 크면 클수록 중국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저들도 서낭에게 제물을 바칠 적에는 염소를 가장 좋은 제물로 여겼다.

우리 겨레가 알밤을 아름다움의 알맹이로 여기는 것과는 달리, 중국 사람들은 큰 염소를 아름다움의 뿌리로 여기는 것이다. 어느 쪽이 아름다움을 더욱 잘 깨달았는지 따지는 것은 이렇다 할 쓸모가 없겠지만, 서로가 너무 다른 눈으로 아름다움을 찾았다는 사실은 뚜렷이 알 수 있다. 서로의 다름을 지키고 가꾸는 일이야말로 인류 문명을 푸르고 넉넉하게 살리는 길이니,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서양을 따르려 애쓰기에 앞서 먼저 우리만의 것을 지키고 가꾸는 일부터 힘써야 한다. 우리만의 것을 지키고 가꾸는 길에서 첫손 꼽히는 것이 바로 우리 토박이말을 살리고 가꾸는 일이다. ~~42~~

〈참고 문헌〉

- 『배달말꽃, 갈래와 속살』, 지식산업사, 2002.
『배달말 가르치기』, 나라말, 2006.
『말꽃 타령』, 지식산업사, 2006.
『우리말은 서럽다』, 나라말, 2009.

훈민정음의 이해와 말글살이의 역사

김석득

〈차례〉

1. 훈민정음 이전의 글자
 - (1) 이두
 - (2) 구결
2. 훈민정음을 만든 정신
3. 훈민정음 만듦의 과학적 생성 원리
 - (1) 『훈민정음 해례』본의 짜임새
 - (2) 첫소리 본문 17자 만듦(생성)의 원리
 - (3) 본문 17자 밖의 ‘운용 글자’를 만드는 원리
 - (4) 첫소리의 조음음성의 바탕과 동양철학의 합리화
 - (5) 가운뎃소리 본문 11자 만듦의 원리
 - (6) 가운뎃소리 11 글자 밖의 ‘운용 글자’ 만드는 원리
 - (7) 맞춤법
4.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반포한 때－한글날의 기원
5. ‘훈민정음’의 이름
6. 한글 낱낱의 이름과 차례 잡기의 역사
7. 훈민정음에 대한 정책
 - (1) 세종의 한글 정책
 - (2) 한글의 억압과 한글의 침체
 - (3) 자아 각성과 한글의 부흥
 - (4) 외세의 우리 말글 말살에 대한 저항과 한글학회

1. 훈민정음 이전의 글자

—훈민정음 만듦의 역사적 배경—

(1) 이두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우리말을 적던 고대 문자가 있었다는 기록은 있다(김윤경: 『조선 문자 급 어학사』). 그러나 이른바 고대 문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옛날 우리말은 있으되 그 말을 적는 글자는 없었다. 다만 한문화가 들어오면서 한자를 받아들인 뒤, 아마도 서력 기원전 2세기(한사군이 설치되었을 때)에는 이미 한자가 뿌리박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하여 4, 5세기 경에는 한문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리라. 그러나, 우리말 구조와 전혀 다른 한문을 생활화하기란 어려우며, 우리의 사상 감정을 한문 구조로 나타내기란 매우 어려웠다. 그리하여 삼국 시대 초기부터 한자의 소리나 뜻을 빌어 우리말을 적는 법을 모색해 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라 때부터 고려 초기까지 불리었던 고유의 시가인 ‘향가’ 25수(『삼국유사』에 실린 14수와 『균여전』의 보현십원가 11수)이다.

보기: ‘처용가’ 중에서

夜入伊遊行如可(밤드리 노니다가)

노래뿐 아니라 사람 이름, 땅 이름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썼다.

보기: ‘삼국유사’에서

赫居世 또는 弗矩內(불거늬)

淸風縣을 沙熱伊縣(사늘이현=서늘한 골)

이와 같이 우리말을 모두 한자로 적다가 다음으로는 우리말 적기가 점점 좁아져서 일부의 실사나 일부의 문법 부분만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어서 우리말을 적는 일로 좁혀졌다. 이것이 이른바 ‘이두’라고 하는데(‘이두’라는 말은 1395년 『대명률직해』 발문에 처음 나옴), 넓은 뜻으로 이두는 향가까지를 포함한다(김윤경: 앞든 책, 장지영: 『이두 사전』).

보기: ‘대명률직해’에서

他人乙 謀害爲去乙(타인을 모해하거늘)

(2) 구결

점점 한문을 숭상하면서, 한문을 읽는 보조 수단으로의 토를 적는 수단으로만 이 방법을 이용하되 한자의 줄임 글자를 새로 만들어 썼으니, 이것이 이른바 구결이다.

보기: 爲古 = ソロ, 爲尼 = ソヒ

그러나 이러한 국한된 방법은 오히려 한자 한문 교육의 촉진을 불러 왔을 뿐 우리 생각을 적어 내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리하여 여말 선초에는 한문 잘하는 일부 보수적인 한문 특권 계층이 점점 형성되어 가는 한편 한문을 매개로 한 사대 사상이 심화되어 가고, 백성의 문맹은 극심해 갔다.

2. 훈민정음을 만든 정신

한자의 소리 뜻을 빌어 쓰는 데 실패한 결과, 우리가 해야 할 글자살이는 한자를 그대로, 또는 다른 나라 글자를 쓰든가, 아니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쓸 수밖에 없었다. 세종의 선택은 새로운 만들의 쪽이었다. 세종(1397. 5. 15.~1450. 4. 8.) 대왕은 재위 32년 동안(1418~1450), 백성의 삶을 근본으로 하는 과학, 보건, 경제, 국방 뿐 아니라 음악, 윤리, 인권 등 모든 정책 면에 자주 정신과 민본 사상을 깔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데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혁신 사상을 갖추고 있는 분이였다.

그러므로, 고려 500년 동안의 비자주적인 암흑의 민족 문화사가 이어진 역사적 현실을 직관하면서 고유 문자인 ‘훈민정음’의 창안의 쪽을 택함은 세종 대왕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었다. 훈민정음의 머리말에는 글자를 만든 까닭이 잘 반영되어 있다.

첫째, “우리 나라의 말소리는 중국과 다르므로 중국 글자인 한자로는 우리말을 적을 수가 없다.”고 했다. 여기에서는 세종 대왕의 민족 자주 정신을 읽을 수가 있다. 태종까지만 해도 명나라에 대한 사대 사상과 모화 사상이 지배하던 현실에서, 중국에 대하여 민족 자주 선언을 했다는 것은 정통성에 대한 혁명적 사상이라 하겠다.

둘째,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의사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리하여 배우기 쉬운 28자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쉽게 배워서 날마다 편안하게 쓰게 하고자 한다.”고 했다. 여기에서는 세종 대왕의 위민 정책에 의한 민주 민본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민주 민본 정신은 귀천을 묻지 않고 과감한 두뇌 집단을 등용하여 집현전(1420, 궁중에 설치)을 연구와 토론과 결정의 자리로 움직였다. 세종 대왕 자신은 뛰어난 음성 청취 능력과 음운 이론에 달관한 언어학자이면서, 유능한 두뇌 집단의 협력을 얻어 세계에 유례없는 과학적인 글자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러한 민주 민본 정신을 정인지의 서문(훈민정음 발문)에서 보면, “이제까지는 옥을 다스리는 이가 그 곡절을 통하지 못했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송사에서 제 뜻을 펼 수 있다.”고 했다. 이 또한 대왕의 위민 사상을 대변한 것이다. 이러한 세종 대왕의 자주, 민주, 민본의 정신 아래, 1443년에는 글자를 다 만들었으나 더 다듬고 검정 기간까지 거쳐서, 1446년 10월 9일(정통 11년 9월 상한을 양력으로 환산)에 반포했으니 그 막중한 역사적 사업의 신중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수적인 특권층과 사대 사상에 젖은 이들의 반대는 만만치 아니하였다. 그 중에도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의 반대 상소는 이성을 잃은 것이었다. 그 요지를 두어 개만 들어 놓는다.

[1] 사대 모화 사상에 어긋나는 일이다.

[2] 글자를 만들어 쓰는 것은 오랑캐가 되는 것이다.

세종 대왕은 뛰어난 언어학자로서, 중국의 운학 관계도 많은 연구를 했다. 『홍무정운역훈』과 『동국정운』 등은 신숙주, 성삼문 등 석학으로 하여금 연구 편찬케 한 것이나, 세종의 운학 이해의 힘이 뒷받침되어 얻어진 연구 결과이다.

3. 훈민정음 만듦의 과학적 생성 원리

(1) 『훈민정음 해례』본의 짜임새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원리는 『훈민정음 해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1940년 7월에 안동에서 발견되어, 지금은 ‘간송 미술관’(간송 전형필 님의 소장

품을 보관한)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보 70호로 지정되어 있다.

훈민정음은 한 마디로 언어 과학적이고도 철학적인 생성의 원리에 의하여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임을 해례본에서 잘 밝히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크게 「어제 훈민정음」(서문과 본문 28자를 보이고, 그 글자의 맞춤법을 보인 것)과 「훈민정음 해례」(풀이 부분)로 나뉜다. 「훈민정음 해례」는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해’, ‘정인지 서문’으로 나뉜다. 이제 글자 만듦의 원리를 다음의 순서에 따라 차례로 소개한다.

(2) 첫소리 본문 17자 만듦(생성)의 원리

첫소리 글자를 만드는 원리는 치밀한 조음음성학의 이론과 철학의 협력에 있다. 첫소리 글자는 먼저 발성 기관의 다섯 군데의 조음 자리에서 각각 소리를 낼 때 그 발성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듦되, 그 자리에서 나는 소리 중 가장 약한 소리를 기본 5글자로 삼았다. 이 기본 글자와, 소리의 세기에 따라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한 9글자와, 획 더함이 없는 3글자, 모두 17자를 확정했다. 이것은 가운뎃소리 본문 11자와 합하여 본문 글자 28자를 이룬다.

[1] 기본 5 글자의 발성 기관 본뜨기 원리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ㄱ=아음, 어금닛소리)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	(ㄴ=설음, 혓소리)
ㄷ은, 입술의 모양을 본떴다.	(ㄷ=순음, 입술소리)
ㄹ은, 이의 모양을 본떴다.	(ㄹ=치음, 잇소리)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ㅇ=후음, 목구멍소리)

위의 다섯 글자를 기본으로 하여, 그 같은 조음점 계열의 소리글자는 ‘소리가 세어지는 차례에 따라’ 획을 하나씩 더하여 다음 [2]와 같이 만들어 내었다. 이것은 글자의 생성 변형의 원리이다.

[2] 세기에 따라 획 더하는 원리

ㄱ --- ㅋ
 ㄴ --- ㄷ --- ㄸ
 ㄷ --- ㄹ --- ㄺ
 ㄹ --- ㅁ --- ㅂ

ㅇ --- ㅎ --- ㅎ

[3] 획 더하기가 아닌 발성 기관 모양 본뜨기

- ㅇ (ㅇ=아음, 어금닛소리. 목의 모양 본뜸)
- △ (△=반치음, 반잇소리. 이의 모양 본뜸)
- ㄹ (ㄹ=반설음, 반혓소리. 혀의 모양 본뜸)

위는 모두 첫소리 17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3) 본문 17자 밖의 ‘운용 글자’를 만드는 원리

● 각자병서: ‘제자해’에서, 된소리(전탁음) 글자는 예사소리(전청음) 글자를 아울러 쓰는(각자병서) 원리를 취했다. 다만 목소리만은 거센소리 ‘ㅎ’을 아울러 쓰는 원리를 취했다.

ㄱ --- ㄲ
 ㅋ --- ㆁ
 ㆁ --- ㆁ
 ㄴ --- ㄴ
 ㄷ --- ㄸ
 ㄹ --- ㄹ
 ㅎ --- ㅎ

(‘합자해’에서는 ‘ㅇ’의 각자병서 글자 ‘ㅇ’도 나타난다.)

● 연서: ‘제자해’에서, 입술가벼운소리(순경음)와 반혀가벼운소리(반설경음)는 ‘ㅇ’를 입술소리와 반혓소리 밑에 각각 이어 쓰도록(연서) 했다.

ㄴ (ㄴ=순경음, 입술가벼운소리)
 ㄹ (ㄹ=반설경음, 반혀가벼운소리)

● 합용병서: 한편 ‘합자해’에서,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는 두 자, 석 자를 합하여 쓰는(합용병서) 원리도 보이였다.

ㄱ, ㄴ, ㄷ, ㄹ (두 자 합용):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석 자 합용): ㄱ, ㄴ, ㄷ, ㄹ

위에서 중요한 사실은, 첫소리 5 ‘기본 글자’를 조음음성학의 원리로 만들어 내고, 음의 자질의 바뀔에 따라 ‘기본 글자를 변형시킨 글자’ 17자로 생성해 내는 원

리를 택하였으며, 또한 언어 현실에 필요한 ‘운용 글자’를 생성하는 원리를 택했다는 사실이다.

(4) 첫소리의 조음음성의 바탕과 동양철학의 합리화

위에서 만들어 내는 첫소리 글자를 지배하는 기본 철학은 동양의 철학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음양 오행의 이치를 버릴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람의 소리도 이 이치를 버릴 수 없으니, 훈민정음의 제작 또한 이 이치를 따른다고 했다. 그리하여, 첫소리의 경우, 그 소리는 오행(쇠, 나무, 물, 불, 흙)에 근본을 두고 있으므로 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이에 합하여 어그러짐이 없으며, 또한 다섯 음(궁, 상, 각, 치, 우)과도 모두 맞아서 어긋남이 없다 하고, 이들을 글자 만듦(제자해)에 합리화시켰다.

목구멍(후)은 윤택하니, 오행으로는 ‘물’이요, 여기서 나는 소리 바탕은 비고 통하여서, 마치 물이 비고 맑아서 흘러 통함과 같다. 따라서 철로 보면, ‘겨울’이고, 음으로 보면 오음 중 ‘우’음(낮고 평온한)에 해당한다.

어금니(아)는 착잡하고 기니, 오행으로는 ‘나무’요, 여기서 나는 소리 바탕은 목소리와 비슷하나 야무지니, 마치 나무가 물에서 나서 꼴이 있음과 같다. 따라서 계절로 보면 ‘봄’이요, 오음 중 ‘각’음(촉발성을 띠는)에 해당한다.

혀(설)는 예민하고 움직이니, 오행 중 ‘불’이다. 여기서 나는 소리 바탕은 구르고 날리니, 마치 불이 퍼지고 날리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계절로 보면 ‘여름’에 해당하고, 오음으로는 ‘치’(徵)음(빠르고 들날리는)에 해당한다.

이(치)는 단단하고 부러지니, 오행 중 ‘쇠’에 해당한다. 여기서 나는 소리 바탕은 부스러지고 걸리는 바탕이니, 마치 쇠가 부스러지나 다시 붙여서 무엇이든 이루어 내는 것과 같아서, 철로 보면 ‘가을’에 해당하고, 오음으로는 ‘상’음(빠른 소리)에 해당한다.

입술(순)은 모양이 모지고 합하여 있으니, 오행으로는 ‘흙’이요, 여기서 나는 소리 바탕은 무엇을 머금고 있는, 그리고 넓은 바탕이니, 마치 흙이 만물을 함축하고 또한 넓고 큰 것 같아서, 철로 보면 ‘늦은 여름’이고, 오음으로는 ‘궁’음(무겁고 중후한 소리)에 해당한다.

또한 오행 중 ‘물’은 모든 물건을 나게 하는 근원이요, ‘불’은 물건을 이루어 내는 작용을 한다. 이와 같이 목은 소리를 내는 문이요, 혀는 소리를 변별하는 관이므로, 오음 중에서 목소리와 혀소리가 가장 으뜸이 된다. (이상 ‘제자해’)

발성 기관의 바탕과 여기서 나오는 소리의 바탕을 오행, 계절, 오음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짜맞춤이 없지 않으나, 합리적인 근거 또한 관심을 둘 만하다.

(5) 가운뎃소리 본문 11자 만듦의 원리

[1] 기본 3소리 글자를 만드는 원리: 3분법

‘제자해’에서 풀이한 가운뎃소리 11자는 기본 3 글자와, 기본 3 글자를 서로 합하여 만든 8자로 이루어진다. 이 또한 글자의 생성(변형)의 원리이다.

기본 3 글자는 먼저 입안에서 나는 기본 자리를 세 군데로 잡고, 거기에서 나는 세 개의 기본 소리를 ‘하늘, 땅, 사람’(삼재)의 모양을 본떠서 각각 ‘· — |’를 만들어 냈다. 곧 입 안에서 기본 자리는 혀의 모양(발성 음성학: 혀 쭉그림/조금 쭉그림/안 쭉그림)과 소리의 청각 영상(청취 음성학: 소리깊/깊지도 얕지도 않음/얕음)의 3분법의 상대적 원리를 기준 삼았다.

혀쭉그림 조음법과 깊은 소리 청각 영상을 주는 자리에서 나는 소리 글자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서 ‘·’를 만들고, 혀 조금 쭉그림 조음법과 깊지도 얕지도 않은 청각 영상을 주는 자리에서 나는 소리글자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서 ‘—’를 만들고, 혀를 쭉그리지 않는 조음법과 얕은 청각 영상을 주는 자리에서 나는 소리글자는 사람의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기본 3 글자가 만들어진다.

[2] 합한 음양 8 글자 만드는 원리

3 기본 소리(· — |)가 나는 자리를 각각 세 음역으로 잡는다. 그리고 ‘·, —’를 중심으로(‘|’를 뺀) 각각 같은 혀의 모양(쭉그림/조금 쭉그림)과, 같은 소리 느낌(깊/얕음)을 가진 그 자리에서, 다만 입의 오무림/뽕의 상대적 발음에 따라 생기는 음의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각각 ‘한 부류의 음역’이 결정된다.

뽕 ← · → 오무림 (같은 음역)
뽕 ← — → 오무림 (같은 음역)

이때(· —) 만들어지는 글자는 ‘하늘’과 ‘땅’이 처음 사귀는 철학적 뜻을 가지는 다음 4 글자(ㄱ ㅏ ㅓ ㅕ)이다.

ㅏ ← · → ㄱ (같은 음역을 차지하는 소리들의 생성: ‘ㅏ, ㄱ’)
ㅕ ← — → ㅓ (같은 음역을 차지하는 소리들의 생성: ‘ㅕ, ㅓ’)

위의 ‘ㄱ ㄷ ㅌ ㄴ’는 ‘처음 나옴’(초출)의 글자라 한다. 다음으로 ‘하늘’과 ‘땅’의 운용이 사물에 나타나되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철학적 뜻을 가지는 글자를 만들어 낸다. 곧 위의 처음 나온 4 글자는 다시 ‘사람’을 뜻하는 ‘ㅣ’를 각각 곁하여 또 다른 4 글자 ‘ㄲ ㅋ ㅍ ㆁ’를 만들어 낸다. 이를 ‘다시 나옴’(재출)의 글자라 한다. 이리하여 결국 8 글자(ㄱ ㄷ ㅌ ㄴ ㄲ ㅋ ㅍ ㆁ)가 새로 만들어진다. 한편 하늘을 상징하는 ‘.’가 ‘위’와 ‘밖’의 자리에 있는 것은 ‘양성’ 글자이고, ‘아래’와 ‘안’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음성’ 글자라 했다(사람을 상징하는 ‘ㅣ’는 ‘중성’ 글자이다). 이와 같이 하여 위의 8 글자는 다음과 같은 음양의 본문 8자가 되는 것이다.

ㄱ ㄷ ㄲ ㅋ = 양

ㅌ ㄴ ㅍ ㆁ = 음

(‘홀소리 어울림 규칙’이란 양/양, 음/음의 어울림 규칙이다. 이미 이는 당시의 실제말의 홀소리 어울림 현상을 문자 제작상에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홀소리 어울림은 우리말의 음성 상징을 나타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가 8 글자에 다 들어 있는 것은 ‘양’이 ‘음’을 통솔하여 만물에 두루 흐른다는 철학의 이치이다. 그리고 ‘ㄲ ㅋ ㅍ ㆁ’가 사람을 곁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음과 양에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들어진 8 글자 가운데는 ‘하늘, 땅, 사람’의 세 바탕(삼재)의 도리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세 바탕은 만물 중에도 제일 먼저이요, 또한 세 바탕 중에도 하늘이 비롯이니, 이와 같이 ‘. — ㅣ’ 3 글자는 8 글자의 머리가 되나, ‘.’는 또한 3 글자 중에도 으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의 이치와 조음음성학의 이치 및 청각음성학의 이치를 원리로 하여 만들어 낸(생성한) 것이 다음과 같은 가운뎃소리 11 글자이다.

ㄲ ← ㄱ ← . (하늘) → ㄷ → ㅋ

ㅍ ← ㅌ ← — (땅) → ㄴ → ㆁ

ㅣ (사람)

앞에서 보인 첫소리 17자와, 여기 가운뎃소리 11자를 합치면 훈민정음 본문 28자가 된다.

(6) 가운뎃소리 11 글자 밖의 ‘운용 글자’ 만드는 원리

11 글자 밖에 현실 음을 운용하여 쓸 수 있는 운용 글자를 만들어 낸다. 운용 글자를 만드는 원리는 11 글자를 서로 두 개 또는 세 개를 결합하여 만드는 방법이다.

‘ㄷ’에서 다같이 나온 것이 결합한 것:	ㄱ + ㅌ = ㄲ
‘ㄴ’에서 다같이 나온 것이 결합한 것:	ㄱ + ㄴ = ㄴ
	ㅌ + ㄴ = ㄸ
‘ㄹ’에서 다같이 나온 것이 결합한 것:	ㄷ + ㄹ = ㄹ
한 글자에 ‘ㄷ’이 합한 것:	이 니 디 히 기 케 피 ㅈ ㅊ ㅋ
두 글자에 ‘ㄷ’이 합한 것:	내 게 배 페

‘ㄷ’이 이처럼 결합할 수 있는 것은 그 발음법에서 혀가 펴지고, 소리가 얹어서 입을 열기가 편하니, 이는 ‘사람’이 만물의 뜻을 여는 데 통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 한다. 운용 글자의 변형에 따른 생성에서 빈틈없는 조음음성학의 이치와 철학의 이치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원초적인 기본 글자가 꼴을 바꾸어 본문 28자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서 많은 운용 글자를 만들어 내는 데에 있어서는, 역시 철학의 연역법적 생성론과 조음음성학의 논리가 잘 조화되어 있음을 보인다. 이는 한글이 얼마나 과학과 철학의 결정체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인지가 훈민정음 발문에서, “28글자는 간단하지만 이를 굴리어 바꾸어 씀은 무궁하여서, 모든 것을 요긴하고 정밀하게 통할 수 있다.”고 함은 이를 두고 한 말이겠다.

(7) 맞춤법

훈민정음 ‘합자해’에서는,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는 합하여 ‘글자’를 이룬다고 했다. 이는 첫, 가운데, 끝소리 글자는 모아서 음절 글자를 이루어서 써야 함을 밝힌 것이다. 이는 한글의 ‘모아쓰기 맞춤법’을 규정한 것이라 하겠다. 곧 낱낱의 글자는 음소글자이지만 그 실제의 쓰임에서는 음절 단위 문자로 모아 쓰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글의 ‘형태주의 맞춤법’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 하겠다. 이 맞춤법 규정에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는 첫, 가운데, 끝소리 글자를 모아 맞추는 자리와 차례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끝소리 글자의 종류 문제가 그것이다.

[1] 첫, 가운데, 끝소리 글자의 자리와 차례

첫 소리 글자는 가운데소리 글자의 위나 왼쪽에 둔다: ‘ㄱ’의 ‘ㄱ’, ‘업’의 ‘ㅇ’

가운데소리 글자는 첫 소리 글자 아래나 오른쪽에 둔다: ‘ㄱ’의 ‘ㄷ’, ‘침’의 ‘ㄴ’

첫 소리 글자를 두 글자 또는 세 글자 합하여 쓸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를 잡는다: ‘짜’, ‘딱’, ‘뽕’, ‘혜’, ‘괴여’, ‘쏘다’

가운뎃소리 글자도 위와 같다.

‘과’, ‘화’

끝소리 글자도 마찬가지로이다.

‘흙’, ‘낫’, ‘꺾’

다만, 한자와 우리말을 섞어 쓸 때 글자의 소리에 따라 가운뎃소리 글자나 끝소리 글자를 보태는 일이 있다: 孔 子 | 魯^사람.

국어의 사성은 높낮이를 보이는데(『훈민정음 언해』에서 분명히 밝힘), 이것을 쓰는 법은 아래와 같다.

평성=가장 낮은 소리이며, 점은 찍지 아니함:	활
거성=가장 높은 소리이며, 왼쪽에 한 점을 더함:	·갈
상성=처음이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이며, 왼쪽에 두 점을 더함:	:돌
입성=막히는 소리로서, 높낮이는 혹은 평성, 혹은 거성, 혹은 상성과 같으며, 점을 더하는 것도 그와 같다:	긴, ·입, :깎

[2] 끝소리 글자의 종류: 대원칙과 편법(8 종성법)

“끝소리 글자는 첫소리 글자를 다시 쓴다.”는 훈민정음 본문의 대원칙에 따라, 모든 첫소리 글자는 끝소리 글자로 쓸 수 있다. 그리하여, 맑은 소리(전청) 글자나 거센소리(차청) 글자나 된소리(탁음) 글자를 모두 끝소리 글자로 쓸 수 있다고 ‘종성해’에서도 밝혔다. 이 사실은 또한 철학의 이론으로도 합리화했다. 곧, 네 계절의 운행의 순환은 끝이 없어, ‘정’이 ‘원’이 되고(‘원, 형, 이, 정’에서) 또한 ‘겨울’이 다시 ‘봄’이 됨같이, 첫소리가 끝소리가 되고, 끝소리가 다시 첫소리가 된다고 했다. 그런데 ‘종성해’에서는 이 원칙에 대한 편법을 제시하고도 있다. 곧 ‘ㄱ, ㅎ, ㄷ, ㄴ, ㅁ, ㅂ, ㅅ, ㄹ’의 8 글자만을 끝소리 글자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 보기와 같이, ‘△, △, ㅈ’은 모두 ‘ㅅ’으로 통용된다는 것이다.

보기: 옆의 갯, 빗 곳 → 엇의 갯, 빗곳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편법일 뿐이다. 15세기 국어의 맞춤법이 일반적으로 표음적 표기법이라 한다. 그런데 이미 ‘훈민정음’에서 원칙적으로 형태적 표기의 맞춤법을, 제시해 주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는 어긋나게 편법만이 『훈몽자회 범례』(최세진 : 1527)에 나타나고, ‘맞춤법 통일안’ 제정 때에는 이 편법이 큰 방해물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글 과동’ 때(1953~1955)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4.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반포한 때 - 한글날의 기원

‘훈민정음’은 1443년에 완성하고 1446년 10월(음 9. 29)에 반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반포한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었다. 그리하여, 『훈민정음』 원본이 1940년 7월에 안동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만들어진 원리와 반포한 때를 잘 모른 탓으로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 따라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리는 날도 그 동안 두어 번 바뀌었다.

이제, 이 날을 기리는 까닭과 기리는 날이 바뀌어진 발자취를 보기로 한다.

- ㄱ. 한글 창제는, 세계 문자 역사상에 유례 없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 ㄴ. 한글 창제는, 진정한 민족 고유 문화의 역사적 선포이다.
- ㄷ. 한글은 민족의 자주 사상과 민본·위민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자연인 세종 성군의 슬기로 일정한 시간에 창안된 것이다.
- ㄹ. 한글은 거래의 지적 소산 중 가장 위대한 산물이다.
- ㅁ. 한글은 언어학의 이론과 철학의 뜻이 절묘하게 융합한 과학적인 글자이다.
- ㅂ. 한글은 간단하고 배우기 쉬운 민주적 글자이다.
- ㅅ. 한글은 간단하나 온갖 글자를 생성하는 힘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에 그 예가 없는 글자 창제의 날을 기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 1926년 10월 28일(음력 9월 29일), ‘조선어 연구회’에서 이 날을 ‘가갸날’로 기리었다(세종실록 권 113의 세종 28년 병인 9월조에 “이 달에 훈민정음을 이룩하다(成)”에 따름).
- 1927년 동인지 『한글』이 나온 뒤 1928년부터는 ‘한글날’로 기리었다.
- 1940년부터는 ‘조선어학회’에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리었다(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 원본의 발문 끝에 있는 “정통 11년 9월 상한”을 양력으로 환산함).
(북한에서는, 세종실록 권 102의 세종 25년 계해 12월조의 “이 달에 임금이 ... 친제(親製)하다”에 의거,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념일을 1월 31일로 잡고 있음.)
- 1946년,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리었다.
- 1990년,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였다.

- 2005년,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하였다.
- 2006년, 첫 번째 한글날 국경일 행사로 기리었다.

5. ‘훈민정음’의 이름

- 훈민정음(정음): 세종 대왕의 창안 당시의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훈민정음’을 줄여서 ‘정음’이라고도 한다.
- 언문: 훈민정음에서도 ‘문’을 말할 때는 ‘언’이라고 한다. 『세종실록』에 ‘언문청’이 있었고, 또 ‘언문’이라는 이름도 나온다. 그 뒤 이른바 진서(한문)에 대한 한글의 부정적인 뜻의 ‘언서’란 말도 나온다. 조선왕조실록에 많이 나오는 ‘언’ 자류 문서는 제도적 문서나 생활 문서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도 했다.
- 반절: 최세진 지음의 『훈몽자회 범례』에 나온다.
- 국문: 갑오경장 이후에 쓰이었다.
- 한글: 주시경 선생이 1913년에 만든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한글모죽보기』에 따르면 1913년, “‘배달말글몰음’을 ‘한글모’로 바꾸다.”에서 ‘한글’이 보인다.).

6. 한글 낱말의 이름과 차례 잡기의 역사

『훈민정음』 원본에는 글자의 이름이 없다.

『훈몽자회 범례』(최세진, 1527)에 비로소 ‘기역, 니은, …, 아, 야, 어, 여, …’ 등의 이름이 나온다.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에서 공식적으로 통일된다(북한에서는 ‘기육, 니은, …’).

한글의 차례에서, ‘훈민정음’은 첫 소리의 경우, ‘아, 설, 순, 치, 후, 반설, 반치’의 차례로; 가운데소리의 경우, 간단한 글자로부터 복잡한 글자의 차례로 배열하였다.

『훈몽자회 범례』에는 오늘날의 한글 차례와 비슷함이 보인다.

오늘날의 한글 차례는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때 결정된 것이다(북한에서는, ‘ㅇ’이 맨 끝자리에 간다.).

7. 훈민정음에 대한 정책

(1) 세종의 한글 정책

세종은 비범한 창의와 부단의 열성과 확고한 신념으로써 한글을 창제 반포했다. 그러나 그 창제 반포로 만족하지 않고 한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학적인 방면, 정치적인 방면, 경제적인 방면, 음운 정리 방면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용의주도한 보급책을 강구하였다.

[1] 문학적인 방면

한글 정책으로 제일 먼저 문학적인 방면에 힘을 썼으니, 이는 문학과 문자의 관계가 가장 깊기 때문이다. 이 방면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책의 출판이 이루어진다.

●『용비어천가』 편찬

세종은 25년 12월에 훈민정음을 만들어 놓은 뒤, 그것을 아직 국민에게 공포하기 전에 이를 더욱 같고 다듬어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또한 글자의 운용의 묘를 시험하기 위하여 권제, 정인지, 안지 등으로 하여금 새 글자로 장중한 조선 창엽의 송덕가인 『용비어천가』를 지어(세종 27년) 온누리에 본이 되게 간행(세종 29년)하였다. 이 책은 새 글자로 적은 우리말을 으뜸 자리에 놓고 그 뒤친 한시로 딸림을 삼았으니, 이는 중대한 의식적 문화 혁신이라 하겠다. 또한 이 책은 훈민정음 이후에 최초의 우리나라 운문체 작품으로서 문학사상 획기적인 것이라 하겠다.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편찬

세종은 소헌왕후(1395.~1446. 3.)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세종 29년에 『석보상절』(산문체로 된 석가모니 일대기)을 짓게 하고, 이것이 다 되매, 세종은 그것을 보고 몸소 한글 으뜸의 『월인천강지곡』(가사체로 된 석가에 대한 찬송)을 지었다. 그리고 세조는 이를 합본한 『월인석보』를 엮어 내니, 이 세 책은 한글 사용의 기운을 넘치게 하였다.

[2] 정치적인 방면

세종은 훈민정음을 9월(정통 11년 9월 상한)에 반포하고, 10월에는 몸소 정무의 실체에 이를 쓸 뿐 아니라, 또한 이를 문관(“吏科” 및 “吏典”)의 채용 시험의 한 과목으로 삼았으니, 이는 한글의 보급과 중용을 꾀한 것이다.

[3] 경제적인 방면

한글 정책으로 경제적인 방면에 힘쓴 것은, 한글로 『효례의』 글자를 넣어 만든 ‘별돈’(別錢 또는 慶賀錢)을 활용한 것이다. 이것은 돈과 병행하는 한글의 소중함을 일반 국민에게 깨우쳐 주려 함이요, 돈처럼 한글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라는 것이요, 『효례의』를 한글을 수단으로 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정신의 발로라 하겠다.

[4] 운서 정리 방면

한편, 조선 한자음의 표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신숙주, 성삼문으로 하여금 정음으로 표기한 『동국정운』(세종 29년 완성, 세종 30년 간행)을 편찬하게 하고, 중국 음운에 관한 표준을 세우려는 방안으로 신숙주, 성삼문으로 하여금 『홍무정운역훈』을 연구하여 만들게 하였다. 이는, 새로 만든 한글의 한자 및 중국음의 정리 등을 통하여 그 한글 쓰임의 소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2) 한글의 억압과 한글의 침체

우리 민족의 진정한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만한 역사상 큰 일은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이다. 그러나 역사의 진전에는 반드시 이러한 역사적 진전을 가로막는 보수 세력이 있게 마련이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반포하기도 전인 세종 26년(1444년)에 나타난 최만리 반대 상소는 그 보수 세력의 시작이다. 세종은 부족한 점을 3년 동안 갈고 닦고 시험한 뒤에 이를 반포했다. 그리고 반포한 뒤에는 용의 주도한 보급책을 문학적, 정치적, 경제적 방면 등에 강력하게 펴 나갔다. 이 보급책은 그 뒤 성종까지의 통치자들에 의하여 이어 나갔다. 그러나 연산조에 이르러 지난날 연산주 어머니(성종 비 윤씨)의 억울한 죽음이 연산의 악정을 부르고, 그 악정을 한글 진단으로 폭로한 것이 원인이 되어 언문 금압의 법(‘제서혜기율’, ‘제서위반율’)을 휘두르는 연산의 한

글 억압 정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산주의 한글 학대가 있는 이래 한글은 침체기를 맞는다. 사실상 중종 반정 이후에도 연산주의 정음 금지령은 정식 취소된 일이 없고, 그 그릇된 언어 정책도 시정된 일이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글의 연구는 물론이고 공사간에 공공연하게 한글을 사용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다만 심산궁곡에서 그 남은 목숨을 보전할 뿐이었다.

드디어 한글은 비과학적 불통일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어느 사이에 “반절”이란 이름으로 겨우 민간에게서 명맥을 잇고 있었다. 물론 연산의 된서리를 맞은 한글은 중·명조 시대에 와서 정치적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자연을 읊조리는 과정에서 한글 가사 애송이 학예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선조조 임진왜란 이후부터 숙종 말년에 이르기까지 양반 계급의 무력함과 함께 한글의 평민문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영·정 시대에는 한글에 의한 조선문학의 부흥이 주목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글은 그릇된 사대 사상과 한문의 전통적 세력 때문에 언문으로 계속 천대받아, 유식 계급의 남자는 다룰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이 당시의 지배적인 사상이었다. 그리하여 한글의 연구도 몇 사람을 빼고는 거의 등한시하고 말았다. 따라서 영·정 시대의 문예도 부녀자의 소용에 지나지 않았다.

(3) 자아 각성과 한글의 부흥

한글은 연산주의 한글 금압의 언어 정책 이래 유식 계급이 다룰 것이 못 된다는 지배적 사상과 전통적인 사대 사상 아래 언문으로 천대받아 움으로써, 거의 그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다만 두서너 사람의 연구자를 빼고는 연구자도 없었거니와 실무 문서에서도 무시당함으로써, 연산 이래 갑오경장에 이르는 동안은 그 침체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글에도 큰 시대적 각성으로 말미암아 부흥기가 왔으니, 그것은 고종 31년(1894)에 있는 갑오경장부터이다. 이 때부터 민족의 자각과 민족주의 사상이 싹트게 되었다.

민족의 자주주의 자각은 중국 숭배와 한문 존중의 미혹의 꿈을 깨뜨리고 한글을 높이 쓰는 분명한 방향을 잡았다. 문학 작품은 물론, 과학, 종교, 예술, 각종 저서와 신문·잡지,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때부터 한글을 쓰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실로 민족 운동이었고, 자주적인 민족 문화 창조를 위한 독립 운동이었다. 국어국문에 대한 자각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로 나타나고, 교육

입국의 조서에 좇아 새 교육 기관인 각종 학교가 생기면서 국문 발전은 그 나아감의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정신에 좇아 이 사회에서는 한문만을 글인 줄 아는 몰지각을 깨뜨리고 한글이 나라의 글이라는 사상이 지배함으로써 일상적인, 그리고 지적 생활에 순한글이 등장하게 되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하는 한글 부흥의 선구자는 한국 문화사에 처음 국한문체를 선보인 유길준(『서유견문기』: 1885)이요, 신문의 선구로 서재필, 윤치호에 의한 순한글 『독립신문』(1896)이다. 광무 융희 연간의 학교의 교과서가 국문으로 찬술되면서 학교 교육과 한글 부흥이 서로 인과를 이루어 발전하였다. 신소설의 언문일치의 신문에 운동은 한글의 발전을 밀고, 만민 평등의 종교인 기독교가 한글 성경 번역(1882년, 로스와 막긴타이의 누가복음 번역이 최초)을 비롯하여 신앙 생활에 한글을 채용함으로써 한글의 보급에 박차를 더하였다.

한편, 겨레 정신의 근본은 말과 글이라는 언어 철학에 따라, 한글 연구와 한글 교육과 획기적인 저서(『국어문법』: 1910)를 통한 민족 근대화에 큰 봉우리가 된 주시경 선생은 한글의 부흥기의 큰 역군이었다. 이 모든 사실들은, 그 뒤 나라 안팎의 도전 속에서도 미래의 대성기를 맞는 문턱을 이룬 것이다.

(4) 외세의 우리 말글 말살에 대한 저항과 한글학회

민족 근대화의 교화에 앞장선 주시경 선생은, ‘말·글·얼 한몸’을 주장하는 언어 철학자요, 민족 언어관을 가진 언어학자요, 애국자이다. 그는 1904년 상동 교회의 청년 학원 강사를 시작으로, 1907년 제1회 하기 국어 강습회 강사를 거쳐 우리 말·글의 연구, 교육, 정리 및 보급 운동에 모든 정성을 쏟았다. 더욱 주시경 선생은, 1908년에는 동지들과 ‘국어연구학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국어 연구에 역사적인 큰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김두봉, 최현배, 장지영, 김윤경, 정열모, 이병기 등 탁월한 수제자들을 많이 길러 내었다. 그러나, 주시경 선생은 아깝게도 1914년 3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멍하니 정신을 잃은 제자들은 허탈에 빠졌다가 겨우 1921년에 가서야 비로소 연구 학회를 재건하니, 이것이 ‘조선어연구회’이다.

‘조선어연구회’에서는 1929년부터 문화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갖기 위하여, 108사람의 발기로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조직하였다. 1931년에는 학회의 이름을 ‘조선어학회’로 바꾸면서, 사전 편찬의 필수 전제 사업인 맞춤법 통일 논의와, 표준말 사정과, 외래어 표기법 논의를 구체화했다. 그리하여, 각 분야의 위원들의 노력으로, 1933년에는 ‘맞춤법 통일안’을, 1936년에는 ‘표준어’를, 1940년에는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각

각 발표하였다(『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펴낸 것은 1941년).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편찬의 일은 그리 만만치 아니하였다. 그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이유에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3·1 운동 뒤에 잠시 표방했던 문화 정치를 탄압 정치로 바꾸었다. 1936년에는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을 만들어 민족주의자를 요시찰인으로 감시하고, 1937년에는 동우회 회원을 검거하였으며(동우회 사건), 1938년에는 ‘조선 교육령 개정령’에 따라 조선어를 폐지하는 한편, 흥업구락부 회원을 검거하였다(흥업구락부 사건). 1940년 2월부터는 창씨 개명을 강제했다. 그리고, 드디어 1942년 10월 1일에는 조선어학회 회원과 사전 편찬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이들을 모두 검거하였다(조선어학회 수난). 이 과정에서 사전 편찬이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일제는 이들을 치안 유지법 제1조 독립운동 죄로 논단하여 포악무도한 고문을 가했다. 그리고,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정태진 님들에게는 징역 6년에서 2년까지, 이인 님 등 몇 사람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났다. 한징, 이운재 님 두 분은 옥사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이들은 풀려 나왔다.

이들은 다시 ‘조선어학회’를 재건하는 한편, 1949년에는 학회 이름을 ‘한글학회’로 고치었다. 이에 앞서, 1948년에는 ‘한글 전용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한글학회’는 새 나라 국어 교육의 방향의 제시와 아울러, 미완으로 남은 사전 편찬의 속간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1950년 6·25와, 1953년에서 1955년에 이르는 ‘한글 파동’은 한글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연시켰다. 그러다가 1957년에 드디어 민족의 숙원이던 『큰사전』 6권의 완간을 보게 되었다.

‘한글학회’는 이러한 민족 문화의 금탑인 사전 편찬뿐 아니라, 우리 말글의 연구(학회의 연구 기관지 『한글』이 1927년에 나온 이래 제289호에 이름)와 정리 보급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일을 해 왔다.

또한 한글 기계화에도 앞장서 왔다.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글학회는 일찍부터 우리 말글의 국제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또한 노력하고 있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말글을 가르치고, 우리 겨레의 얼을 펴는 데 애쓰시는 여러분에 대한 연수회를 갖는 것도 우리 말글의 세계화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우리 말글의 세계화는 특히 한글날 국경일 승격으로 그 힘을 더해 갈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석득. 2006. 『근 현대 국어(학) 정신사-국어학회에서 조선어학회 수난사건까지의 그 역사적 의미-』. 한글 272호. 한글학회.
- 김석득. 2009. 『우리말 연구사-언어관과 사조로 본 발전사-』. 태학사.
- 김윤경. 1946. 『조선문자 급 어학사』(3판). 진학출판협회.
- 장지영·장세경. 1976. 『이두 사전』. 정음사.
- 최현배. 1942. 『한글갈』. 정음사.
- 허 응. 1979. 『우리말과 글에 쏟아진 사랑』(국어정책). 문성출판사.
- 『한글모죽보기』.
- 『한글학회 100년사』. 2009.

한국어 화용론

구현정

〈차례〉

- | | |
|---------------------------|---------------------|
| 1. 화용론의 이해 | 5.2. 간접 대화행위의 동기 |
| 1.1. 화용론의 정의 | 5.3. 간접 대화행위의 결정 기준 |
| 1.2. 의미론과 화용론 | 6. 대화분석: 대화의 구조 |
| 1.3. 화용론의 요소 | 6.1. 순서 교대 |
| 2. 발화 의미의 이해: 문장의미와 발화 의미 | 6.2. 대화의 중복 |
| 2.1. 글말과 입말의 차이 | 6.3. 대응쌍 |
| 2.2. 문장의미와 발화 의미 | 6.4. 대화의 조직 |
| 3. 맥락 | 7. 대화의 원리 |
| 3.1. 맥락의 개념 | 7.1. 협동의 원리 |
| 3.2. 맥락의 유형 | 7.2. 양의 격률 |
| 3.3. 맥락의 선택과 상호공유지식 | 7.3. 질의 격률 |
| 4. 대화행위 이론 | 7.4. 관련성의 격률 |
| 4.1. 대화행위의 이론적 배경 | 7.5. 방법의 격률 |
| 4.2. 대화행위의 개념 | 8. 정중어법과 체면 |
| 4.3. 대화행위의 구조 | 8.1. 정중어법의 격률 |
| 5. 간접 대화행위 | 8.2. 체면 세우기 원리 |
| 5.1. 간접 대화행위의 양상 | |

1. 화용론의 이해

1.1. 화용론의 정의

화용론(pragmatics)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말할이가 발화하고 들을이가 해석하는 의미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연구 분야이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실현된 발화문(utterance)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말할이, 들을이, 맥락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1.2. 의미론과 화용론

의미론은 언어의 의미를 주관심사로 하지만, 화용론은 발화와 관련된 말할이와 들을이의 믿음이나 추론, 전제, 함축 등을 주관심사로 한다. 의미는 한정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며, 진리조건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에 비해, 화용론에서는 의미가 습득되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해석되는 것이며, 직접적 지시보다는 간접적으로 내포된 것이며 진리조건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법이 언어적 형태 사이의 관계나 조작된 방식에 대한 연구라면 의미론은 형태와 실체의 관계, 말로 된 묘사와 사건의 상태관계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화용론은 언어 형태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언어의 사용자인 인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화용론에서 다루는 발화는 논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협조의 문제이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말할이가 ‘말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말할이가 ‘말할 수 있는 것’의 문제이고, 들을이가 예상하는 것에 따라 말할이가 ‘말해야 하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용론의 원리들은 언어학적 사고라는 추상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법과는 달리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서 작용하는 원리이다.

1.3. 화용론의 요소

1.3.1. 말할이와 들을이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등장하는 요소는 말할이와 들을이, 그리고 메시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말할이와 들을이는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주체이다. 말할이는 의사소통의 필요를 느끼고 의사소통을 위한 경로를 선택하고 기억이나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구성한다. 들을이는 전달된 기호를 해독하기 위하여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을 사용하고, 정보를 저장하며, 적절한 피드백을 보낸다.

그런데 말할이와 들을이는 고정적으로 결정된 역할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대화에서 이야기되는 화제가 계속 이어짐과 동시에 상대방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응대어를 구사하여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토대로 하여, 말할이와 들을이의 역할은 항상 순환되고 있어서 말하며 듣고, 들으며 말하는 역할이 계속 바뀐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어서 말할이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와 들을이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

말을 조음해서 발화해야 하는 말할이는 가능한 한 쉽고, 편하고, 간단한 언어 표현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경제성의 원리를 추구한다. 거기에 비해서 발화를 지각해야 하는 들을이는 뜻을 식별해야 하고, 의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별성의 원리를 요구한다.

또한 말할이는 자기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만 말하려고 하고, 들을이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 한다. 심지어는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부분만을 가려서 듣기도 한다.

1.3.2. 메시지와 메타-메시지

우리가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에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이 있다.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음성언어, 곧 입말이다. 언어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것을 ‘음성언어’라고 한다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몸짓, 표정, 목소리 등을 포괄적으로 ‘동작언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사용하는 동작언어들도 있지만 어른들의 언어 행위 안에도 많은 동작언어들이 사용된다. 사람들은 모두 온몸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음성언어로 전달하는 정보를 ‘메시지’라

고 한다면 동작언어와 환경 요소까지를 포괄하여 전달하는 정보는 ‘메타-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메시지보다 메타-메시지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2. 발화 의미의 이해: 문장 의미와 발화 의미

2.1. 글말과 입말의 차이

화용론에서 다루는 발화는 말할이와 들을이 사이에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말할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적절한 기호로 코드화하고 들을이는 그것을 해독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화용론에서 다루는 발화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음성언어, 곧 입말이다. 입말을 사용하는 대화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글말과는 달리 입말은 시간상에서 소리의 흐름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리가 이어지며 뭉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단어나 구가 정확하게 나열되는 글말과는 달리 입말은 음성학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인 축약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시간적인 제약 속에서 즉각적으로 주고 받게 되는 대화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저하거나, 말실수를 수정하는 말, 반복되는 말, 말을 이어주기 위해 삽입하는 말(hedge, fillers)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셋째, 대화에 있어서는 적절한 상호작용이 대화의 지속이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부적절한 응답이나 반응은 대화를 단절시킨다. 때로는 완벽한 문장보다 상황과 화제, 상대방의 기대 등과 일치하는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의사소통을 계속하기 위해서 대화 내용에 대한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

2.2. 문장 의미와 발화 의미

글로 쓰인 문단에서 완결된 작은 단위를 문장(sentence)이라고 한다면, 대화를 이루고 있는 맥락에서 완결된 작은 단위들을 발화(utterance)라고 할 수 있다. 문장이 그 자체로써 완결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발화도 그 자체의 뜻을 가지고 있다.

(1) 이 차 맥의 거예요?

(1)의 문장은 의문문으로 상대방에게 무엇에 관해 묻고 있으며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문장이다. 물음의 내용은 차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 있는 차가 상대방의 것인지에 관해 묻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장면에서 이러한 의미를 파악했다고 해서 원만하게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대방이 지금 여기서 왜 그러한 발화를 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이 차가 너무 멋있어서 감탄하는 말일 수도 있고, 차가 너무 더러워서 나무라는 말일 수도 있다. 아무 곳이나 불법 주차를 해 놓아서 불평을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당신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나를 좀 태워달라는 간접 요청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문장의미는 하나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발화의미는 감탄, 질책, 불평, 요청 등 아주 다양할 수 있다. 똑같은 발화도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발화의미’가 전달된다.

발화의미를 찾아내는 일은 쉽지는 않지만, 일단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통하여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대화에서의 쓰임이나 사회적 쓰임들을 구별해 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찾아내는 일은 사람의 인지적 활동과 서로 관련된 일이고,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대부분 의도의 관점에서 개념화된 행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발화의미는 문장의미로 가능한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서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문장의미는 단지 들을이가 말할이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을 도울 뿐이다. 따라서 발화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3. 맥락

3.1. 맥락의 개념

의사소통은 고립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했는가와 같은 맥락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화를 할 때 이루어지는 사고는 맥락에 의존하고 있고, 맥락 안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대화를 통하여 발화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맥락을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어권의 문화를 저-맥락(Low-context) 문화라고 하는 데 반해, 한국 문화를 고-맥락(High-context)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의 발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서 맥락이 더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전제되는 내용과 함축된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세계에 의한 지식과 맥락적 상황들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A : 지금 당장 이리로 다시 와 줄 수 있어요?

B : 저, 오늘 천안 가야 하는데요?

A : 그럼 목요일은 어때요?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관계에 대한 사실과 말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믿음과 의도들과 같은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을 맥락이라고 한다.

3.2. 맥락의 유형

첫째는 장소적 맥락으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공간과 관련된 것이다. 공적인 장면에서는 격식체를 사용하지만, 사적인 장면에서는 비격식체를 사용한다.

둘째는 문화적 맥락으로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이 속한 세대에 전승된 의사소통의 규범이나 기준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말하는 사람이윗사람일 경우 눈을 바로 쳐다보는 것이 버릇없는 행동이나 도전으로 해석되지만, 서양에서는 진실하고 솔직한 태도로 해석된다.

셋째는 시간과 관련된 맥락으로 의사소통이 어떤 시기나 어떤 시간에 이루어졌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똑같이 빗을 갠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아침 일찍 하는 것과 여유 있는 오후에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또한 종교나 성, 인종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어떤 시기에 했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넷째는 사회심리적인 맥락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하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일 수도 있다. 동성끼리의 대화일 수도 있지만, 이성과의 대화일 수도 있다. 친근한 대화일 수도 있지만, 적대적일 수도 있고, 진지한 대화일 수도 있지만 농담일 수도 있다.

3.3. 맥락의 선택과 상호 공유 지식

맥락이란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화의 이해 과정 전반에 걸쳐서 탐색되고 선

택되는 것이다. 많은 가능성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하나의 맥락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논리적으로는 어떤 맥락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것은 말할이가 의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맥락을 선택하는 것이다.

(3) A :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B : 난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와.

초면의 대화가 아니라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공유하고 있는 지식(상호 공유 지식)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지식들은 맥락을 가정하거나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서로 공유될 수 있다. 맥락을 구성하고 있는 기존 정보에는 단기 기억과 백과사전적 지식, 그리고 각종 지각 작용에서 얻은 정보나 신념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4. 대화행위 이론

4.1. 대화행위의 이론적 배경

대화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현대 철학자들의 일부는 대화를 인간 행동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과 마찬가지로 대화도 일종의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대화행위 이론(Speech Acts Theory)이라 하는데, 이러한 생각을 체계화한 것은 영국의 분석철학자들이다. 이러한 이론이 나오게 된 것은 말의 의미를 진리 조건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논리적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

1930년대에는 논리적 실증주의가 지나치게 발달하였다. 이 논리적 실증주의의 중요 원리에 따르면, 모든 문장은 진리치를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나의 문장이 참(truth)이나 거짓(false)으로 가려낼 수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밖에 눈이 오고 있다.”라는 문장은 정말로 밖에 눈이 오고 있을 때에만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이러한 진리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상일에 관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논리적 실증주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문은 대부분 평서문이라는 특정한 부류의 문장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세상에 관한 명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만 한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원리에 따

르면 대부분의 일상적인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참과 거짓의 검증 가능성을 내세워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화가 불확실하고 논리적 공백을 가진다는 불신이 고조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서 제기된 이론이 분석철학자 오스틴(Austin)의 대화행위 이론이다. 이것은 뒤에 오스틴의 제자인 쉘(Searle)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고 발전되었다.

4.2. 대화행위의 개념

오스틴은 대화란 단순히 말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동이라고 보아서 대화가 가지는 행동의 측면을 대화행위(speech act)라고 하였다(Austin 1962: 9).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대화행위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서 기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 (4) a.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 b. 나는 이 강아지를 ‘뽀빠’라고 부르기로 했어.
- c. 내가 잘못했어.
- d. 나는 반대합니다.
- e. 피고에게 10년형을 선고함.

4.3. 대화행위의 구조

말을 하는 것이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한 문장을 발화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행동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오스틴은 말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무엇인가를 행동한다는 점에서 ‘대화행위를 표현행위(언표행위: locutionary act)’와 ‘수행행위(언표내적 행위: illocutionary act)’, 그리고 ‘결과행위(언향적 행위: perlocutionary act)’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수행행위이다.

4.3.1. 표현행위(언표행위)

표현행위란 특정한 형태와 함께 다소 한정적인 의미를 갖는 내용을 말로써 표현하는 행위이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우리가 만들어 내는 말의 대부분은 문장의 형태가

아니다. 어떤 것들은 문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생략된 형태이고, 어떤 것은 중복된 형태이기도 하다.

(5) 너 몇 살이냐?

표현행위는 단지 적절한 발화를 생산하는 음성적 행위와, 특정한 언어들을 통하여 특정한 발화를 구성하는 분위기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논리적인 요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표현으로도 다른 명제를 전달할 수 있고, 다른 표현으로도 같은 명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화를 표현행위 자체로만 파악하여서는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4.3.2. 수행행위(언표내적 행위)

수행행위란 어떤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그 말이 고정적인 말의 힘을 갖는 것을 말한다. 말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현행위와 수행행위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행행위란 어떤 것을 말하는 가운데, 다시 말하자면 표현행위 가운데 수행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 좀 열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표현행위이지만, 이 발화가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말할이는 이 말을 함으로써 요청이나 명령을 하게 된다.

수행행위는 진술, 단언, 보고, 명령, 요청, 질문, 약속, 협박, 제안, 감사, 용서, 환영, 축하, 해고, 제명, 명명, 선고 등과 같은 행위로 나타난다. 수행행위는 언어로 표현하는 내용과 실제 세계 사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대화행위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대화를 통하여 말할이가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말할이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4.3.3. 결과행위(언향적 행위)

결과행위란 어떤 것을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행위를 수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발화를 통하여 들을이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 좀 열어 주세요.”라는 표현행위는 요청이나 명령과 같은 수행행위를 나타내고, 그 결과로 들을이가 문을 열도록 하는 것이 결과행위가 되는 것이다. 결과행위는 대화행위의 결과로 들을이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 상태가 지금 나눈 말의 바로 다음에 이어질 말이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들을이의 심리 상태

를 만들어 내는 입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5. 간접 대화행위

5.1. 간접 대화행위의 양상

대화행위는 직접 대화행위와 간접 대화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의도하는 수행행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직접 대화행위라고 하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표현으로 돌려 말함으로써 목적하는 수행행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간접 대화행위라고 한다. 직접 대화행위는 궁금한 정보가 있을 때는 질문을 통해 표현하고, 요구하고자 할 때는 명령을 통해 표현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이고 단선적인 대화행위이다.

(6) A : 실례지만,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B : 예, 압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들을이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지시적인 명제를 전달할 때는 이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7) a. 창문 좀 열어 주실래요? (질문)

b. 창문 좀 열어 주면 좋겠습니다. (진술)

c. 창문 좀 열어라. (요구)

(8) a. 이것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질문 - 요구)

b. 그게 내 잘못이란 말입니까? (질문 - 주장)

c. 줄 좀 똑바로 설 수 없니? (질문 - 지시)

간접 대화행위는 직접 대화행위의 영역보다 훨씬 확장된 쓰임으로 나타나서 문장 의미와 발화 의미 사이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간접 대화행위는 문장 단위에서 문장의 종결 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표현 방식을 간접화하여 대화 전체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도 있다.

간접 대화행위는 발화문의 의미에 기초하지만, 말할이와 들을이의 관계, 말할이의 의도와 태도, 상황, 배경, 관습 등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말할이의 의도를 드러내는

복합적인 대화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직접 대화행위에 의한 의사소통과 간접 대화행위에 의한 의사소통을 비교해 보면 간접 대화행위를 발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직접 대화행위에 비해 더 복잡한 중간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2. 간접 대화행위의 동기

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을 추구하는데, 간접 대화행위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언어 경제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말할이의 관점에서는 돌려서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화되는 길이가 길어지고, 들을이의 관점에서도 한 번 더 말의 뜻을 계산하는 중간 단계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대화행위를 사용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적인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인간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보다 훨씬 정중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태넨은 간접 대화행위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Tannen 1992). 첫째로, 직접적으로 말하기로 결심하더라도 무한히 많은 여러 측면의 진실 중에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직접적인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가 말하거나 듣는 내용의 바탕에는 무수한 가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셋째로 의도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넷째로 대화 양식이 다르면 무엇이 직접적인 것인지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의도를 말하더라도 대화 양식이 다른 상대방에게서는 그것이 다른 내용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

- (9) A : 이번 주 목요일에 대전에 특강이 있어.
 B : 그럼 저녁 함께 먹어. 저녁 시간 비워 놓을게.
 A : 그건 좀 곤란해.
 B : 그럼 점심은 어때?
 A : 점심은 학교에서 먹게 될 거야.
 B : 시간이 없는 거야? 나랑 같이 밥 먹기가 싫은 거야?
 A : 무슨 그런 말을 단지 선약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5.3. 간접 대화행위의 결정 기준

- ① 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위이다.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힘이 우월한 사람에게는 훨씬 더 간접 대화행위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 ② 사회적 거리: 지위나 나이, 성별, 친근감 등과 같은 심리적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정중함의 정도와 관련된 용어이다. 사회적인 거리가 먼 경우에는 사회적인 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보다 더 간접 대화행위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 ③ 부담의 크기: 상대방이 우리가 하는 요구를 받아들일 때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는가에 따라 간접성의 정도가 높아진다.
- ④ 권리나 의무: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간접 대화행위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아진다. 그러나 권리가 아닌 것을 요구할 때는 간접 대화행위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힘이나 사회적 거리, 부담의 크기, 권리나 의무 따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인간관계를 유도해 가는 경향이 있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직접 대화행위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6. 대화분석: 대화의 구조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은 사회 구조를 연구하고자 하는 일군의 미시사회학자들에 의해 대화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인 약속으로서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대화에서 발언할 기회(turn)를 어떻게 포착하여 발언권(floor)을 차지하며, 대화 중 어떻게 말할이가 교체되며(turn-taking), 대화에서 발언권이 바뀌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지점(Transition Relevance Place)이 어디인지 등에 관해 연구하여, 귀납적으로 대화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6.1. 순서 교대

대화는 반드시 말할이와 들을이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역할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순환되어야 한다. A가 이야기하다가 멈추면, 또 다른 참여자인 B가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A \rightarrow B \rightarrow A \rightarrow B \rightarrow A \rightarrow B$ 가 차례로 말을 하는 교대가 나타난다. 이것을 순서 교대(turn taking)라고 한다.

첫째, 모든 대화의 참여자는 말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둘째, 대화 교대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된 것이 아니다.

셋째, 순서 교대는 대화 중복이나 대화의 중단 없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약간의 대화 중복이나 대화의 중단이 나타날 수도 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함께 말하는 중복이 자주 일어나지만, 그 시간은 짧다.

넷째, 중복이 일어난 대화나, 말하는 도중에 누가 끼어들어서 간섭을 받은 대화에는 교정장치가 작동된다. 두 사람이 한꺼번에 말을 시작했을 때는 그 중 한 사람이 재빨리 말을 멈춤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일종의 교정 장치이다.

다섯째, 한 사람이 말할 때 대화의 길이도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다.

여섯째, 대화는 연속적일 수도 있고, 비연속적일 수도 있다. 하나의 화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화제가 하나 뿐인 대화는 거의 없고, 이 화제에서 저 화제로 다양하게 이야기된다. 누구나 화제를 바꿀 수 있다.

색스·쉐글로프·제퍼슨(Sacks, Shergloff & Jefferson 1974, 1977)에서는 순서 교대를 지배하는 규칙이 있다고 하였다.

규칙 1 : 어떤 순서의 교체 적정 지점에서 적용된다.

(a) 만일 현재의 말할이가 다음 말할이를 선택하고 나면, 현재 말할이는 말하기를 멈추어야 하며, 다음 말할이가 말을 해야 한다. 순서가 바뀌는 것은 다음 말할이를 선택한 다음 처음 나타나는 교체 적정 지점에서 일어난다.

(b) 만일 현재 말할이가 다음 말할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대화 참여자 가운데 누구라도 다음 말할이로 나설 수가 있다. 제일 먼저 나선 말할이가 다음 순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c) 만일 현재 말할이가 다음 말할이를 선택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현재 말할이는 말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규칙 2 :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모든 교체 걱정 지점에서 적용된다.

현재 말할이에 의해 규칙 1(c)가 적용되면, 다음 교체 걱정 지점에서 규칙 1(a)-(c)가 적용되고, 또 다음 교체 걱정 지점에서 순환적으로 적용되는데, 이 순환은 말할이가 바뀔 때까지 반복된다.

6.2. 대화의 중복

말할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말을 시작해서 둘 이상의 말할이가 얼마간 동시에 말을 하는 경우를 대화의 중복(overlap)이라 한다.

6.2.1. 중복의 발생

첫째, 중복은 대화의 시작이나, 새로운 화제가 도입되었을 때, 처음 대화를 시작하려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둘째, 현재 말할이의 말이 끝난 것으로 알고 다음 말할이가 대화를 시작했지만, 현재 말할이가 말을 계속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셋째, 현재 말할이가 말하는 것에 덧붙여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넷째, 같은 화제이지만 다른 말을 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다섯째, 응답이 늦어져서 또 다른 발언을 시작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여섯째, 현재 말할이가 아닌 다른 참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경우에 나타난다.

6.2.2. 중복과 방해

대화의 중복은 우연한 중복과 고의적인 방해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연한 중복은 아무런 의도 없이 나타난 중복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대개 현재 말할이나 중복을 일으킨 말할이가 발언을 중단함으로써 중복을 수정한다. 그러나 현재 말할이가 대화를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말을 시작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대한 방해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연히 나타난 경우와 고의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표정이나 태도와 같은 동작언어를 통해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6.2.3. 적극관여형과 심사숙고형

태넨(Tannen 1990)에서는 대화의 유형을 ‘심사숙고형(high considerateness style)’과

‘적극관여형(high involvement style)’으로 나누었다. 심사숙고형은 자신의 대화 차례가 되어서도 조금 시간을 끌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보다 먼저 다른 말을 해서 중복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적극관여형의 사람이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지지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중간에 말을 하고 나섰을 때 심사숙고형은 자신의 발언권을 뺏으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대화를 중단하고 만다. 이런 경우는 우연한 중복인지 고의적인 방해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6.3. 대응쌍

순서 교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말할이와 다음 말할이 사이의 협동이다. 이들 사이의 순서 교대는 대응쌍(adjacency pair)을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것은 질문을 하면 대답하고,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 행동하거나 변명을 하고, 제안을 하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고,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는 것과 같이 일상적으로 대화에서 나타나는 묵시적인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쌍이다. ‘주는 말’에 대해 ‘받는 말’이 쌍을 이루고 있어서 대응쌍이라고 하며, 대화의 최소 단위가 된다.

셰글로프·색스(Schegloff & Sacks 1973)에서는 대응쌍의 특징과 규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 인접해 있다.
2. 서로 다른 말할이에 의해 발화된다.
3. 주는 말과 받는 말로 순서가 이루어진다.
4. 유형화되어 있다. 그래서 특정한 주는 말에 대해서는 특정한 받는 말로 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는 말이 ‘인사’이면 받는 말은 ‘인사’여야 하고, 주는 말이 ‘질문’이면 받는 말은 ‘대답’이어야 한다.

대응쌍의 주는 말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받는 말이 모두 같은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선호범주(preferred category)와 비선호범주(dispreferred category)로서 순서를 정할 수가 있다. 선호적인 받는 말은 무표적이어서 더 단순한 구조로 표현되는데, 비선호적인 받는 말은 유표적이어서 더 복잡한 구조로 표현된다. 비선호적인 받는 말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1. 지연: 말을 시작하기 전에 휴지(pause)를 오래 두거나, 머뭇거리는 말을 사용한다.

2. 서언: (1) 비선호적 표현의 표지인 ‘글쎄, 어, 저’ 등을 사용한다.
(2) 대립되는 의견을 말하기 전에 형식적인 동의 표시를 한다.
(3) 제안, 초대, 제시, 충고 등과 관련이 있을 때는 감사의 표시를 한다.
(4) 요청이나 초대 등과 관련이 있을 때는 사과 표시를 한다.
(5) ‘잘은 모르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등과 같이 유연화시키는 표현을 한다.
(6) 여러 가지 형식으로 주저하는 표현을 한다.
3. 변명: 비선호적 표현이 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세심하게 설명한다.
4. 사절: 대응쌍의 주는 말의 본질에 맞는 형식으로 간접적이거나 부드러운 표현으로 약화시켜 표현한다.

6.4. 대화의 조직

일반적으로 대화는 시작부와 중심부, 그리고 종결부로 조직되어 있다. 시작부는 대화의 통로를 여는 부분이고 중심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주고받는 부분이며, 종결부는 대화의 통로를 닫는 부분이다.

6.4.1. 시작부

시작부는 대화를 시작하는 부분이다. 대화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고 대화하기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따라서 ‘호출-응답-연결’의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대화를 하고자 하는 쪽, 즉 먼저 말을 건네는 쪽이 호출자가 되고, 그것에 응답하는 쪽이 응답자가 되는데, 이때에 쓰이는 신호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관용적인 것들이다.

6.4.2. 중심부

대화를 시작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목적과 용무를 수행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길이가 길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특성을 갖는다.

시작부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제1 화제가 등장한다. 이 부분에서는 화제 제약 조건이 작용되지 않으므로 어떤 화제라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하나의 화제가 이야기되는 동안에는 화제 제약 조건이 적용된다. 따라서 첫째, 화제 비약이 일어나서 대화의 결속력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둘째, 선호적 대화는 한 사람 A가 어떤

화제 X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 B가 다른 화제 Z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면, 두 화제 X와 Z가 Y라는 화제 범주에 속해서 자연스러운 결속력을 가지도록 이야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두 사람이 같은 화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같은 일이나 같은 지시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즉 공지시성(co-referentiality)을 갖는 것이거나 같거나 관련된 개념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 즉 공유된 개념을 갖는 것이다.

일단 하나의 대화 화제가 확립되어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그 화제를 중심으로 하여 화제가 조금씩 변하여 가는 것을 화제의 전이(topic transition)라고 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화제로 옮겨가는 것을 화제의 전환(topic change)이라고 한다.

화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는 화제를 바꾼다는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이것은 말할 이가 새로운 화제를 갑작스럽게 생각해 났음을 표시하고 주의를 끌 수 있는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맞아.”, “아니 (근데)”, “그러나 저러나”, “그나저나”, “하여튼”, “어쨌든” 등이 화제 전환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된다(박성현 1996).

6.4.3. 종결부

종결부의 일반적 형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앞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상대방 가족에게 안부를 부탁하는 것과 같이 대화가 끝나간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로 화제를 마무리한다.

둘째, “그래.”, “좋아.”, “알았어.” 등과 같이 종결을 준비하는 표현(pre-closing items)이 대응쌍을 이룬다. 이 대응쌍의 주는 말은 상대방에게 혹시 보류된 말이 있으면 하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받는 말은 보류된 것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대화 종결에 대해 상호 동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셋째, 마무리하는 인사를 서로 교환한다.

7. 대화의 원리

대화의 원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학자는 그라이스(Paul Grice)이다. 그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여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에서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묵시적인 지침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것을 격률(maxims)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Grice

1975, 1978). 그라이스는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협동의 원리와 네 가지 기본 대화 격률을 제시하였는데, 이것들은 대화의 결속성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7.1. 협동의 원리

협동의 원리(The Co-operative principle)는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상호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지금 하는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향한다고 생각되는 목적이나 방향의 요구에 합치되도록 말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목적을 파악하고, 그 목적에 맞는 대화, 대화의 흐름과 일치되는 대화를 통하여 결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말을 듣는 사람은 상대방이 한 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목적이나 상황에 맞는 결속성이 있는 말로써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대화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의도를 ‘대화상의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s)’이라고 한다. 대화상의 함축은 말해진 것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암시하거나 함의할 때 전달되는 지식이다. 대화상의 함축은 어떤 격률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거나 명백히 도외시하거나 따르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 발생하며, 특히 의도적으로 도외시하는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크다.

7.2. 양의 격률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은 필요한 양만큼의 정보성만을 제공하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성을 가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보성을 갖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새롭거나 예측 불가능한 지식을 전해 주는 것을 뜻한다. 대화가 오가는 동안 정보의 공유 현상이 진행되게 된다. 이것은 언어가 갖는 기능 가운데 대표적인 정보 전달의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우리가 대화를 통해 서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서로를 알아 가도록 해 주는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러나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여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발설하거나 최소한의 정보도 주지 않는 경우 수량의 격률을 위배하게 되며, 이것은 바람직한 대화를 가로막는 것이 된다.

7.3. 질의 격률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은 진실성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사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타당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기준은 대화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것들도 역시 대화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질의 격률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의무로 간주된다. 질의 격률을 위배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오는 것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7.4. 관련성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은 적합성이 있는 말을 하라는 것이다.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최소한 주어진 주제와 관련이 있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이다. 사실상 대화를 이루는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성의 격률을 지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겐 협동의 원리나 양의 격률, 질의 격률 따위를 어기고 있는 것도 관련성만 있다면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격률을 지키고 있어도 관련성이 없다면 허용될 수 없다.

7.5. 방법의 격률

방법의 격률(The maxim of manner)은 한 마디로 간단·명료하라는 것이다. 말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이다. 방법의 격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표현의 모호성(obscurity of expression)을 피하라는 것이다. 모호성이 나타나는 원인은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모호한 것보다는, 그 생각을 밖으로 나타낼 때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 하는 데에 있다.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동기는 상대방에게 지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려는 경우이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경우이다.

둘째, 중의성(ambiguity)을 피하라는 것이다. 중의성이란 한 가지 표현이 하나 이상

의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많은 자연 언어의 표현들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중의성은 어떤 의미가 실제로 의도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만 생긴다.

셋째, 간결하라는 것이다. 양의 격률이 얼마만큼의 정보를 말할 것인가에 관련한다면, 간결성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관련한다.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고, 간결하게 표현하라는 것이다.

넷째, 조리 있게 순서대로 말하라는 것이다. 즉 말하고자 하는 자료들을 상황에 맞게 순서에 따라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보편적 순서 전략(normal ordering strategies)’이 있다는 사실로도 대화의 일반적 조건임을 입증할 수 있다.

8. 정중어법과 체면

정중어법(Politeness Principle)이란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 공손하고 예절 바르게 주고받는 말의 태도를 말한다. 정중어법은 호칭이나 높임법과는 달리 일정한 언어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하는 말할이가 들을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와 관련되는 것이다.

8.1. 정중어법의 격률

정중어법이란 한 마디로 상대방에게 정중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리치는 정중어법을 이루는 격률을 요령의 격률과 관용의 격률, 찬동의 격률, 겸양의 격률, 동의를 격률, 공감의 격률로 나누어 설명하였다(Leech 1983).

① 요령의 격률

요령의 격률(Tact maxim)이란 들을이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들을이에게 혜택을 베푸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들을이에게 부담이 큰 내용을 말할 때는 최대한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들을이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인데, 이

것이 정중한 어법을 만드는 것이다.

(10) A : 효경 씨, 오늘 시간 좀 내 주실 수 있으세요?

B : 왜요 ?

A : 그냥,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② 관용의 격률

관용의 격률(Generosity maxim)은 요령의 격률을 말할이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곧, 언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지게 될 짐을 자신이 지라는 것이다.

(11) a. 좀 크게 말하세요.

b. 제가 부주의해서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③ 찬동의 격률

찬동의 격률(Approbation maxim)은 들을이를 비난하거나 트집을 잡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들을이를 칭찬하고 맞장구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④ 겸양의 격률

겸양의 격률(Modesty maxim)은 찬동의 격률을 말할이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말할이 자신을 칭찬하는 말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말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⑤ 동의의 격률

동의의 격률(Agreement maxim)이란 상대방과 불일치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과 일치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⑥ 공감의 격률

공감의 격률(Sympathy maxim)이란 상대방과의 반감은 최소화하고, 상대방과의 공감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8.2. 체면 세우기 원리

8.2.1. 체면의 개념

체면이란 공적으로 지켜지는 개인의 자존심을 말한다. 이 자존심은 긍정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것이다(Goffman 1967).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가치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지되고 하지만, 손상을 받기도 한다. 체면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것이다. 적극적인 체면(positive face)은 자립적, 독립적 주체로서 한 사람의 신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인 반면에, 소극적인 체면(negative face)은 한 사람이 외부의 간섭이나 부당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선택한 일을 하는 자유를 누리하고자 하는 것, 곧 방해받지 않으려는 욕구를 말한다. 정중어법도 ‘친교’를 강조하여 체면을 세워 주는 방법인 결속 정중어법과, ‘독립’을 강조하여 체면을 세워 주는 방법인 존경 정중어법으로 나눌 수 있다.

8.2.2. 체면 손상행위의 요인

체면 손상행위(face threatening acts)란 요청을 거절하거나 누군가를 꾸짖는 것과 같은 말을 통하여 상대방의 적극적 체면이나 소극적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체면 손상행위의 강도 = 힘 + 사회적 거리 + 부담의 크기

(12) A : 야, 너 민수 아니야? 자식, 이게 얼마 만이니?

B : 아, 누구시더라? 배용준 씨 아니십니까?

이거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8.2.3. 체면 세우기의 책략

- 1 단계: 보상적인 표현 없이 노골적으로 체면 손상행위를 하라.
- 2 단계: 체면 손상행위를 하려면 적극적 정중어법을 사용하라.
- 3 단계: 체면 손상행위를 하려면 소극적 정중어법을 사용하라.
- 4 단계: 체면 손상행위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암시적으로 하라.
- 5 단계: 체면 손상행위를 하지 말라. ~~체면~~

<참고문헌>

- 구현정. 2009[1997]. 『대화의 기법』. 도서출판 경진.
- 김중택. 1982. 『국어화용론』. 형설출판사.
- 김태자. 1987. 『발화분석의 화행의미론적 연구』. 탑출판사.
- 김태자. 1989. 「간접화행과 대화적 함축」, 국어학 18. 국어학회.
- 김태자. 1993. 「맥락 분석과 의미 탐색」, 한글 제219호. 한글학회.
- 박성현. 1996. 「한국어 말차레체계와 화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박용익. 1998. 『대화분석론』, 한국문화사.
- 손호민. 1983. Power and solidarity in the Korean language, *Korean Linguistics* 3. Hanshin Publishing.
- 손호민. 1988. Strategies of indirection in language, *Linguistics in Morning Carn* 2. Hanshin Publishing.
- 임지룡. 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 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장경희. 1990. 「국어 발화의 확대 해석」, 한글 제209호. 한글학회.
- 장석진. 1985. 『화용론 연구』. 탑출판사.
-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ch, K. and Harnish, R. M. 1979. *Linguistic communication and speech acts*. Cambridge, The MIT Press.
- Brown, G. and Yule, G. 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P. & Levinson, S.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rd, C. E. and Thomson, S. A. 1995. Interactional units in conversation: syntactic, intonational, and pragmatic resources for the projection of turn completion. Ochs, E., Schegloff, E., and Thompson, S. A. (eds.), *Interaction and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ffman, E. 1967.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to-face behavior*. New York, Doubleday Anchor Books.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Cole, P. and Morgan, J. L.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41-58.
- Gumperz, J. J. 1982.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ritage, J. 1984. *Garfinkel and Ethnomethodology*. Cambridge, Polity Press.

- Leech, G.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hrabian, Albert. 1972. *Nonverbal communication*. Chicago, Illinois, Aldine-Atherton.
- Sacks, H., Schegloff, E. A., and Jefferson, G. 1974.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 696-735.
- Schegloff, E. A., Jefferson, G., and Sacks, H. 1977. The preference for self-correction in the organization of repair in conversation. *Language* 53:2, 361-382
- Searle, J. R.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arle, J. R. 1975. Indirect speech act, Cole, P. and Morgan, J. L.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59-82.
- Searle, J. R. 1979. *Expression and meaning studies in the theory of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egloff, E. A. and Sacks, H. 1973. Opening up Closings, *Semiotica* 8, 289-327.
- Tannen, D. 1984. *Conversational style: analyzing talk among friends*. Norwood, NJ, Ablex.
- Tannen, D. 1986. *That's not what I meant!: how conversational style makes or breaks your relations with others*. New York, William Morrow. (이용대 옮김. 1992. 『내말은 그게 아니야』. 사계절.)
- Tannen, D. 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New York, William Morrow. (정명진 옮김. 1992. 『당신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한·언.)

통역 · 번역, 이론과 실제

-한국어를 중심으로-

최미경

〈차례〉

1. 언어와 통·번역

1) 통·번역이란

2) 통·번역의 대상

3) 통·번역의 요소

가. 언어 이해

나. 인지적 요소(주제 지식+백과

사전적 지식)

다. 문맥, 상황

2. 한국어 통·번역의 실제-한국문학

번역을 중심으로

1) 한국문학 번역의 상황

2) 문학 번역 교류

1. 언어와 통·번역

1) 통·번역이란

여러 언어를 사용한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이 인류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발화자들끼리의 소통이 가능하고, 인류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언어 간을 매개하는 통역과 번역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말하는 통·번역은 고도의 숙련된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발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전문가에 의해 진행이 된다. 현대에 와서 전문적인 통·번역 수행을 위해 통·번역사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언어 숙달, 주제 학습, 통·역 전문 연습 교육을 받는다. 뛰어난 언어능력은 기본 조건이며 통·번역 작업을 하게 되는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학습한다. 통역과 번역은 크게는 같은 작업이지만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구별이 된다. 통역은 단지 극히 제한된 시간에 정보를 전달해야 하므로 순간적인 언어 역량 동원의 부담이 크고 수행자의 순간 인지력, 분석력, 순발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통역과 관계되는 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속도, 억양, 음량, 높이, 방언 사용 여부 등 개인적 요소와 해당 말의 고유의 체계가 혼합되어 있다. 반면에 글은 표준화가 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맞춤법을 존중하며 사용한다.

통역의 대상인 담화, 발표문의 경우, 자연스런 속도로 말할 경우 1분에 언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120~200 단어를 처리하게 된다. 또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와 이미 준비된 원고를 읽는 속도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이 바로 말과 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어의 발화 상황이므로 언어적 소통 외에 표정, 억양, 몸짓 등이 의사 전달에 활용될 수 있으며, 구어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연스러움과 더불어 언어적인 실수가 포함될 수도 있다. 아주 직업적으로 훈련되었으며, 논리적인 연사들조차도 더듬거나 발음의 오류가 있거나 비논리적인 연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즉흥적인 연설의 경우, 앙드레 말로나 드골과 같은 저명한 연사들조차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강연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현대에 와서 통역을 위한 연설문은 대부분 미리 작성되고, 또 파워포인트 등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통역이라도 문자화된 글, 정형화 된 형태의 글을 다루고 그 글을 그대로 거의 번역하듯이 통역하는 일이 많다.

반면에 표준화되고, 그 규범이 더 엄격한 문장을 다루게 되는 번역 작업은 도착어의 표현의 완성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글쓰기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번역의 분야가 기술이나 실용이 아닌 문학 번역인 경우 그러하다. 번역의 방법은 동일하지만 분야에 따라서 재표현이 더 정교하고 완벽성을 추구해야 한다.

통·번역사의 언어를 구분하는 방식으로는 모국어 A, 모국어 수준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나 표현력에 있어서는 모국어 발화자가 갖는 자연스러움이 부족한 언어 B, 이해력은 A나 B언어의 수준이나 표현력에 있어서는 B언어에 미치지 못하는 언어를 C 언어라고 한다. 통역이나 번역은 보통 B→A, C→A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또 재표현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습득된 언어에 대해서 능동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 외에 통역과 번역이 진행되는 언어의 방향에 따라서 출발어(langue de départ/Source Text), 도착어(langue d'arrivée/Target Text)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럼 이제 바로 통·번역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2) 통·번역의 대상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번역하는가? 일반적으로 출발언어를 통·번역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언어는 추상적인 대상으로 어휘, 발음 체계,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언어의 개인적인 사용을 통해 발화할 때 현동화(activation)된다. 소쉬르 언어학에서 말하는 랑그·빠롤(langue·parole)의 개념이다. 우리가 한 언어를 통·번역한다고 하면 랑그를 통·번역하는 것인가? 랑그는 통·번역이 가능한가? 한국의 어휘, 문법, 발음 체계를 일본어, 몽골어로 다 옮길 수 있는가?

예) 한국어 사전에 어머니의 단어에 실려 있는 모든 의미의 장을 일어, 몽골어도 공유하는가? 한국어 사전에 어머니는 불어로는 “mère, origine, cause, source” 등으로 쓰인다. 즉 한 언어의 단어는 그 단어가 다른 언어로 사용될 때 꼭 같은 의미의 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을 꼭 같이 다 옮길 수 없다. 그렇다면 번역이 불가능한가? 실제로 통·번역은 실제로 매일 지구에서 수행이 되고 있다. 통·번역이 가능한 것은 1개의 단어가 1개의 문장에서, 또는 하나의 문맥 내에서 1개의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영어 “free”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형용사로서,

1. 자유스러운, 속박이 없는,

2. 감옥에 갇혀있지 않은, 혐의를 받지않는
3. 편견이 없는, 전통, 권위 등에 사로잡히지 않는
4.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마음대로의
5. 개방된, 통과가 자유로운, 통행 등에 장애가 없는
6. 아낌없는, 손이 큰, 풍부한, 아쉬움 없이 가진
7. 걱정, 위험 등이 없는
8. 한가한, 방 등에 선약이 없는
9. 문제, 작품 등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10. 고정되지 않은
11. 순풍의
12. 무료의, 면세의
13. 제멋대로의, 조심성이 없는, 단정하지 못한
14. 솔직한, 허물없는
15. -을 함유하지 않은, -이 없는
16. 세공하기 쉬운, 경작하기 쉬운

동사로서,

1. 자유롭게 하다, 석방하다
2. 구하다.
3. 제거하다. 치우다

등의 다의성을 띠고 있다. 즉 영어의 “free”라는 단어와 한국어의 “자유”라는 단어는 동일한 어역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free”라는 단어는 번역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단어가 한 문장, 한 문맥 내에서 사용이 되면 위의 다양한 뜻 중에서 1개의 뜻을 취하게 되고 그 뜻을 구현하는 한국어 단어를 골라서 사용하면 통·번역이 되는 것이다.

예) caffein free; internet free zone; smoke free zone; free Kim Daejung!

He is free with his money. (그는 돈을 잘 쓴다?그는 돈에서 자유롭다?)

I'll be free in the afternoon. (오후에 시간이 괜찮다? 오후에 나는 자유로워진다?)

The accused left the court a free man. (피고는 무죄의 몸으로 법정을 떠났다? 피고는 자유의 몸으로 법정을 떠났다?)

Do you have any rooms free? (빈방이 있어요? 무료의 방이 있어요?)

위의 예들을 통해 우리는 통·번역이 다루는 대상은 언어가 아니며, 또 통·번역을 시행할 때 고립된 단어가 아니라 문맥, 또는 담화 상황 속의 구, 문장, 나아가 전체 텍스트(담화)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언어의 상태에 있는 단어, 구 등을 해석이 가능하며, 통역·번역이 가능한 상태로 변화시켜 주는가?

3) 통·번역의 요소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다의성을 제거하는 담화의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가. 언어 이해
- 나. 인지적 요소(주제 지식+백과사전적 지식)
- 다. 문맥, 상황 이해

가. 언어 이해

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 규칙을 통해서 문장 및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예) “마치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것처럼 빠르게 말을 이어가던 여자는 뼈저덕 소리를 내는 나무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유가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개가 뒤따라 나가자 그녀는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개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인가를 속삭였다. 포플러 나무 잎처럼 생긴 큰 귀를 가진 개는 마치 그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꾸르릉 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잡풀이 우거지고 바람이 행하니 부는 폐교의 운동장을 가로질러 갔다. 뒤따르던 개는 교문 앞에서 멈추더니 엉덩이를 땅에 대고 앞발을 바짝 세우고 앉았다. 모르긴 해도 아주 오랫동안 그런 자세로 앉아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곳이 어디든, 이승우, 189쪽.>

이 인용문은 작품의 중반부에서 발췌가 되었으며 앞뒤의 맥락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지만 언어적인 요소들을 통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1. 등장인물: 유, 여자, 개
2. 장소: 폐교 교실, 복도, 운동장
3. 내용 요약: 유가 여자를 불렀지만 여자는 따라온 개에게 한두 마디 컷속말을 하고는 폐교의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 버렸다. 개는 앉은 자세로 그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4. 이해 확인용 질문:
 - 1) 여자는 어떤 성격의 주인공?
 - 2) 남자 주인공의 자세는?
 - 3) 개는 누구의 개인가?
5. 문체의 특성

- 1) 긴 문장이 많은가?
- 2) 독특한 표현이 많은가?
- 3) 연결부분, 문장의 논리는 명확한가?
- 4) 위의 문장을 통해 이 작가의 문체의 특성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가?
- 5) 수사학 효과:
 - 마치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것처럼 빠르게 말을 이어가던 여자
 - 포플러 나무 잎처럼 생긴 큰 귀를 가진 개

또 하나의 예는 문법적 요소를 얼마나 섬세하게 이해하느냐가 작품 이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는 화성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을 주제로 한 범죄 심리 영화로 경찰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부분을 잘 읽어보면 한국어적 특성 때문에 발견되는 모호성이 있다. 또 이로 인해 얼핏 들었을 때 범인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자세히 언어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나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고 싶은 형사 반장은 피의자의 진술의 언어 형태에 대해 깊이 주의하지 않는다. 우선 형사반장이 광호에게 살인의 범죄를 물으며 심문하는 장면의 대화를 보면:

광호, 얼굴 애기가 나오자 어느새 눈물이 그렇그렇 맺히더니…….

광호: …… 내 얼굴 보구 쩡그린 여자들…… 다 죽여 버릴거야…….

순간 들고 있던 소형 녹음기의 스위치를 재빨리 켜는 용구, REC램프가 빨강게 켜진다.

광호: 나 보구 쩡그린 애들, 전부 다 죽여버려…… 흐흑…….

두만: 그래서…… 다 죽인거야? 여자들을?

광호: ……누굴?

두만: 다 죽인다며? 여자들…….

광호: …….

두만: 죽은 이향숙이두 니 얼굴 보구…… 짹-쩡그렸구나? 그치?

광호: (끄덕끄덕) …….

두만: 넌 향숙이가 좋아서 맨날 따라다녔는데……. 그런 향숙인 니 얼굴만 보면…….

(얼굴 쩡그리며) 이런단 말야. 그치?

광호: (끄덕) …….

두만: 그래서 죽여버렸다. 그지?

뭔가가 생각나는 듯, 삼질을 멈추는 광호… 멍한 시선이 허공에 머문다.

광호: 참깨밭에서.....
두만: 그래 맞아. 참깨밭..... 어떻게 했는데?
광호: 목을 향숙이 목을 짹-짹- 즐렸어.
두만: 뭘로?
광호: 부라자..... 향숙이 하얀 부라자로.....
두만: 그러구?
광호: 스타킹..... 스타킹 벗긴 걸루 또..... 짹..... 조른다.
두만: 그래 맞아! 스타킹. 두 번째 조른게 스타킹이야.....
(태운 향해) 야-이 새끼 보기 보단 기억력이 좋네? 머리 좋아.....
광호: 이..... 이.....

서서히 몸을 떨기 시작하는 백광호. 보고 있는 태운의 눈빛도 날카로워진다.

두만: 그러구 또.....
광호: 뭐드라..... 그게 뭐드라..... 무슨 끈 같은거.
두만: 핸드백 끈?
광호: 맞아 백끈..... (울것처럼) 그걸루 또 목을 막 조르는데.....
두만: 그랬더니?
광호: (울먹울먹하며) 그러니까 향숙이가..... 몸을 약간 부르르 떨더니.....
완전히 죽은거 같드라구.....
두만: 그래서?

울먹이다가 말고 갑자기 씨익-웃는 광호, 소름끼치는 미소.

광호: 향숙이 머리에 (손을 들어 머리에 올리며) 머리에 씌운다..... 히
히.
두만: 뭘?
광호: 향숙이 뺨스를..... 히히..... 뺨스를 모자처럼 씌우더라구.
두만: 거들말이지. 거들?
광호: 맞아, 거들. 히히..... 그걸 향숙이 얼굴에다 쓱-덮어 씌우던데.....
두만: 그러구선 ?
광호: 벗긴 옷을..... 다시 입힌다.....
두만: 그건 왜 그랬어?
광호: 몰라. 다시..... 입혔다. 다시.
용구: (짜증) 왜 그랬나니까?
광호: 나야 모르지.....
용구: (버럭) 아니 이새끼가 잘 나가다가.....
두만: 똑바루 말해 임마! 그 다음에 어떡했어!

후반부에 화상을 입고 장애가 있어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광호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살인 사건시에 알리바이가 있어 무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나는 부분에서 다른 형사가 취조시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듣게 된다. 이때에 형사들과 관람객은 비로소 광호가 사용한 피동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부분의 번역시에는 특히 조심을 하여 영화의 내용과 결말에 뜻밖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어 특유의 수동태 사용 방식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 한국어는 수동태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언어로서 번역시에는 적절하게 능동태로 바꿔야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그런데 이 경우 향숙이라는 주인공에 대해서 수동태를 사용한 것은 심문받는 대상이며 대화의 발화인인 광호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수동태를 사용한 것이고, 이 경우 능동태로 바꾸게 되면 뜻이 달라지는 오류가 발생한다.

여기서 한국어 교유의 특성으로 번역시 참고해야 하는 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는 주어가 생략된 구문이 많다.

- 예) - 태풍이 서울을 강타해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
- 개 산책을 하다가 사촌 동생을 마주쳤다.
- 국가의 부를 위해서 국민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공공의 이익이 상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점심 하셨어요?
- 제대로 잘 하라고 했지?
- 잘자라.

한국어의 일상적인 구문에서 주어를 표기 하지 않아도 동사의 형태, 문장의 뜻에 따라 주어를 파악해야 하는 형태이다. 번역시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적절한 주어를 복원시켜야 한다. 한국어의 주어 생략 관행을 이해하지 못해 시 등에서 화자가 바뀌거나 대사의 주인공이 바뀌는 등의 번역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한국어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 단체적 의지를 표시하는 듯한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나”의 표현일 뿐이다.

예) 우리 남편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남편은 근사해)

위의 예에서 일부다처제가 불가능한 한국의 현실에서 한 명의 부인과 한 명의 남

편이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습관상 “나”를 대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경우 그냥 “남편은”이라고 소유 형용사 없이 사용해도 나의 남편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2. 한국어는 동적인 표현을 즐기기 때문에 수동태가 원칙적으로 거의 없으며, 추상 명사나 사물 주어가 오는 것을 싫어한다. (영어는 불어에 비해 정적이며, 불어는 더 정적이다.)

예) Beer is made from barely.

맥주는 보리로 만든다. (맥주는 ~~보라로~~ 만들어진다.)

예) His attitude was enough to cool down our ardor for it.

그의 태도를 보고 우리는 완전히 김이 섰다. (이희재, 번역의 탄생)

3. 한국어는 대명사 사용이 적으며 동사, 명사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영어, 특히 불어와 달리 한국어는 문체에서 반복이 빈번한 것을 수용한다. 한국어에서 그나 그녀와 같은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이며 이전에는 인칭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한국어를 출발어로 번역을 시행할 적에는 한국어의 이런 반복적 요소를 그대로 번역하면 도착어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불어의 경우, 서구어 중에서 극단적으로 반복의 형태를 싫어한다. 이런 경우 한국어의 반복된 명사는 대명사 처리를 해야 한다.

4.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한국어 나름의 문장 전개 논리가 있다. 거시적 내용들을 먼저 제시하고 미세한 사항들로 내용을 전개하기 때문에 거시적 내용에서 나오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부연 설명 및 논리 연결을 하는 방식에서 산란함 또는 논리적 비약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서구어가 사소한 사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깊이와 범위를 확장하며 논리를 전개하는 양식과 다르다. 한국어 문장의 번역시 논리적 비약이 심해서 이해를 저해하지 않도록 서구 논리를 파악 적절한 타협을 해야 한다.

*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이야기 하면서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어의 문법적, 언어적 요소를 작가의 특정 문체와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반복을 사용한 경우라면, 문체 효과에 포함이 되는 것이어서 반복이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의도가 없이 한국어적 특성 때문에 발생한 반복의 경우는 정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인들이 주어 없이 문장을 말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의미상의 주어가 항상 존재한다.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점은 번역의 대상은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를 현동화하여 사용한 담화, 텍스트라는 것이다.

나. 인지적 요소(주제 지식+백과사전적 지식)

이해에 도움을 주는 언어 외적인 요소의 총칭으로 주제 지식, 사전 지식, 상식, 이해력, 분석력 등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마리안 레더레에 따르면,

“Les éléments pertinents, notionnels et émotionnels, du bagage cognitif et du contexte cognitif qui s’associent aux significations linguistiques des discours et des textes pour constituer des sens. Ils sont aussi indispensables à l’interprétation de la chaîne sonore ou graphique que la connaissance linguistique.” <La traduction aujourd’hui, p. 212, Hachette>

(인지적 지식과 맥락지식 중에서 연설문이나 텍스트의 이해에 필요한 지적, 감성적인 요소들로 언어적 의미와 결합하여 총괄적 의미를 구성한다. 통역, 번역시에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음성이나 문자의 고리를 해석하는 데에 이 요소들은 언어적 지식만큼이나 필수적이다.)

인지적 지식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관념적 지식과 감성적 지식의 통합체로 이 지식은 한 개인이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일생동안 습득하게 된다.

1. 개인의 경험적 지식 등 체험을 통해서
2. 독서, 교육, 대화,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얻는 지식
3. 독자적인 사고

영어의 World Knowledge와 Encyclopaedic Knowledge가 바로 인지적 지식에 해당되며, Background Knowledge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적절한 인지적 지식이 것이다.

적절한 인지적 지식의 여부가 연설문이나 텍스트의 이해력을 좌우하게 된다. 인지적 지식의 부재시에 통·번역은 언어 코드 전환 현상으로 환원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최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으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 부분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경제신문>

위의 텍스트에는 몇 개의 금융, 재정 관련 용어가 등장한다. “지급유예, 지방재정 건전성,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이 그렇다. 재무나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용어들의 의미 맺기 방식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내어 대응 번역을 시도하기 쉽다.

꼭 전문 분야의 통·번역에서만 이런 인지적 요소의 부족으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 대화의 상황에서, 또는 비전문적 분야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언어적 문제가 아닌 인지적 요소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그럼 인지적 요소의 일상생활에서의 이해를 위해 구체적인 발화 상황을 들어보자. “조용한 가족”이라는 한국영화에 나온 대화 몇 구절을 보면 담화 상황에서 언어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사이의 구별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조용한 가족은 호젓한 산자락에 산장을 운영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이다. 손님이 들지 않아 가족은 초조하고 결국 몇몇 손님이 들게 되나 그 산장에서 자살을 하거나 뜻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산장의 이름이 나쁘게 알려지는 것과 산장 주인의 아들이 이미 전과가 있어 혹시 살인자로 몰릴까 두려운 가족은 시체를 비밀 매장한다. 첫손님은 자살을 결심하고 이 산장에 투숙한 중년의 남자이다. 이 손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가족과 손님의 대화가 바로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 감상의 묘미를 느끼게 한다. 우선 손님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단서를 하나 남기지만 약간 둔한 아들(송강호 분)은 포착하지 못한다. 이 손님이 주문한 맥주를 객실까지 가져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삼촌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아 글썄, 이젠 잔돈 필요 없어 이러잖아요. 별거 없어 보이면서 괜히 폼은 잡고 그 래요.”

손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아들은 별로 부유해 보이지 않는 손님이 서비스료를 챙겨준다는 생각에, 손님이 괜히 폼을 잡는다고 이해를 한 것이다. 그러나 손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된 관객들은 “잔돈 필요 없어”보다는 “이젠”이란 부사에 더 관심이 간다. 산장집 아들은 언어적으로 손님의 문장을 이해했지만 인지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 왜 이제는 더 잔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지에 대해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손님은 또 맥주를 가져간 아들에게,

“학생 고독이 뭔지 알아?”

“저 학생 아닌데요.”

고독해 보이고, 체념을 한 듯한 손님의 표정을 보았다면 산장집 아들은 이 문장의 본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신과 관련된 정보인 학생이란 칭호에만 신경이 켜인 산장집 아들은 문장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 대화의 내용을 언어적으로만 이해하지 분석력이 부족한 아들은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 문장의 중요성은 결국 손님이 자살을 한 후에 밝혀진다.

이 예를 분석하면서 우리는 담화문의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에 대해 구분을 했고, 이 대화에 참가한 발화자는 모두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며, 이들의 대화는 지극히 상식적 차원의 것이었다고 동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통역과 번역의 상황에서도 유사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통·번역사의 비언어적 지식의 부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담화문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은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요구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2010년 8월 15일 연합뉴스에는 “10년 만에 돌아온 호박들… 팬들 열광”이란 뉴스 제목이 있었다.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은유로서 호박은 못생긴 여성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호박들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은유가 아님이 확실하다. 본문을 더 인용하자면, “스매싱 펌킨스, 14일 두 번째 내한 공연… 국내 팬들은 이 밴드를 독특하고 재미있는 밴드 이름 때문에 애칭으로 ‘호박들(Pumpkins)’이라 많이 부른다. 그러나 이런 설명을 읽지 않고는 록 뮤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즉 언어적인 표현만으로는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번역시에는 호박들이 의미하는 정확한 대상을 파악하고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번역자가 그 뜻을 몰랐다면 자료를 찾아 부족한 정보를 확충해야 한다. 다시 한번 번역 작업의 언어 외적 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순간이다.

다. 문맥, 상황 이해

언어 지식과 언어 외적 지식, 주제 지식, 백과사전적 지식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문맥과 상황에 대한 이해이다. 다음 문장의 예를 보자.

“안전진단 통과 은마아파트 아파트 값 벌써 들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본격화된다.

서울 강남구는 5일 안전진단자문위원회(위원장 김정태 경희대교수)를 열어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을 최종 결정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날 열린 자문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들이 모두 한국시설안전연구원이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동의해 재건축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총 4424가구로 구성된 은마아파트에 대해 올해 하반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르면 내년 중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 뉴스 3월 2일 기사>

인용된 한국어 기사 제목을 보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가 안전에 대한 정밀 검진을 받았고 그 진단을 통과해서 이 아파트값이 많이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언어적으로만 읽으면 이 아파트가 건축학적 측면에서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본문을 읽게 되면 본문의 내용은 제목과 많이 다르다. 즉 안전 진단을 통과했다는 문맥의 뜻은 실제 언어가 문맥 이전에 가지고 있던 뜻과 정반대가 된다. 안전 진단 결과 안전하지 못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재건축이 결정되는 것이 제대로 된 뜻이다. 안전 진단 통과는 아파트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는 뜻이 된다. 즉 바로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단계를 통과했다는 뜻이다. 언어적 의미는 문맥적 의미의 정반대의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당시 일간지를 읽은 모든 한국인은 이 뉴스의 정확한 뜻을 이해했다. 번역에서 문맥 및 상황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적 의미, 전문 지식, 백과사전 지식 및 문맥,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의미가 도출된다. 번역 작업은 출발어에서 도착어로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닐 출발어의 언어적, 언어 외적 요소들의 합을 통해 의미를 이해한 후 도착어에서 등가의 뜻을 추구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언어적 뜻을 직접 추구하는 것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제대로 된 번역 사이에 어떠한 도착어 표현상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우선 “You pay her?”라는 문장의 경우 각각의 단어별로 대응어를 찾아보자.

You - 당신, 너, 그대.

pay - 지불하다, 치르다. 돈을 내다 ...

her - 그녀에게, 그 여자에게...

하나의 단어들로 분리되어 사용되면 그것은 소쉬르 언어학에서 랑그 차원에서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가능태로 있다. 그러나 각 단어를 연결하여 하나의 문장을 만들게 되면 parole의 차원으로 넘어오게 된다. 대응어는 문장 단위로 구성이 된다.

위의 단어들이 한 문장이 되었을 때,

You pay her?의 뜻은: “그녀에게 돈을 주나요? 월급을 주나요?”가 되는 경우가 가장 무난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문장이 문맥 속에서 사용된 예를 보도록 하자.

The Woman behind the Woman
Art Buchwald

Behind every liberated woman, there is another woman who has to do the dirty work for her.

I discovered this talking to Lila Peabody. Lila works for a law firm from nine to five, or six, or seven, depending on what case she is involved in.

Lila told me she couldn't do it if wasn't for Juanita.

“Who is Juanita?” I wanted to know.

“Juanita takes care of my the house and the children, and cooks our meals. I couldn't work if it weren't for her, and the fact the Safeway stays open until nine.”

“You pay her?”

“Of course I pay her,” Lila said. “Half of my salary goes to Juanita.”

“You mean your husband doesn't contribute to her wages?”

“No, He insists if I want to work I have to pay somebody to do the things I had to give up when I took my job.”

문맥의 내용을 읽어보면 지불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누가 파출부의 월급을 지불하는 질문임을 알 수 있다. 즉 언어적 뜻과 언어 외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 경우 언어적인 대응가만 따져서 번역을 하는 경우,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번역을 하게 된다. 비네와 다르벨네가 말하는 번역의 단계에서 최종적인 단계까지 도달한 번역 방식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랑그나 빠를 차원이 아닌 담화 차원의 번역이 진행된다. 즉 번역의 대상은 언어가 아니며, 현동화된 담화임을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예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보도록 하자.

- 이베이, 옥션 G마켓도 인수/ 공룡 이베이 시장독점
- 이마트, 롯데마트, 삼겹살값 900원대로 복귀 (580원에서...)
- 집에 있으면 더 고생이다.
- 와해성 민간기술 (서비스 로봇, 바이오연료)
- 세계잉여금 2조 채무상환에 쓴다.
- 2루주자는 끝내 홈에 들어오지 못했다. (임수혁 선수)
- 삼성전자, 한중일정부보다 부도위험 낮다.

- 인간 극장 찍는 한나라 (김황식 총리 후보 인사 청문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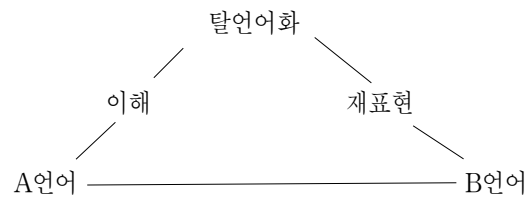
그런가 하면, 저자의 언어학적, 비언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 외에도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하는 문장들이 있다.

- 한명숙 무죄, 검찰 체면 말 아니다.
- 9억원 수사는 5만 달러 부실 수사와 달라.
- 한명숙 무죄, 검찰 할 말 없다.
- 한명숙 무죄, 정치 검찰 개혁 더 미룰 수 없다.
- 한명숙 전 총리 무죄판결
- 일본 제조업 에스맨들이 망쳤다.
- 법원은 정도를 갈 뿐이다. 가장 보수적인 내게 왜 진보라 하나 (춧불판사)
- 살인자를 살인해 무엇을 얻나.

같은 현상을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목을 다는 신문의 경우 명확하게 저자의 의도를 드러낸다. 통·번역시에 실행자는 이런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을 정리하면 한 언어로 씌여진 텍스트, 담화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추출된다고 할 수 있다.

내용 종합, 정보 추출
정보내용 수용, 장악
해당 정보의 인지적 인식
→ 탈언어화, 또는 대상 형상화



J'ai faim/I'm hungry =>

배고파, 배가 고프데, 배가 고파요, 출출한데



2. 한국어 번역의 실제-한국문학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이란 출발어로 쓰여진 하나의 텍스트를 시대, 문화,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며 의미를 파악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종합적, 총체적인 전달 행위이다. 번역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 절대로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어들은 활용되지 않은 언어의 상태에서는 각각 형태, 의미 등의 차이로 인해 서로 간 번역이 불가능하다. 1차적으로 뜻이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의미의 장이 넓게 사용되면 즉시 뜻이 확장된다. 그러므로 번역의 대상은 한 언어를 가지고 작가의 독특한 언어 사용 방식을 통해 쓰여진 담화문, 글, 텍스트임을 잊지 말자.

1) 한국문학 번역의 상황

한국의 경제, 정치적 위상에 비해 문학은 많이 소개 되지 못했으며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도 터무니 없이 문학 소개가 부족하다. 아직도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다양한 역사, 문화 경험, 문학과 문화의 다양성의 진흥을 위해서도 한국문학이 번역 소개되어 세계의 문학지도에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인들의 사회와 문화 경험이 공유되는 것이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언어권의 문화, 문학 감수성을 가능

한 예측 우선적인 작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내에서 명성을 얻은 작가나 작품이라고 해서 도착어 문화, 출판의 특성 및 상황에 맞아 같은 명성을 누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훌륭한 문학작품은 언어권과 무관하게 인정을 받는 보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 문체 등, 특정 언어권에 더 친화력을 갖는 작품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번역하고자 하는 작품과 해외 출판사가 희망하는 작품사이에 괴리에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현재 한국문학의 진출이 한국에서 번역 작품을 선정, 지원 번역하여 해외 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장르별 선별도 해당 언어권에서 호응이 좋은 장르를 더 많이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불어권의 경우 소설 장르에 대한 반응은 좋으나 시나 희곡의 경우는 일반 독자들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번역의 진행에 있어서 서구어의 경우 외국어 원어민의 주도적인 번역 참여가 어려워져서 대부분 한국인 번역자와 외국인 공역자가 협력 작업을 하고 있다. 일부 동양어가 겨우 독자적으로 훌륭한 번역의 생산이 이루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협력 작업의 경우 대부분 다음 과정을 거쳐 번역 탈고에 이른다고 본다.

1차번역(워드 작업/구두) → 공동 번역자(또는 감수자) 교열 → 2차 번역(번역자 검토) → 2차 공동 번역자(또는 감수자) 교열 → 재교육 반복 → 출판사의 최종 교열

문학 텍스트의 번역은 도착어로 문학 텍스트의 생산이어야 한다. 1차 번역자가 최대한 정확하고 문체를 전달하는 번역을 하고 감수자 또는 공동 번역자가 해당 도착어권에서 등가의 문체를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순히 문법이나 어학적 실수를 교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출발어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내용을 도착어의 자연스런 표현으로 다시 쓴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해야 한다. 언어 대응식 번역이나 출발어 언어의 형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 문학 텍스트로서 독자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번역이어야 한다. 출판사를 선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는 전문 문학 출판사 여부와 소수어 출판 작품에 대한 보급 및 홍보 노력을 하는지이다.

2) 문학 번역 교류

문학 번역은 문학작품이라는 주관적인 생산물, 상상력에서 의거한 정신적 산물을

전달하는 행위이다. 문학 텍스트는 그저 언어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서 창작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소통하기 위한 의도에서 생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독자라 하더라도 독자를 상정하고 있다. 원본 텍스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문화권이 다른 독자가 작품을 읽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학의 의미는 어떻게 구축되며 파악되는가? 작가의 환경, 배경, 사회, 비문학적 요소, 시대적 요소도 고려해야 하는가? 문학작품에는 상상력에 의해 배합된 현실적 요소가 존재한다. 그것이 사실주의 계열 작품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이 경우 문체를 잘 번역하는 것 외에도 현실에 관련된 지표를 잘 전달해야 한다. 문학작품의 번역 대상인 의미(언어적, 비언어적 요소, 형태적 요소 포함)에 대해 잠시 알아보자.

문학작품에서 작가가 의미를 구성할 때는 독자의 상상 체제의 협조를 구하며 구상한다. 문학작품의 의미가 지시하는 대상은 현실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작가는 독자의 감성적, 지적 이해 능력의 기대치를 상정하고 작품을 쓴다. 그래서 문학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주변, 글쓰기 방식에 대한 글, 작품의 상황 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의미는 단순히 단어들의 총체가 아닌 어떤 유기적인 망을 이루고 있다. 단어의 표층 차원을 넘어선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의 차이는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성격에 있다. 『햄릿』, 『고리오 영감』 등의 작품은 은유의 형태로 감춰진 뜻이 있다. 문학 의미는 움베르토 에코가 말한 것처럼 아주 다양하며 다원적이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같은 작품에 대해서 주제 비평이나 다각적 접근 가능성, 또는 정신분석적, 실존주의적 비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문학 번역에는 특수 언어가 존재하는가? 17, 18세기 일부 문예사조에는 특수한 언어 사용 방식이 존재했다. 그러나 현대문학에서는 언어 사용의 타부는 없다(일부 검열이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제외). 오히려 일반인의 언어, 속어, 비어 등이 활발히 사용되고 고전적인 엄격한 글쓰기보다 쉬운 글쓰기를 선호하면서 미학적 글쓰기가 아닌 일반적 글쓰기로 변화하고 있다.

또 문학에서 언어의 형태와 의미가 관계 맺는 방식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작가가 선택한 단어나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형태의 일부가 의미를 생산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문학 번역에서 번역자는 언어적 의미만을 재생산하거나 형태만을 재생산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복사본을 만들어내는 것은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불가능한 작업이다. 번역자의 역할은 형태

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등가의 의미와 등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형태를 추구하여 작품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지적 형태와 감성적 형태의 조합의 결과인 등가의 효과를 구현하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황석영 작가의 『한씨연대기』에는 한씨가 아내와 아이들과 대동강에서 이별하는 장면이 나온다. 한국전이 발발하고 평양에서 의사였던 한영덕 씨는 북한측의 탄압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올 결심을 하고 가족과 함께 대동강변에 나선다. 그러나 다리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도강을 하기로 하지만 물이 차고 깊어 한 씨만 건너가기로 한다.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강을 건너는 이 장면은 한국문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쪽이라는 평을 듣고 있고, 독자들로서는 이 이별이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슴 아프다. 번역자의 역할은 이별 장면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타까움을 표현해야 한다. 다음의 번역 예를 보자.

한씨는 걷는 도중에 가끔씩 뒤를 돌아보았다. 부지런히 따라오는 아내의 몸은 눈발 속에 갇아들고 거뭇거뭇한 머리 위에 싸라기가 하얗게 앉았으며 얼굴에도 흘날려, 가느다랗게 점묘로 그려진 그림 같았다. 아내의 앞에 펼쳐진 흰 여백을 보노라니 그는 문득 불안하게 온몸이 죄어들고 가슴께가 무뎡하게 치미는 거였다. 눈발을 헤치며 두 아이들과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쫓아오고 있는 아내의 모습은 실체 같지가 않았고, 퇴색해버린 한 장의 옛 사진처럼 느껴졌다. <한씨연대기, 44쪽, 창비>

Han Yongdok se retournait de temps en temps. Sa femme qui le suivait à pas menus ressemblait à une frêle figure dans une peinture pointilliste : des flocons s'étaient posés sur ses cheveux ; son visage, toute sa silhouette s'estompaient au fur et à mesure que la couche de neige s'épaississait sur le sol. Lorsqu'il vit cette vaste étendue blanche qui le séparait de sa femme, une angoisse soudaine s'empara de lui et son coeur se serra. Le spectacle de sa femme le suivant avec ses enfants qui marchaient tantôt devant elle, tantôt derrière elle, ne lui semblait ni actuel ni réel, c'était comme une photo ancienne aux teintes déjà fanées. <Monsieur Han, 최미경 장노엘쥬페 역, p. 55, Zulma>

이렇게 출발어 언어 형태가 갖는 효과와 이미지를 등가로 살려낸 총체적인 의미의 전달이 중요하며, 원어의 시니피앙을 그대로 옮겼을 경우에는 오히려 작가의 유려한 문체의 조화를 깨는 결과를 낳게 된다. 원작의 독특한 표현, 지방색, 시대적 채색의 어휘, 화자의 작중인물에 대한 동조의 미묘함 표시 등에서 등가적 문장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성어나 의태어에 있어서는 문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원어의 시

니피앙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전체 번역 방법론은 등가를 추구하며, 수사학, 속담 등의 표현에서는 원문의 내용과 적절한 형태가 결합하는 방식의 메카니즘을 다시 도착어 내에서도 생산해내야 한다.

예) 원문 그대로 번역해서 완전히 역효과가 난다는 좋은 경험을 한 예를 들어보겠다.
“아내”에서 화자의 아내는 박색이나 편안한 삶을 안위하기 위해 들병이가 되고자 한다. 들병이는 미모와 더불어 가창력 등을 갖춰야 하는데 아내는 외모가 영 부족한 사람이었다. 본인의 부족한 외모에 대해 부인이 안달을 하니까 보다 못한 화자가 못생긴 것이 괴로우면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인용을 해보면:

“망할 년, 밋다는 게 그렇게 진저리가 나면 아주 면사포를 쓰고 다니지 그래. 년이 능청스러워서 조금 더 이뻐더라면 나는 얼렁얼렁해버리고 돈 있는 놈 군서방해 갔으려다. 그렇게 생각하면 년의 낯짝 더러운 것이 나에게서 불행 중 다행이라 안 할 수 없으리라.

Si ça lui est si pénible de s'entendre dire qu'elle est pas jolie, elle a qu'à se mettre un voile sur la tête. Elle se monte tellement la tête, cette conne, que si elle avait été mieux foutue, y a longtemps qu'elle serait partie avec un autre, un riche, en me plaquant là. Sûr, les jolies filles, leur minois, elles s'y entendent pour le vendre, et pas pour rien! Quand j'y pense, qu'elle soit si mal fichue, ma femme, c'est peut-être une chance...”

- elle a qu'à se mettre un voile de mariée sur la tête

→ elle a qu'à se remarier (재혼하면 되지)

언어에 따라서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을 지칭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원어에 충실한 대응 방식은 작가의 의도를 잘못 전달하는 오류를 낳는다. 의미와 언어 형태 사이의 상호작용과 기능을 파악하고 도착어에서 동일한 방식의 연관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등가의 번역에 달하는 길이다. 언어의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에 자의적인 관계로 인해 언어권, 문화권마다 의미와 형태 사이의 관계 맺기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고 문학작품의 번역은 문학작품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번역자와 감수자의 임무이다. 김유정의 문체와 그 효과를 불어로 재창조하여 등가의 단편선이 되게 하는 것이 번역자들의 목표이다.

번역의 대상은 김유정이 사용한 한국어가 아니라, 그 한국어로 씌여진 문학 텍스트이므로 한국어의 시니피앙을 그대로 옮겨 재생산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그가 사용한 언어가 작품에서 갖는 기능, 작가의 의도, 문맥이 제한해 주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한

이후에 불어로 등가의 표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번역을 하였다.

다음 예의 경우에는 출발어의 독특한 수사학적 기법으로서 그 대응어가 도착어인 불어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을 갖는 등가의 번역을 추구해야 하는 경우이다. 한국어 번역자의 1차 번역, 1차 감수본, 그리고 최종본을 차례로 보면서 어떻게 적절한 대안을 찾아가는지 번역 과정을 보도록 하자.

“쇠돌 엄마도 처음에야 자기와 같이 천한 농부의 계집이런만 어쩌다 하늘이 도와 동리의 부자 양반 이 주사와 은근히 배가 맞아 금방석에 뒹구는 팔자가 되었다. 그리고 쇠돌 아버지도 이게 웬 땡이난 듯이 아내를 내어 논 채 눈을 살짝 감아 버리고 이 주사에 게서 나는 옷이나 입고, 주는 쌀이나 먹고 연년이 신통치 못한 자기 농사에는 한 손을 빼고는 히짜를 뽑는 것이 아닌가!

“les faveurs du ciel - et de la braguette de maître Li”,
“rouler sur l’or”,

여기 두 표현의 경우 제유법이 사용되었는데 불어로 번역시에 “배가 맞다”라는 부분과 “금위를 구르는 팔자”가 되었다는 표현으로 제유법의 기능, 일부로 전체를 표현하는 기능을 살렸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번역이 단어나 언어 차원의 대응, 치환만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출발어 표현의 기능을 이해, 분석하고, 등가의 효과를 제공하는 도착어의 적절한 표현을 대응, 등가, 또는 재창조를 통해 대입시키는 소통의 작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일상의 소통이 아니라 문학적인 소통의 경우, 작가의 문체의 특수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한국어 고유의 어법에 속한, 언어적인 영역과 작가의 문체에 속한 특수한 글쓰기, 개인적인 글쓰기의 영역을 나뉘 등가의 문체를 추구하도록 번역자는 노력해야 한다.

문체뿐만 아니라 유머의 경우, 언어권마다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언어 대응 방식으로 번역했을 경우, 도착어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본래 유머를 사용한 의의가 상실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음으로써 전혀 다른 의미의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으로 한국어를 출발어로 하는 번역의 전반적인 개관 및 문학 번역이라고 하는 특수 장르에서 번역 전략, 방식, 번역의 예 등을 살펴보았다. ~~◆◆~~

한국어 표기법

리의도

〈차 례〉

- | | |
|----------------------|-------------------------------------|
| I. 한국어에 관한 여러 표기법 | III. 한국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 |
| II. 한국어 한글 맞춤법 | III.1. ‘한국어 외래어의 표기법’의 발자취 |
| II.1. 한국어 한글 맞춤법의 바탕 | III.2. 『외래어 표기법(1986~2005)』의 목차 |
| 1) 한글의 자모와 글자 | III.3. 『외래어 표기법(1986~2005)』의 주요 내용 |
| 2) 표기의 기본 원칙 | IV.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 |
| II.2. 한국어 한글 맞춤법의 실제 | IV.1.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의 발자취 |
| 1) 원형태 밝혀 적기 | IV.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의 주요 내용 |
| 2) 줄어든 대로 적기 | <자료 1> 『외래어 표기법(1986~2005)』의 표기 일람표 |
| 3) 변한 대로 적기 | <자료 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 전문(온글) |
| 4) 풀이씨의 활용형 적기 | |

I. 한국어에 관한 여러 표기법

“표기법”¹⁾이란 ‘음성언어를 문자로 표기하는 법’을 일컫는다. ‘표기’는 행위이고, ‘음성언어’는 그 행위의 대상이며, ‘문자’는 그 행위의 수단이다. 그러니 표기법을 논의할 때에는 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표기 수단이 무엇인지—어떤 문자로 표기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기준으로 할 때에, 한국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기법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표기 대상	표기 수단	표기법의 명칭
(가)	한국어	한글	…→한국어(의) 한글 표기법
(나)	한국어 속의 외래어	한글	…→한국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
(다)	한국어	로마자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라)	한국어	가나문자	…→한국어(의) 가나문자 표기법
(마)	한국어	아랍문자	…→한국어(의) 아랍문자 표기법

(가)는 ‘한국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법’을 가리키며, 그것을 “한국어(의) 한글 표기법”이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한국어 속에 있는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법’으로서 “한국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을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인데,²⁾ 외래어의 갈래(어종)에 따라 수많은 각각의 표기법이 있을 수 있다. (다)~(마)는 각각 한국어를 한글 이외의 문자로 표기하는 법³⁾을 상정한 것인데, 로마자(라틴문자), 가나문자, 아랍

1) “표기법” 외에 “철자법, 정서법, 맞춤법” 등의 용어도 있다. 기본 개념은 비슷하지만 말맛이나 현실적으로 사용처는 조금씩 다른데, 가장 중립적인 용어는 “표기법”이다. “맞춤법”이란 용어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어학회(→한글학회)에서 1933년에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을 공표하면서부터이다. 종래의 보편적 용어는 “철자법(綴字法)”이었으니, 조선어학회에서도 그 규정의 명칭을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이라 하였는데, 한편으로 새로운 용어(토박이 낱말)를 만들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고도 하였다. 이로부터 (“한글 맞춤법”과 함께) “맞춤법”이란 용어가 널리 퍼져 나갔다.

2) “한국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은 “한국어 한글 표기법”의 특수한 하위 갈래라 할 수 있다. 표기법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국어 어휘 중에서 외래어는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처리한 것이다.

3) 이러한 표기법은 대한민국에도 필요하지만, 다른 언어나 문자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밖의

문자 외에도, 예컨대 타이문자, 몽골문자, 그리스문자, 키릴문자, 구자라트문자 등등, 여러 문자를 상정할 수 있다.⁴⁾

이론상으로 상정해 본, 이러한 표기법 중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네 가지이다. 한국어 한글 표기법으로는 1988년에 발표한 「한글 맞춤법(1988)」이 있고, 한국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으로는 1986년에 발표하여 2005년까지 4번 추가한 「외래어 표기법(1986~2005)」이 있다.⁵⁾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으로는 2000년에 발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이 있고, 한국어 가나문자 표기법으로는 1987년에 작성한 「국어의 가나문자 표기법(1987)」이 있다.⁶⁾

II. 한국어 한글 맞춤법

여러 가지 표기법 가운데서 한국어의 문자생활에 가장 기본적이고 긴요한 것은 ‘한국어 한글 표기법’이다. 현대에 이르러 한겨레(한국인)의 힘으로 최초로 제정한, 이 분야의 표기법은 1933년 한글날에 조선어학회에서 발표한 「한글 맞춤법(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이다. 몇 차례 부분적인 수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한겨레는 20년 동안 그것을 ‘한국어 한글 표기법’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 1945년에 남북으로 갈라진 뒤로는, 북쪽에서는 「통일안」의 내용을 비교적 많이 수정한 「조선어 철자법」⁷⁾을 채택하였고, 남쪽에서는 「통일안」을 그대로 지키다가 1988년에 이르러 그 내용을 조금 수정한 「한글 맞춤법」⁸⁾(1988, 문교부⁹⁾)을 고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언어권에도 필요할 수 있다.

- 4)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는, 위의 표에서 보인 바와 같은 표기법들을, 각각 “한글 표기법” 또는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으로 줄여서 사용하는 일이 많다. 그런 명칭에 이끌려서 내용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이런 명칭을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앞의 각주에서 “맞춤법, 철자법, 표기법, 정서법” 등의 현실적 사용처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을 “한글 표기법”이라 하는 일은 거의 없고, “로마자 표기법”을 “로마자 맞춤법”이라 하는 일 역시 그렇다.
- 6) 한국이 아닌, 다른 언어권에서라면, 한국어를 그들의 통상 문자로 적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또는 그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도 있다.
- 7) “조선어 철자법”이란 이름은 1933년에 조선어 학회에서 제정하여 발표한 「한글 맞춤법(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에서 따온 셈이 된다.
- 8) 「한글 맞춤법」이란 이름은 1933년에 조선어 학회에서 제정하여 발표한 「한글 맞춤법(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에서 “통일안”을 떼어 버린 결과이다.

이제 다음에서 『한글 맞춤법(1988)』을 중심으로 ‘한국어 한글 표기법’의 몇 가지 골자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II.1. 한국어 한글 표기법의 바탕

1) 한글의 낱자와 글자

사람들은 “한글”이란 용어를 여러 경우에 사용한다. “ㄱ, ㄴ, ㄷ, ㅌ, ㅇ, ㅈ, ㅊ, ㅋ, ㆁ, ㅡ, ㅣ” 따위를 가리켜 한글이라 하기도 하고, 거기에다 “ㅍ, ㅠ, ㅅ, ㅗ, ㅛ, ㅜ, ㅠ, ㅎ, ㅑ, ㅓ, ㅕ” 들까지 포함하여 한글이라 하기도 한다. 이와는 전혀 다르게, “가, 너, 독, 룬, 뜰, 빌, 샘, 앵, 흙” 따위를 한글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한글로 표기해 놓은 텍스트를 한글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에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한국어의 말소리와 뒤엉켜 교육 현장에서는 불합리와 비효율이 적잖게 빚어지고 있다. 그러니 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한다.¹⁰⁾

① **낱자(letter)** : 음소(닿소리와 홀소리)나 음소의 연결체(겹홀소리)를 나타내는 기호를 “낱자, 자모(字母)”¹¹⁾라 한다. 현대 한글 낱자의 수효와 차례는 다음과 같다.

닿소리 **낱자**(자음자모, consonant letter)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14자)

홑소리**낱자**(모음**자모**, vowel letter) : ᄀ ᄃ ᄅ ᄇ ᄉ ᄋ ᄍ ᄏ ᄒ ᄔ (10자)

그러나 이 24자만으로 한국어의 말소리를 다 표기할 수가 없어서 다음과 같은 기호를 더 사용—“2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음”(『한글 맞춤법』 제4항)—하고 있으니, 결국 40자가 된다.

당소리 **낱자**(자음**자모**) : ㄱ ㄷ ㅁ ㅅ ㅈ (5개)

홀소리 **낱자**(모음자모) : ㅏ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ㅣ ㅟ (11개)

그런데 북쪽에서는 『조선말 규범집』의 『맞춤법』에서 “조선어의 자모”를 아예 40자

9) 그 뒤로 중앙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문화’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에서 맡고 있다.

10) 다음의 설명은 한글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어의 닿소리(자음, consonant)와 홀소리(모음, vowel), 그리고 이중모음(diphthong)에 관한 것이 아니다.

11)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낱자”, 「한글 맞춤법(1988)」에서는 “자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의 “닿소리낱자, 자음자모; 홀소리낱자, 모음자모”는 각각 “닿소리자, 자음자; 홀소리자, 모음자”로 줄여 쓸 수 있다.

로 규정하고, 그 차례도 다음과 같이 정해 두었다.

자음자모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ㅊ ㅃ ㅅ ㅆ (19자)

모음자모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ㅗ ㅛ ㅜ ㅠ ㅡ ㅣ (21자)

이처럼 남과 북에서 사용하는 자모의 수효와 목록은 다르지 않지만, 규정이 다르다. 특히 배열 순서가 크게 다르다.

② **글자**(syllabic sign) :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에서는 음절을 나타내는 기호를 “글자”라 한다. 글자는 시각 형태의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민반침글자 : 아, 거, 노, 두, 르, 미, 배, 세, 죄, 취, 키, 카, 개, 터, 헤, 표, 휴, 짜, 꽤, 뽀, 켜, 켜,
 홀반침글자 : 악, 건, 단, 둘, 름, 밍, 뱃, 생, 땃, 낫, 녁, 겹, 룡, 뽕, 닭, 족¹²⁾,
 겹반침글자 : 뉘, 앓, 좇, 흙, 삶, 뵈, 꺾, 읊, 흘, 닳, 없,
 접반침글자 : 뉘, 앓, 좇, 흙, 삶, 뵈, 꺾, 읊, 흘, 닳, 없,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합할 수 있는 글자의 수효는 매우 많다. 더러 자랑삼아 그 수효를 11,172자라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정해서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소리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글자를 조합해 낼 수 있다.

2) 표기의 기본 원칙

“한글 맞춤법”(과 “조선어 철자법”)은 ‘같은 뜻’을 가지는 부분은 언제나 ‘같은 형태’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1933년부터 지금까지, 남쪽과 북쪽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대원칙이다.

예컨대 ‘價(price)’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다음에서 보듯이 환경에 따라 [ㄱㅏㅂㅅ, ㄱㅏㅂ, ㄱㅏㅁ, ㅊㅏㅂㅅ, ㅊㅏㅂ, ㅊㅏㅁ] 등, 여러 가지로 발음된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화(표기)하는 방법은 발음대로 제각각 적는 법(표기₁)과 한 가지 형태로 적는 법(표기₂)을 생각할 수 있다. 한겨레는 『한글 맞춤법(조선어 철자법) 통일안』(1933, 조선어학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표기₂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형태주의 표

12) ㅊ, ㅆ 들이 받침으로 쓰일 때에 흔히 ‘쌍받침’이라고 해 왔다. 그런 관습을 따르기로 한다면 홀반침글자 중에서 “닭, 족”과 같은 것을 ‘쌍반침글자’라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나누는 것은 복잡하기만 할 뿐이요 얻는 것은 별로 없다.

기법'이라 한다.

[발음]		표기 ₁	표기 ₂
① 그것은 [갑ㅅ]] 비싸다.	→	“값”	“값”
② 그것은 [갑또] 비싸다.	→	“갑”	“값”
③ 그것은 [갑만] 비싸다.	→	“갑”	“값”
④ 나에겐 [술갑ㅅ]] 없다.	→	“값”	“값”
⑤ 나에겐 [술갑도] 없다.	→	“갑”	“값”
⑥ 아까운 [술갑만] 나갔다.	→	“갑”	“값”
		발음대로 적음	시각 형태 고정

II.2. 한국어 한글 표기법의 실제

1) 원형대를 밝혀 적기

㉠ 다음에서 [가름]으로 발음하는 부분의 표기를 생각해 보자.

(1) ㉡ 자료를 먼저 세 가지로 [가름]하였다.

㉢ 이것으로 인사에 [가름]합니다.

맥락으로 볼 때에 ㉡의 [가름]은 ‘분류’를 뜻하고, ㉢의 [가름]은 ‘대신, 바꿈’을 뜻한다. 이로써 ㉡의 [가름]은 ‘분류하다’를 뜻하는 움직씨(동사) “가르-다”에서 파생되었고, ㉢의 [가름]은 ‘대신하다’를 뜻하는 움직씨 “갈-다”에서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르-다”와 “갈-다”의 줄기(어간, stem)에 뒷가지(접미사, suffix) “-음”이 붙어 각각 “가르+음”과 “갈+음”이 된 것이다. 여기서 “가르+음”은 줄기의 끝이 홀소리이므로 다시 “가르+ㅁ”이 되었고, 그 결과 ㅁ은 따로 적지 않고 앞 글자의 받침으로 옮겨 “가름”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갈+음”은 그대로 “갈음”으로 표기한다. 요컨대, 발음과 달리 ㉢의 [가름]을 “갈음”으로 표기하는 것은 그 낱말의 뿌리가 되는 움직씨 “갈-”과의 관련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해도지], [오이소바기], [회덮밥]으로 발음하면서 각각 “해돋이”, “오이소박이”, “회덮밥”으로 표기하는 것도 “해가 돋음”, “오이에 소를 박은 것”, “회를 덮은 밥”임을 시각적으로 밝히고자 함이다.

㉣ 다음의 []와 같이 발음하는 것을 표기할 때에 각각 “먹을는지”와 “먹을른지”,

“할는지”와 “할른지”를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¹³⁾

(2) ㉠ 토끼가 이 풀을 잘 [머글른지] 모르겠다.

㉡ 그런 차림새로 청소를 제대로 [할른지]?

위는 결국 “-으르느지”와 “-으르른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으르느지”로 표기하는 것이 바르다. 표준 발음은 각각 [머글른지], [할른지]인데, 표기는 굳이 “먹을느지, 할느지”로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다음 (2)′를 보기로 하자.

(2)′ ㉠ 토끼가 이 풀을 잘 먹었느지 모르겠다.

㉡ 그 차림으로 청소는 제대로 하었느지?

(2)′를 (2)와 비교해 보면 밑줄 친 부분만 서로 다른데, (2)′의 밑줄 친 부분은 각각 “먹+였+느지”, “하+였+느지”로 분석된다. 이밖에 “먹+졌+느지, 먹+∅+느지”, “하+졌+느지, 하+∅+느지”라는 말도 흔히 쓰는데, 그것들을 각각 (2)나 (2)′의 밑줄 친 자리에 넣어도 대체로 말이 된다.¹⁴⁾ 다만 “-였-, -졌-, ∅”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의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로써 “□+□+느지”라는 구조와 함께 “-느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의 [] 부분도 여기에 맞추어 각각 “먹+으르+느지”, “하+르+느지”로 분석하고, 이 결과에 따라 “먹을느지”와 “할느지”로 표기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각 요소의 원형태를 시각적으로 밝히기 위함이다.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보다 원형태를 일정하게 표기함으로써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3] 이제 [질꾸즌]의 표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3) ㉠ 애들이 자꾸 [질꾸즌] 질문을 하는 거야.

㉡ 넌 왜 그리 [질꾸즌] 장난만 하니?

위의 [질꾸즌]을 [질끗+은]으로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음으로, 문맥을 통하여 [질끗-]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니 [끗-]은 ‘ 좋지 않다’를 뜻하는

13) 여기에 각각 “할느지”와 “할른지”, “먹을느지”와 “먹을른지”까지 섞어서 더 큰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의 발음은 각각 [할른지], [먹을른지]인바, 이는 표준 발음이 아니므로 어느 쪽으로 표기하든 표준을 벗어난 것이 된다.

14) 문을 이루는 여러 요소 간의 선택 제한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먹겠느지”가 그러하다.

그림씨(형용사) “긔-”으로 표기한다. [진]은 “긔-”의 주체가 될 만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름씨(명사) “긔”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진꾸즌]은 “긔긔은”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과 [긔-]에 각각 그 원형태 “긔”과 “긔-”의 의미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애꾸즌]은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

(4) ㉠ 그는 [애꾸즌] 담배만 푹푹 빨고 있더라.

㉡ 나 때문에 [애꾸즌] 이웃만 잠을 설쳤다.

[애꾸즌]은 일단 [애긔+은]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제 [애긔-]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데, (3)에서와는 달리 [애]와 [긔-]으로 나누어서는 의미가 잡히지 않는다. [긔-]을 ‘좋지 않다’로 해석할 수도 없으니 “긔-”으로 표기할 근거도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애긔은”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2) 줄어진 대로 적기

㉠ 언어에는 준말이 있는데, 줄어지는 부분은 보통 그 흔적을 남긴다. 이런 이치를 잘 알면 한글 사용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엇저녁, 엇저녁”을 놓고 망설이는 일이 있는데, 이 낱말이 “어제저녁”의 준말임을 안다면 해답은 쉽게 얻을 수 있다. “어제”를 구성하는 음소는 /ㄱㅈㅈ/인데, 이 중에서 끝소리 /ㅈ/만 줄어졌으니, 나머지는 “엇”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가죽신”의 준말은 “갓신”이니, “갓”은 “가죽”의 준 형태이다. “가죽”을 구성하는 음소인 /ㄱㅈㅈㅈ/ 중에서 끝에 있는 /ㅈㅈ/이 줄어들고, 남은 것이 “갓”이다.

“가지가지”의 준말은 “갓가지”인데, “갓가지”는 앞쪽의 “가지”에서 끝소리 /ㄹ/가 줄어진 결과이다. “고루고루”의 준말은 “꼴고루”인데, 이것도 앞쪽의 “고루”에서 끝소리 /ㄹ/가 줄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갈가리]는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

(5) ㉠ 옷이 [갈가리] 찢기었군.

㉡ 이불도 [갈가리] 찢어 버렸다.

위의 [갈가리]를 “갈갈이”로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 이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갈가리”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는 것은 “가리가리”의 준말이라는 뜻인데,

위의 [갈가리] 자리에 “가리가리”를 넣어도 기본의미가 변하지 않으니, 사실임이 분명하다. 곧 “갈가리”도 “가리가리”의 앞쪽 “가리”에서 끝소리 /ㄹ/가 줄어진 것이다.

㉒ 마침씨끝(종결어미, ending) “-대”와 “-데”는 소리도 비슷한데, 놓이는 환경까지 비슷하여 혼란을 주는 일이 많다. 다음 (6)의 “없대”와 “없데”는 둘 다 바른 표기이다. 물론 형태와 발음과 의미는 다르다.

- (6) ㉑ 영호가 집에 없대.
 ㉒ 영호가 집에 없데.

“-대”는 “-다고 해”로 환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㉑의 “없대”를 “없다고 해”로 바꾸어 보아도 기본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형태라는 말이다. “-대”를 구성하고 있는 /ㄷ/는 “-다고”의 첫소리의 흔적이고, /ㄱ/는 “해”의 끝소리의 화석인 것이다. ㉑은 화자가 (1) ‘영호가 집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알았을 때의 표현이거나, (2) ‘영호가 집에 없다’고 한, 제3자의 말을 청자에게 전하는 표현이다.

이에 반하여 “-데”는 “-더+이”로 나누어진다. ㉒의 “없데”를 “없더이”로 바꾸어 보아도 의미는 통한다. 여기서 “-더-”는 지난 일을 회상하듯이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씨끝(어미)이다. ㉒의 밑줄 친 부분을 “데”로 표기하는 것은 거기에 “-더-”의 화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㉒은 화자가 ‘영호가 집에 없음’을 직접 보았거나 본 것처럼 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위의 “-대”와 “-데” 앞에는 “-었-, -겠-, -는-”과 같은 씨끝이 올 수도 있다. 다만 “-는-”은 움직씨(동사)의 줄기(어간) 뒤에만 쓰인다.

- (7) ㉑ 영호는 책을 읽었대.
 ㉒ 영호는 책을 읽었데.
 (8) ㉑ 영호는 책을 읽겠대.
 ㉒ 영호는 책을 읽겠데.
 (9) ㉑ 영호는 책을 읽는대.
 ㉒ 영호는 책을 읽는데…….

(7)~(9)에서 ㉑의 “-었대, -겠대, -는대”는 각각 “-었다고 해”, “-겠다고 해”, “-는다고 해”의 준말이니, 여기 “-대”는 (6)㉑의 그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7)과 (8)의 ㉒, 곧 “-었데, -겠데”의 “-데”는 (6)㉒의 그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9)㉒의 “-는데”는 (6)㉒에서 확인한 “-데”와 관련이 없다. “-는데” 전체로

서 하나의 씨끝(어미)이다. “-은데”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와 “산은 높은데 나무는 적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은 마침씨끝(종결어미)이 아니라 이음씨끝(연결어미)이다. ‘감탄’의 의미를 덧붙태거나 상대의 반응을 기다릴 때에, 이 이음씨끝을 마침씨끝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9)㉔은 바로 그런 보기이다.

3) 변한 대로 적기

㉑ 다음의 [안치고]를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 이 물음은 두 [안치고]의 뜻이 같으나 다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뜻이 같다고 보면 표기도 같게 해야 한다.

(10) ㉑ 어머니는 자리에 딸을 [안치고] 보자기를 풀었다.

㉔ 어머니는 술에다 밥을 [안치고] 보자기를 풀었다.

㉑의 [안치고] 자리에는 “앉게 하고”를 넣어도 온전히 의미가 구성된다. 이는 ㉑의 [안치고]는 움직씨 “앉-”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따라서 그 [안치고]를 표기할 때에는 그 뿌리가 되는 “앉-”의 형태가 드러나게끔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앉히고”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㉔의 [안치고] 자리에 “앉게 하고”를 넣으면 의미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다. 의미상으로 “앉-”과 잘 맺어지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발음대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 근원적으로 보면 ㉔의 [안치고]도 “앉히-”에서 유래한 것이 틀림없지만, 지금은 “앉히-”와는 꽤 다른,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독립된, 별개의 낱말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무친다]는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

(11) ㉑ 동생은 옷에다 먹을 잘 [무친다].

㉔ 우리 누나는 나물을 잘 [무친다].

㉑의 [무친다]에서는 ‘묻게 한다’의 뜻이 파악되며,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전체적으로 어색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은 “묻-”의 형태가 시각적으로 드러나게끔 “묻힌다”로 표기한다. 그러나 ㉔에서는 [무친다]를 ‘묻게 한다’로 해석하면 전체적으로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이는 문제의 [무친다]는 “묻힌다”와 다른, 별개의 의미를 획득했음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이는 발음대로, 곧 새로운 형태로 표기하는 것이다.

② 다음으로 [며칠]의 표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 (12) ㉠ 오늘은 몇 월 [며칠]이지?
 ㉡ 그는 [며칠] 동안 걸근했나?

위 [며칠]을 “몇 일”로 표기하는 이도 있고, “며칠”로 표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과 ㉡의 [며칠]을 구별하여 다르게 표기하는 이도 있다. 특정한 날을 의미하는 ㉠의 그것은 “며칠”로, 동안(수량)을 의미하는 ㉡은 “몇 일”로 적는 것이다. 그 반대로 적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위의 [며칠]은 항상 “며칠”로 적어야 한다. 언중이 실제로 말을 할 때에, ㉠이든 ㉡이든 가리지 않고 항상 [며칠]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만약 현실 발음이 [며딜]이나 [면닐]이라면, [며뉘]을 “몇 월”로 표기하는 것과 같이, “몇 일”로 적어야 할 것이다. 각각 [몇 일→면일→며딜]이나 [몇 일→뉘일→면닐→뉘닐]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요컨대 [며칠]은 “몇 일”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날의 현실 발음은 [며딜]이나 [면닐]이 아니라 [며칠]이다. 그러므로 그 발음에 근거하여 “며칠”로 적는다. “몇 일”로 표기해서는 [며칠]이라는 발음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젓가락”의 받침은 ㅅ인데, “숟가락”의 받침은 왜 ㄷ으로 쓸까?

“젓가락”은 “저(箸)”와 “가락”이 합쳐진 낱말이다. 그런데 둘이 합쳐지면서, 곧 “저+가락”이 되면서 발음이 [저까락]으로 변하였다. “가”가 된소리 [까]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발음된다는 사실을 밝혀 주기 위하여, 표기할 때에는 ㅅ을 첨가하여 “젓가락”으로 적는다. (이런 이유로 첨가하는 ㅅ을 ‘사이 ㅅ’이라 한다.) 그러니 “젓가락”의 ㅅ은 원래 없었는데 나중에 덧붙인 것이다.

그러나 낱말 “숟가락”이 형성된 과정은 “젓가락”과 다르다. “한 술 밥에 배 부르랴.”라는 속담에서 보듯이 “술”은 예부터 써 온 낱말이다. 이것이 “가락”과 합쳐져 “술+가락”이 되었고, 그 결과 받침소리 /ㄹ/가 /ㄷ/로 바뀌었다. 곧 “술”의 /ㄷ/는 나중에 덧붙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ㄹ/가 바뀐 것이다.

위와 똑같은 이치로 설명되는 낱말로 “동짓달”과 “섣달”이 있다. 각각 “동지+달→[동지뉘]→동지ㅅ달→동짓달”, “섣+달→섣달”과 같다. 각각 ‘동지가 들어 있는 달’, ‘섣이 들어 있는 달’에서 유래하였다.

또한 ‘그 해에 거둔 보리’는 “햇보리”라 하는데, ‘그 해에 거둔 쌀’은 “햅쌀”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가 많다. “햇보리, 햅쌀”로 통일하든지, “햅보

리, 햅쌀”로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햅쌀”의 [비]는 본디부터 “쌀”—옛날 형태는 “뽕”이었음—의 첫소리로 있던 요소이며, “햅보리”의 스은 (“젓가락”의 스과 같이) 나중에 덧붙인 것이니, 그 근원이 전혀 다르다. “좁쌀, 맵쌀, 입쌀” 등의 [비]과 “햅감자, 햅고구마, 햅밤” 따위의 스도 이와 같다.

4) 풀이씨의 활용형 적기

한국어의 풀이씨(용언), 곧 움직씨(동사)와 그림씨(형용사)는, 임자씨(체언, 명사류)처럼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말은 구실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데,¹⁵⁾ 이런 현상을 ‘활용’(inflection)이라 한다. 그러므로 한국어에서 풀이씨의 활용형(inflectional form)을 잘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표기에서 부딪히는 문제 상황 중에는 활용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그러니 풀이씨의 활용을 반복하여 말하고 적어 보는 것은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정확하게 표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① 이제 구체적인 자료로써 표준 한국어의 활용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연습해 보기로 한다.

어간·어미의 형태 변화 없음	어미의 첫머리 /ㄴ/가 /ㅏ/로	고름소리 /ㄹ/ 탈락
먹+다 → 먹다	작+다 → 작다	쉬+다 → 쉬다
먹+던 → 먹던	작+던 → 작던	쉬+던 → 쉬던
먹+든 → 먹든	작+든 → 작든	쉬+든 → 쉬든
먹+는 → 먹는	작+는 → (불가능)	쉬+는 → 쉬는
먹+니? → 먹니?	작+으니? → 작으니?	쉬+니? → 쉬니?
먹+습니다 → 먹습니다	작+습니다 → 작습니다	쉬+으ㅓ니다 → 쉽니다
먹+으니 → 먹으니	작+으니 → 작으니	쉬+으니 → 쉬니
먹+으려고 → 먹으려고	작+으려고 → (불가능)	쉬+으면 → 쉬면
먹+으ㄴ → 먹은	작+으ㄴ → 작은	쉬+으ㄴ → 쉰
먹+으르ㄴ지 → 먹을지	작+으르ㄴ지 → 작을지	쉬+으르ㄴ지 → 설지
먹+으르수록 → 먹을수록.	작+으르수록 → 작을수록	쉬+으르수록 → 설수록
먹+으르게. → 먹을게.	작+으르게. → (불가능)	쉬+으르게. → 설게.
먹+어도 → 먹어도	작+어도 → 작 아 도	쉬+어도 → 쉬어도
먹+어야 → 먹어야	작+어야 → 작 아 야	쉬+어야 → 쉬어야
먹+었+다 → 먹었다	작+었+다 → 작 았 다	쉬+었+다 → 쉬었다

(19) 물음에 {알맞는, 알맞은} 답은 어느 것인가?

15) 줄기(어간)가 바뀌기도 하고, 씨끝(어미)이 바뀌기도 하고, 둘 다 바뀌기도 한다.

- (20) 언니도 싫지 {않는, 않은} 낮빛으로 그의 손을 {잡었다, 잡았다}.
 (21) 요즈음 회사 사정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22) 100m 전방부터는 갓길 {없습, 없음}.
 (23) 할 말이 있으면 {서슴치, 서슴지} 말고 {하시지요, 하시지요}.
 (24) 우선 거기에 {앉으세요, 앉으시오}.
 (25) ‘사랑을 {쓸려면, 쓰려면} 연필로 쓰라’는 유행가가 있지요?
 (26) 이것은 동생이 생전에 {쓰든, 쓰던} 책상이다.
 (27) 전날 저녁에 고기를 얼마나 {먹었든지, 먹었던지} 아침밥은 입에 대지도 않았다.
 (28) 나의 목숨을 {내놓을찌언정, 내놓을지언정} 발문서는 못 주겠다.
 (29) 무슨 수를 {쓰든, 쓰던} 그 일을 해결해 {드릴게요, 드릴게요}.
 (30) 영호야, 책을 많이 {읽어라, 읽으라}.
 (31) 아저씨는 영호에게 책을 많이 {읽어라, 읽으라}고 충고했다.
 (32) 형은 늘 그림을 {그리므로, 그림으로써, 그림으로} 손이 지저분하다.
 (33) 형은 때때로 술을 {마시므로, 마심으로써, 마시므로써} 분을 삭였다.
 (34)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거두었음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어간의 끝이 /ㄴ/인 경우				어간의 끝이 /ㄹ/인 경우	
그 끝소리 /ㄴ/가 탈락함				그 끝소리 /ㄹ/가 탈락함	
ㄱ+든지	→ ㄱ든지	잠ㄱ+든지	→ 잠ㄱ든지	울+든지	→ 울든지
ㄱ+는	→ ㄱ는	잠ㄱ+는	→ 잠ㄱ는	울+는	→ 우는
ㄱ+니?	→ ㄱ니?	잠ㄱ+니?	→ 잠ㄱ니?	울+니?	→ 우니?
ㄱ+으비니다	→ ㅍ니다	잠ㄱ+으비니다	→ 잠ㅍ니다	울+으비니다	→ 읍니다
ㄱ+으니까	→ ㅍ니까	잠ㄱ+으니까	→ 잠ㅍ니까	울+으니까	→ 우니까
ㄱ+으면	→ ㅍ면	잠ㄱ+으면	→ 잠ㅍ면	울+으면	→ <u>울면</u>
ㄱ+으려고	→ ㅍ려고	잠ㄱ+으려고	→ 잠ㅍ려고	울+으려고	→ <u>울려고</u>
ㄱ+으니	→ ㅍ	잠ㄱ+으니	→ 잠ㅍ	울+으니	→ <u>운</u>
ㄱ+으르수록	→ ㅍ수록	잠ㄱ+으르수록	→ 잠ㅍ수록	울+으르수록	→ <u>울</u> 수록
ㄱ+으르게	→ ㅍ게.	잠ㄱ+으르게	→ 잠ㅍ게.	울+으르게.	→ <u>을</u> 게.
ㄱ+어도	→ ㅍ도	잠ㄱ+어도	→ 잠ㅍ도	울+어도	→ <u>을</u> 어도
ㄱ+어야	→ ㅍ야	잠ㄱ+어야	→ 잠ㅍ야	울+어야	→ <u>을</u> 어야
ㄱ+었다	→ ㅍ다	잠ㄱ+었다	→ 잠ㅍ다	울+었다	→ <u>을</u> 었다

- (35) 사용하신 후에는 수도꼭지를 반드시 {잠구어, 잠궈, 잠그어, 잠겨, 잠가} 주세요.
 (36) 장군은 다시 칼을 {꼬느어, 꼬나} 잡았다.
 (37) 올해는 김장을 몇 포기 {담구었니, 담궈니, 담그었니, 담겼니, 담갔니}?
 (38) 그 비행기를 흔히들 “하늘을 {날으는, 나는} 백악관”이라 한다.
 (39) 우리 할아버지께서 {알으시면, 아시면} 큰일 납니다.
 (40) 그는 이웃에게 사랑 {베품, 베품}을 일상사로 여겼다.

어간의 끝이 /ㅅ/인 경우			
형태 변화 없음		그 끝소리 /ㅅ/가 탈락함	
웃+든지	→ 웃든지	짓+든지	→ 짓든지
웃+는	→ 웃는	짓+는	→ 짓는
웃+니?	→ 웃니?	짓+니?	→ 짓니?
웃+습니다	→ 웃습니다	짓+습니다	→ 짓습니다
웃+으니	→ 웃으니	짓+으니	→ 지으니
웃+으면	→ 웃으면	짓+으면	→ 지으면
웃+으ㄴ	→ 웃은	짓+으ㄴ	→ 지은
웃+으르지	→ 웃을지	짓+으르지	→ 지을지
웃+으시+면	→ 웃으시면	짓+으시+면	→ 지으시면
웃+으르게.	→ 웃을게.	짓+으르게.	→ 지을게.
웃+어도	→ 웃어도	짓+어도	→ 지어도
웃+어야	→ 웃어야	짓+어야	→ 지어야
웃+었다	→ 웃었다	짓+었다	→ 지었다

어간의 끝이 /ㅎ/인 경우			
형태 변화 없음		그 끝소리 /ㅎ/가 탈락함(+a)	
좋+고	→ 좋고	파랑+고	→ 파랑고
좋+든지	→ 좋든지	파랑+든지	→ 파랑든지
좋+는	→ (불가능)	파랑+는	→ (불가능)
좋+습니다	→ 좋습니다	파랑+습니다	→ 파랑습니다
좋+으나?	→ 좋으나?	파랑+으나?	→ 파라냐?
좋+으니까	→ 좋으니까	파랑+으니까	→ 파라니까
좋+으면	→ 좋으면	파랑+으면	→ 파라면
좋+으ㄴ	→ 좋은	파랑+으ㄴ	→ 파란
좋+으르지	→ 좋을지	파랑+으르지	→ 파랄지
좋+으르수록	→ 좋을수록	파랑+으르수록	→ 파랄수록
좋+으르게.	→ (불가능)	파랑+으르게.	→ (불가능)
좋+어도	→ 좋아도	파랑+어도	→ 파래도
좋+어야	→ 좋아야	파랑+어야	→ 파래야
좋+었다	→ 좋았다	파랑+었다	→ 파랬다

- (41) 어느새 나뭇잎이 {노랗아지고, 노라지고, 노래지고} 있었다.
- (42) 하늘이 {파랗니까, 파라니까} 마음이 상쾌해요.
- (43) 영이의 얼굴이 점점 {뽀얗아지고, 뽀야지고, 뽀애지고} 있습니다.

어간의 끝 음절이 /ㄹ/인 경우					
끝소리 /ㄹ/ 탈락		어미 첫소리 /ㄱ/ 앞에 /ㄹ/ 첨가		끝소리 /ㄹ/ 탈락, 어미 첫소리 /ㄱ/ 앞에 /ㄹ/ 첨가	
치르+지	→ 치르지	이르+지(도달)	→ 이르지	서두르+지	→ 서두르지
치르+던	→ 치르던	이르+던	→ 이르던	서두르+던	→ 서두르던
치르+니?	→ 치르니?	이르+니?	→ 이르니?	서두르+니?	→ 서두르니?
치르+으니	→ 치르니	이르+으니	→ 이르니	서두르+으니	→ 서두르니
치르+으면	→ 치르면	이르+으면	→ 이르면	서두르+으면	→ 서두르면
치르+으ㄴ	→ 치른	이르+으ㄴ	→ 이른	서두르+으ㄴ	→ 서두른
치르+으르지	→ 치를지	이르+으르지	→ 이를지	서두르+으르지	→ 서두를지
치르+어라	→ 치러라	이르+어라	→ 이르러라	서두르+어라	→ 서둘러라
치르+어도	→ 치러도	이르+어도	→ 이르러도	서두르+어도	→ 서둘러도
치르+어야	→ 치러야	이르+어야	→ 이르러야	서두르+어야	→ 서둘러야
치르+어서	→ 치러서	이르+어서	→ 이르러서	서두르+어서	→ 서둘러서
치르+었다	→ 치렀다	이르+었다	→ 이르렀다	서두르+었다	→ 서둘렀다

- (44) 벌써 신록이 {푸르어, 푸러, 푸르러} 가고 있군요.
 (45) 달이 뜨기 전에 우리는 목적지에 {다달았다, 다다랐다}.
 (46) 너무 {서둘지, 서두르지} 말게.
 (47) 그 {서두른, 서둘은, 서툰} 솜씨로 나를 이기겠다고?
 (48) 아저씨는 그 날 이후 우리 집에 {머물었다, 머무르었다, 머물렀다}.
 (49) 이번 체육대회는 매우 성공적으로 {치루었다, 치뤘다, 치르었다, 치렀다}.

어간의 끝이 /ㄷ/인 경우			
형태 변화 없음		그 끝소리 /ㄷ/가 /ㄹ/로 교체	
묻+다(파묻다)	→ 묻다	묻+다(질문하다)	→ 묻다
묻+던	→ 묻던	묻+던	→ 묻던
묻+는	→ 묻는	묻+는	→ 묻는
묻+니?	→ 묻니?	묻+니?	→ 묻니?
묻+으니	→ 묻으니	묻+으니	→ 물으니
묻+으면	→ 묻으면	묻+으면	→ 물으면
묻+으ㄴ	→ 묻은	묻+으ㄴ	→ 물은
묻+으르지	→ 물을지	묻+으르지	→ 물을지
묻+으르수록	→ 물을수록	묻+으시+면	→ 물으시면
묻+으르게.	→ 물을게.	묻+으르게.	→ 물을게.
묻+어서	→ 물어서	묻+어서	→ 물어서
묻+어야	→ 물어야	묻+어야	→ 물어야
묻+었다	→ 물었다	묻+었다	→ 물었다

어간의 끝이 /ㅂ/인 경우			
형태 변화 없음		그 끝소리 /ㅂ/가 반모음 /w/로 교체	
잡+지	→ 잡지	덥+지	→ 덥지
잡+던	→ 잡던	덥+던	→ 덥던
잡+는	→ 잡는	덥+는	→ (불가능)
잡+니?	→ 잡니?	덥+으니?	→ 더우니?
잡+으니까	→ 잡으니까	덥+으니까	→ 더우니까
잡+으면	→ 잡으면	덥+으면	→ 더우면
잡+으ㄴ	→ 잡은	덥+으ㄴ	→ 더운
잡+으르지	→ 잡을지	덥+으르지	→ 더을지
잡+으르수록	→ 잡을수록	덥+으르수록	→ 더을수록
잡+어서	→ 잡아서	덥+어도	→ 더워도
잡+어야	→ 잡아야	덥+어야	→ 더워야
잡+었다	→ 잡았다	덥+었다	→ 더웠다

- (50) 그 다리미로 다리니까 옷이 잘 {눌지, 낫지, 눌지} 않는군요.
 (51) 지금 이 시각에도 강물이 {분니, 불니, 불으니}?
 (52) 그 짐은 아예 {싣지, 실지}를 말게.
 (53) 떨어진 비닐봉지를 {쫓으며, 주우며, 주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54) 부모를 잃은 그 아이가 너무도 {가여워, 가엾어} 차마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55) 아주머니는 한참을 {서럽게, 슬게} 울고는 다시 길을 떠났다.

② 그런데 풀이씨의 여러 씨끝 중에서 /ㄱ/로 시작되는 씨끝(어미)은 홀소리(모음)로 끝난 줄기(어간)를 만나면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또는 그 줄기와 어울려 한 덩어리가 되어 버리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탈락과 축약이 필연적인 경우도 있고 임의적인 경우도 있으니, 몇몇 보기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의 뒤쪽에 보인 형태는 임의적으로 탈락되거나 축약되는 형태인데,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애써 그것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어간의 끝이 /ㄱ/인 경우		어간의 끝이 /ㅏ/인 경우	
건너+든	→ 건너든	가+든	→ 가든
건너+는	→ 건너는	가+는	→ 가는
건너+니?	→ 건너니?	가+니?	→ 가니?
건너+으면	→ 건너면	가+으면	→ 가면
건너+으ㄴ	→ 건너	가+으ㄴ	→ 간
건너+으ㅁ	→ 건너	가+으ㅁ	→ 감

건너+으르수록 → 건 널 수록	가+으르수록 → 갈 수록
건너+어 → 건 너	가+어 → *가 아 → 가
건너+어야 → 건 너 야	가+어야 → *가 아 야 → 가 야
건너+어도 → 건 너 도	가+어도 → *가 아 도 → 가 도
건너+어서 → 건 너 서	가+어서 → *가 아 서 → 가 서
건너+었다 → 건 넜 다	가+었다 → *가 았다 → 갔 다
건너+어라 → 건 너 라	가+어라 → 가 거 라

어간의 끝이 /세/인 경우	어간의 끝이 /깨/인 경우
세+다 → 세 다	깨+다 → 깨 다
세+는 → 세 는	깨+는 → 깨 는
세+니? → 세 니 ?	깨+니? → 깨 니 ?
세+으면 → 세 면	깨+으면 → 깨 면
세+으ㄴ → 세 ㄴ	깨+으ㄴ → 깨 ㄴ
세+으ㄹ → 세 ㄹ	깨+으ㄹ → 깨 ㄹ
세+으르지 → 세 ㄹ 지	깨+으르지 → 깨 ㄹ 지
세+으르게. → 세 ㄹ 게.	깨+으르게. → 깨 ㄹ 게.
세+어야 → 세 어 야 / 세 야	깨+어야 → 깨 어 야 / 깨 야
세+어도 → 세 어 도 / 세 도	깨+어도 → 깨 어 도 / 깨 도
세+어서 → 세 어 서 / 세 서	깨+어서 → 깨 어 서 / 깨 서
세+어라 → 세 어 라 / 세 라	깨+어라 → 깨 어 라 / 깨 라
세+었다 → 세 었 다 / 세 다	깨+었다 → 깨 었 다 / 깨 다

(56) 일행은 재빨리 철길을 {건**넜**었다, 건**넜**다}.

(57) 어머니는 손을 많이 {테**어**서, 테**서**} 부엌일을 못 하세요.

(58) 오후에는 날이 말끔히 {개**이**었다, 개**었**다, 개**다**}.

어간의 끝이 /ㅜ/인 경우	어간의 끝이 /ㅗ/인 경우
세우+던 → 세우 던	오+던 → 오 던 보+던 → 보 던
세우+는 → 세우 는	오+는 → 오 는 보+는 → 보 는
세우+으ㄴ → 세우 ㄴ	오+으ㄴ → 오 ㄴ 보+으ㄴ → 보 ㄴ
세우+으ㄹ → 세우 ㄹ	오+으ㄹ → 오 ㄹ 보+으ㄹ → 보 ㄹ
세우+으르 지 → 세우 ㄹ 지	오+으르 지 → 오 ㄹ 지 보+으르 지 → 보 ㄹ 지
세우+으르 게. → 세우 ㄹ 게.	오+으르 게. → 오 ㄹ 게. 보+으르 게. → 보 ㄹ 게.
세우+어 도 → 세우 워 도	오+어 도 → *오 아 도 → 오 와 도 보+어 도 → 보 아 도 / 보 와 도
세우+어 야 → 세우 워 야	오+어 야 → *오 아 야 → 오 와 야 보+어 야 → 보 아 야 / 보 와 야
세우+어 서 → 세우 워 서	오+어 서 → *오 아 서 → 오 와 서 보+어 서 → 보 아 서 / 보 와 서
세우+어 라 → 세우 워 라	오+어 라 → *오 아 라 → 오 와 라 보+어 라 → 보 아 라 / 보 와 라
세우+었+다 → 세우 웠 다	오+었+다 → *오 아 다 → 오 와 다 보+었+다 → 보 아 다 / 보 와 다

어간의 끝이 /ㄱ/인 경우		어간의 끝이 /ㅍ/인 경우			
뛰+던	→ 뛰던	외+던	→ 외던	되+던	→ 되던
뛰+는	→ 뛰는	외+는	→ 외는	되+는	→ 되는
뛰+니?	→ 뛰니?	외+니?	→ 외니?	되+니?	→ 되니?
뛰+으면	→ 뛰면	외+으면	→ 외면	되+으면	→ 되면
뛰+으ㄴ	→ 뮐	외+으ㄴ	→ 윈	되+으ㄴ	→ 뮐
뛰+으ㅁ	→ 뮐	외+으ㅁ	→ 웁	되+으ㅁ	→ 뮐
뛰+으르지	→ 뮐지	외+으르지	→ 웁지	되+으르지	→ 뮐지
뛰+어도	→ 뛰어도	외+어도	→ 외 어도	되+어도	→ 되 어도 / 뮐 도
뛰+어야	→ 뛰어야	외+어야	→ 외 어야	되+어야	→ 되 어야 / 뮐 야
뛰+어서	→ 뛰어서	외+어서	→ 외 어서	되+어서	→ 되 어서 / 뮐 도
뛰+어라	→ 뛰어라	외+어라	→ 외 어라	되+어라	→ 되 어라 / 뮐 야
뛰+었다	→ 뛰었다	외+었다	→ 외 었다	되+었다	→ 되 었다 / 뮐 다

어간의 끝이 /ㄴ/인 경우			
먹이+고	→ 먹이고	치+던	→ 치던
먹이+든	→ 먹이든	치+는	→ 치는
먹이+니?	→ 먹이니?	치+니?	→ 치니?
먹이+으면	→ 먹이면	치+으면	→ 치면
먹이+으ㄴ	→ 먹인	치+으ㄴ	→ 친
먹이+으ㅁ	→ 먹일	치+으ㅁ	→ 침
먹이+으르	→ 먹일	치+으르	→ 칠
먹이+어도	→ 먹이 어 도 / 먹 어 도	치+어도	→ *치 어 도 → 쳐 도
먹이+어야	→ 먹이 어 야 / 먹 어 야	치+어야	→ *치 어 야 → 쳐 야
먹이+어서	→ 먹이 어 서 / 먹 어 서	치+어서	→ *치 어 서 → 쳐 서
먹이+어라	→ 먹이 어 라 / 먹 어 라	치+어라	→ *치 어 라 → 쳐 라
먹이+었다	→ 먹이 어 었다 / 먹 어 었다	치+었다	→ *치 어 었다 → 쳐 다

- (59) 우리는 석물을 일으켜 {세우어서, 세워서} 다시 {살펴보았다, 살펴봤다}.
- (60) 갓난아기 때에 병원에서 두 아이의 부모가 서로 {바뀌었다, 바꿨다}고 하는군요.
- (61) ‘애국가’ 가사를 제4절까지 {외어, 외워} 보세요.
- (62) 이번 일이 성사가 {되서, 되어서, 돼서} 다행입니다.
- (63) 그냥 먹어도 {되요, 돼요}?
- (64) 그냥 먹으면 안 {되지요, 돼죠, 되죠}.
- (65) 올해 명절은 고향에 {가아서, 가서} {섰어요, 쇠었어요, 췌어요}?

③ “-이-”도 풀이씨와 같이 활용을 한다. 그런데 그것은 홀소리로 끝난 이름씨(명사) 뒤에서는 임의적으로 탈락하기도 하고, 앞선 홀소리와 어울려 한 덩어리가 되어 버리기도 한다. 그 보기를 들면 다음 표와 같다.

을소리로 끝난 명사(N) 뒤에 놓인 /이/의 활용			
N+이+다	→ N+이다 / N+다	나무+이+다	→ 나무이다 / 나무다
N+이+고	→ N+이고 / N+고	나무+이+고	→ 나무이고 / 나무고
N+이+든	→ N+이든 / N+든	나무+이+든	→ 나무이든 / 나무든
N+이+니?	→ N+이니? / N+니?	나무+이+니?	→ 나무이니? / 나무니?
N+이+으면	→ N+이면 / N+면	나무+이+으면	→ 나무이면 / 나무면
N+이+으니까	→ N+입니다 / N+니까	나무+이+으니까	→ 나무입니다 / 나무니까
N+이+으ㄴ	→ N+인	나무+이+으ㄴ	→ 나무인
N+이+으ㄹ	→ N+임	나무+이+으ㄹ	→ 나무임
N+이+으ㄴ	→ N+일	나무+이+으ㄴ	→ 나무일
N+이+으ㄴ지	→ N+일지	나무+이+으ㄴ지	→ 나무일지
N+이+어야	→ N+이어야 / N+여야	나무+이+어야	→ 나무이어야 / 나무여야
N+이+어도	→ N+이어도 / N+여도	나무+이+어도	→ 나무이어도 / 나무여도
N+이+어서	→ N+이어서 / N+여서	나무+이+어서	→ 나무이어서 / 나무여서
N+이+었다	→ N+이었다 / N+였다	나무+이+었다	→ 나무이었다 / 나무였다
N+이+예요	→ N+이에요 / N+예요	나무+이+예요	→ 나무이에요 / 나무예요

(66) 이것은 질소{이고, 고}, 저것은 수소{이다, 다}.

(67) 저 책은 얼마{예요, 이에요, 이에요, 예요}?

(68) 큰 상자 안에 든 것은 {뭐예요, 뭐예요}?

(69) 발일은 언제 할 {거예요, 거예요}?

(70) “영이는 어디 갔니?” 하고 물으니 “{학교예요, 학교이에요, 학교예요}.”라고 대답한다.

Ⅲ. 한국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

Ⅲ.1. ‘한국어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의 발자취

①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조선어학회(→한글학회).

제6장 외래어 표기

제60항 외래어를 표기할 적에는 다음의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1)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한다.

(2) 표음주의를 취한다.

② 1940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조선어학회.

- ③ 1948년, 『들은말 적는 법(외래어 표기법)』, 문교부.
- ④ 1958년,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 문교부.
- ⑤ 1986년 1월 7일, 『외래어 표기법』, 문교부. (“표기의 기본 원칙”과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그리고 “표기 일람표” 다섯, “표기 세칙” 일곱)

위에서 ⑤의 『외래어 표기법』이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기초이고 출발점이다. 그것은 완결된 규정이 아니며, 세부 내용—‘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을 연이어 추가해 가고 있는 중인데, 1986년 이후에 사정은 다음 같다.

1992년 11월 27일(문화부 고시 제1992-31호) :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 다섯.

1995년 3월 16일(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8호) :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 셋.

2004년 12월 20일(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1호) :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 셋.

2005년 12월 28일(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32호) :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 셋.

그러니 지금까지 ‘21개 언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 준용할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을 마련한 것이다.¹⁶⁾

III.2. 『외래어 표기법(1986~2005)』의 목차

제 1 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 2 장 표기 일람표 ¹⁷⁾

- 표 1 국제 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
- 표 2 에스파냐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3 이탈리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4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
- 표 5 중국어의 주음 부호와 한글 대조표
- 표 6 폴란드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7 체코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8 세르보크로아트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9 루마니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10 헝가리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11 스웨덴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12 노르웨이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13 덴마크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16) 그러므로 1986년의 최초 규정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추가한 내용까지도 나타내기 위하여 『외래어 표기법(1986~2005)』로 표기한다.

- 표 14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15 타이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16 베트남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17 포르투갈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18 네덜란드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19 러시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제 3 장 표기 세칙

- 제 1 절 영어의 표기
- 제 2 절 독일어의 표기
- 제 3 절 프랑스어의 표기
- 제 4 절 에스파냐어의 표기
- 제 5 절 이탈리아어의 표기
- 제 6 절 일본의 표기
- 제 7 절 중국어의 표기
- 제 8 절 폴란드어의 표기
- 제 9 절 체코어의 표기
- 제 10 절 세르브크로아트어의 표기
- 제 11 절 루마니아어의 표기
- 제 12 절 헝가리어의 표기
- 제 13 절 스웨덴어의 표기
- 제 14 절 노르웨이어의 표기
- 제 15 절 덴마크어의 표기
- 제 16 절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의 표기
- 제 17 절 타이어의 표기
- 제 18 절 베트남어의 표기
- 제 19 절 포르투갈어의 표기
- 제 20 절 네덜란드어의 표기
- 제 21 절 러시아어의 표기

제 4 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 제 1 절 표기 원칙
- 제 2 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 제 3 절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

17) “표기 일람표” 19개는 뒤쪽에 <자료 1>로 올린다.

Ⅲ.3. 『외래어 표기법(1986~2005)』의 기본 원칙

『외래어 표기법(1986)』에서 규정한 “표기의 기본 원칙”(제1항)은 다음과 같다.

- | | |
|-----|---|
| 제1항 |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
| 제2항 |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
| 제3항 |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 제4항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5항 |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위의 5개 항 중에서 제2항은 대상 언어의 말소리(발음)를 표기한다는 것이니, 바꾸어 말하면 전사법(표음법)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원칙은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부터 채택한 것이다.

-전자법(轉字法, transliteration) : 표기 형태를 표기 대상으로 함.

-전사법(轉寫法, transcription) : 음운(발음)을 표기 대상으로 함.

㉠ 영어의 경우 : 표기 …………… talent, mammoth ⇒ “탈렌트, 맘모스”

음운(발음) …… [tælənt], [mæməθ] ⇒ “탈런트, 매머드”

㉡ 한어의 경우 : 한자 표기 …………… 北京 ⇒ “북경”

병음자모(발음) … Beijing ⇒ “베이징”

㉢ 일본어의 경우 : 한자 표기 …………… 東京 ⇒ “동경”

가나 표기(발음)……… と う き ょ う [tókio] ⇒ “도쿄 ”

※ 일본의 로마자 표기… “Tokyo”

Ⅳ.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

Ⅳ.1.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의 발자취

① 1935년, 『조선어음의 만국음성부호 표기』, 정인섭(연희전문학교 교수).

② 1939년, MR 표기법. -머쿤(George S. McCune; 선교사, 숭실전문학교 교장)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하버드대학 대학원 학생)

③ 1940년, 『조선어음 로마자 표기법』 조선어학회.

- ④ 1948년, 『한글을 로마자로 적는 법』, 문교부.
- ⑤ 1954년, 예일 체계. -마틴(Samuel E. Martin; 예일대학교 한국어 교수)
- ⑥ 1959년,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문교부.
- ⑦ 1984년 1월 13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교부.
- ⑧ 2000년 7월 7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관광부. 모두 12개 항.

IV.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의 주요 내용

1)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표기 대상을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표기법이 있는데,

- 전자법(轉字法; transliteration) : 표기 형태를 표기 대상으로 함.
- 전사법(轉寫法; transcription) : 음운(발음)을 표기 대상으로 함.
 - ㉠ 표기 손등 종로 끊겨
 발음 [손뽕] [종노] [끈켜]
 - ㉡ 표기 속리산 없는
 발음 [①속니산→②송니산] [①업는→②엄는]
 - ㉢ 표기 외국 최고 동대문
 발음 [웨국] [첼고] [t][d]

‘기본 원칙’에서 밝힌 내용은 전사법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곧 한국어의 ‘발음’을 표기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2) 음소-로마자의 대응

○ 자음(닿소리) 19개

ㅂ → b, p	ㅈ → d, t	ㅅ → s	ㅊ → j	ㄱ → g, k
ㅃ → pp	ㅉ → tt	ㅆ → ss	ㅑ → jj	ㅋ → kk
ㅍ → p	ㅌ → t	ㅎ → h	ㅔ → ch	ㅋ → k
ㅁ → m	ㄴ → n	ㄹ → r, l	ㅇ → ng	

○ 모음(홀소리)과 이중모음(두겹홀소리)

ㅏ → a	ㅑ → ya	ㅓ → wa
ㅓ → eo	ㅕ → yeo	ㅗ → wo
ㅛ → o	ㅜ → yo	
ㅜ → u	ㅠ → yu	
ㅔ → e	ㅖ → ye	ㅞ → we
ㅙ → ae	ㅛ → yae	ㅜ → wae
ㅣ → i	ㅟ → wi	
ㅡ → eu	ㅢ → ui	
ㅚ → oe		

3) 그밖의 중요 사항

(1) 혼동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중앙→ jung-ang (jungang=준강) 반구대→ Ban-gudae (Bangudae=방우대)

세운→ Se-un (Seun=슨) 해운대→ Hae-undae (Haeundae=하은대)

(2) 행정구역 단위 앞에는 붙임표를 넣고,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강원도→ Gangwon-do 삼죽면[삼중면]→ Samjuk-myeon

종로2가→ Jongno 2-ga 석사동→ Seoksa-dong

(3) 자연 지물, 문화재, 인공 축조물 이름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속리산→ Songnisan 월정사→ Woljeongsa

다보탑→ Dabotap 소양교→ Soyang-gyo

(4)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다만, “ㄱ ㄷ ㅂ ㄴ”은 각각 “g d b l”로만 적으며,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한다.

4) 한국인 성명의 표기

오늘날 한국인의 한국어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지각색이다. “민하용”이란 성명으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Min Ha Yong ② Min, Ha Yong ③ Ha Yong Min ④ Ha Yong, Min

⑤ Min Ha-Yong ⑥ Min, Ha-Yong ⑦ Min Hayong ……

실상이 이렇다 보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성명 표기를 보고 성과 이름을 구

별하지 못한다. ①과 같이 표기해 놓은 것을 보고는 “Mr. Yong(용)”이라 하기도 하고, 그것이 얹혀되어 ③과 같이 표기해 놓으면 엉뚱하게 “Mr. Ha(하)”라고 한다. 국제 운동경기의 중계 방송을 보면 이런 현상을 어렵잖게 확인할 수 있다. 외국 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에서는 혼란상이 더 심하다.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에서는, 성명의 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해 두고 있다.

- (1) ‘성-이름’의 순서로 쓰고, 성과 이름은 띄어 쓴다.

민하용 → Min Hayong

이 규정의 기본 취지는 외국의 눈치 살피지 말고 한국인은 한국식으로, 곧 성을 앞에, 이름을 뒤에 쓰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름은 이름대로 한 덩어리로 쓰고.

- (2) 성과 이름, 그리고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양민호 → Yang Minho / Yang Min-ho

[양미노] ×Yang Mino / Yang Mi-no

◦ 하숙민 → Ha Sukmin / Ha Suk-min

[하송민] ×Ha Sungmin / Ha Sung-min

◦ 홍빛나 → Hong Bitna / Hong Bit-na

[홍빈나] ×Hong Binna / Hong Bin-na

“민호, 석민, 빛나”는 각각 [미노, 성민, 빈나]로 발음되지만, 이 발음을 기준 삼지 않고 기본 형태(한글 표기 형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Bitna/Bit-na”에서 보듯이, 받침 “ㄷ”은 “t”로 표기한다.

(3)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현행 규정대로 성을 표기하면 “오→O, 우→U, 이→I, 강→Gang, 박→Bak, 김→Gim” 등과 같이 되는데, 이들은 이미 두루 통용되고 있는 표기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의 표기는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따로 정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국립국어원에서는 그 방안을 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01년에 제1차 시안을 마련하여 논의한 일이 있고, 2009년에 다시 제2차 시안을 마련하여 6월 25일에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참고 권장 도서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8.

『이야기 한글맞춤법』(다듬판), 리의도, 석필출판사, 2004.

『올바른 우리말 사용법』, 리의도, 예담출판사, 2005.

< 자료 1 >

「외래어 표기법」

문교부 고시 제85-11호(1986.1.7.)
문화부 고시 제1992-31호(1992. 11. 27.)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8호(1995. 3. 16.)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1호(2004. 12. 20.)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32호(2005. 12. 28.)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2장 표기 일람표

외래어는 표 1~19에 따라 표기한다.

표 1 국제 음성기호(I.P.A.)와 한글 대조표

자음			반모음		모음	
국제 음성기호	한글		국제 음성기호	한글	국제 음성기호	한글
	모음 앞	자음 앞 또는 어말				
[p]	ㅍ	ㅍ, 프	[j]	이*	[i]	이
[b]	ㅂ	브	[ɥ]	위	[y]	위
[t]	ㅌ	ㅌ, 트	[w]	오·우*	[e]	에
[d]	ㄷ	드			[ø]	외
[k]	ㅋ	ㄱ, 크			[ɛ]	에
[g]	ㄱ	그			[ɛ̃]	앵
[f]	ㅍ	프			[œ]	외
[v]	ㅂ	브			[œ̃]	윙
[θ]	ㅌ	스			[æ]	애
[ð]	ㄷ	드			[a]	아
[s]	ㅌ	스			[ɑ]	아
[z]	ㅌ	즈			[ã]	앙
[ʃ]	시	슈, 시			[ʌ]	어
[ʒ]	ㅌ	지			[ɔ]	오
[tʃ]	ㅌ	츠			[ɔ̃]	옹
[dʒ]	ㅌ	즈			[o]	오
[tʃ̥]	ㅌ	치			[u]	우
[dʒ̥]	ㅌ	지			[ə]**	어
[m]	ㅁ	ㅁ			[ə̃]	어
[n]	ㄴ	ㄴ				
[ɲ]	니*	뉴				
[ŋ]	ㅇ	ㅇ				
[l]	ㄹ, ㄹㄹ	ㄹ				
[r]	ㄹ	ㄹ				
[h]	ㅎ	ㅎ				
[ç]	ㅎ	히				
[x]	ㅎ	호				

* [j], [w]의 ‘이’와 ‘오·우’, 그리고 [ɲ]의 ‘니’는 모음과 결합할 때 제3장 표기 세칙에 따른다.

** 독일어의 경우에는 ‘에’,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으’로 적는다.

* ll, y, ñ, w의 ‘이, 니, 오, 우’는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1음절로 적는다.

표 3 이탈리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로마자	한글		보기
		모음 앞	자음 앞· 어말	
자 음	b	비	브	Bologna 볼로냐, bravo 브라보.
	c	키, 치	크	Como 코모, Sicilia 시칠리아, credo 크레도.
	ch	키	-	Pinocchio 피노키오, cherubino 케루비노.
	d	디	드	Dante 단테, drizza 드리차.
	f	피	프	Firenze 피렌체, freddo 프레도.
	g	기, 지	그	Galileo 갈릴레오, Genova 제노바, gloria 글로리아.
	h	-	-	hanno 안노, oh 오.
	l	리, 리리	리	Milano 밀라노, largo 라르고, palco 팔코.
	m	미	미	Macchiavelli 마키아벨리, mamma 맘마, Campanella 캄파넬라.
	n	니	니	Nero 네로, Anna 안나, divertimento 디베르티멘토.
	p	피	프	Pisa 피사, prima 프리마.
	q	키	-	quando 칸도, queto 퀘토.
	r	리	르	Roma 로마, Marconi 마르코니.
	s	시	스	Sorrento 소렌토, asma 아스마, sasso 사소.
	t	티	트	Torino 토리노, tranne 트란네.
	v	비	브	Vivace 비바체, manovra 마노브라.
	z	치	-	nozze 노체, mancanza 만칸차.
모 음	a	아		abituero 아비투로, capra 카프라.
	e	에		erta 에르타, padrone 파드로네.
	i	이		infamia 인파미아, manica 마니카.
	o	오		oblio 오블리오, poetica 포에티카.
	u	우		uva 우바, spuma 스푸마.

표 4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

가나	한글									
	어두					어중·어말				
ア イ ウ エ オ	아	이	우	에	오	아	이	우	에	오
カ キ ク ケ コ	가	기	구	게	고	카	키	쿠	케	코
サ シ ス セ ソ	사	시	스	세	소	사	시	스	세	소
タ チ ツ テ ト	다	지	쓰	테	도	타	치	쓰	테	토
ナ ニ ヌ ネ ノ	나	니	누	네	노	나	니	누	네	노
ハ ヒ フ ヘ ホ	하	히	후	헤	호	하	히	후	헤	호
マ ミ ム メ モ	마	미	무	메	모	마	미	무	메	모
ヤ イ ュ エ ヨ	야	이	유	에	요	야	이	유	에	요
ラ リ ル レ ロ	라	리	루	레	로	라	리	루	레	로
ワ (ヰ) ウ (ヱ) ヲ	와	(이)	우	(에)	오	와	(이)	우	(에)	오
ン						ㄴ				
ガ ギ グ ゲ ゴ	가	기	구	게	고	가	기	구	게	고
ザ ジ ズ ゼ ゴ	자	지	즈	제	조	자	지	즈	제	조
ダ チ ヅ デ ド	다	지	즈	테	도	다	지	즈	테	도
バ ビ ブ ベ ボ	바	비	부	베	보	바	비	부	베	보
パ ピ プ ペ ポ	파	피	푸	페	포	파	피	푸	페	포
キャ キュ キョ	가	규	교			카	큐	쿄		
ギャ ギュ ギョ	가	규	교			가	큐	교		
シャ シュ ショ	샤	슈	쇼			샤	슈	쇼		
ジャ ジュ ジョ	자	주	조			자	주	조		
チャ チュ チョ	차	추	조			차	추	초		
ハヤ ヒュ ヒョ	하	휴	효			하	휴	효		
ビヤ ビュ ビョ	바	뷰	보			바	뷰	보		
ピヤ ピュ ピョ	파	퓨	표			파	퓨	표		
ミヤ ミュ ミョ	마	뮤	묘			마	뮤	묘		
リヤ リュ リョ	라	류	료			라	류	료		

표 5 중국어의 주음 부호(注音符號)와 한글 대조표

[]는 단독 발음될 경우의 표기임.
 ()는 자음이 선행할 경우의 표기임.

성 모 (聲母)									
음의 분류	주음 부호	한어 병음 자모	웨이드식 로마자	한글	음의 분류	주음 부호	한어 병음 자모	웨이드식 로마자	한글
중순성 重脣聲	ㄅ	b	p	ㅂ	설면성 舌面聲	ㄐ	j	ch	ㅈ
	ㄆ	p	p	ㅍ		ㄑ	q	ch	ㅊ
	ㄇ	m	m	ㅁ		ㄒ	x	hs	ㅅ
순치성 脣齒聲	ㄈ	f	f	ㅍ	교설첨성 翹舌尖聲	ㄗ	zh (zhi)	ch (chih)	ㅈ [즈]
설첨성 舌尖聲	ㄊ	d	t	ㄷ		ㄘ	ch (chi)	ch (chih)	ㅊ [츠]
	ㄌ	t	t	ㄴ		ㄙ	sh (shi)	sh (shih)	ㅅ [스]
	ㄴ	n	n	ㄴ		ㄹ	r (ri)	j (jih)	ㄹ [르]
설근성 舌根聲	ㄌ	l	l	ㄹ	설치성 舌齒聲	ㄗ	z (zi)	ts (tzü)	ㅈ [즈]
	ㄎ	g	k	ㄱ		ㄘ	c (ci)	tś (tźü)	ㅊ [츠]
	ㄏ	k	k	ㅋ		ㄙ	s (si)	s (ssü)	ㅅ [쓰]
	ㄱ	h	h	ㅎ					

운 모 (韻母)									
음의 분류	주음 부호	한어 병음 자모	웨이드식 로마자	한글	음의 분류	주음 부호	한어 병음 자모	웨이드식 로마자	한글
단운 單韻	ㄚ	a	a	아	齊齒類	ㄚㄢ	yai	yai	야이
	ㄛ	o	o	오		ㄚㄠ	yao (iao)	yao (iao)	야오
	ㄜ	e	ê	어		ㄚㄡ	you (ou, iu)	yu (iu)	유
	ㄝ	ê	e	에		ㄚㄢ	yan (ian)	yen (ien)	옌
	ㅣ	yī (i)	i	이		ㄚㄣ	yīn (in)	yīn (in)	인
	ㅜ	wū (u)	wu (u)	우		ㄚㄨ	yang (iang)	yang (iang)	양
	ㅜ	yū (u)	yü (ü)	위		ㄚㄥ	yīng (ing)	yīng (ing)	잉
복운 複韻	ㄚㄢ	ai	ai	아이	結合韻母	ㅜㅏ	wa (ua)	wa (ua)	와
	ㅓ	ei	ei	에이		ㅜㅓ	wo (uo)	wo (uo)	위
	ㅛ	ao	ao	아오		ㅜㅏ	wai (uai)	wai (uai)	와이
	ㅜ	ou	ou	어우		ㅜㅓ	wei (ui)	wei (uei, ui)	웨이 (우이)
부성운 附聲韻	ㅏ	an	an	안		ㅏ	wan (uan)	wan (uan)	완
	ㅓ	en	ên	언		ㅓ	wen (un)	wên (un)	원(운)
	ㅏ	ang	ang	앙		ㅏ	wang (uang)	wang (uang)	왕
	ㅓ	eng	êng	엥		ㅓ	weng (ong)	wêng (ung)	웡(웅)
권설운 捲舌韻	ㄴ	er (r)	êrh	얼		ㄴ	yue (ue)	yüeh (üeh)	웨
제치류	ㄚㄢ	ya (ia)	ya (ia)	야		ㄚㅏ	yuan (uan)	yüan (üan)	위안
	ㅓ	yo	yo	요		ㅓ	yun (un)	yün (ün)	윈
	ㅓ	ye (ie)	yeh (ieh)	예		ㅓ	yong (iong)	yung (iung)	융

표 6 폴란드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로마자	한글		보기
		모음 앞	자음 앞· 어말	
자 음	b	ㅂ	ㅂ, 브, 프	burak 부라크, szybko 십코, dobrze 도브제, chleb 홀레프.
	c	ㅈ	츠	cel 첼, Balicki 발리츠키, noc 노츠.
	ć	-	치	dać 다치.
	d	ㄷ	드, 트	dach 다흐, zdrowy 즈드로비, słodki 스위트키, pod 포트.
	f	ㅍ	프	fasola 파솔라, befszytk 베프슈티크.
	g	ㄱ	ㄱ, 그, 크	góra 구라, grad 그라트, targ 타르크.
	h	ㅎ	호	herbata 헤르바타, Hrubieszów 흐루비에슈프.
	k	ㄱ	ㄱ, 크	kino 키노, daktyl 닥틸, król 크롤, bank 반크.
	l	ㄹ, ㄹㄹ	ㄹ	lis 리스, kolano 콜라노, motyl 모틸.
	m	ㅁ	ㅁ, 므	most 모스트, zimno 짐노, sam 삼.
	n	ㄴ	ㄴ	nerka 네르카, dokument 도쿠멘트, dywan 디반.
	ń	-	ㄴ	Gdańsk 그단스크, Poznań 포즈난.
	p	ㅍ	ㅍ, 프	para 파라, Słupsk 스웁스크, chłop 흐워프.
	r	ㄹ	르	rower 로베르, garnek 가르네크, sznur 슈누르.
	s	ㅅ	스	serce 세르체, srebro 스투브로, pas 파스.
	ś	-	시	ślepy 실레피, dziś 지시.
	t	ㅌ	트	tam 탐, matka 마트카, but 부트.
	w	ㅂ	브, 프	Warszawa 바르샤바, piwnica 피브니차, krew 크레프.
	z	ㅈ	즈, 스	zamek 자메크, zbrodnia 즈브로드니아, wywóz 비부스.
	ż	-	지, 시	gwoździak 그보지지크, więź 비앵시.
	ź	ㅈ, 시*	주, 슈, 시	żyto 지토, różny 루주니, łyżka 위슈카, straż 스트라시.
	ch	ㅎ	호	chory 호리, kuchnia 쿠흐니아, dach 다흐.
	dz	ㅈ	즈, 츠	dziura 지우라, dzwon 즈본, mosiądz 모시옹츠.
	dź	-	치	niedźwiedź 니에치비에치.
	dź, drz	ㅈ	치	drzewo 제보, łoż 워치.
	cz	ㅈ	치	czysty 치스티, beczka 베치카, klucz 클루치.
	sz	시*	슈, 시	szary 샤리, musztarda 무슈타르다, kapelusz 카펠루시.
	rz	ㅈ, 시*	주, 슈, 시	rzeka 제카, Przemysł 프세미실, kołnierz 코우니에시.
반 모 음	j		이*	jasny 야스니, kraj 크라이.
	ł		우	łono 워노, głowa 그워바, bułka 부우카, kanał 카나우.
모 음	a		아	trawa 트라바.
	ą		옹	trąba 트롱바, mąka 몽카, kąć 콩트, tą 통.
	e		에	zero 제로.
	ę	앵, 예		kępa 켕파, węgorz 벵고시, Częstochowa 쳉스토호바, prosię 프로셰.
	i		이	zima 지마.
	o		오	udo 우도.
	ó		우	próba 프루바.
	u		우	kula 쿨라.
	y		이	daktyl 닥틸.

* ż, sz, rz의 '시'와 j의 '이'는 뒤따르는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1음절로 적는다.

표 7 체코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로마자	한글		보기
		모음 앞	자음 앞· 어말	
자 음	b	ㅂ	ㅂ, 브, 프	barva 바르바, obchod 옴호트, dobrý 도브리, jeřab 예르자프.
	c	츠	츠	cigareta 치가레타, nemocnice 네모츠니체, nemoc 네모츠.
	č	치	치	čapek 차페크, kulečnik 쿨레치니크, míč 미치.
	d	ㄷ	드, 트	dech 데흐, divadlo 디바들로, led 레트.
	d'	디*	디, 티	d'ábel 님벨, lod'ka 로타카, hrud' 흐루티.
	f	프	프	fík 피크, knoflík 크노플리크.
	g	ㄱ	ㄱ, 그, 크	gramofon 그라모폰.
	h	ㅎ	ㅎ	hadr 하드르, hmyz 호미스, bůh 부호.
	ch	ㅎ	ㅎ	choditi 호디티, chlapec 홀라페츠, prach 프라흐.
	k	ㄱ	ㄱ, 크	kachna 카흐나, nikdy 니크디, padák 파다크.
	l	ㄹ, ㄹㄹ	ㄹ	lev 레프, šplhati 슈플하티, postel 포스텔.
	m	ㅁ	ㅁ, 므	most 모스트, mrak 므라크, podzim 포드짐.
	n	ㄴ	ㄴ	noha 노하, podmínka 포드민카.
	ň	니*	ㄴ	němý 네미, sánky 산키, Plzeň 플젠.
	p	프	ㅂ, 프	Praha 프라하, koroptev 코롭테프, strop 스트로프.
	qu	크ㅂ	-	quasi 크바시.
	r	ㄹ	ㄹ	ruka 루카, harmonika 하르모니카, mír 미르.
	ř	르ㅈ	르주, 르슈, 르시	řeka 르제카, námořník 나모르주니크, hořký 호르슈키, kouř 코우르시.
	s	ㅅ	스	sedlo 세들로, máslo 마슬로, nos 노스.
	š	시*	슈, 시	šaty 샤틀, Šternberk 슈테른베르크, koš 코시.
	t	ㅌ	트	tam 탐, matka 마트카, bolest 볼레스트.
	t'	티*	티	tělo 텔로, štěstí 슈테스티, obět' 오베티.
	v	ㅂ	브, 프	vysoký 비소키, knihovna 크니호브나, kov 코프.
	w	ㅂ	브, 프	
	x**	ㄱ, ㅈ	ㄱ 스	xerox 제록스, saxofón 삭소폰.
	z	ㅈ	즈, 스	zámek 자메크, pozdní 포즈드니, bez 베스.
	ž	ㅈ	주, 슈, 시	Žižka 지슈카, Žvěřina 주베르지나, Brož 브로시.
반 모 음	j	이*		jaro 야로, pokoj 포코이.
모 음	a, á	아		balík 발리크, komár 코마르.
	e, é	에		dech 데흐, léto 레토.
	ě	예		šest 셰스트, věk 베크.
	i, í	이		kino 키노, míra 미라.
	o, ó	오		obec 오베츠, nervózní 네르보즈니.
	u, ú, ů	우		buben 부벤, úrok 우로크, dům 둠.
	y, ý	이		jazyk 야지크, líný 리니.

* d', ň, š, t', j의 '디, 니, 시, 티, 이'는 뒤따르는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1음절로 적는다.

** x는 개별 용례에 따라 한글 표기를 정한다.

표 8

세르보크로아트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로마자	한글		보기
		모음 앞	자음 앞· 어말	
자 음	b	ㅂ	브	bog 보그, drobnjak 드로브냐크, pogreb 포그레브.
	c	ㅊ	츠	cigara 치가라, novac 노바츠.
	č	ㅊ	치	čelik 첼리크, točka 토치카, kolač 콜라치.
	ć, tj	ㅊ	치	naći 나치, sestrić 세스트리치.
	d	ㄷ	드	desno 데스노, drvo 드르보, medved 메드베드.
	dž	ㅈ	지	džep 제프, narudžba 나루지바.
	đ, dj	ㅈ	지	Đurađ 주라지.
	f	ㅍ	프	fasada 파사다, kifla 키플라, šaraf 샤라프.
	g	ㄱ	그	gost 고스트, dugme 두그메, krug 크루그.
	h	ㅎ	흐	hitan 히탄, šah 샤희.
	k	ㄱ	ㄱ, 크	korist 코리스트, krug 크루그, jastuk 야스투크.
	l	ㄹ, ㄹㄹ	ㄹ	levo 레보, balkon 발콘, šal 샬.
	lj	리*, ㄹ리*	ㄹ	ljeto 레토, pasulj 파술.
	m	ㅁ	ㅁ, 므	malo 말로, mnogo 므노고, osam 오삼.
	n	ㄴ	ㄴ	nos 노스, banka 반카, loman 로만.
	nj	니*	ㄴ	Njegoš 네고시, svibanj 스비반.
	p	ㅍ	ㅍ, 프	peta 페타, opština 옴슈티나, lep 레프.
	r	ㄹ	르	riba 리바, torba 토르바, mir 미르.
	s	ㅅ	스	sedam 세담, posle 포슬레, glas 글라스.
	š	시*	슈, 시	šal 샬, vlasništvo 블라스니슈트보, broš 브로시.
	t	ㅌ	트	telo 텔로, ostrvo 오스트르보, put 푸트.
	v	ㅂ	브	vatra 바트라, olovka 올로브카, proliv 프롤리브.
	z	ㅈ	즈	zavoj 자보이, pozno 포즈노, obraz 오브라즈.
	ž	ㅈ	주	žena 제나, izložba 이즐로주바, muž 무주.
반 모 음	j	이*		pojas 포야스, zavoj 자보이, odjelo 오델로.
모 음	a	아		bakar 바카르.
	e	에		cev 체브.
	i	이		dim 딴.
	o	오		molim 몰림.
	u	우		zubar 주바르.

* lj, nj, š, j의 ‘리, 니, 시, 이’는 뒤따르는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1음절로 적는다.

표 9 루마니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로마자	한글		보기
		모음 앞	자음 앞· 어말	
자 음	b	ㅂ	브	bibliotecă 비블리오테커, alb 알브.
	c	ㄱ, ㄷ	ㄱ, ㅋ	Cîntec 큰테크, Cine 치네, factură 팩투러.
	d	ㄷ	드	Moldova 몰도바, Brad 브라드.
	f	ㅍ	프	Focșani 폭샤니, Cartof 카르토프.
	g	ㄱ, ㄺ	그	Galați 갈라치, Gigel 지젤, hering 헤링그.
	h	ㅎ	호	hațeg 하체그, duh 두호.
	j	ㅈ	지	Jiu 지우, Cluj 클루지.
	k	ㄱ	-	kilogram 킬로그램.
	l	ㄹ, ㄹㄹ	ㄹ	bibliotecă 비블리오테커, hotel 호텔.
	m	ㅁ	ㅁ	Maramureș 마라무레슈, Avram 아브람.
	n	ㄴ	ㄴ, ㄸ	Nucet 누체트, Bran 브란, pumn 품느.
	p	ㅍ	ㅍ, ㅍㅍ	pianist 피아니스트, septembrie 셉템브리에, cap 카프.
	r	ㄹ	르	radio 라디오, dor 도르.
	s	ㅅ	스	Sibiu 시비우, pas 파스.
	ș	시*	슈	Șag 샤그, Mureș 무레슈.
	t	ㅌ	트	telefonist 텔레포니스트, bilet 빌레트.
	ț	ㅌ	츠	țigară 치가리, braț 브라츠.
	v	ㅂ	브	Victoria 빅토리아, Brașov 브라쇼브.
	x**	ㄱㅅ, ㄷㅅ	크스, ㄱ스	taxi 택시, examen 에그자멘.
	z	ㅈ	즈	ziar 지아르, autobuz 아우토부즈.
	ch	ㄱ	-	Cheia 케이아.
	gh	ㄱ	-	Gheorghe 게오르게.
모 음	a	아		Arad 아라드.
	ă	어		Bacău 바커우.
	e	에		Elena 엘레나.
	i	이		pianist 피아니스트.
	î, â	으		Cîmpina 캄피나, România 로므니아.
	o	오		Oradea 오라데아.
	u	우		Nucet 누체트.

* ș의 ‘시’는 뒤따르는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1음절로 적는다.

** x는 개별 용례에 따라 한글 표기를 정한다.

표 10

헝가리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로마자	한글		보기
		모음 앞	자음 앞· 어말	
자 음	b	ㅂ	브	bab 버브, ablak 어블러크. citrom 치트롬, nyolcvan 놀츠번, arc 어르츠. csavar 처버르, kulcs 쿨치. daru 더루, medve 메드베, gond 곤드. dzsem 쥬. elfog 엘포그. gumi 구미, nyugta 뉴그터, csomag 초머그. gyár 자르, hagyma 허지머, nagy 너지. hal 헐, juh 유호. béka 베커, keksz 켉스, szék 세크. len 렌, meleg 멜레그, dél 델. málna 말너, bomba 봄버, álom 알롬. néma 네머, bunda 분더, pihen 피헨. nyak 녀크, hányszor 하니소르, irány 이라니. árpa 아르퍼, csipke 칩케, hónap 호너프. róka 로커, barna 버르너, ár 아르. sál 살, puska 푸슈카, aratás 어러타시. alszik 얼시크, asztal 어스탈, hús 후스. ajto 어이토, borotva 보로트버, csont 촌트. atya 어치. vesz 베스, évszázad 에브사저드, enyv 에니브. zab 저브, kezd 케즈드, blúz 블루즈. zsák 자크, tőzsde 퇴주데, rozs 로주.
	c	츠	츠	
	cs	츠	치	
	d	ㄷ	드	
	dzs	ㅈ	지	
	f	프	프	
	g	ㄱ	그	
	gy	ㅈ	지	
	h	ㅎ	호	
	k	ㄱ	ㄱ, 크	
	l	ㄹ, ㄹㄹ	ㄹ	
	m	ㅁ	ㅁ	
	n	ㄴ	ㄴ	
	ny	니*	니	
	p	프	ㅂ, 프	
	r	ㄹ	ㄹ	
	s	시*	슈, 시	
	sz	ㅅ	스	
	t	ㅌ	트	
	ty	츠	치	
	v	ㅂ	브	
	z	ㅈ	즈	
	zs	ㅈ	주	
반 모 음	j	이*		ajak 어여크, fej 페이, január 여누아르. lyuk 유크, mélység 메이세그, király 키라이.
	ly	이*		
모 음	a	어		lakat 러커트. máj 마이. mert 메르트. mész 메스. isten 이슈텐. sí 시. torna 토르너. róka 로커. sör 쇠르. nőne. bunda 분더. hús 후시. fűst 뽀슈트. fű 뽀.
	á	아		
	e	에		
	é	에		
	i	이		
	í	이		
	o	오		
	ó	오		
	ö	외		
	ő	외		
	u	우		
	ú	우		
	ü	위		
	ű	위		

* ny, s, j, ly의 ‘니, 시, 이, 이’는 뒤따르는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1음절로 적는다.

표 11

스웨덴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로마자	한글		보기
		모음 앞	자음 앞·어말	
자 음	b	ㅂ	ㅂ, 브	bal 발, snabbt 스납트, Jacob 야코브.
	c	ㅋ, ㅅ	ㄱ	Carlsson 칼손, Celsius 셀시우스, Ericson 에릭손.
	ch	ㅅ*	크	charm 샤름, och 오크.
	d	ㄷ	드	dag 다그, dricka 드리카, Halmstad 할름스타드.
	dj	이*	—	Djurgården 유르고르덴, adjö 아예.
	ds	—	스	Sundsvall 순스발.
	f	ㅍ	프	Falun 팔룬, luft 루프트.
	g	ㄱ	—	Gustav 구스타브, helgon 헬곤.
		이*	이(lg, rg) ㅇ(n 앞) ㄱ(무성음 앞)	Göteborg 예테보리, Geijer 예이에르, Gislaved 이슬라베드. älg 엘리, Strindberg 스트린드베리, Borg 보리. Magnus 망누스, Ragnar 랑나르, Agnes 앙네스. högst 획스트.
			그	Grönberg 그윈베리, Ludvig 루드비그.
	gi	이*	—	Gjerstad 예르스타드, Gjörwell 예르벨.
	h	ㅎ	적지 않음	Hälsingborg 헬싱보리, hyra 휘라, Dahl 달.
	hj	이*	—	Hjälmaren 엘마렌, Hjalmar 얄마르, Hjort 요르트.
	j	이*	—	Jansson 얀손, Jönköping 옌세핑, Johansson 요한손, börja 보리아, fjärl 피에릴, mjuk 미우크, mjöl 미엘.
	k	ㅋ, ㅅ*	ㄱ, 크	Karl 칼, Kock 코크, Kungsholm 쿡스홀름, Kerstin 세르스틴, Norrköping 노르세핑, Lysekil 뤼세킬, oktober 옥토베르, Fredrik 프레드리크, kniv 크니브.
	ck	ㅋ	ㄱ, 크	vacker 바케르, Stockholm 스톡홀름, bock 보크.
	kj	ㅅ*	—	Kjell 쉘, Kjula 술라.
	l	ㄹ, ㄹㄹ	ㄹ	Linköping 린세핑, tala 탈라, tal 탈.
	lj	이*, ㄹ리	ㄹ리	Ljusnan 유스난, Södertälje 쇠데르텔리에, detalj 데탈리.
	m	ㅁ	ㅁ	Malmö 말뫼, samtal 삼탈, hummer 홈메르.
	n	ㄴ	ㄴ 적지 않음(m 뒤)	Norrköping 노르세핑, Vänern 베네른, land 란드. Karlshamn 칼스함.
	ng	ㅇ	ㅇ	Borlänge 볼랭에, kung 쿡, lång 룡.
	nk	ㅇㅋ	ㅇ, ㅇ크	anka 앙카, Sankt 상트, bank 방크.
	p	ㅍ	ㅂ, 프	Piteå 피테오, knappt 크납트, Uppsala 읍살라, kamp 캄프.
	qv	크ㅂ	—	Malmqvist 말름크비스트, Lindqvist 린드크비스트.
	r	ㄹ	ㄹ	röd 뢰드, Wilander 빌란데르, Björk 비에르크.
	rl	ㄹㄹ	ㄹ	Erlander 엘란데르, Karlgren 칼그렌, Jarl 얄.
	s	ㅅ	스	sommar 쉘마르, Storvik 스토르비크, dans 단스.
	sch	ㅅ*	슈	Schack 샤크, Schein 셰인, revansch 레반슈.
	sj	ㅅ*	—	Nässjö 네셰, sjukhem 슈크헴, Sjöberg 셰베리.
	sk	스ㅋ, ㅅ*	—	Skoglund 스코글룬드, Skellefteå 셀레프테오, Skövde 셰브데, Skeppsholmen 쉘스홀멘.
	skj	ㅅ*	—	Hammar skjöld 함마르셸드, Skjöldebrand 셀데브란드.
	stj	ㅅ*	—	Stjärneborg 세르네보리, Oxenstjerna 옥센세르나.
	t	ㅌ	ㅅ, 트	Göta 예타, Botkyrka 붓쉬르카, Trelleborg 트렐레보리, båt 보트.
	th	ㅌ	트	Luther 루테르, Thunberg 툰베리.

	ti	시*	—	lektion 렉손, station 스타손.
	tj	시*	—	tjeck 셰크, Tjåkkå 쇼코, tjäna 세나, tjugo 슈고.
V, w		ㅅ	브	Sverige 스베리에, Wasa 바사, Swedenborg 스베덴보리, Eslöv 에슬뢰브.
	x	ㄱㅅ	ㄱ스	Axel 악셀, Alexander 알렉산데르, sex 섹스.
	z	ㅅ	—	Zachris 사크리스, zon 손, Lorenzo 로렌소.
모음	a	아		Kalix 칼릭스, Falun 팔룬, Alvesta 알베스타.
	e	에		Enköping 엔세핑, Svealand 스베알란드.
	ä	에		Mälaren 멜라렌, Vänern 베네른, Trollhättan 트롤헤탄.
	i	이		Idre 이드레, Kiruna 키루나.
	å	오		Åmål 오몰, Västerås 베스테로스, Småland 스몰란드.
	o	오		Boden 보덴, Stockholm 스톡홀름, Örebro 외레브로.
	ö	외, 에		Östersund 외스테르순드, Björn 비에른, Linköping 린세핑.
	u	우		Umeå 우메오, Luleå 룰레오, Lund 룬드.
	y	위		Ystad 위스타드, Nynäshamn 님네스함, Visby 비스뷔.

* dj, g, gj, hj, j, lj의 '이'와 ch, k, kj, sch, sj, sk, skj, stj, ti, tj의 '시'가 뒤따르는 모음과 결합할 때에는 합쳐서 한 음절로 적는다. 다만, j는 표기 세칙 제4항, 제11항을 따른다.

표 12

노르웨이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로마자	한글		보기
		모음 앞	자음 앞·어말	
자음	b	ㅂ	ㅂ, 브	Bodø 보되, Ibsen 임센, dobb 도브.
	c	ㄱ, ㅅ	크	Jacob 야코브, Vincent 빈센트.
	ch	ㄱ	크	Joachim 요아킴, Christian 크리스티안.
	d	ㄷ		Bodø 보되, Norden 노르덴.
		적지 않음	(장모음 뒤) 적지 않음(ld, nd의 d)	spade 스파에.
			적지 않음(장모음+rd)	Arnold 아르놀, Harald 하랄, Roald 로알, Aasmund 오스문, Vigeland 비겔란, Svendsen 스벤센.
			적지 않음(단모음+rd)	fjord 피오르, Sigurd 시구르, gård 고르, nord 노르, Halvard 할바르, Edvard 에드바르.
			적지 않음(장모음 뒤)	ferd 페르드, Rikard 리카르드.
			드	glad 글라, Sjaastad 쇼스타.
			프	dreng 드렝, bad 바드.
음	f	프		Hammerfest 함메르페스트, biff 비프.
	g	ㄱ		gå 고, gave 가베.
		이*		gigla 이글라, gyllen 윌렌.
			적지 않음(이중모음 뒤와 ig, lig) o(n 앞) ㄱ(무성음 앞)	haug 헤우, deig 데이, Solveig 솔베이, farlig 팔리.
			그	Agnes 앙네스, Magnus 망누스.
			ㄱ(무성음 앞)	sagtang 삭탕.
			그	grov 그로브, berg 베르그, helg 헬그.
	gj	이*	—	Gjeld 엘, gjenta 엔타.

자음	h	ㅎ		Johan 요한, Holm 홀름.
	j	이*	적지 않음 —	Hjalmar 알마르, Hvalter 발테르, Krohg 크로그.
	k	ㅋ, 시*	ㄱ, ㅋ	Jonas 요나스, Bjørn 비에른, fjord 피오르, Skodje 스코디에, Evje 에비에, Tjeldstø 티엘스퇴.
	kj	시*	—	Rikard 리카르트, Kirsten 시르스텐, Kyndig 쉰디, Køyra 세위라, lukt 룩트, Erik 에리크.
	l	리, 리리	리	Kjerschow 세르쇼브, Kjerulf 세룰프, Mikkjel 미셸.
	m	ㅁ	ㅁ	Larvik 라르비크, Ålesund 올레순, sol 술.
	n	ㄴ	ㄴ	Moss 모스, Trivandrum 트리반드룸.
	ng	ㅇ	ㅇ	Namsos 남소스, konto 콘토.
	nk	ㅇㅋ	ㅇ, ㅇㅋ	Lange 랑에 Elling 엘링, tvang 트방.
	p	ㅍ	ㅍ, 프	ankel 앙켈, punkt 푼트, bank 방크.
	qu	크ㅍ	—	pels 펠스, september 셉템베르, sopp 소프.
	r	리	르	Quisling 크비슬링.
	rl	리리	리	Ringvassøy 링바쇠위, Lillehammer 릴레함메르.
	음	s	ㅅ	스
sch		시*	슈	Namsos 남소스, Svalbard 스발바르.
sj		시*	—	Schæferhund 셰페르훈, Frisch 프리슈.
sk		스ㅋ, 시*	스크	Sjaastad 쇼스타, Sjoa 쇼아.
skj		시*	—	skatt 스카트, Skienselv 시엔스엘브, skram 스크람, Ekofisk 에코피스크.
t		ㅌ	ㅌ, 트 적지 않음(어말 관사 et)	Skjeggedalsfoss 세게달스포스, Skjåk 쇼크.
th		ㅌ	트	metal 메탈, husets 후셋스, slet 슬레트, lukt 룩트.
tj		시*	—	huset 후세, møtet 피테, taket 타케.
v, w		ㅌ	브	Dorthe 도르테, Matthias 마티아스, Hjorth 요르트.
				tjern 세른, tjue 슈에.
				varm 바름, Kjerschow 세르쇼브.
모음		a	아	Hamar 하마르, Alta 알타.
		aa, å	오	Aall 올, Aasmund 오스문, Kåre 코레, Vesterålen 베스트에롤렌, Vestvågøy 베스트보괴위, Ålesund 올레순.
		au	에우	haug 헤우, lauk 레우크, grauk 그레우크.
	æ	에	være 베레, Svolvær 스볼베르.	
	e	에	esel 에셀, fare 파레.	
	eg	에이, 에그	regn 레인, tegn 테인, negl 네일, deg 데그, egg 에그.	
	ø	외, 에	Løken 뢰켄, Gjøvik 예비크, Bjørn 비에른.	
	i	이	Larvik 라르비크, Narvik 나르비크.	
	ie	이	Grieg 그리그, Nielsen 닐센, Lie 리.	
	o	오	Lonin 로닌, bok 보크, bord 보르, fjorten 피오르텐.	
	øg	외위	døgn 뢰윈, løgn 뢰윈.	
	øy	외위	høy 회위, røyk 뢰위크, nøytral 뢰위트랄.	
	u	우	Ålesund 올레순, Porsgrunn 포르스그룬.	
	y	위	Stjernøy 스티에르뇌위, Vestvågøy 베스트보괴위.	

* g, gj, j, lj의 '이'와 k, kj, sch, sj, sk, skj, tj의 '시'가 뒤따르는 모음과 결합할 때에는 합쳐서 한 음절로 적는다. 다만 j는 표기 세칙 제5항, 제12항을 따른다.

덴마크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로마자	한글		보기	
		모음 앞	자음 앞·어말		
자음	b	ㅂ	ㅂ, 브	Bornholm 보른홀름, Jacobsen 야콥센, Holstebro 홀스테브로.	
	c	ㄱ, ㅅ	크	cafeteria 카페테리아, centrum 센트룸, crosset 크로세트.	
	ch	시*	크	Charlotte 샤를로테, Brochmand 브로크만, Grønbech 그뢴베크.	
	d	ㄷ		Odense 오덴세, dansk 단스크, vendisk 벤디스크.	
			적지 않음(ds, dt, ld, nd, rd)	plads 플라스, Grundtvig 그룬트비, kridt 크리트, Lolland 롤란, Øresund 외레순, hård 호르.	
			드(nder)	andre 안드레, vandre 반드레.	
			드	dreng 드렝.	
	f	ㅍ	프	Falster 팔스테르, flod 플로드, ruf 루프.	
	g	ㄱ		give 기베, general 게네랄, gevær 게베르, hugge 후게.	
			적지 않음		
			(어미 ig)	herlig 헤를리, Grundtvig 그룬트비.	
			(u와 l 사이)	fugl 풀, kugle 쿨레,	
			(borg, berg)	Nyborg 닐보르, Frederiksberg 프레데릭스베르.	
			그	magt 마그트, dug 두그.	
	h	ㅎ	적지 않음	Helsingør 헬싱외르, Dahl 달.	
	hj	이*	—	hjem 엠, hjort 요르트, Hjøring 예링.	
	j	이*	—	Jensen 옌센, Esbjerg 에스비에르그, Skjern 스키테른.	
	음	k	ㄱ	ㄱ, 크	København 코펜하운, køre 코레, Skære 스케레, Frederikshavn 프레데릭스하운, Holbæk 홀베크.
		l	ㄹ, ㄹㄹ	ㄹ	Lolland 롤란, Falster 팔스테르.
m		ㅁ	ㅁ	Møn 뫼, Bornholm 보른홀름.	
n		ㄴ	ㄴ	Rønne 뢰네, Fyn 뫼.	
ng		ㅇ	ㅇ	Helsingør 헬싱외르, Hjøring 예링.	
nk		ㅇㄱ	ㅇ크	ankel 앙켈, Munk 몽크.	
p		ㅍ	ㅂ, 프	hoppe 호페, september 셉템베르, spring 스프링, hop 호프.	
qu		크ㅂ	—	Taanquist 톤크비스트.	
r		ㄹ	ㄹ	Rønne 뢰네, Helsingør 헬싱외르.	
s, sc		ㅅ	스	Sorø 소뢰, Roskilde 로스킬레, Århus 오르후스, scene 세네.	
sch		시*	슈	Schæfer 셰페르.	
sj	시*	—	Sjælland 셸란, sjal 샬, sius 슈스.		

자 음	t	ㅌ	ㅌ, 트	Tønder 퇴네르, stå 스토, vittig 비티, nattkappe 닛카페, træde 트레데, streng 스트렝, hat 하트, krudt 크루트.
	th	ㅌ	트	Thorshavn 토르스하운, Thisted 티스테드.
	v	ㅈ		Vejle 바일레, dvale 드발레, pulver 풀베르, rive 리베, lyve 뢰베, løve 뢰베.
		우(단모음 뒤)		doven 도우엔, hoven 호우엔, oven 오우엔, sove 소우에.
		적지 않음(lv)		halv 할, gulf 굴.
		우(av, æv, øv, ov, ev)		gravsten 그라우스텐, København 쾨벤하운, Thorshavn 토르스하운, jævn 예운, Støvle 스토울레, lov 로우, rov 로우, Hjeltslev 엘름슬레우.
모 음		ㅍㅅ	브	arv 아르브.
	x	ㅅ	ㅅ스	Blixen 블릭센, sex 섹스.
	z		-	zebra 세브라.
	a		아	Falster 팔스테르, Randers 라네르스.
	æ		에	Næstved 네스트베드, træ 트레, fæ 페, mæt 메트.
	aa, å		오	Kierkegaard 키르케고르, Århus 오르후스, lås 로스.
모 음	e		에	Horsens 호르센스, Brande 브라네.
	eg		아이	negl 나일, segl 사일, regn 라인.
	ej		아이	Vejle 바일레, Sejerø 사이에뢰.
	ø		외	Rønne 뢰네, Ringkøbing 링뢰빙, Sorø 소뢰.
	øg		오이	nøgle 노일레, øgle 오일레, løgn 로인, døgn 도인.
	øj		오이	Højer 호이에르, øje 오이에.
	i		이	Ribe 리베, Viborg 비보르.
	ie		이	Niels 닐스, Nielsen 닐센, Nielson 닐손.
	o		오	Odense 오텐세, Svendborg 스벤보르.
	u		우	Århus 오르후스, Toflund 토폴룬.
	y		위	Fyn 뢰인, Thy 뢰.

* hj, j의 ‘이’와 sch, sj의 ‘시’가 뒤따르는 모음과 결합할 때에는 합쳐서 한 음절로 적는다. 다만, j는 표기 세칙 제5항을 따른다.

표 14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로마자	한글		보기
		모음 앞	자음 앞·어말	
자 음	b	ㅂ	ㅂ, 브	Bali 발리, Abdul 압둘, Najib 나집, Bromo 브로모.
	c	ㅈ	츠	Ceto 체토, Aceh 아체, Mac 마츠.
	d	ㄷ	ㅅ, 드	Denpasar 덴파사르, Ahmad 아맛, Idris 이드리스.
	f	ㅍ	ㅍ	Fuji 푸지, Arifin 아리핀, Jusuf 유슈.
	g	ㄱ	ㄱ, 그	gamelan 가믈란, gudeg 구득, Nugroho 누그로호.
	h	ㅎ	—	Halmahera 할마헤라, Johor 조호르, Ipoh 이포.
	j	ㅈ	즈	Jambi 잠비, Majapahit 마자파히트, mikraj 미크라즈.
	k	ㅋ	ㄱ, 크	Kalimantan 칼리만탄, batik 바틱, Krakatau 크라카타우.
	kh	ㅎ	ㄱ, 크	khas 하스, akhbar 악바르, Fakhruddin 파크루딘.
	l	ㄹ, ㄹㄹ	ㄹ	Lombok 롬복, Palembang 팔렘방, Bangsal 방살.
	m	ㅁ	ㅁ	Maluku 말루쿠, bemo 베모, Iram 이람.
	n	ㄴ	ㄴ	Nias 니아스, Sukarno 수카르노, Prambanan 프람바난.
	ng	ㅇ	ㅇ	Ngarai 응아라이, bonang 보낭, Bandung 반둥.
	p	ㅍ	ㅂ, 프	Padang 파당, Yap 얍, Suprana 수프라나.
	q	ㅋ	ㄱ	furqan 푸르칸, Taufiq 타우픽.
	r	ㄹ	ㄹ	ringgit 링깃, Rendra 렌드라, asar 아사르.
	s	ㅅ	스	Sabah 사바, Brastagi 브라스타기, Gemas 게마스.
	t	ㅌ	ㅅ, 트	Timor 티모르, Jakarta 자카르타, Rahmat 라맛, Trisno 트리스노.
	v	ㅂ	—	Valina 발리나, Eva 에바, Lovina 로비나.
	x	ㅅ	—	xenon 세논.
	z	ㅈ	즈	zakat 자캣, Azlan 아즐란, Haz 하즈.
반 모 음	w	오, 우		Wamena 와메나, Badawi 바다위.
	y	이		Yudhoyono 유도요노, Surabaya 수라바야.
모 음	a	아		Ambon 암본, sate 사테, Pancasila 판차실라.
	e	에, 으		Ende 엔데, Ampenan 암페난, Pane 파네, empat 음팟, besar 브 사르, gendang 근당.
	i	이		Ibrahim 이브라힘, Biak 비악, trimurti 트리무르티.
	o	오		Odalan 오달란, Barong 바롱, komodo 코모도.
이 중 모 음	u	우		Ubud 우붓, kulit 쿨릿, Dampu 담푸.
	ai	아이		ain 아인, Rais 라이스, Jelai 즐라이.
	au	아우		aula 아울라, Maumere 마우메레, Riau 리아우.
	oi	오이		Amboina 암보이나, boikot 보이콧.

표 15 타이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로마자	타이 문자	한글		보기
			모음 앞	자음 앞·어말	
자 음	b	บ	ㅂ	ㅂ	baht 밧, Chonburi 촌부리, Kulab 꿀랍
	c	จ	ㅈ	—	Caolaw 짜올라우
	ch	ฉ	ㅊ	ㅈ	Chiang Mai 치앙마이, buach 부앗
		ช			
		ฉ			
	d	ด	ㄷ	ㅈ	Dindaeng 딘댕, Rad Burana 랏부라나, Samed 사멧
		ต			
	f	ฟ	ㅍ	—	Maefaluang 매팔루앙
		พ			
	h	ห	ㅎ	—	He 헤, Lahu 라후, Mae Hong Son 매홍손
		ฮ			
	k	ก	ㄱ	ㄱ	Kaew 깨우, malako 말라꼬, Rak Mueang 락므앙, phrik 프리크
	kh	ข	ㅋ	ㄱ	Khaosan 카오산, lakhon 라콘, Caroenrachphakh 짜른랏팍
		ค			
		ก			
		ค			
		ข			
	l	ล	ㄹ, ㄹㄹ	ㄴ	lamyai 랍야이, Thalang 탈랑, Sichol 시촌
		ฬ			
	m	ม	ㅁ	ㅁ	Maikhao 마이카오, mamuang 마무앙, khanom 카놈, Silom 실롬
	n	ณ	ㄴ	ㄴ	Nan 난, Ranong 라농, Arun 아룬, Huahin 후아힌
		น			
	ng	ง	ㅇ	ㅇ	nga 응아, Mongkut 몽꿋, Chang 창
	p	ป	ㅍ	ㅂ	Pimai 뻬마이, Paknam 뻬남, Nakhapraphip 나카쁘라팁
	ph	ผ	ㅍ	ㅂ	Phuket 푸켓, Phicit 피켓, Saithiph 사이팁
		พ			
		ภ			
	r	ร	ㄹ	ㄴ	ranat 라낫, thurian 투리안

자 음	s	ຊ	入	入	Siam 시암, Lisu 리수, Saket 사켓
		ຮ			
		ສ			
		ຮ			
	t	ຖ	ㄷ	入	Tak 딱, Satun 사툰, natsin 낫신, Phuket 푸켓
		ທ			
	th	ຖ	ㅌ	入	Tham Boya 탐보야, Thon Buri 톤부리, thurian 투리안, song thaew 송태우, Pathumthani 뻘툼타니, Chaiyawath 차이야왓
		ຖ			
		ຖ			
		ຖ			
ຖ					
ຖ					
반 모 음	y	ຢ	이	lamyai 랍야이, Ayutthaya 아유타야	
		ຍ			
w	ວ	오, 우	Wan Songkran 완송끄란, Malaiwong 말라이웡, song thaew 송태우		
모 음	a	າ	아	Akha 아카, kapi 까빠, lang sad 랑삿, Phanga 팡아	
		າ			
	e	ເ	에	Erawan 에라완, Akhane 아카네, Panare 빠나레	
		ເ			
	i	ີ	이	Sire 시레, linci 린찌, Krabi 끄라비, Lumpini 롬피니	
		ີ			
	o	ໂ	오	khon 쿤, Loi 로이, namdokmai 남독마이, Huaito 후아이또	
		ໂ			
		ໂ			
		ໂ			
	u	ູ	우	thurian 투리안, Chonburi 촌부리, Satun 사툰	
		ູ			
	ae	ເ	애	kaeng daeng 껏댕, Maew 매우, Bangsaen 방센, Kaibae 까이배	
		ເ			
oe	ເ	으	Mai Mueangdoem 마이 므앙듬		
	ເ				
ue	ເ	으	kaeng cued 껏쑈, Maeraphueng 매라푹, Buengkum 븡꿈		
	ເ				

베트남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156

포르투갈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로마자	한글		보기	
		모음 앞	자음 앞· 어말		
자	b	ㅂ	브	bossa nova 보사노바, Abreu 아브레우.	
	c	ㅋ, ㅍ	ㄱ	Cabral 카브랄, Francisco 프란시스코, aspecto 아스펙투.	
	ç	ㅍ	ㅍ	saraça 사라사, Eça 에사.	
	ch	시*	ㅍ	Chaves 샤베스, Espichel 이스피셀.	
	d	ㄷ, ㅌ	드	escudo 이스쿠두, Bernardim 베르나르딩, Dias 지아스(브).	
	f	ㅍ	프	fado 파두, Figo 피구.	
	g	ㄱ, ㅌ	그	Saramago 사라마구, Jorge 조르즈, Portalegre 포르탈레그르, Guerra 게하.	
	h	ㅇ	ㅍ	Henrique 엔히크, hostia 오스티아.	
	j	ㅌ	ㅍ	Aljezur 알제주르, panja 판자.	
	l	ㄹ, ㄹㄹ	ㄹ, 우	Lisboa 리스보아, Manuel 마누엘, Melo 멜루, Salvador 사우바도르(브).	
음	lh	ㄹ리*	ㅍ	Coelho 코엘류, Batalha 바탈라.	
	m	ㅁ	ㅁ, ㅇ	Moniz 모니스, Humberto 움베르투, Camocim 카모싱.	
	n	ㄴ	ㄴ, ㅇ	Natal 나탈, António 안토니우, Angola 앙골라, Rondon 혼동.	
	nh	니*	ㅍ	Marinha 마리냐, Matosinhos 마토지뉴스.	
	p	ㅍ	프	Pedroso 페드로주, Lopes 로페스, Prado 프라두.	
	q	ㅋ	ㅍ	Aquilino 아킬리누, Junqueiro 중케이루.	
	r	ㄹ, ㅎ	ㄹ	Freire 프레이르, Rodrigues 호드리게스, Cardoso 카르도주.	
	s	ㅍ, ㅌ	ㅌ, ㅌ	Salazar 살라자르, Barroso 바호주, Egas 에가스, mesmo 메즈무.	
	t	ㅌ, ㅌ	ㅌ	Tavira 타비라, Garrett 가헤트, Aracati 아라카치(브).	
	v	ㅂ	ㅍ	Vicente 빈센트, Oliveira 올리베이라.	
모음	x	시*, ㅌ	ㅌ	Xira 시라, exame 이자르, exportar 이스포르타르.	
	z	ㅌ	ㅌ	fazenda 파젠다, Diaz 디아스.	
	a	아		Almeida 알메이다, Egas 에가스.	
	e	에, 이, 으		Elvas 엘바스, escudo 이스쿠두, Mangualde 망구알드, Belmonte 베우몬치(브).	
	i	이		Amalia 아말리아, Vitorino 비토리누.	
	o	오, 우		Odemira 오데미라, Melo 멜루, Passos 파수스.	
	u	우		Manuel 마누엘, Guterres 구테르스.	
	이중모음	ai	아이		Sampaio 삼파이우, Cascais 카스카이스.
		au	아우		Bauru 바우루, São Paulo 상파울루.
		ãe	앙이		Guimarães 기마랑이스, Magalhães 마갈랑이스.
ão		앙		Durão 두랑, Fundão 푼당.	
ei		에이		Ribeiro 히베이루, Oliveira 올리베이라.	
eu		에우		Abreu 아브레우, Eusebio 에우제비우.	
iu		이우		Aeminium 아에미니움, Ituiutaba 이투이우타바.	
oi		오이		Coimbra 코임브라, Goiás 고이아스.	
ou		오		Lousã 로장, Mogadouro 모가도루.	
õe		웅이		Camões 카몽이스, Pilões 필롱이스.	
ui	우이		Luis 루이스, Cuiabá 쿠이아바.		

* ch의 ‘시’, lh의 ‘리’, nh의 ‘니’, x의 ‘시’가 뒤따르는 모음과 결합할 때에는 합쳐서 한 음절로 적는다.

** k, w, y는 외래어나 외래어에서 파생된 포르투갈식 어휘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자나 기호의 표기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포르투갈어 알파벳에 속하지 않으므로 해당 외래어 발음에 가깝게 표기한다.

*** (브)는 브라질 포르투갈어에 적용되는 표기이다.

표 18 네덜란드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로마자	한글		보기
		모음 앞	자음 앞 · 어말	
자 음	b	ㅂ	ㅂ, 브, 프	Borst 보르스트, Bram 브람, Jacob 야코프.
	c	ㄱ	ㄱ, 크	Campan 캄판, Nicolaas 니콜라스, topic 토픽, scrupel 스크뤼펠.
	ch	ㅅ		cyaan 시안, Ceelen 세일런.
	d	ㄷ	ㅅ, 드, 트	Volcher 폴허르, Utrecht 위트레흐트.
	f	ㅍ	프	Delft 델프트, Edgar 엣하르, Hendrik 헨드릭, Helmond 헬몬트.
	g	ㅎ	호	Flevoland 플레볼란트, Graaf 그라프.
	h	ㅎ	—	Goes 후스, Limburg 림뷔르흐.
	j	이*	—	Heineken 헤이네켄, Hendrik 헨드릭.
	k	ㄱ	ㄱ, 크	Jongkind 용킨트, Jan 얀, Jeroen 예룬.
	kw(qu)	크ㅂ	—	Kok 콕, Alkmaar 알크마르, Zierikzee 지릭제이.
	l	ㄹ, ㄹㄹ	ㄹ	kwaliteit 크발리테이트, kwellen 크벨런, kwitantie 크비탄시.
	m	ㅁ	ㅁ	Lasso 라소, Friesland 프리슬란트, sabel 사벨.
	n	ㄴ	ㄴ	Meerssen 메이르션, Zalm 잘름.
	ng	ㅇ	ㅇ	Nijmegen 네이메헌, Jansen 얀션.
	p	ㅍ	ㅂ, 프	Inge 잉어, Groningen 그로닝언.
	r	ㄹ	르	Peper 페퍼르, Kapteyn 캅테인, Koopmans 코프만스.
	s	ㅅ	스	Rotterdam 로테르담, Asser 아서르.
	sch	스ㅎ	스	Spinoza 스피노자, Hals 할스.
	sj	시*	시	Schiphol 스키펴, Escher 에스허르, typisch 티피스.
	t	ㅌ	ㅅ, 트	sjaal 샬, huisje 하위셔, ramsj 람시 fetisj 페티시.
	ts	ㅈ	츠	Tinbergen 틴베르헌, Gerrit 헤릿, Petrus 페트뤼스.
단 모 음	v	ㅂ, ㅍ	브	Aartsen 아르첸, Beets 베이즈.
	w	ㅂ	—	Veltman 펠트만, Eindhoven 에인트호번, Weltevree 벨테브레이.
	y	이	이	Wim 빔.
	z	ㅈ	—	cyaan 시안, Lyonnet 리오넛, typisch 티피스, Verwey 페르베이.
				Zeeman 제이만, Huizinga 하위징아.
	a	아		Asser 아서르, Frans 프란스.
	e	에, 어		Egmont 에흐몬트, Frederik 프레데릭, Heineken 헤이네켄, Lubbers 뤼버르스, Campan 캄판.
	i	이		Nicolaas 니콜라스, Tobias 토비아스.
	ie	이		Pieter 피터르, Vries 프리스.
	o	오		Onnes 오너스, Vondel 폰덜.
이 중 모 음	oe	우		Boer 부르, Boerhaave 부르하버.
	u	위		Utrecht 위트레흐트, Petrus 페트뤼스.
	eu	외		Europort 외로포르트, Deurne 되르너.
	uw	위		ruw 뤼, duwen 뤼언, Euwen 에위언.
	ou(w), au(w)	아우		Bouts 바우츠, Bouwman 바우만, Paul 파울, Lauwersmeer 라우에르스메이르.
	ei, ij	에이		Heike 헤이커, Bolkestein 볼케스테인, Ijssel 에이셀.
	ui(uy)	아위		Huizinga 하위징아, Zuid-Holland 자위트홀란트, Buys 바위스.
	aai	아이		draaien 드라이언, fraai 프라이, zaait 자이트, Maaikes 마이커스.
	ooi	오이		Booisman 보이스만 Hooites 호이터스.
	oei	우이		Boeijinga 부잉아, moeite 무이터.
	eeuw	에이우		Leeuwenhoek 레이우엔훅, Meeuwes 메이우어스.
	ieuw	이우		Lieuwma 리우마, Rieuwers 리우어르스.

* j의 ‘이’, sj의 ‘시’가 뒤따르는 모음과 결합할 때에는 합쳐서 한 음절로 적는다.

표 19 러시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로마자	키릴 문자	한글			보기
			모음 앞	자음 앞	어말	
자 음	b	б	ㅂ	ㅂ, 브	프	Bolotov(Болотов) 볼로토프, Bobrov(Бобров) 보브로프, Kurbskii(Курбский) 쿠릅스키, Gleb(Глеб) 글레프
	ch	ч	ㅈ	치		Goncharov(Гончаров) 곤차로프, Manechka(Манечка) 마네치카, Yakubovich(Якубович) 야쿠보비치
	d	д	ㄷ	ㅅ, 드	트	Dmitrii(Дмитрий) 드미트리, Benediktov(Бенедиктов) 베네딕토프, Nakhodka(Находка) 나훗카, Voskhod(Восход) 보스호트
	f	ф	ㅍ	ㅍ, 프	프	Fyodor(Фёдор) 표도르, Yefremov(Ефремов) 예프레모프, Iosif(Иосиф) 이오시프
	g	г	ㄱ	ㄱ, 그	크	Gogol'(Гоголь) 고골, Musorgskii(Мусоргский) 무소륵스키, Bogdan(Богдан) 보그단, Andarbag(Андарбаг) 안다르바크
	kh	х	ㅎ	흐		Khabarovsk(Хабаровск) 하바롭스크, Akhmatova(Ахматова) 아흐마토바, Oistrakh(Ойстрах) 오이스트라흐
	k	к	ㅋ	ㄱ, 크	크	Kalmyk(Калмык) 칼미크, Aksakov(Аксаков) 악사코프, Kvas(Квас) 크바스, Vladivostok(Владивосток) 블라디보스토크
	l	л	ㄹ, ㄹㄹ	ㄹ		Lenin(Ленин) 레닌, Nikolai(Николай) 니콜라이, Krylov(Крылов) 크릴로프, Pavel(Павел) 파벨
	m	м	ㅁ	ㅁ, 므	ㅁ	Mikhail(Михаил) 미하일, Maksim(Максим) 막심, Mtsensk (Мценск) 므첸스크
	n	н	ㄴ	ㄴ		Nadya(Надя) 나다, Stefan(Стефан) 스테판
	p	п	ㅍ	ㅍ, 프	프	Pyotr(Пётр) 표트르, Rostopchina(Ростопчина) 로스토프치나, Pskov(Псков) 프스코프, Maikop(Майкоп) 마이코프
	r	р	ㄹ	르		Rybinsk(Рыбинск) 리빈스크, Lermontov(Лермонтов) 레르몬토프, Artyom(Артём) 아르툼
	s	с	ㅅ	스		Vasilii(Василий) 바실리, Stefan(Стефан) 스테판, Boris(Борис) 보리스
	sh	ш	시*	시		Shelgunov(Шелгунов) 셸구노프, Shishkov(Шишков) 시시코프

자 음	shch	щ	시*	시		Shcherbakov(Щербаков) 셰르바코프, Shchirets(Щирец) 시레츠, borshch(борщ) 보르시
	t	т	티	스, 트	트	Tat'yana(Татьяна) 타티야나, Khvatkov(Хватков) 흐바트코프, Tver'(Тверь) 트베리, Buryat(Бурят) 부랴트
	tch	тч	츠	-		Gatchina(Гатчина) 가치나, Tyutchev(Тютчев) 튜체프
	ts	ц, тс	츠	츠		Kapitsa(Капица) 카피차, Tsvetaeva(Цветаева) 츠벤태예바, Bryatsk(Бря́тск) 브라츠크, Yakutsk(Яку́тск) 야쿠츠크
	v	в	비	비, 브	프	Verevkin(Веревкин) 베렙킨, Dostoevskii(Достоевский) 도스토옌스키, Vladivostok(Владивосток) 블라디보스토크, Markov(Марков) 마르코프
	z	з	즈	즈, 스	스	Zaichev(Зайчев) 자이체프, Kuznetsov(Кузнецов) 쿠즈네초프, Agryz(Агрыз) 아그리스
	zh	ж	즈	즈, 시	시	Zhadovskaya(Жадовская) 자둡스카야, Zhdanov(Жданов) 즈다노프, Luzhkov(Лужков) 루시코프, Kebezh(Кебеж) 케베시
	j/i	й	이	이		Yurii(Юрий) 유리, Andrei(Андрей) 안드레이, Belyi(Белый)벨리
모 음	a	a	아		Aksakov(Аксаков) 악사코프, Abakan(Абакан) 아바칸	
	e	е	에, 예		Petrov(Петров) 페트로프, Evgenii(Евгений) 예브게니, Alekseev(Алексеев) 알렉세예프, Ertel'(Эртель) 예르텔	
		э				
	i	и	이		Ivanov(Иванов) 이바노프, Iosif(Иосиф) 이오시프	
	o	о	오		Khomyakov(Хомяков) 호먀코프, Oka(Ока) 오카	
	u	у	우		Ushakov(Ушаков) 우샤코프, Sarapul(Сарапул) 사라풀	
	y	ы	이		Saltykov(Салтыков) 살티코프, Kyra(Кыра) 키라, Belyi(Белый) 벨리	
	ya	я	야		Yasinskii(Ясинский) 야신스키, Adygeya(Адыгея) 아디게야	
	yo	ё	요		Solov'yov(Соловьёв) 솔로비요프, Artyom(Артём) 아르툼	
yu	ю	유		Yurii(Юрий) 유리, Yurga(Юрга) 유르가		

* sh(ш), shch(щ)의 '시'가 뒤따르는 모음과 결합할 때에는 합쳐서 한 음절로 적는다.

< 자료 2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 관광부 고시 제2000-8호(2000.7.7.)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붙임 1〕 ‘ㅩ’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ㅋ	ㆁ	ㄷ	ㅌ	ㄷ	ㅌ	ㅂ	ㅍ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3.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4. 비음

ㄴ	ㅁ	ㅇ
n	m	ng

5. 유음

ㄹ
r, l

[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백암 Baegam	옥천 Okcheon
	합덕 Hapdeok	호법 Hobeop
	월곶[월곶] Wolgot	벚꽃[벚곶] beotkkot
	한밭[한밭] Hanbat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구리 Guri	설악 Seorak
	칠곡 Chilgok	임실 Imsil
	울릉 Ulleung	대관령[대관령] Daegwallyeong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백마[백마] Baengma	신문로[신문노] Sinmunno
	종로[종노] Jongno	왕십리[왕십니] Wangsimni
	별내[별래] Byeollae	신라[실라] Silla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알약[알략] allyak
------	---------------------	---------------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맞히다[마치다] machida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보기) 종고[조코] joko 놓다[노타] nota
 잡혀[자퍼] japyeo 낱지[나치] nachi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목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죽변 Jukbyeon 낙성대 Nakseongdae
 합정 Hapjeong 팔당 Paldang
 샛별 saetbyeol 울산 Ulsan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보기) 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 해운대 Hae-undae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부산 Busan 세종 Sejong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안의 표기를 허용함.)

(보기)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 양주군 Yangju-gun
 도봉구 Dobong-gu 신창읍 Sinchang-eup
 삼죽면 Samjuk-myeo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Dangsang-dong 봉천1동 Bongcheon 1(il)-dong
 종로 2가 Jongno 2(i)-ga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보기)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연화교 Yeonhwagyo 극락전 Geungnakjeon
안압지 Anapji 남한산성 Namhansanseong
화랑대 Hwarangdae 불국사 Bulguksa
현충사 Hyeonchungsa 독립문 Dongnimmun
오죽헌 Ojukheon 축석루 Chokseongnu
종묘 Jongmyo 다보탑 Dabotap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ㄴ’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보기) 집 jib 짚 jip
밖 bakk 값 gabs
붓꽃 buskkoch 먹는 meogneun
독립 doglib 문리 munli
물엿 mul-yeos 굳이 gud-i
좋다 johda 가곡 gagog
조랑말 jolangmal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어 이해 교수법

김중섭*

〈차례〉

- | | |
|------------------------|------------------------|
| 1. 이해 교육 | 3.3. 듣기 교육의 실제 |
| 2. 이해 과정의 모형 | 4. 읽기 교육 |
| 3. 듣기 교육 | 4.1. 읽기 교육의 특징 |
| 3.1. 듣기 교육의 특징 | 4.2. 읽기 교육의 절차 및 활동 유형 |
| 3.2. 듣기 교육의 절차 및 활동 유형 | 4.3. 읽기 교육의 실제 |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원장(누리편지: jskim@khu.ac.kr, 누리집: <http://jskim.khu.ac.kr>), 국제
한국어교육학회(누리집: <http://www.iakle.com>) 회장,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누리집: <http://www.klic.or.kr>) 회장.

1. 이해 교육

한국어 교육의 최종 목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 의사소통이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유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기능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말하기와 쓰기는 표현 기능으로, 읽기와 듣기는 이해 교육으로 나타난다.

표현이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고, 이해란 상대방의 의사를 수용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해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의 이해 활동은 담화 관계자 사이에 음성 텍스트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처리하는 과정인 듣기와 문자 텍스트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처리하는 과정인 읽기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언어에 있어 이해 활동이란 언어를 매개체로 하여 독자가 화자나 필자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일련의 인지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 정보가 중요시되고 정보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언어 이해의 중요성을 더욱 커질 것이며, 이해 능력을 기르는 이해 교육 또한 중요해 질 것이다.

2. 이해 과정의 모형

인간의 언어 이해 모형은 크게 상향식 모형, 하향식 모형, 상호 작용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이해 과정의 모형>2)

상향식 모형	○ 음절, 단어, 구, 문장의 순으로 텍스트를 하나하나 뜯어 이해함으로써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해독하는 전통적 이해 방법. ○ 청자/독자는 텍스트의 작은 단위인 단어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모아 구나 절의 의미를 구성하고, 이것을 문장의 의미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체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함.
하향식 모형	○ 이해 과정이 청자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하여 텍스트의 이해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으로, 텍스트 해석자로서의 청자/독자의 역할이 중요함. ○ 의미는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자/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에 기대어 능동적으로 구성해 내는 것임. ○ 텍스트에 대한 청자/독자의 적극적인 가정이나 예측을 토대로 의미를 파악하는 듣기 모형. ○ 이해 전 단계에서는 유용하나 실제 담화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함.
상호 작용 모형	○ 텍스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청자/독자의 사전 경험 및 지식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의미를 파악한다는 모형. ○ 텍스트가 스키마를 작동시키는 아래에서 위로의 과정과 이미 작동된 스키마로 언어 자료를 해석하는 위에서 아래로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작용함.

✓ 위의 모형 중 초, 중, 고급 등 학습 단계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 이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듣기 교육

3.1. 듣기 교육의 특징

듣기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음성언어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 과정으로 청자가 화자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고 이를 이해하여 처리하는 과정이다. 듣기에 있어 청자는 단

2) 김정숙(2010), 이해교수법, 국외 한국어 교원 연수 자료집 참고.

순히 듣는 활동이 아닌 듣고 이해한 후 화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Brown(1994)에서는 제2 언어 학습자들의 듣기에 있어서 음성언어의 특성이 듣기 과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음성언어의 특성은 언어 처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해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2 언어 학습자는 이러한 특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듣기 교육에 있어 음성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

1) 무리짓기

문자언어의 경우는 문장을 기본 구성 단위로 관심을 갖지만 음성언어의 경우는 발화를 작은 어휘 무리로 쪼갬다. 이것은 기억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리짓기”나 “뭉치만들기”를 좋아하는 성향 때문이기도 하다.

보편적인 단위는 절이지만 하부 구조인 구 단위가 경험에서 얻은 정보를 유지하기에는 수월하기 때문에 듣기 이해 지도에서 학생들이 처리 가능한 무리를 파악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잉여성

음성언어에는 잉여성(redundancy)이 많은데 대화를 할 때 습관적으로 발화를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잉여성은 시간적 여유와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청자가 의미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발화를 구성하는 모든 문장이나 구가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중복된 표현임을 알려주는 단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 축약형

음성언어에는 축약형과 문장의 일부만 사용하는 표현도 많이 사용된다. 축약형은 이해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완전한 문형의 형태에 노출된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

3) Brown, H. D.(2008). Teaching by Principles -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3th ed. NY: Longman. (권오량 김영숙 공역. 원리에 의한 교수-언어교육에의 상호작용적 접근법. 서울: 피어슨 에듀케이션 코리아) pp. 361-363 참고.

4) 수행 변인

화자가 말하는 도중에 주저한다든지, 말을 잘못 꺼낸다든지, 말을 멈추고 잠시 머뭇거린다든지, 아니면 말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 원어민 청자의 경우는 수행 변인들을 수정하거나 숨아내도록 훈련되었지만 제2 언어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5) 구어체

표준 문어의 표현을 많이 접한 청자는 관용적 표현이나 속어, 축약형, 인접음 등의 차이에서 구어체 표현을 듣게 되면 이해 처리하는 데 곤란을 겪게 된다.

6) 발화 속도

외국어 학습자의 초기 단계에서 원어민 화자의 말하는 속도는 빠르다고 생각한다. 발화 도중 휴지의 빈도와 길이는 단순한 속도보다 이해에 더 중요하다. 하지만 때로는 휴지가 없이 전달되는 입력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경우, 읽기 활동처럼 멈추고 자유롭게 다시 이해할 기회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말의 흐름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다.

7) 강세, 리듬, 억양

억양은 의문문, 평서문, 강조하는 말의 이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냉소, 친애, 모욕, 부탁, 칭찬 등을 나타내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운율적 특징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8) 상호작용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라디오 방송 모니터 하거나 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특정 기능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듣기 이해에서 상호작용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듣기를 배운다는 것은 반응하고, 나아가 일련의 듣고 반응하기를 지속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다.

3.2. 듣기 교육의 절차 및 활동 유형

1) 듣기 전 단계

수업 현장에서 교사가 바로 CD를 틀고 듣기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습자들은 당황하게 될 것이다. 모국어 상황에서도 아무런 맥락 없이 듣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제2 언어 교실의 듣기 교육 또한 듣기 전에 학습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듣기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로는 ‘제목으로 내용 유추하기, 시청각 자료 활용하기, 관련 어휘 학습하기, 배경 지식과 관련한 사전 질문하기, 듣기 내용과 관련된 자료 읽기나 말하기’ 등이 있다.

✓ 다음은 중급 단계의 듣기 내용입니다. 듣기 전에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할 수 있는 사전 질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관상은 얼굴의 모양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을 맞히는 것입니다. 관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가진 사람은 머리가 좋습니다. 하지만 눈이 너무 큰 사람은 겁이 많고, 눈이 위로 올라간 사람은 성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이마가 넓은 사람은 마음이 착하고, 귀가 큰 사람은 오래 삽니다. 코가 잘 생기면 재산과 명예를 얻고, 입가에 점이 있으면 먹을 복이 있습니다.⁴⁾

2) 듣기 단계

듣기 활동은 다른 기능의 활동보다 짧은 시간에 집중력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듣기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에게 많은 과제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너무 단순한 과제도 좋지는 않지만 여러 개의 복잡한 과제는 듣기에 있어 집중력을 방해할 수 있다. 학습자가 과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과제가 구성되는 것이 옳바르며, 과제의 수행이 듣기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듣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제로는 ‘내용에 맞는 그림 선택/배열/그리기, 표나 차트 완성하기, 괄호 채우기, 참/거짓 문제, 오류 찾기, 메모하기, 내용 질문에 대답하

4) 경희대학교 한국어 중급 1-1과 듣기 과제 2.

기'등이 있다.

3) 들은 후 단계

들은 후 단계는 학습자가 듣기 단계에서 들은 내용을 정리하거나 요약하는 방법으로 들은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이해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 들은 후 단계에서는 들은 내용의 결과가 드러나는 다양한 활동과 과제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들은 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로는 '내용 요약하기, 문법이나 어휘 점검하기, 토의하기, 문제 해결하기, 역할극하기, 들은 내용을 참고하여 이야기 만들기, 말하기 활동과 연계하기' 등이 있다.

3.3. 듣기 교육의 실제

단계	<경희대학교 초급2> 2과. 음식과 요리 듣기과제1
수업 준비물	김치 축제 사진 자료, 활동 자료
듣기 내용	한 수 : 나오코! 어디 가는 길이니? 나오코 : 김치 축제에 참가하러 가는 길이에요. 한 수 : 김치 축제라니? 나오코 : 외국인들이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보는 행사예요. 가장 먹음직스럽고 맛있는 김치를 뽑아서 상을 준대요. 한 수 : 정말 재미있겠다. 혼자서 하는 거니? 나오코 : 아니요, 3명 이상이 한 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같이 한국어를 배웠던 친구들과하고 나가기로 했어요. 한 수 : 김치 만들어 본 적 있어? 나오코 : 제대로 따지면 한 번도 없는 셈이에요. 지난 주말에 혼자 담그다가 중간에 포기했거든요. 이번에 운이 좋아서 1등으로 뽑히면 선배님께 한턱 낼게요. 한 수 : 그래, 고마워. 꼭 1등 하길 바랄게.

1) 듣기 전 단계

① 듣기 내용 관련 질문하기

사전에 학습한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중급2과 듣고 말하기)이므로 사전에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는 방향의 질문을 할 수 있다.

선생님 : 지난 시간에 나오코 씨하고 민정 씨의 대화를 들었어요. 나오코 씨하고 민정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학생(예상답변) : 나오코 씨가 김치를 담그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민정 씨한테 김치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선생님 : 그렇죠. 그래서 민정 씨가 나오코 씨한테 김치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럼 김치 만들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학생(예상답변) : 재료... 시간...

선생님 : 그래요. 나오코 씨가 민정 씨가 가르쳐 준 대로 주말에 김치를 담그려고 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나오코 씨가 민정 씨한테 배운 대로 김치를 잘 담갔는지 들어봅시다.

2) 듣기 단계

① 내용질문에 대답하기

2. 나오코가 참가하려는 김치 축제는 어떤 행사입니까?

(외국인들이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보는 행사)

3. 상을 주는 기준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 김치의 모양

☐ 김치의 양

☐ 김치의 맛

☐ 김치의 색깔

4.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 ☐ 이 행사는 외국인만 참가할 수 있다.
V 나오코는 김치를 담가 본 경험이 많다.
V 나오코는 선배와 같이 행사에 참가한다.
☐ 세 명 이상이 한 팀을 만들어야 한다.

② 빈칸 채우기

1. 다음 빈칸을 채우십시오.

- (1) 김치 축제에 참가하러 가는 길이에요.
(2) 제대로 따지면 한 번도 없는 셈이에요.
(3) 이번에 운이 좋아서 1등으로 뽑히면 선배님께 한턱 낼게요.

③ 메모하기

㉠ 내용을 듣고 에 알맞은 말을 써서 포스터를 완성해 보십시오.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김치!

김치 담그기 체험을 예 보세요!

참가 자격 명 어 한 팀

온자서 없어요.

시상 기준 , 김치

시상내역 1등 :
2등 :
3등 :

1등으로

친구들이나 선배님께

3) 들은 후 단계

① 어휘 확인

- 축제: 큰 잔치나 행사
예) 국제문화축제가 다음 주에 열린다.
- 참가하다: 모임이나 행사에 가다.
예) 노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2시간 씩 연습했다.
- 먹음직스럽다: 먹고 싶어지는 모양이다.
예) 그림 속 떡이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 뽑다: 여러 명 가운데에서 선택하다.
예) 오늘은 반장을 뽑는 날이다.
- 상: 힘든 일을 잘 했을 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주는 것
예) 우리가 노래대회에서 1등 상을 받았다.
- 팀: 한 그룹
예) 우리는 한 팀이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 따지다: 잘 생각해보다
예) 따지고 보면 모두 내 잘못은 아니다.
- 포기: 하던 일을 중간에 그만 두다.
예) 유학생살이 너무 힘들 때면 포기해 버리고 싶다.
- 뽑히다: '뽑다'의 사동
예) 반장으로 뽑혔으니 앞으로 우리 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 한턱내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식사나 술을 사다.
예) 오늘은 내가 한턱낼게. 첫 월급 탔어.

② 대화 만들기

㉠ 다음은 떡볶이 축제의 포스터입니다. 들은 내용을 활용하여 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③ 일기 쓰기

㉠ 들은 내용을 활용하여 나오코의 일기를 써 봅시다.

2010년 ____월 ____일 날씨: ☀ ☁ ☔ ❄
오늘 김치 축제에 참가하러 가는 길에 한수 선배를 만났다.

4. 읽기 교육

4.1. 읽기 교육의 특징

읽기는 학습자가 직접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획득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적인 활동이다.

제2 언어 읽기는 모국어 읽기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은 제2 언어 습득에 있어서 배경 지식의 차이, 언어 처리의 차이, 그리고 사회적 문맥의 차이로 구분될 수 있다.

배경 지식의 차이는 학습자 개인마다 기존에 모국어로 학습한 지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동일한 주제를 학습하는 경우에도 그 주제에 부합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표어의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언어 처리의 차이는 언어 유형이 언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모국어가 굴절어인 독자가 첨가어인 목표어를 학습하는 경우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영어 모어 학습자는 한국어 어순이라든지 수식 방법 또는 조사, 어미 등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 비해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텍스트가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다소 제한되기는 하지만 텍스트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 현상과 문화적 의미들이 담겨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읽기를 통해 텍스트에 나타난 이러한 사회적 문맥을 이해해야 한다. 이때 텍스트에 담긴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같은 문화권에 있는 독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예의나 관계의 표현, 규칙 등이 제2 언어 학습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4.2. 읽기 교육의 절차 및 활동 유형

읽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인지 과정 및 학습 전략을 고려하여 교육 순서를 마련해야 한다. 동일한 내용과 방법의 읽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라도 읽기 교육의 순서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사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읽기 수업 방식에 의존하여 한국어의 언어적, 문화적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읽기 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전통적인 읽기 수업에서는 읽기 기능이 다른 언어 기능과 통합되기 어렵고 텍스트에 나타난 어휘, 문법, 의미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 주가 되어 학습자의 참여가 극히 제한된다. 따라서 학습자 활동이 중심이 되는 읽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읽기 전(pre-reading)→읽기(while-reading)→읽은 후(post-reading)”와 같은 단계적인 읽기 수업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단계별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⁵⁾

1) 읽기 전 단계

읽기 전 단계는 읽기의 특성이나 읽기 과정 및 전략 등을 고려해 볼 때 읽기 교육의 절차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읽을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 읽기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준비시키는 단계이다.

읽기 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목 보고 내용 유추하기, 중요 내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질문 제시하여 토론하기, 시청각 자료 활용하기, 담화 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글의 구조적 패턴 파악하기’ 등이 있다.

2) 읽기 단계

읽기 단계는 학습자들이 읽기 전 단계에서 얻은 사전 정보와 스키마를 토대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자신이 예측한 것을 텍스트 내용을 토대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단계이다. 읽기 교육 현장을 보면 대부분 텍스트를 한두 번 읽고 내용에 대해 교사가 질문하고 학습자들이 이에 대답하는 단선적인 구조로 읽기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

5) “읽기 전(Pre-reading)→읽기(While-reading)→읽은 후(Post-reading)”와 같은 읽기 수업 절차가 어느 정도 실제 수업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실제 수업이 항상 이러한 순서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독자(학습자)의 인지 과정을 고려하여 독자가 효율적으로 텍스트에 접근하기 위한 절차를 도식화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절차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려 해서는 안 되며, 읽기 자료의 내용, 종류, 난이도에 따라 적절한 학습자 활동의 종류 및 방법과 양을 선택, 조절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만 효율적인 읽기 교육을 위해서는 텍스트의 내용 및 종류, 난이도에 따라 대강 읽기, 훑어 읽기, 뜯어 읽기 등의 읽기 과정을 적절히 혼용하여야 한다. 읽기의 유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학습자들이 분명한 읽기 목적을 가지고 텍스트를 읽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용 및 흐름을 무시한 채 어휘나 문법 등의 하위 항목을 이해하는 데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은 읽기 목적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읽기 활동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학습자가 텍스트를 단순히 문자만 이해하지 않고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읽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강 읽기(skimming)’는 요지를 찾아 빠른 속도로 읽는 것이다. 둘째, ‘훑어보기(scanning)’는 특정 정보를 찾아 빠른 속도로 읽는 유형이다. 셋째, ‘뜯어 읽기(intensive reading)’는 기호를 해독하며 텍스트를 차근차근 읽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확인하기’는 빈칸 채우기, 일치하는 문장 고르기, 참·거짓 가리기, 주제문 고르기, 순서대로 글 나열하기 등 읽은 내용을 확인하는 유형이다.

3) 읽은 후 단계

이 단계는 읽기 활동을 다른 언어 기능과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텍스트 내용 이해를 심화, 정착시키고 정리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교사는 텍스트의 내용 및 종류에 따라 적당한 형태의 과제를 제시하여 읽기 활동이 다른 언어 기능들과 통합,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읽기를 통해 얻은 지식과 이해가 다른 언어 기능과 통합된 과제 활동을 통해 보다 심화되고 내재화되어 학습자 내면에 정착될 수 있기 때문에 읽은 후 단계에서의 활동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는 과제 활동을 살펴보면 첫째, ‘관련 글 읽기’는 심화 활동으로 주제가 비슷한 글을 읽음으로써 정리한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토론’은 텍스트에서 다룬 내용 및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학습자끼리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셋째, ‘쓰기 과제’는 앞서 배웠던 글의 구조를 응용하거나 같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글을 쓰는 것이다. 넷째, ‘역할극’은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하는 활동으로 읽기 텍스트의 내용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를 유도할 수 있다.

4.3. 읽기 교육의 실제

단계	<경희대학교 초급1> 16과. 학생식당으로 갈까요?
수업 준비물	음식 사진 자료, 보충 읽기 자료, 문화 자료
읽기 내용	빌리 씨는 오늘 저녁에 한국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반찬이 많았습니다. 반찬은 모두 맛있었습니다. 빌리 씨는 불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김치는 조금 매웠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먹지 않았습니다. 빌리 씨는 된장찌개를 처음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는 맵지 않았습니다.

1) 읽기 전 단계

① 읽기 내용 관련 질문하기

사전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스키마를 이끌어 낸다.

<질문의 예>

- 여러분 나라에서는 매일 무엇을 먹어요?
- 한국 친구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 한국 사람들은 매일 무엇을 먹어요?
- 불고기를 먹었어요? 불고기가 맛있어요?
- 김치를 좋아하세요? 김치가 맛있어요?

② 시각자료 활용하기

읽기 전에 본문에 나오는 음식의 사진을 제시하고 한국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다.

			
불고기	김치	된장찌개	김치찌개
			
비빔밥	김밥	삼계탕	갈비

2) 읽기 단계

① 대강 읽기 및 훑어보기

읽기 본문을 교사가 미리 읽어주거나 학생들이 스스로 읽어 보게 한다. 글에 대한 정확한 내용파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다.

교사 : 제가 한 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교사 : 한 번 켜 읽어 보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② 뜯어 읽기

글에 대한 정확한 내용파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교과서 문제 확인>

: 답을 빨리 쓴 학생을 지목하여 칠판에 나와서 답을 쓰게 할 수도 있다.

1) 빌리 씨는 오늘 저녁에 어디에 갔습니까?

(한국 친구 집에 갔습니다.)

2) 빌리 씨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불고기하고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어휘 확인>

● 반찬

예 한국 사람들은 밥, 국, 찌개, 반찬을 먹어요.
(105쪽 반찬 사진을 가리키며) 이것이 반찬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반찬을 알아요?

● 모두

예 우리 반 학생은 모두 몇 명이에요.
반찬이 모두 맛있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왔어요.

● 맵다

예 김치는 맵습니다.
삼계탕은 맵지 않아요.
무슨 음식이 맵습니까?

● 처음

저는 제주도에 안 갔어요. 이번 방학에 제주도에 처음 갑니다.
내일 제 부모님이 한국에 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처음 옵니다.
예 빌리 씨는 된장찌개를 처음 먹었습니다.
어제 한국 영화를 처음 봤어요.

<교과서 질문 외 추가 질문>

- 반찬이 많았습니까?
(네, 반찬이 많았습니다.)
- 빌리 씨는 무엇을 많이 먹었습니까?
(불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 김치를 많이 먹었습니까? (아니요.)
- 왜 안 먹었습니까?
(김치는 매웠습니다.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 빌리 씨는 무슨 음식을 처음 먹었습니까?
(된장찌개를 처음 먹었습니다.)

③ 확인하기

빈칸 채우기, 일치하는 문장 고르기, 참·거짓 가리기, 주제문 고르기, 순서대로 글 나열하기 등 읽은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이다.

<순서대로 글 완성하기>

: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모듈 활동으로 진행 할 수 있다.

빌리 씨는 오늘 저녁에 한국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반찬이 많았습니다. ①_____

②_____

하지만 김치는 조금 매웠습니다. ③_____

빌리 씨는 된장찌개를 처음 먹었습니다. ④_____

빌리 씨는 불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는 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먹지 않았습니다.

반찬은 모두 맛있었습니다.

<참, 거짓 가리기>

* 위의 내용과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1) 빌리 씨는 오늘 점심에 친구 집에서 밥을 먹었다. ()

2) 김치는 조금 매웠다. ()

3) 된장찌개를 처음 먹었다. ()

3) 읽은 후 단계

① 관련 글 읽기

◎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 저녁에 왕영 씨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이 왕영 씨 집에 왔습니다. 빌리 씨도 오늘 왕영 씨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왕영 씨가 중국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왕영 씨는 요리를 아주 잘합니다.

빌리 씨는 만두를 먹었습니다. 탕수육은 처음 먹었습니다. 중국 음식은 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빌리 씨는 중국차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빌리 씨는 오늘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1. 빌리 씨는 오늘 어디에 갔습니까?
(왕영 씨 집에 갔습니다.)
2. 빌리 씨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두하고 탕수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셨습니다.)
3. 빌리 씨는 오늘 무슨 음식을 처음 먹었습니까?
(탕수육을 처음 먹었습니다)
4. 중국 음식은 매웠습니까?
(아니요, 맵지 않았습니다.)

② 쓰기 과제

교사 : 여러분 나라에서는 많이 먹는 음식을 소개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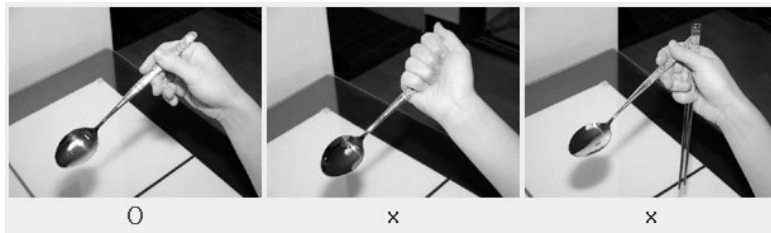
우리 나라 사람들은 날마다 _____

③ 문화 관련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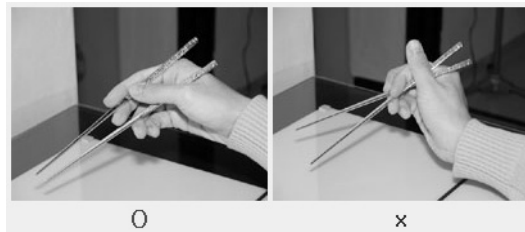
<한국의 상차림>



<올바른 숟가락 사용 방법>



<올바른 젓가락 사용 방법>



<참고문헌>

- 김정숙(2010), 이해교수법, 국외 한국어 교원 연수 자료집.
- 김중섭(200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법 연구, 한국어 교육, Vol.13 No.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7-67pp.
- 김중섭(2010), 한국어 교육의 이해, 도서출판 하우.
- 한재영(2005),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 Brown, H. D.(2008). Teaching by Principles -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3th ed. NY: Longman. (권오량 김영숙 공역. 원리에 의한 교수-언어교육에의 상호작용적 접근법. 서울: 피어슨 에듀케이션 코리아)

한국어 표현교육-말하기와 쓰기 교육

이해영

〈차례〉

- | | |
|------------------------|-----------------------|
| 1. 들어가기 | 3.1. 쓰기 교육의 필요성 |
| 2. 한국어 말하기 교수법 | 3.2. 문어의 특징과 쓰기 교육 내용 |
| 2.1. 말하기 교육의 필요성 | 3.3. 한국어 쓰기 활동의 유형 |
| 2.2. 구어의 특징과 말하기 교육 내용 | 3.4. 한국어 쓰기 수업 |
| 2.3. 한국어 말하기 활동의 유형 | 4. 토론: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 2.4. 한국어 말하기 수업 | 모색 |
| 3. 한국어 쓰기 교수법 | 5. 마무리 |

1. 들어가기

교실에서 한국어 말하기, 쓰기 수업은 어떠했는지 회고해 보면서 한국어 표현교육을 점검해 보도록 한다.

- 말하기 수업을 했는가? 했다면 왜 했는가? 시간은 충분했는가?
- 말하기 수업에서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가?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말하기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 말하기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었는가?
- 학생들은 말하기 수업을 통해 한국어 구어의 특징과 말하기 전략을 습득할 수 있었는가?
- 쓰기 수업을 했는가? 했다면 왜 했는가?
- 교실에서 쓰기를 할 경우의 문제는 무엇인가? 시간은 충분한가?
- 쓰기 수업에서 어떤 종류의 쓰기 활동을 했는가?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쓰기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문법연습을 대신한 쓰기 활동이었는가?
- 쓰기 수업에서 문서 작성기를 사용할 것인가? 장단점은?
- 쓰기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는가?
- 학생들은 쓰기 수업을 통해서 한국어의 문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글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는가?
- 말하기와 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오류를 수정하였는가?

2. 한국어 말하기 교수법

2.1. 말하기 교육의 필요성

대부분의 한국어 수업에서는 시간의 부족이나 방법론에 대한 교사의 숙달도 부족으로 인해 말하기는 단순 문법 연습이나 질문에 답하기 등으로 대신 되는 경우가 많

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방식으로 훈련된 학생들은 어휘나 문법을 배웠지만 역시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더욱이 한국인과 실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중고급 이상의 학생들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대화가 진행되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겪게 되고, 어떻게 순서교대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무례하지 않게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 장애가 일어나는 순간 이를 극복하고 대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어휘나 문법을 많이 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므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말하기 교육이 필요하다.

2.2. 구어의 특징과 말하기 교육 내용

(1) 구어의 특징

듣기 교육용 자료 구성을 위해서는 구어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한다. 구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 통사적 특징

- 기본 단위가 완결된 문장이기보다는 구나 절 단위인 경우가 많다.
- 문장 구조가 단순하여 복문 사용이 많지 않다.
- 능동문이 피동문보다 많이 사용된다.
- 단형부정이 선호된다.
- 이중부정이 선호되지 않는다.
- 문어에 비해 조사 생략이 자유롭다.
- 문장 성분의 생략이 많다.
- 반말체 어미 등과 같은 구어체 어미가 사용된다.
- 문어에 비해 어순이 자유롭다.
- 구어 접속조사 ‘하고’가 사용된다.
- 접속조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 호격조사가 사용된다.
- 관형격조사의 사용이 적다.
- ‘되게, 무지, 참, 진짜’ 등의 정도부사가 사용된다.

1) 이해영(2006), 구어의 특징과 구조, 『새국어생활』 16, 국립국어원.

○ 음운적 특징

- ‘그것은>그건’처럼 음운의 축약과 탈락이 많이 일어난다.
- 강조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여 발음할 수 있고, 발화 속도도 조절된다.
- 표준적이지는 않으나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실음이 많다.
- ‘의>으/에, 예>이’처럼 발음되는 표준음 또는 현실음이 많다.
- 표준적이지는 않으나 ‘고>구’처럼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 ‘막아>마거’처럼 발음되는 현실음이 많다.
- ‘내가’ 대신 ‘니가’가 사용되기도 한다.
- 문말 억양을 통해 서술, 의문, 명령, 청유의 뜻을 나타낸다.

○ 담화적 특징

- 잘못된 발화와 이의 교정이 일어날 수 있다.
- 순서 교대와 끼어들기, 중복이 일어난다.
- 대응쌍이 있다.
- 맞장구 표현이 있다.
- 담화 참여자에 의한 화제 전환이 잦다.
- 정보가 1인에 의해 구성되는 문어와 달리 대화 참여자들의 협력으로 구성된다.
- 의사소통 전략으로 간접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 ‘글쎄, 뭐, 그런데 말이야, 그야 그렇지만, 자’ 등 구어체 담화 표지가 사용된다.
- 한국어 화자 특유의 몸짓언어가 사용된다.

(2) 말하기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요소

- 음소와 변이음
- 초분절음소
- 축약형
- 속도
- 덩어리말
- 끊어 말하기
- 비언어적 단서
- 문법 사용 및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양한 형태
- 결속 장치

- 담화 표지
- 사회언어학적, 화용적 언어 사용에 맞도록 할 것
- 말하기 책략 사용
- 논리적 전개 방식에 맞는 말하기

(3) 말하기 지도 원리

- 정확성, 유창성, 상호작용
- 내적 동기 부여 기법 개발
- 유의적 맥락에서 실제적인 표현 사용 권장
- 교정과 피드백의 적절한 제공
- 학습자에게 구두 의사소통 기회 제공
- 말하기 책략 개발 권장

2.3. 한국어 말하기 활동의 유형

말하기 활동은 어휘나 문법 학습 활동과 함께 다루어질 수도 있고(연습 과제 활동), 실생활 과제 활동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다.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활동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연습 과제 활동
 - 문법 학습 활동과 연계된 말하기 활동
 - 어휘 학습 활동과 연계된 말하기 활동
 - 화용적 사용 활동과 연계된 말하기 활동
 - 담화 구성 활동과 연계된 말하기 활동
- 실생활 과제 활동
 - 정보 차이 활동
 - 문제 해결 활동
 - 인터뷰
 - 토의
 - 역할극과 시뮬레이션

- 프로젝트 활동

구체적인 학습 활동의 예는 수업 당일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제시될 것이며 이해를 위해 몇 개의 활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



<오미라 외(2006)>

2) 수업 시간에 제시될 그림 자료는 다음의 한국어 교재에서 인용될 것이다.

- 이해영, 이정덕, 황선영(2010), *KoreanLanguageinAction*, 도서출판 하우.
- 오미라, 이해영, 안성희, 김은애(2006). *Exciting Korean Listening*, 문진미디어.

▶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장래 희망 조사 결과입니다. 표를 보고 이야기에 봅시다.

순위	국가	한 국	미 국
1		교사	교사
2		의사	의사
3		연예인	법률가
4		공무원	운동선수
5		법률가	과학자
6		디자이너	건축가

표를 보고 한국과 미국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에 봅시다.

비슷한 점		다른 점	
①		①	
②		②	
③		③	

위의 직업 중에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직업	이유

<이해영 외(2010)>

◎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무엇이 다른니까? 생각해 봅시다.

[시장] 비 싸다	[백화점] 싸다
[호텔]	[민박]
[지하철]	[버스]
[뮤지컬]	[오페라]

<보기>
A: 백화점에 갈 거예요? 동대문 시장에 갈 거예요?
B: 동대문 시장에 갈 거예요.
동대문 시장은 물건 값이 싸요. 그렇지만 백화점은 비싸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표를 보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에릭	미나	제니
수영	×	×	○
피아노	×	○	○
스키/스노보드	○	○	×
한국어	○	○	×

가: 에릭은 수영을 할 수 있어요?

나: 아니요, 수영을 못 해요.

 우리 반 친구들에 대해 조사하고 소개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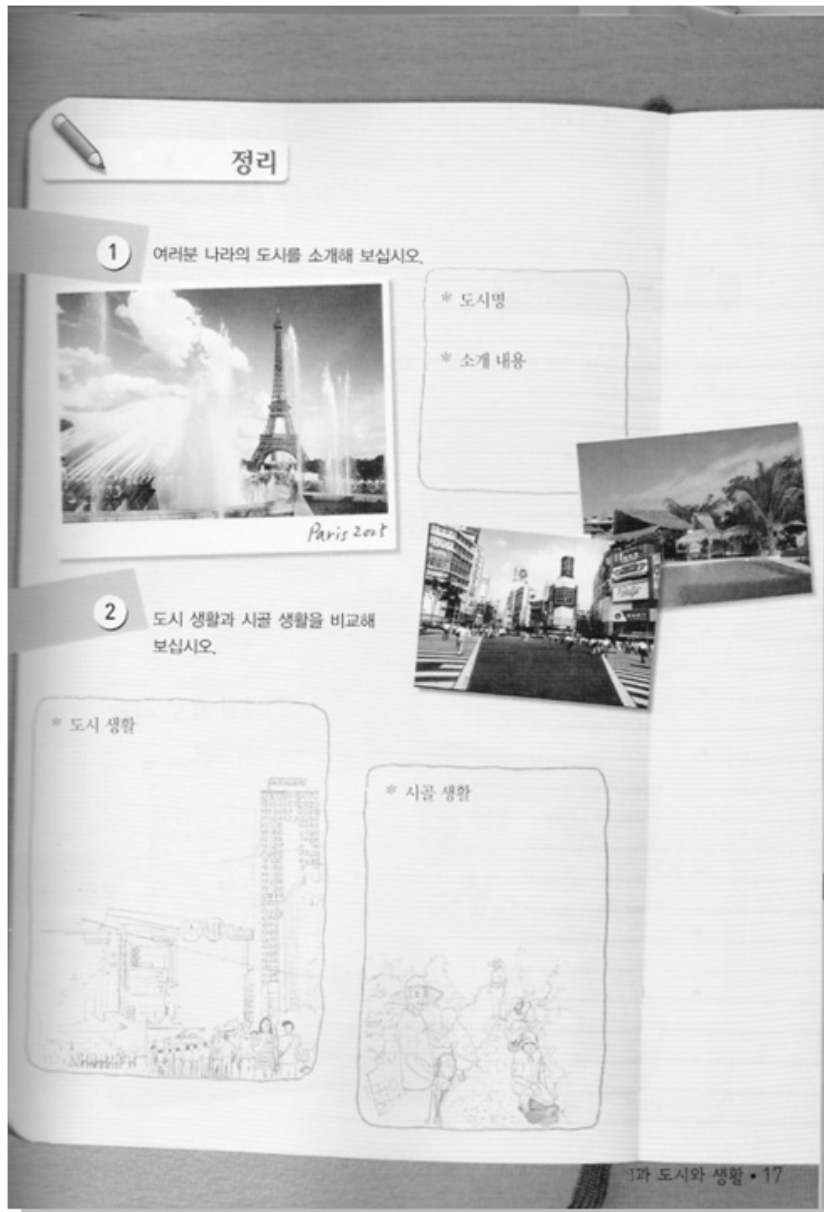
 우리 반 친구들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질문	친구 1	친구 2	친구 3
① 이름은 뭐예요?	리에		
② 어느 학교에 다녀요?	우정학교		
③ 몇 살이에요?	열세 살		
④ 가족은 몇 명이에요?	다섯 명(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나)		

 위에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친구에 대해 소개해 봅시다.

이 친구 이름은 리에예요,
우정학교에 다녀요,
리에는 열세 살이에요,
리에의 가족은 다섯 명이에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요,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오미라 외(2006)>

<활동> 위의 활동을 토대로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말하기 활동을 구성해 봅시다.

2.4. 한국어 말하기 수업

말하기 수업은 문법이나 어휘 학습과 연계된 수업인지, 말하기 활동이 주가 된 수업인지, 다른 기술 즉, 읽기, 듣기, 쓰기와 연계된 수업인지에 따라 진행의 방식이 다르다. 각각의 예는 연수 당일에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며, 여기서는 말하기 수업이 전체적인 통합 활동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보이도록 한다.

○ 통합 활동의 예³⁾

① 단원의 주제: 외모, 옷차림, 물건의 모양

② 학습 영역별 과제 활동(선택적 수행)

학습 영역	과제 내용	과제 수행 활동
제시와 연습 [어휘(색)]	어울리는/좋아하는 옷 색깔 이야기하기	이야기하기
제시와 연습 [어휘(옷차림)]	상황에 맞는 옷차림 조언하기	표 완성하기
제시와 연습 [문법(관형형어미)]	그림 보고 물건/사람 묘사하기	선 긋기/묘사하기
제시와 연습 [문법(-고 있다)]	친구 찾기	친구들의 옷차림 보고 묘사하기
활용[말하기]	어울리는 옷 추천하기	역할극하기
활용[말하기]	잃어버린 물건 찾기	역할극하기
활용[듣기]	파티에서 인상착의 설명 듣고 사람 찾기	선 긋기
활용[읽기]	잃어버린 아이 찾는 광고문 읽기	답하기
활용[쓰기]	잃어버린 물건 찾는 게시물 작성	글쓰기

3) 이해영(2002), 한국어 듣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3. 한국어 쓰기 교수법

3.1. 쓰기 교육의 필요성

쓰기란 필자가 설정한 독자와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것에 국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응집성을 가지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쓰기는 문장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작문으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적 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철자법과 구두법은 물론 문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글의 구성을 하도록 연습되어야 한다. 흔히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쓰기 수업을 지루해하거나 어려워하여, 실제의 수업에서 쓰기는 소홀하게 다루어지거나 숙제로만 부르고 있다. 그러나 쓰기는 시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은 물론, 정확한 언어 구사를 돕기 때문에 중급이나 고급반으로 올라가기 위해 쓰기 연습은 강조되어야 한다.

3.2. 문어의 특징과 쓰기 교육 내용

(1) 문어의 특징

문어는 문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불변성이 있다. 또한 구어에 비해서 문장의 구성을 위하여 철자법이나 여러 가지 문법지식이 요구되는 등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문어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영구적
- 정보 전달성
- 자신의 속도대로 조절 가능
- 간접적인 상호 작용
- 철자법, 문장 부호, 띄어쓰기 중요
- 문맥 의존성: 논리적 전개
- 격식적, 형식적, 길고 복잡한 문장 구조

외국어로로서의 한국어 교육: 2010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교재

- 다양한 어휘 사용, 저빈도 어휘도 종종 사용됨

(2) 쓰기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요소

- 문장의 구조
- 문법
- 맞춤법과 구두점의 사용
- 어휘의 선택
- 결속 장치
- 담화 표지
- 단락 구성과 응집성
- 글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 문체의 사용
- 논리적 전개 방식에 맞는 글쓰기
- 글의 조직과 배열

3.3. 한국어 쓰기 활동의 유형

한국어 쓰기 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활동 유형은 다음과 같다. 예는 연수 시간에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제시한다.

- 베껴 쓰기
- 문법 연습을 위한 쓰기
- 통제된 쓰기
- 유도된 쓰기
- 문장(문단) 배열하기
- 요약하기
- 자유 작문

구체적인 학습 활동의 예는 수업 당일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제시될 것이며 이해를 위해 하나의 활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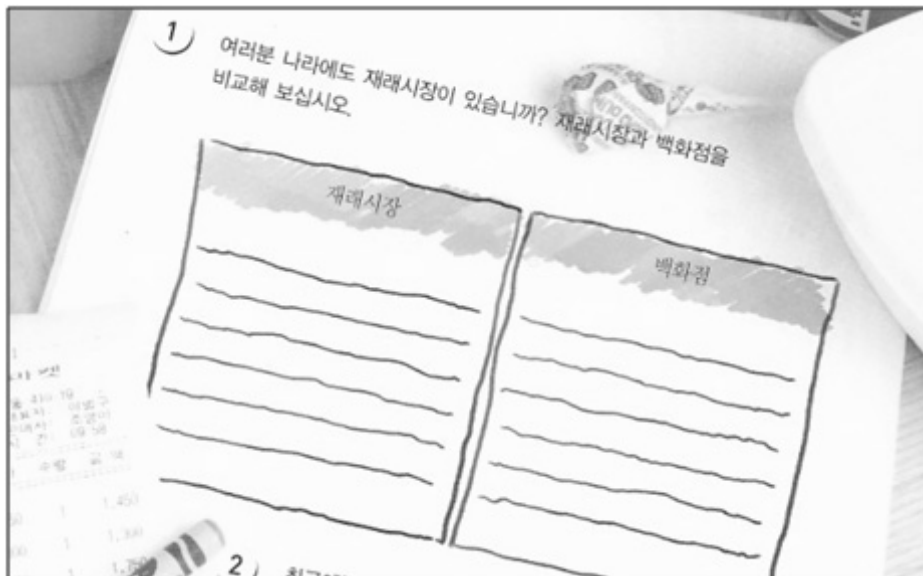
◎ 여러분 나라의 관광지와 한국의 관광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한국	
관광지	제주도	
다른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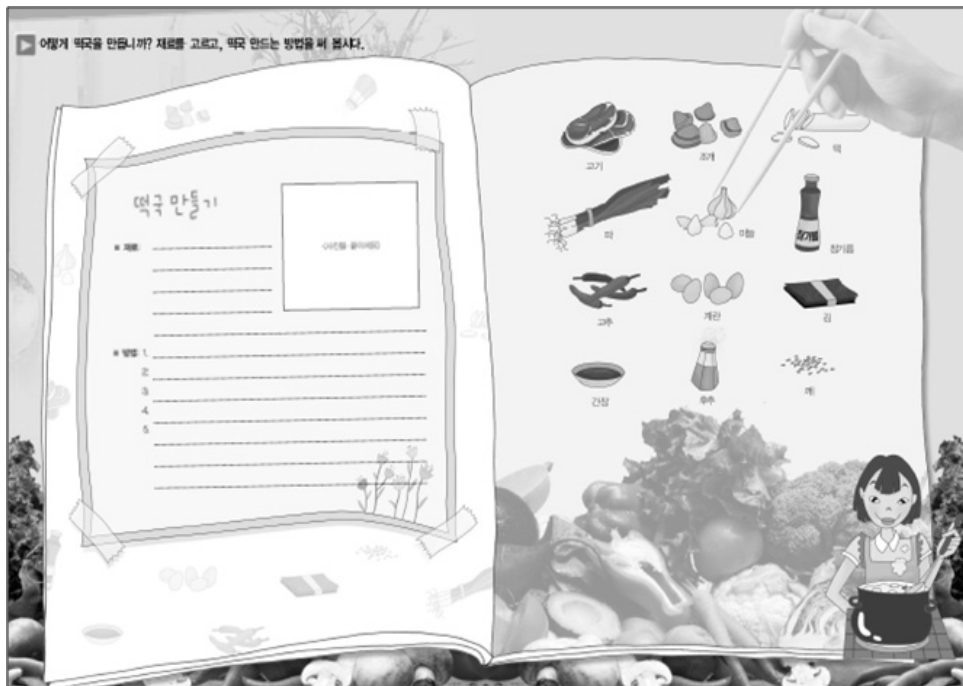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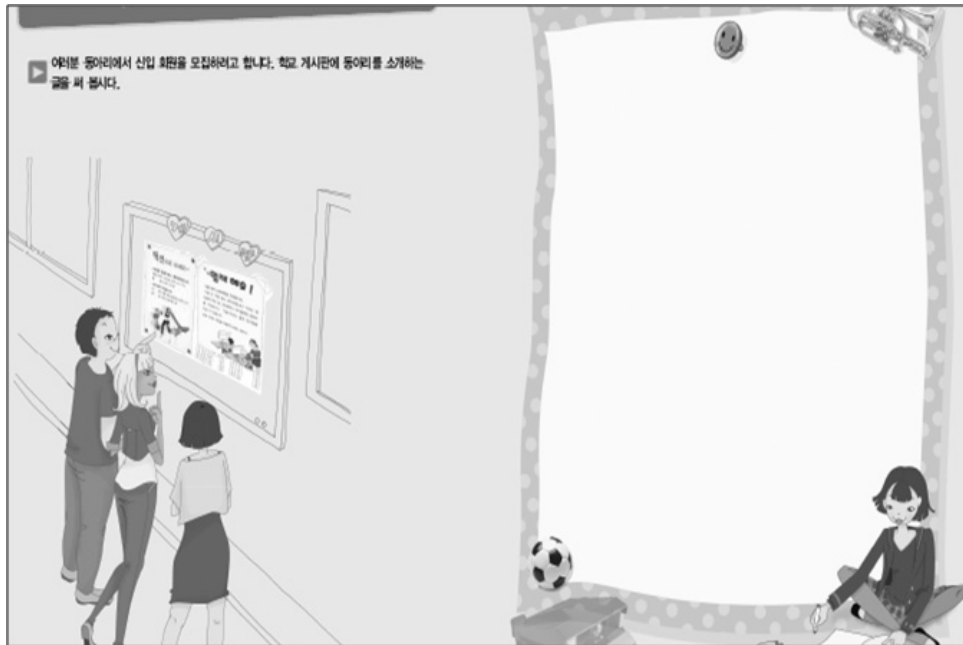
◎ 두 곳의 다른 점을 비교하십시오

제주도는 _____

그렇지만 _____



<오미라 외(2006)>



<이해영 외(1010)>

<활동> 교실에서 쓰기 활동을 할 때의 시간의 부족, 학생들은 낮은 흥미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3.4. 한국어 쓰기 수업

쓰기는 단순한 문장을 생성하는 것에서 완성된 글을 생성해 내는 것을 포함한다. 완성된 글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수집, 계획 세워 윤곽 잡기, 내용 메모하기를 통하여 초고 쓰기에 이르는데 몇 번의 수정 과정과 교정 과정을 거쳐 완성된 글이 생성된다. 그러므로 쓰기 수업은 단순히 결과물의 생성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 생성되는 과정 자체에 관심을 두고 실시된다.

쓰기 수업은 크게 3단계 구성 즉, 쓰기 전 준비 단계, 본격적인 쓰기 단계, 쓰고 난 후 마무리 단계로 구성된다. 쓰기 수업의 단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쓰기 전 활동:

이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모아서 대략적인 글의 윤곽을 정하고 글을 쓰는 방법을 계획한다.

- 아이디어 토의
- 순서 없이 대충 쓸거리 기록하기
- 기록 내용 조직화, 대충의 계획 세우기

○ 초고 쓰기와 다시 쓰기: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글을 본격적으로 쓰게 된다.

- 초고 작성
- 초고 수정 및 재구성

○ 완성 직전 단계에서의 수정 및 퇴고:

이 단계에서는 문체를 명확하게 다듬고 틀린 곳을 수정한다.

- 최종본 작성, 퇴고

한국어 쓰기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것은 수정의 방법에 대한 것이다. 수정은 피드백의 제공 단계, 형태(면대면, 녹음자료, 글), 행위자(교사, 동료 학습자), 수정의 대상(문법, 어휘, 문체, 내용, 구성과 조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된다.

4. 토론: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

말하기 수업과 쓰기 수업에서 어려웠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본다. 이 수업을 위해서 연수 참가자가 수강해 보았거나 가르쳐 본 수업의 말하기 수업과 쓰기 수업의 문제점들을 수집해 온다.

5. 마무리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조항록

〈차례〉

- | | |
|-----------------------|-------------------------------|
| 1. 들어가기 | 3.2. 과정 중심적 문화 교육 |
| 2. 문화 교육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3.3. 교재에의 다양한 문화 교육 접근 방식의 채택 |
| 2.1. 교육과정과 문화 | 3.4. 문화 능력 평가의 도입 |
| 2.2. 문화 교육 내용 | 3.5. 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사 교육 |
| 2.3. 문화 교육 자료 | |
| 2.4. 문화 교육 방법론 | 4. 결론 |
| 3. 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 | |
| 3.1. 문화 교육 내용 구성론의 정립 | |

* 이 글은 조항록(2005c)에 바탕을 두고 이후 부분적으로 논의의 내용을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 들어가기

최근 한국어 교육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문화 교육에 대한 강조이다. 문화 교육은 언어를 사회 문화적 맥락에 맞춰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시킴으로써, 동기를 강화하여 학습 효과를 높인다¹⁾. 문화 교육의 효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문화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목표 언어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학습자의 이문화 사회에서의 문화 충격을 극복하고 문화 동화의 과정을 건도록 함으로써 목표 언어 사회에의 적응을 도와준다.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 역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한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사람과의 교제, 한국에서의 생활을 수월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어를 사용하여 직무 수행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논의 이외에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 논의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이는 한국어가 국제 사회에서 낯선 언어이고 한국 문화 역시 그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문화 침투가 언어 침투를 앞선다는 일반적인 전제와 관련이 있다. 즉 한국어 문화 교육은 낯선 언어인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호기심의 충족 등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다.²⁾

1) 박영순(1989)에서는 문화 교육의 기능과 역할로 학습 동기 강화, 학습 능력 제고, 언어 능력 신장 등을 들고 있다.

2) 이는 이문화 사회 간의 접촉에 있어 문화 교류가 언어 교류보다 활발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어·한국문화는 낯선 언어·낯선 문화의 지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을 상징하는 태권도, 김치, 서울, 박 정희 대통령, 빠른 경제 성장, 6·25 전쟁, 남·북한 대립, 학생 데모 등은 한글 자모나 기본적인 표현보다 먼저 국제 사회에 알려졌을 것이란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리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한국 상징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정보는 영어 또는 학습자 모국어로 이미 전파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일본, 동남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한류 열풍은 문화의 전파가 언어의 전파를 능가한 실증적인 예가 되며 이를 계기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가 있다면 문화 학습이 언어 학습을 촉발한 예가 된다. 이 경

최근 한국어 교육계는 교육 실체의 측면이나 교육 연구의 측면에서 문화 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교재 개발 시 문화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고 다양한 문화 학습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문화 교육을 주제로 하는 연구 논문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볼 때 한국어 교육계의 문화 교육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가 제한적이다. 외국어 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 논의는 ① 문화 교육 내용 구성론(문화의 정의, 문화 교육의 수준, 학습자 요구 분석, 문화 교육론의 내용 구성), ② 문화 교육 방법론, ③ 문화 교육 자료 개발론, ④ 문화 능력 평가론, ⑤ 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론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어 문화 교육론은 이 중에서 ①과 ②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② 문화 교육 방법론의 경우에는 교차 문화적 접근 등 다양한 방법을 취하지 못하고 시, 소설, 설화,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 또는 예술 작품을 통한 문화 교육 방법론의 논의에 치우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가 한국어 교육 실체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리다. 비록 제한적이라고는 하나 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는 이미 교육과정, 교육 자료, 교육 방법론의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교육기관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화 교육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현장 연구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각 교육기관의 사례 발표 등을 통한 간접적인 관찰을 통하여 볼 때 다양한 방법론의 도입이 미흡하다. 다만 교육 자료 개발에 있어 과거에 비하여 매우 진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셋째, 한국어 문화 교육론의 기본이 되는 내용 구성론은 기본적으로 인접 학문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한국어 교육계와 인접 학문과의 연계 노력을 찾기가 어렵다. 이는 내용 구성론이나 교사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한국어 문화 교육론에 대한 연구 성과와 현장에서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음을 전제로 하고 출발한다.

우 학습 과정에서 문화 학습이 언어 학습을 강화할 것은 더욱 명확한 사실이 될 것이다.

2. 문화 교육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2.1. 교육과정과 문화

지금까지의 외국어 교육과정은 크게 언어학, 교육학,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언어학의 영향을 받아왔다. 외국어 교육이 하나의 교육 영역으로 등장한 19세기 중반에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중심을 이루면서 언어 자체를 연구 및 교육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언어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후 19세기 중반에 등장한 직접 교수법에서는 자연적 접근을 기초 이론으로 삼음으로써 심리학과 관련을 갖는 교육학적 접근이 힘을 얻었다.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언어학과 교육학은 외국어 교육학의 중심 이론을 제공해 오고 있다. 한편 언어와 사회와의 관련에 주목하면서 인류학, 사회학, 사회심리학이 외국어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1960년대에 사회언어학으로 종합 정리되면서 외국어 교육에 좀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³⁾ 사회언어학은 1970년대 이후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 원리의 태동에 영향을 주고 1980년대에는 교차문화적 접근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문화간 의사소통 문제를 외국어 교육계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자리잡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접 학문과 외국어 교육과의 관련성을 잘 나타내는 논의는 H. H. Stern(1983)에서 제시하고 있는 4중적 교육과정 모델이다. 여기에서는 언어의 사회문화적 양상이 구조적 양상(형식 자질), 기능적 양상(담화 양상), 경험적 양상(언어 사용)과 함께 언어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 요소로 설정되어 있다.⁴⁾ 이렇게 볼 때 외국어 교육과정 논의는 언어의 구조, 언어의 기능, 문화를 주요 하위 영역으로 설정하여 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과정 논의도 이러한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아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제정을 제안하고 있는 민현식(2004a)에서는 핵심 3대 교육 내용으로 담화, 문법,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⁵⁾ 그러나 실제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살펴볼 때 문화

3) 외국어 교육과정의 발달에 있어 인접 학문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H. H. Stern(1983)을 참조하기 바람.

4) Stern(1983)의 논의는 Allen(1980)에서 제시한 3단계 교육과정 논의를 발전시킨 것으로서 Allen(1980)에서는 언어의 구조적 양상, 기능적 양상, 경험적 양상을 순서에 따라 가르칠 것을 주장하였다.

5) 민현식(2004a)에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모형을 'I. 교육과정의 편성과 목표, II. 교

가 3대 영역이라고 불릴 정도의 독립적이고 비중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민현식(2004a)의 논의는 기존의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분석하며 진향적으로 제시한 것인데 여기에서 분석한 자료를 볼 때 교육과정의 틀에 문화를 각 등급 별로 위계화한 예는 1개교에 불과하다. 일부 기관에서 문화 교육 영역을 독립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내부 자료로서 연구 차원 또는 계획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공식적인 입학 안내 자료인 브로슈어에 문화를 독립적으로 제시한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 한국어 교육과정에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2. 문화 교육 내용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가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에서 중요한 하위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후 문화 교육의 내용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의 논의가 중요해진다. 이는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르칠 것인가와 같은 문화 교육의 대상과 수준에 대한 논의로서 교육 내용 구성론에 해당한다.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국내 한국어 교육계에서도 종종 논의되어 왔다. 우선 문화에 대한 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외국어 교육계의 문화에 대한 논의를 종합한 조향록(2002)에서는 문화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1>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의 분류

일상 생활 문화	성취 문화
흔히 little C라고 불리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의 행위의 모든 것(언어적, 비언어적 행위), 신념, 가치관, 태도 등을 의미한다. 구성원의 일상생활이 어떠한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이 주요 대상이다.	흔히 big C라고 불리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이 역사적으로 삶을 영위해 오면서 성취한 문물을 의미한다. 문학, 예술, 무용, 전통음악, 제도, 건축물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육과정의 내용'으로 크게 나누고, 'II. 교육과정의 내용'은 '1. 교육 내용, 2. 교수 학습법, 3. 교재, 4. 평가'로 나누고, 계속해서 교육 내용으로 '(1) 선수 시간, (2) 주제 영역, (3) 상황 영역, (4) 담화 영역, (5) 문법 영역, (6) 문화 영역'으로 세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담화 영역, 문법 영역, 문화 영역을 교육 내용의 3대 요소로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사회학적 접근 논의에서 총체론적 접근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문화적 행위와 양상 근처에 내재한 관념을 함께 중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상생활 문화, 성취 문화, 이들과 관련한 관념의 세계를 교육 대상인 문화의 범위 안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 하겠다.

다음으로 문화를 어느 정도까지 가르쳐야 할 것인가가 한국어 교육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문화라고 하면 전통 지향성, 예술 지향성, 가치 전제성 등을 갖고 있기에 자칫 한국어 교육에 도입할 때 문화를 전통 지향적이고 규범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어 교육계에서 문화 교육의 내용을 살펴볼 때 전통 지향적 요소가 적지 않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각 교육기관의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에 포함된 문화 항목 가운데 전통문화적 요소 내지는 전통에 기반한 요소의 비중이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문화 학습 활동의 대표적인 예인 현장 학습의 경우에도 경복궁, 민속촌, 김치박물관 등 전통문화적 요소를 음미할 수 있는 곳을 주된 목적지로 정하고 있다. 오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단일민족으로 단일국가를 형성하면서 전통 중시 사상이 강조되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라 해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에서 일방적인, 교육 공급자 중심의 선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문화 교육에 대한 학습자 요구 분석이 폭넓게 실시되어야 하고 문화 교육의 내용 선정에 대한 외국어 교육계의 논의를 진지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⁷⁾

2.3. 문화 교육 자료

우선 교육 자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교재의 경우를 볼 때 최근 개발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들은 거의 예외 없이 문화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교재가 단원의 끝에 독립 영역을 설정하여 주제와 관련한 문화 항목을 제시하여 설명하

6) 1998년 이후 개발된 국내외 5종의 초급 한국어 교재의 문화 항목을 분석한 조향록(2001)에서는 이들 교재에 포함된 총 81개의 문화 항목을 비교적 순수 전통문화, 비교적 전통에 기반한 현대 일상 문화, 비교적 순수 현대 문화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각각 11개(13.6%), 51개(62.9%), 19개(23.5%)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교재 이외에 중고급 교재들을 망라하여 교재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 항목을 분석한 우인혜(2004)에서도 한국어 교재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문화 지식보다는 한국 전통적인 문화 소개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7)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여 한국어 문화 교육론의 내용 구성론을 시도한 예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논한다.

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기본 대화나 문법 설명에서도 문화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음도 분명하다. 이는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재 개발에서 문화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을 주목적으로 개발된 교재의 예가 있고⁸⁾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문화 교육 자료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⁹⁾

교재 이외의 교육 자료 개발에서 문화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는 학계에 보고된 예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일부 교육기관에서 문학 작품 또는 영화를 활용하여 문화 교육적 효과를 추구하는 만큼 관련 자료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현장 견학이나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서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기도 하나 이 경우에 제시되는 자료는 교육 내용을 설정하기보다는 체험을 보조하는 도구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교육 자료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¹⁰⁾

문화 교육 자료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어 교육계는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이 다양하지 않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주교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재 내 학습 단계의 하나로서 설정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문화 교육용 교재의 개발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둘째, 주교재에 포함된 문화 항목의 경우 해당 등급의 학습 목표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일상생활과 관련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초급의 경우 매우 친숙하고 사적인 영역과 관련한 주제를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으나 여기에 포함된 문화 항목 중 일부는 한국의 전통 문화 이해를 목표로 함으로써 한국어 학습과 문화 학습 간의 유리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셋째, 주교재에 포함된 문화 항목의 경우 각 교재별 중복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8) 이 교재는 조항록 외(2002), 『한국어와 한국생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의뢰로 개발되었으며 제1부는 한국어 교육용으로, 제2부는 이들의 한국문화 교육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9) 이 교재들은 모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들로 백봉자(2004)와 유석훈(2005) 참조.

10) 교육 자료를 교수-학습 현장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내용으로서 교수 학습의 방향을 정해 주고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어 추후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고유한 의미를 생각할 때 체험 자체가 교수-학습의 중심을 이루는 현장 학습이나 문화 체험에서 단순히 이를 돕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시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있다. 국내 5개 기관의 초급 교재를 분석한 조향록(2001)에서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채택한 문화 항목으로 한국인의 이름, 호칭, 가족, 식사 예절, 돌과 회갑, 태권도, 서울의 지하철, 주요 전화번호 등을 들고 있으며 5개 기관이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한 항목은 하나도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국내 한국어 교육계에서 초급 내 주제 선정에서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현실과 매우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교재 자체가 교수-학습의 내용은 물론 방향도 제시한다고 볼 때 주교재가 담고 있는 문화 항목의 교수 방법론은 최근의 외국어 교육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 있다. 대부분이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과정 중심적 교육, 과제 중심적 교육, 학습자 활동 중심적 교육 등 그 어느 방식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다.

2.4. 문화 교육 방법론

최근 외국어 교육계에서 문화 교육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교차 문화적 접근(Inter-cultural Approach), 의사소통 민족지학적 접근(Ethnography of Communication),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 접근(Language and Culture Integration)은 문화 교육을 직접적으로 논하는 교육 방식이다. 여기에 1980년대 후반에 대두된 내용 기반의 교육(Content-based Instruction), 주제 기반 교육(Theme-based Instruction)과 1996년에 발표된 미국의 외국어 교육의 기본 원리¹¹⁾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교(Comparison)는 문화 교육 방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큰 논의들이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어 교육계의 문화 교육 방법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문화간 거리, (민족적, 인종적) 정체성, 상호 작용, 문화적 상대주의, 이문화 간의 관계, 이해, 동조, 통찰력, 비교, 참여 관찰 등을 주요 개념으로 하여 문화 충격으로부터 문화 변용의 과정을 중심 연구 대상으로 삼는 교차 문화적 접근에 따라 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예를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사전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목표 문화 사회에 대한 관찰, 참여 관찰, 통찰, 면접 등을 통하여 문화 이해를 시도하는 의사소통 민족지학적 접근에 따라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도 찾기

11) 냉전의 소멸 이후 미국 정부가 새로운 시대, 즉 21세기를 맞아 미국 내 중고등학교 외국어 교육의 방향을 정리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개발, 발표한 '21세기를 대비한 외국어 교육의 기본 원리(The Principles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for 21st Century)'는 기본 원리로 Communication, Culture, Comparison, Community, Connection 등 다섯 가지를 설정했는데 이 다섯 가지가 모두 C로 시작한다 하여 5C로 부르기도 한다.

가 어렵다. 다만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관찰되고 내용 기반의 교육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 교육도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한국어 교육계에서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 교육에 대한 논의는 최초로 김정숙(1997)에서 제시되었는데 조항록(2002)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 유형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통합성이 높은 활동의 예 열 가지와 통합성이 낮은 활동의 예 열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모든 학습 단계에서 실시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언어 범주 교육이나 기능 교육과의 통합의 수준과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계에서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문화 교육의 방법은 문학 작품이나 영화 등을 통한 문화 교육이다. 이미 학계에 여러 번 보고되기도 하였지만 한국 문화적 요소를 담은 시, 소설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서 기능 교육과 함께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은 폭넓게 관찰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계에서 폭넓게 실시되고 있는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통합적 양상과 관련하여 이미혜(2004)에서는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육을 언어 중심 문화 통합 교육, 문화 중심 언어 통합 교육이라는 이분법적 접근 틀을 제시하고 교육의 중심, 문화 교육 목표, 문화 교육 방법, 교사, 평가라는 다섯 가지 범주에서 통합의 양상을 비교하고 있다.

한편 한국어 교육계에서 주제 기반의 교육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문화 교육도 함께 포함되고 있음은 최근 개발되고 있는 교재들이 주제 중심 혼합 교수요목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급에서 계절과 날씨를 다루는 단원에 한국의 사계절이나 날씨를 제시함으로써 문화 교육적 측면과 함께 주제 중심 교육의 효과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5C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교 방식의 활용에 대하여는 기존 교재 분석이나 학계에 보고된 내용만으로는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각 교육기관이 교실 내 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재량과 자질에 따라 이 방법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뿐이다.¹²⁾

이렇게 볼 때 한국어 교육계에서의 문화 교육 방법론은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통합적 실시를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방법론의 채택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2) 이는 실제로 필자가 재직했던 기관에서 언어 또는 문화 교육 시 적절하게 활용했던 방식이었으며 보조 자료 중에 학습자 모국어, 모국 사회와 비교하는 과제를 담은 예도 적지 않았다.

3. 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

3.1. 문화 교육 내용 구성론의 정립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문화가 담화, 문법과 함께 3대 내용 구성 영역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할 문화란 무엇인가는 논쟁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며 실제로 한국어 교육계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미시적 접근으로 문화 항목의 선정에 대한 논의이며, 다른 하나는 거시적 접근으로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구성론에 대한 논의이다. 어떤 경우든 한국어 교육계에서의 논의는 문화를 사회 현상 전반으로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다. 이는 외국어 교육계에서도 문화 교육의 목표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초기의 언어 행위, 관습화한 행위 이해 중심¹³⁾에서 일반 사회 현상으로서의 확대¹⁴⁾로 발전되어 온 추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의 교과론 중 내용 구성 역역으로서의 문화를 논함에 있어서는 이제 거시적인 접근과 미시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즉, 큰 틀을 설정하면서 그 안에 들어갈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함으로써 한국어 문화 교육론의 내용은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완전하게 정립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어 문화 교육론의 내용 구성론의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3) Ned Seelye(1984, 1988)이 대표적이다. 여기에서는 문화적으로 조건 지어진 행위에 대한 이해, 관습적인 행위에 대한 이해, 목표 언어 속에 들어 있는 문화적 함의가 있는 단어나 구에 대한 이해, 목표 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의 자극과 감정이입, 목표 문화와 관련하여 얻어진 정보를 정리하거나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4) Lafayette(1988)과 Tomalin & Stempleski(1993)가 대표적이다. 전자의 경우 주요 지리적 기념물의 인식/설명, 주요 역사적 사건의 인식/설명, 정치·행정·종교·교육 등과 같은 주요 제도의 인식/이해, 주요 예술적 기념물의 인식/이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문화 교육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능력(Socio-economic Competence)을 키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조현용(2003)	조향록(2004a)	민현식(2004b)	민현식(2009)
·한글과 한국문화 ·비언어적 의사소통 ·언어 예절 ·한국인의 사고와 표현	·언어 문화 ·비언어적 의사소통 ·분야 별 문화 요소 - 의식주 문화 - 역사 문화 - 민속 문화 - 사상 문화 - 관념과 가치관 - 일상생활 문화 - 제도 문화 - 예술 문화 - 문학 - 기타	·한국 문화 교육의 정신 ·문화사적 측면 ·한국 개관 ·한국 생활 문화 ·한국의 의식주 문화 ·한국의 매체 문화(영화, 드라마, 언론, 통신) ·한국의 창조: 예술과 과학, 발명품 ·한국의 문학 ·한국의 역사 ·한국인의 사고방식 ·한국의 인물 ·한국의 언어문화	·언어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의식주 생활 정체성 ·국민성(국민의식)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 ·역사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

이를 볼 때 한국어 문화 교육론의 내용 구성론은 협의의 접근(조현용)으로부터 광의의 접근(조향록; 2004a, 민현식; 2004b, 민현식; 2009)으로 다양하며, 하위 구성 요소의 설정 역시 논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광의의 접근을 볼 때 양자의 논의는 사회 현상 전반을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하위 범주의 설정에서도 공유하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¹⁵⁾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구성론이 정립된다면 문화 교육 과정이나 문화 교수요목의 수립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언어 교육과의 통합적 적용이라는 큰 틀에서 적절하게 반영됨으로써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¹⁶⁾

3.2. 과정 중심적 문화 교육

최근의 외국어 교육 원리 중에서 과정 중심의 접근은 큰 중요성을 갖는다. 이는 학

15) 한편 교육 대상의 문화의 분류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로서 강현화(2010)에서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문화지식(정보문화, 성취문화), 문화방식(행동문화)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 또한 광의의 접근으로 볼 수 있다.

16)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로 조향록 외(2007)를 들 수 있다. 국립국어원/한국어세계화재단의 연구 용역으로 진행된 한국어-한국문화 통합 읽기 교재 개발 연구 보고서에서는 학습자 요구 조사, 교사 요구 조사, 기존 연구 성과 등을 종합하여 문화 교수요목을 제시하고 있다.

습 단계를 전 단계-단계-후 단계로 설정하여 각 단계마다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이끌어준다. 즉 전 단계라면 학습 목표의 제시, 동기의 강화, 브레인 스토밍, 스키마 형성 또는 작동 유도 등을 주목표로 하고 본 단계에서는 학습 대상에 따라 다양한 학습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고 후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의 확인 및 강화, 심화학습으로의 유도, 다른 학습과의 연계 내지는 통합, 자기 학습 평가 등을 주 내용으로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언어 학습에서의 인지적 과정을 중시하며 동시에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과정 중심의 교육은 어휘, 문법과 같은 범주 학습이나 네 가지 언어 기능 학습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과제 제시 및 과제 수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미시적 접근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듯이 문화 학습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 학습이 문화적 자각이라는 인지적 과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모어 사회의 문화와의 비교 등이 중요한 접근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과정 중심의 접근은 더욱 큰 중요성을 갖는다.

과정 중심적 접근은 한국어 교재에 들어 있는 문화 항목의 학습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과제 제시나 학습자 활동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설명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여도 실제 학습에서는 과정 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호칭’을 학습 대상으로 설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 목표: 한국인의 호칭 사용

학습 단계: 1급

전 활동: 학습자에게 한국에서 주변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를 생각해 봤는지를 물음.

학습자가 지금까지 들은 호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물음.

학습자 나라에서는 성과 이름 중 어느 것을 주로 부르는지를 물음.

한국에서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얘기해 보라고 함.

이제 한국에서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은지를 공부하겠다고 하고 교재의 내용으로 단계를 옮겨 감.

활동: 교재의 내용을 중심으로 호칭 사용의 예를 제시.¹⁷⁾

후 활동: 호칭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지를 물음.

학습자 모어 사회에서의 호칭 사용과 한국어에서의 호칭 사용 사이의

17) 이 경우에 학습자 모어 사회의 경우 어떠한지 비교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호칭의 확대 사용에 관한 질문과 같이 학습 단계를 넘는 질문이 나올 경우 다음 단계에서 학습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학습 목표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적절하게 통제한다.

차이점을 말해 보도록 함.
호칭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에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이
라고 말하고 수업을 정리함.

과정 중심적 접근은 이러한 문화 항목의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영화를 통한 문화
학습, 현장 견학을 통한 문화 학습 등 문화 학습과 관련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고루
활용될 수 있다. 다음은 현장 견학과 관련한 과정 중심적 접근의 예가 될 수 있다.

학습 목표: 한국의 시장, 물건 사기 관행 이해

학습 단계: 2급

전 활동: 현장 학습 수일 전에 학습자에게 현장 학습 계획을 이야기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접해 보도록 함(학습자가 정보를
접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요구 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실행 전에 학
습자 요구에 맞춰 수정할 수 있음).

현장 학습 당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현장 학습 목표 및 진행 방법을
설명함.

학생에게 과제를 제시함.¹⁸⁾

활동: 학습자의 활동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도와 줌.

때때로 학습자의 활동이 부진할 경우 다시 과제를 상기시켜 주거나 함께
과제를 수행함.

후 활동: 원래의 계획에 따라 각자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함.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

질문이 있는지를 물음.

오늘 활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수업을 종료함.

18)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을 목적지로 정했을 경우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남대문 시장/동대문 시장에서는 주로 무엇을 팔고 있었는가?
- 물건을 진열한 모습이 다른 시장이나 백화점과 어떻게 다른가?
- (가게 주인 또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본 후에) 물건 값은 다른 곳에 비하여 얼마나 싸다고 하는가?
- 물건 값을 깎을 수 있는가?
-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고른 후에) 주인의 설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여러분 고향의 시장과 비교할 때 어떤 점이 달랐는가?

3.3. 교재에의 다양한 문화 교육 접근 방식의 채택¹⁹⁾

교재는 교수 학습의 내용을 담아 학습자에게는 학습 대상을 인지하게 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구사하게 하는가 하면 교사에게는 교수 대상을 인지하여 적절한 교수 전략을 갖도록 한다. 최근 한국어 교재에 문화 교육적 요소가 적극 도입됨으로써 문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의 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 단계에서의 문제는 문화 교육적 요소의 선정 기준의 설정이나 내용 기술의 수준 못지 않게 기대하는 교수 방법이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조항록(2001)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지만 기존의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를 사용하든 외국어를 사용하든, 그리고 사진이나 그림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대부분 단순 설명식을 채택해 왔다.²⁰⁾ 그러나 설명이라는 단순한 방식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최근의 외국어 교수 원리를 충분히 구현하기에 한계를 갖는 것이다. 학습 단계, 학습 대상 문화 항목, 학습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활동을 포함하여 교재 내에 문화를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를 초급 단계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1) 본문 속에서의 제시

최근에 개발되는 모든 교재는 주제-과제/기능-문법-어휘가 상호 연관된 상태에서 집필되고 있다. 그리고 본문 대화의 제시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연관성 하에서 적절한 담화 상황이 설정되고 있다. 비록 문화 항목을 분리 설정하지 않는다 해도 본문 속에 문화적 함의를 갖는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문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²¹⁾

<예>

마이클: 요즘 비가 참 많이 오는군요. 여름 내내 이렇게 비가 오나요?

19) 조항록(2001)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임.

20)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진전된 방식을 찾을 수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인 이미혜(2005b)에서는 관련 표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21) 그러나 이 경우 문화 교육은 상당 부분 교사의 몫으로 맡겨지게 되며 다른 영역(문법, 어휘 등)의 교육 또는 기능(말하기, 듣기 등)에 부수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자칫 본문 속에 포함된 문화적 정보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학습자의 문화적 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영수: 한국에는 장마철이 있어요. 보통 6월 말부터 한 달 동안 비가 많이 와요. 그 후엔 더운 날씨가 계속 돼요.

→ 여기에서 학습자는 한국의 장마철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다.

(2) 설명 방식의 사용

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온 방법으로 문화 항목을 설정하여 한국어 또는 학습자 모국어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현행 한국어 교재들이 주로 채택한 방법으로 사진 또는 그림을 곁들이는 경우도 많다. 문화 항목의 분리 설정은 본문의 담화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한국의 문화에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학습자의 문화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내용의 적절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학습자 모어 사회와의 비교 기술 등이 도입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3) 돌출 창 설정(tips) 및 단편적 기술

본문의 담화 상황,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화적 정보는 본문 옆에 돌출 창을 설정하여 학습자 모국어로 간단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한국인의 인사 예절 등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본문 대화 또는 본문 내 적당한 곳에서 돌출 창을 설정하여 인사말과 함께 허리를 약간 구부리는 게 좋다는 내용의 설명과 함께 그림을 함께 보여줄 수 있다.

(4) 문화 정보의 제시와 퀴즈

학습자가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문화 항목 또는 문화 정보를 범주화하여 정리한다면 문화적 능력은 빠르게 향상될 것이다. 더욱이 퀴즈라는 과제 활동을 채택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한다. 초급의 경우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고려한다면 학습자 모국어로 제시할 수 있으나 선수 학습 범위 내에서 학습자 목표어로 제시한다면 읽기 이해력도 함께 촉진시킬 것이다.

(5) 문화 정보의 제시와 빈칸 채우기

퀴즈와 유사한 과제의 성격을 가지나 다양한 활용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 외국어 교수법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비교 접근 등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

여러분은 이 단원에서 한국의 계절과 날씨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한국의 계절과 날씨가 여러분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아래의 빈칸을 채워 보십시오.

나라 이름	한국	()
계절 이름		
날씨		
계절 활동		

(6) 문화 항목 기술 + 역할극

본문과 관련한 문화 항목을 기술한 후 역할극을 제시한다면 문화 학습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말하기, 듣기 기술 등 언어 기능의 향상도 함께 기대할 수 있으며 흥미 있는 주제를 택한다면 학습 활동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제시하는 언어는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 항목의 기술 대신에 상황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물건 사기를 주제로 할 때 백화점과 시장의 비교는 매우 흥미 있으며 유익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이후에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 사기를 역할극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상에서 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초급 단계 교재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재가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든 최근의 외국어 교육의 기본 원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항목의 선정 및 제시가 등급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방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초급에서의 문화 교육은 어디까지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보조적인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학습 목표를 흐리도록 하거나 너무 큰 학습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 항목의 선정 및 기술에 있어 최대한 가치 전제를 피해야 한다. 한국어 학습자의 다양한 변인, 그들의 다양한 가치 정향 등을 생각할 때 문화 항목에 대한 기술은 가장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한다.

셋째, 문화 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를 갖지만 자칫 학습자를 수동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교재의 집필 원리에 과정 중심, 과제 해결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교사 또한 이러한 방법론에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요즘의 경향이다. 문화 교육 역시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론을 채택한다면 학습자를 능동적인 문화 학습자로 끌어들이 수 있고 교육 효과 역시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 항목을 선정, 기술하는 단편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문화 학습 전 단계-문화 학습 단계-문화 학습 후 단계로 나누어 과정 중심의 문화 학습이 진행되도록 교재를 집필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심화 학습을 원하는 학습자를 위한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문화 항목은 선정부터 기술에 이르기까지 학습자의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에 따라서는 관련 주제, 과제/기능과 연관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준으로부터 지적 호기심의 충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다. 초급에서의 문화 항목 기술이 대체로 기본적인 수준으로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교재에서 좀 더 폭넓은 학습자를 위한 길잡이로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한다든지, 관련 주제의 후속 설명이 어느 단계 교재에 제시된다든지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교재에 사진과 그림을 포함하는 일도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3.4. 문화 능력 평가의 도입

교육과정이 정립이 되고 교수요목으로 교육의 내용이 선정이 되고 교재를 통하여 교육 내용이 조직화된다면 다음으로 평가를 통해 교육의 결과를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계에서 문화 능력의 평가를 논한다는 것이 약간은 생소할 수 있겠지만 문화 교육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실제로 한국어 교육계에서 문화 교육이 문법이나 담화 못지않게 실시가 된다면 문화 능력 평가에 대한 논의는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미 한국어 교육계에서도 문화 능력의 평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제기되었고(조항록; 2002), 박영순(2002)에서 문화 인지 능력 평가라는 이름으로 평가 방법과 평가 유형의 예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박영순(2002)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 인지 능력 평가는 문항 유형으로 주관식-객관식, 직접 평가-간접 평가, 이해 평가-수행 평가 등 이분법적인 평가 방식을 제시하고 시험 유형으로 지필 평가, 구두 평가, 실기 평가를 제시하였다. 여기에 객관식 문제 유형과 주관식 문제 유형의 예를

들었다. 문화 능력의 평가는 평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교육 내용을 대상으로 삼는 만큼 평가 항목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육 내용은 교재에 가장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어 교재에 문화 교육적 요소를 많이 담으면 이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근거는 충분하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교재 사용 이외에 문화 체험, 현장 학습, 특강 수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 교육이 실시될 경우 문화 능력 평가는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문화 능력의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문화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원리, 평가 방법, 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문화 능력의 평가는 문화 교육의 목표와 관련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도입되는 문화 교육이 학습자의 한국어로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선에서 설정이 된다면 한국어 사용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이해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평가 시 어휘나 문법 사용의 사회적 맥락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사용의 적절성, 속담이나 관용 표현이 갖는 사회문화적 배경, 한국어 화용 능력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²²⁾ 이와 관련한 평가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우리’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중 우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임스: 요즘 영수 씨 고향은 날씨가 어때요?

영 수: 우리 고향은 요즘 아주 춥대요.

② 제임스: 저는 요즘 손이 너무 차요. 영수 씨는 어때요?

영 수: 저도 그래요. 우리 손 한번 만져 보세요. 차지요?

③ 제임스: 우리 회사는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영 수: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지요?

<속담, 관용 표현, 시사 용어가 갖는 사회적 배경 이해>

*다음 글이 담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여자가 결혼하면 병어리 삼 년, 귀머거리 삼 년, 장님 삼 년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① 여자가 결혼하면 처음 몇 년 간 무척 고생한다.

2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해영(2002)에서 논의하고 있는 비교문화적 화용론에 기초한 한국어의 화용 교육은 교수 방법론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문화 능력 평가에서 활용할 가치가 크다.

- ② 여자가 결혼하면 초기에는 아주 행복하다.
- ③ 여자가 결혼하면 초기엔 아주 바쁘다.

*다음 중 운동이라는 다른 셋과 다른 뜻으로 쓰인 것은?

대학에 다닐 때 ①운동권이었던 영수는 사회인이 된 후에도 시민
②운동에 몰두하여 주말에 집에 없는 날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러
한 ③운동으로부터 멀어져 주말엔 가족과 같이 ④운동을 하는 등 여
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국어의 화용론적 특징>

*다음 중 아래의 질문에 대한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몹시 더운 날, 동료들끼리의 대화)

아,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잔돈이 없네요.

- ① 여기 잔돈 있다고 하고 건네준다.
- ② 커피는 잔돈이 있어야 한다고 확인해 준다.
- ③ ‘아 그래요? 잔돈이 없군요. 그런데 왜 없지요?’라고 말한다.

이와는 달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문화 교육을 한국어로의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그치지 않고 배경 사회에 대한 이해까지를 목표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화 능력 평가의 내용도 이해 수준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물건 사기 단원과 함께 한국의 화폐 단위, 시장 등에 대하여 학습한 이후)

*다음 중 한국의 돈과 관련이 있는 것은?

- ① 위엔 ② 엔 ③ 원 ④ 동

(한국의 명절과 계절 음식에 대하여 공부한 이후)

* 다음 중 명절과 음식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설 - 송편 ② 추석 - 떡국 ③ 동지 - 팔죽

(Content-based Instruction에 따라 한국의 지리를 대상으로 하는 읽기 연습이 끝난 후)

*다음 중 한국에 대한 이야기 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한국에서 제일 큰 섬은 제주도이다.
- ② 금강산은 휴전선 남쪽에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다.
- ③ 한국에는 여름철에 장마철이 있어 비가 오는 날이 많다.

둘째, 문화 능력의 평가는 학습 내용이 같다 하더라도 학습자 변인, 과정의 목표 등에 따라 그 수준이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Valette(1997)은 이러한 예를 잘 보여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계화는 다음과 같다.

- 일반 지표 또는 상황(General considerations)
- 문화적 자각의 수준(Cultural awareness)
- 예절의 구사(Command of etiquette)
- 문화적 차이의 이해(Understanding of outward cultural differences)
- 문화적 가치의 이해(Understanding of cultural values)
- 목표 문화에 대한 분석(Analysis of the target culture)

특히 전문 직업 종사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꾸준히 실시되어 오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교육, 한류 관련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 등 특별한 변인이 나타나면서 문화 교육의 내용과 목표도 달라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문화 능력 평가의 내용과 방법도 달라져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다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내용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함은 언제나 지켜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의 상식을 묻기보다는 어휘, 문법 등과 같이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 태도 등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 능력 평가와 관련한 문항 형식도 객관식 일변도가 아닌 주관식 문항도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하는데 박영순(2002)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관식 문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다음 글을 읽고 한국인의 정서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를 쓰시오.
- * 다음 속담 또는 관용어가 무슨 뜻이며, 한국의 어떤 문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 보시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여기에서 제시한 문화 능력 평가 논의는 아직은 시론에 불과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 능력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3.5. 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사 교육

한국어 문화 교육론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쟁점 중의 하나가 교사의 문화 교육 능력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한국어 교사는 어학을 포함한 인문학 전공자들이 주를 이

룬다. 그러나 문화는 그 영역이 방대하여 인문학 전공 교사들로서는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다. 특히 학습자 집단이 성인이고 일부는 저문 영역에 종사함으로써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 수준이나 관련 지식에 있어 한국어 교사를 능가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한국어 문화 교육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교사의 문화 교육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것이 쉽지 않을 경우 최소한 문화 교육용 참고 도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행히 한국어 교사 교육론과 관련한 논의에서 문화 영역은 중요한 하위 영역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한국어 교육 전공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든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재단/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의 교사 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에 한국학 영역이 5대 영역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고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실시한 한국어 교육능력인증시험에서도 문화를 주요한 영역으로 설정한 일이 있다. 학문적 연구의 차원에서든 민현식 외(2003)의 한국어 교사 교육을 위한 전공 지식 구조 논의에서 한국어 문학/문화교육학에 관한 지식을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²³⁾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미있는 일은 2004년 12월 제정이 되고 2005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어기본법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부여되는 대학과 대학원의 교과과정에 한국 문화의 이해 영역이 주요 영역 중 하나로 정립되었고 교원 양성 과정의 교과과정에도 이와 비슷하게 한국 문화의 이해 영역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도 한국어 교원 양성에서 문화 이해의 중요성을 더해 주고 있으며 이후에도 한국어 교사들의 문화 교육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연구나 교육 실재의 측면에서 과거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실제 적용이 불과 지난 10년 사이에 진전되었다는 점에서 문화 교육 논의는 이제 초기 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본다. 초기 단계의 특성이 대체로

23) 일본어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도 문화 관련 영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범주에는 사회 문화 지역에 관한 영역, 중범주에는 사회 문화 지역 등이, 소범주에는 세계와 일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하듯이 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특정 영역 내지는 쟁점에 대한 깊은 논의가 부족했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 한국어 교육계는 문화 교육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를 전개하고 새로운 쟁점을 계속 찾아내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한국어 교육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의 상황과 급격한 확대가 주춤한 1990년 후반의 상황이 다르고 다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 여기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변인도 과거와 다르고 한국어 교육기관도 수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어 문화 교육은 바로 이러한 한국어 교육계의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화 교육 논의가 한국어 문화 교육론의 기반을 닦는 의미가 컸다면 이제부터의 논의는 현장 쟁점에 대한 대안의 제시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제시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관심 있는 많은 이의 후속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승혜. 2002. 『재미교포 성인 학습자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분석 연구』, 한국어 교육 제13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현화. 2010.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수 방향성에 대한 제언-선행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한국어학회·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학회·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 김정숙. 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 한글 10. 한글학회.
- 라혜민·우인혜. 2001. 『중급 교재 내의 문화 교육 방안』, 제11차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 1996. 『국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 한국말 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 2004a.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기술 방안』, 한국어 교육 제15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 2004b.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방향과 방법,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학』,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 민현식. 2009. 『언어습득이론과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문화학회 2009년 국제학술대회발표 논문집. 국제한국어문화학회.
- 박영순. 1989. 『제2언어 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 이중언어학 5. 이중언어학회.

- 박영순. 2002.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국문화사.
- 배현숙. 2002.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이중언어학 제21호. 이중언어학회.
- 백봉자. 2004. 「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의 새로운 방향. 제14차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성기철. 2001.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제12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성기철. 2003. 「한국어 교육의 언어문화적 접근」, 제3차 해외 한국언어문화 워크숍 발표 논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성기철. 2004. 「언어와 문화의 접촉—언어문화—」, 한국언어문화학 제1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안경화. 2001. 「속담을 이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제12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우인혜. 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항목 선정」, 이중언어학 제25호. 이중언어학회.
- 유석훈. 2005.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한국문화 교육」, 몽골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안. 제4차 해외 한국어 교육자 워크숍 발표 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윤여탁. 2000.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의 위상과 역할」, 국어교육 연구 제7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윤여탁. 2003. 「문학 교육과 한국어 교육」, 문학 교육을 통한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윤여탁. 2004.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 방법 연구—미주권 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2004년도 연구보고대회 발표 논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이미혜. 2004.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통합 교육」, 한국언어문화학 제1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이미혜. 2005a. 「대중문화 교육을 통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한일신시대와 일본에서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 일본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이미혜. 2005b. *Korean Language for a Good Job*. 서울: 다락원.
- 이석주. 2002. 「한국어 문화의 내용별, 단계별 목록 작성 시고」, 이중언어학 제21호. 이중언어학회.
- 이해영. 2002. 「비교문화적 화용론에 기초한 한국어의 화용 교육」, 이중언어학 제21호. 이중언어학회.
- 조항록. 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제9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 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제11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 2001.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화』, 한국어 교재 개발의 원리와 실제. 제1회 한국어 교육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 조항록. 2002. 『한국어 문화 교육론의 주요 쟁점과 과제』, 21세기 한국어 교육학의 과제와 전망(박영순 편). 한국문화사.
- 조항록. 2004a. 『한국어 문화 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 한국언어문화학 제1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조항록. 2004b. 『한국 언어 문화와 한국어 교육』, 한국언어문화학 제1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조항록. 2005a. 『한국어 교사 교육과 한국학』, 한일신시대와 일본에서의 한국언어문화 교육. 일본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조항록. 2005b.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연구방법론 소고』, 한국언어문화학 제2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조항록. 2005c.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 한국어 교육 제16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 2007. 『국어기본법과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제18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 외. 2007. 『한국어(한국문화) 독본 교재 개발 최종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한국어 세계화재단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
- 조항록·강승혜. 2001.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요목 개발(1)』, 한국어 교육 제12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김정숙·이미혜. 2002. 『한국어와 한국 생활』. 한국산업인력공단.
- 조현용. 2003.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제22호. 이중언어학회.
- 한상미. 1999.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 교육 방안—의사소통 민족지학 연구 방법론의 적용—』, 한국어 교육 제10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황인교. 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화 교육의 가능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제25/26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Acton, William R. and Felix, Judith Walker de. 1995. Acculturation and mind. in Valdes, Joyce Merrill, ed. *Culture Bou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daskou, K., Britten, D. & Fahsi, B. 1990. Design decisions on the cultural content of a secondary English course for Morocco. *ELT Journal* 44(1).
- Brooks, Nelson. 1975. The Analysis of Foreign and Familiar Cultures. In Robert Lafayette ed. *The Culture Revolution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Lincolnwood, ILL.: National Textbook.
- Byram, M. 1989. *Cultural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Canale, M. and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 Clark, R.C., Moran, P.R., & Burrows, A.A. 1991. *The ESL Miscellany. Pro Lingua Associates*.
- Cortazzi, Martin and Jin, Lixian. 1999. Cultural mirrors: Materials and methods in the EFL classroom. in Hinkel, Eli, ed. *Cultur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l, E. T. 1976. *Beyond Culture*. New York: Doubleday.
- Hendon, Ursula S. 1980. Introducing Culture in Elementary College Language Classes. *Modern Language Journal* 64(2).
- Hinkel, Eli. 1999. Culture in research and second language pedagogy. in Hinkel, Eli. ed. *Cultur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amsch, C. 1993.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fayette, R.C. 1988. Integrating the teaching of culture into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In A.J. Singerman and R.C. Williamson (Eds.) *Toward a New Integration of Language and Culture*. The Northeast Conference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Inc.
- Seelye, H. Ned. 1988. *Teaching Culture*.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mpany.
- Stern, H. H. 1983. *Fundamental Concepts of Language Teaching*. (심영택 외 옮김. 1995. 언어 교수의 기본 개념. 도서출판 하우.)
- Tomalin, Barry & Stempleski, Susan. 1993. *Cultural Aware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lette, Rebecca M. 1995. The Culture Test. in Valdes, Joyce Merrill, ed. *Culture Bou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한국 역사의 이해

이만열

〈차례〉

- | | |
|-------------------------------|------------------------------|
| I. 한국 역사의 흐름 | 3. ‘고구려사=중국사’: 중국의 주장과 문제점 |
| 1. 한국 역사를 전하는 초기 자료들 | 4. 고구려사에 대한 중·한 양국의 사료 |
| 2. 선사시대(고고학적 유적 유물에 의한 역사 이해) | III. 고구려의 살수대첩과 신라의 대당 통일 전쟁 |
| 3. 한국의 국가 발달 | 1. 고구려의 살수대첩 |
| 4. 대외 항쟁 | 2. 신라가 당 세력을 한반도에서 물리침 |
| II.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문제 | IV. 독도 영유권 문제 |
| 1. ‘동북공정’의 배경과 의도 | V. 일제의 식민지화, 합법적인가 강점인가 |
| 2.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흐름 | |

I. 한국 역사의 흐름

1. 한국 역사를 전하는 초기 자료들

1) 중국측 자료:

선진 문헌들,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위지 등이전을 비롯한 관찬 사서들.
선진 문헌에는 동이족에 대한 이야기가 보임.
사기 한서 등에는 조선(주로 위만 조선)에 대한 언급.
삼국지와 후한서의 동이전: 부여 고구려 동예 옥저 및 삼한(마한 진한 변한).

2) 한국측 자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및 동국통감.
조선조에 들어오게 되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역사 기록이 많음.

2. 선사시대(고고학적 유적 유물에 의한 역사 이해)

1) 구석기 시대:

70만년 전-공주 석장리 유적 제 1문화층 형성.
50만년 전-상원 검은모루동굴 유적 형성.
30만년 전-연천 전곡리 유적, 단양 도담리 유적 형성.
20만년 전-상원 두루봉 유적 형성.
3만년 전-웅기 굴포리, 공주 석장리, 단양 상시리바위그늘, 제천 사기리 유적 등이 형성.
1만년 전-오늘날의 한반도 바다와 육지 등 지형의 원형이 형성됨.

2) 신석기 시대:

BC 6000년 전, 신석기 시대 시작, 간석기와 토기 사용, 부산 동삼동 유적.
BC 5000년 전, 서울 암사동 유적 형성.

BC 4000년 전, 봉산 지탑리 유적 형성.

3) 청동기 시대:

BC 2000여 년 전후한 시기, 청동기 유물이 발견됨→사회조직의 형성.

3. 한국의 국가 발달

1) 고조선:

단군조선(←단군설화, BC 2333~), 위만조선(BC 194~108).

2) 열국시대:

만주와 한반도 북부-부여(건국설화, BC 451~AD 494), 고구려(건국설화), 동예, 옥저,
숙신→부여, 고구려→고구려로 통합됨.

한반도 남부-삼한(마한 진한 변한) 78개 소국→백제 신라(건국설화), 가야(건국설화,
수로왕 42년 즉위~532년 금관가야, 562년 대가야가 각각 신라에 멸망)로 통합됨.

3) 삼국시대:

가. 오국시대(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나. 사국시대→494년 부여가 고구려로 통합됨으로 4국시대.

다. 삼국시대→562년 가야가 신라에 멸망됨으로 3국시대로 정립됨.

※ 고구려(BC 37~668), 신라(BC 57~935), 백제(BC 18~660).

4) 신라통일시대(668~):

가. 7세기의 동북아시아의 정세-남북 동맹(돌궐-고구려-백제-왜)과 동서동맹(수 혹은 당-신라)의 대결.

나. 나당 연합군의 결성.

다. 백제의 멸망(660).

라. 고구려의 멸망(668).

마. 신라의 당 축출(676).

5) 후삼국시대:

- 가. 신라 하대의 부패와 지배층의 분열.
- 나. 후백제(892)의 건국-건훤, 완산주(전주)에 도읍.
- 다. 후고구려(901)의 건국-궁예, 송악(개성)→철원.
- 라. 고려의 건국(918)-왕건, 철원→송악.

6) 고려시대(918~1392):

- 가. 신라 합병(935).
- 나. 후백제 합병(936)→고려의 재통일.
- 다. 묘청 등 서경에서 대위국(연호 천개) 건국(1135).

7) 조선시대(1392~1910): 세종대왕

※ 대한제국(1907~1910).

8) 일제강점기(1910~1945)

9) 대한민국(1919~, 정부수립 1948)

4. 대외 항쟁

1) 한(BC 202~AD 12)의 왕검성 침략(BC 108)→고조선 일부 지역에 한사군 설치

2) 수 나라(580~618)의 고구려 침략→살수전쟁에서 고구려 대승(612)

- 가. 수 양제, 9군 113만 3800명 동원→요동성 공격, 실패.
- 나. 우중문 우문술로 30만 5000명으로 평양 직공←을지문덕 장군은 수군을 유인.
- 다. 평양성 부근까지 왔으나 을지문덕은 우중문 장군에게 1편의 시를 전하고 반격.
- ※ 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既高 知足願云止.
- 라. 수군, 1일1야에 압록강까지 퇴각, 요동성에까지 퇴각한 병사는 2700명.

3) 당(618~907)나라의 고구려 침략→안시성 대승(645)

가. 당 태종 이세민,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정벌에 나섬.

나. 요하 일대의 개모성 비사성 요동성 백암성 함락.

다. 고연수, 고혜진이 고구려·말갈 연합군 15만 원군으로 파견, 당군에 패배.

라. 하루에 6~7회 공방, 60여 일 동안 연인원 50만을 동원 토산 구축→점령.

마. 안시성 주 양만춘, 군사와 주민의 힘으로 당의 침략을 물리침, 당군 퇴각하니 성 위에 올라가 송별례를 행함→태종은 물러나면서 성주에게 비단 100필을 선사하며 성의 방어를 하례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격려했다는 설.

4) 거란(요)의 3차례 고려 침략

가. 1차 침략(993) 고려의 親宋排遼 정책으로 소손녕 80만 대군↔서희 대도수 등, 강동 6주 회복.

나. 2차 침략(1010)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 시해를 이유로 요나라 성종 40만↔강조 등 30만 실패→개경 점령 10일만에 화의로 물러남→퇴로에 고려군의 공격으로 많은 인마를 상실함.

다. 3차 침략(1018) 고려왕의 친조와 강동 6주 반환을 요구하며 소매압이 10만을 거느리고 침략↔강감찬 강민침으로 20만명으로 막도록 함. 귀주대첩.

5) 몽골이 7차례 30년간에 걸친 고려 침략(1231~1260)↔화친 후 삼별초 항전

가. 몽골은 고려를 무력으로 정복치 못함→태자 전(원종)이 쿠빌라이와 화친.

나. 고려의 국토는 황폐하고 전적(기록)이 불타고 국보급 문화재가 파괴됨.

다. 이후 100여년간 고려는 몽골의 부마국이 됨→몽골을 통해 세계문화 수용→조선조에 이르러 세종 대에 찬란한 문화를 이룬 것은 세계문화 수용과 밀접한 관련성.

6) 일본의 침략(1592~1598): 임진왜란(1592) 정유재란(1597)

가. 이유: 명분은 征明假道, 豊臣秀吉의 일본 지배 야망.

나. 1592년 4월 14일, 병력 20여만명으로 침입↔관군 궤멸, 이순신의 수군과 의병.

다. 조선은 초토화, 많은 인명 살상과 문화재 소실.

라. 일본→덕천막부 수립, 중국은 명→청으로 교체.

7) 후금(청)의 침략

가. 후금의 1차 침략, 정묘호란(1627)↔인조 반정 후의 반후금 정책.

나. 후금의 2차 침략, 병자호란(1636)→후방을 누르고 청은 명을 정복(1644).

8) 한말 국권수호를 위한 의병의 활동

※ 기타 인물 문화사는 별도 자료(ppt)로 설명할 것임.

II.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문제

1) ‘동북공정’은 중국이 200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 지역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로서, 각종 학술 연구를 통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난 작업이다. 가깝게는 고구려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던 계획인 동시에, 멀리는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염두에 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2) 중국은 1990년대부터 이 지역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바 있었다. 2002년 2월부터는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이 연합하여 국책 사업으로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추진하였다. 2003년 6월 중국사회과학원에서 개최된 학회에서는 고구려를 완전히 중국사에 포함시키는 선언적 논문들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 활동을 통해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확정, 중국 국내의 민족 관계사로 파악하고 있거니와, 나아가 최근 중국 학자들은 “중국은 현재뿐만 아니라 자고 이래 ‘통일적 다민족 국가’였다.”는 이론을 전개하면서 이를 심화시켜 가고 있는 형편이다.

3) 1983년 중국사회과학원 내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을 설립하고, ‘중국 근대 변경 연구’, ‘중국 고대 강역 연구’, ‘중국 변강사 연구’ 등 3대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 이 중 조선족이 거주하는 동북 3성 지역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1999년에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 중국공산당 중앙의 인준 하에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동북공정)’이라는 대형 국책 과제를 조직, 2002년 2월부터 정식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5) 이 사업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국원이며 중국사회과학원 원장인 이철영(李鐵映)과, 중앙위원 겸 재정부 부장(장관)인 항회성(項懷誠)이 고문을 맡고 있다. 중앙위원 겸 사회과학원 부원장인 왕락림(王洛林)이 영도소조의 조장(책임자)이며, 실무 책임자는 연구원 마대정(馬大正)이다. 이상과 같은 사업의 인적 구성을 보면, 중국 당국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6) 이 사업에서는 고구려 문제가 가장 중심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액수가 3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동북 문제에 대한 200여 종의 저술과 수천 편의 논문이 연구 성과로 생산되고 있다.

7) 고구려사 왜곡의 의미와 영향: 동북공정에 의해 중국의 주장이 정립된다면, 한국사는 그 근간과 한민족의 정체성을 흔드는 중대한 역사 왜곡 내지는 역사 단절의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다.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해 버리면 그 이전의 고조선사(古朝鮮史)·부여사(夫餘史)와 발해사(渤海史)를 연결시켜 주는 연결 고리가 없어져 한국사의 체계가 흔들리고 종래의 한국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한민족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된다.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사는 시간적으로는 반만년 역사가 아니라 1,000년에 불과하게 되고, 공간적으로는 과거의 광활한 만주 땅이 한때 우리 역사의 무대로 되었던 것과는 달리 한반도 내지는 중국에는 한강 이남에 국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 ‘동북공정’의 배경과 의도

1)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베트남 전쟁과 티베트 문제, 신장 위그르 지역 문제 등으로 변방 지역에 대한 연구와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 개혁 개방 이후 55개 소수민족을 한족(漢族) 문화 중심의 사회로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이를 위해 역사를 재정리하여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의 이론을 세우게 되었다.

3)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에 대한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 고취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에 이르는 ‘만주족’에 대한 간접적 대응일 수도 있다.

4) 동북공정 조직의 단기적인 의도는 북한과의 사이에 국경선 문제와 고구려 유적의 세계 유산 등재 문제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한국의 만주 지역에 대한 영토·민족 회복의 의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토·문화권 확대의 주장을 봉쇄하고 도리어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나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라고 파악된다.

2.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흐름

1) 이념적 배경

중국의 고구려사 및 발해사에 대한 왜곡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전통적인 중화주의 사관에 뿌리를 둔 오래된 관행이다. 사회주의 정권 수립 후 중국에서는 이미 ‘중

국’과 ‘중국사의 범위’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으며, 현재 중국 판도 위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는 중국사에 귀속된다는 ‘고위금용(古爲今用)’의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 이러한 논의는 일시 중단되는 듯하였으나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시 ‘단대공정(斷代工程)’(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의 시대를 확정하여 중국사의 시간적 범위를 수천 년 끌어올리는 작업), ‘탐원공정(探源工程)’(삼황오제(三皇五帝) 등의 전설을 역사화하는 작업) 등의 일련의 국가적 학술 프로젝트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공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북공정은 중국사의 범위를 공간적으로 확대시키려는 전략적 사업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중국의 역사학자인 담기양(譚其驤)은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중국을 역사상의 중국으로 인정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오늘날 중국의 범위를 가지고 역사상 중국의 범위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역사 시기 몇 천 년 동안의 역사 발전을 통해 형성된 중국을 역사상의 중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과 이념들이 보다 체계화되어 오늘날 이른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으로 확립된 것이며, 이런 이론적 바탕 위에서 동북공정 및 고구려사에 대한 재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의 3단계

(1) 1980년 이전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1980년까지 30년 동안은 고구려사=한국사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 당시 그러한 이해에 대한 현재의 변명은 아래와 같다.

가. 국내외 정치 상황: 항미원조(抗美援朝) 운동 전개하면서 중·조 우의(友誼)가 중요시되던 때였다.

나. 당시까지 연구 미흡: 1965년 이전 20편 정도, 1965-1974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 한편의 논문도 나오지 않았고, 소련과 일본 학설을 그대로 수용하다보니 파생된 문제라고 본다.

- 당시에 “고구려=중국사” 논리 개발의 시도(김육불, 『동북통사(東北通史)』, 1941년 초판)가 있었다. 만주(만주국)를 발판으로 한 일본의 중국 침략 야욕에 대응해 만주가 중국 한족의 역사 현장이었음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1970년대까지 중국 역사학계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중국사의 체계를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고구려사는 중국사라는 커다란 체계 속에서 소소한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고구려사 연구는 『광개토대왕비(好太王碑)』에 대한 초보적 정리 이외에 참작할 만한 본격적인 성과가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이 시기에 고구려의 문물과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가 전개되면서 고구려사 연구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1980년 이후

- 1980년대부터 ‘일사양용(一事兩用)’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구려사의 한국사 귀속 문제를 비판하는 동시에 만주 지역에 도움이 있었던 시기의 고구려는 중국사로,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의 고구려는 한국사로 보는 양면적 인식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 1979년 중국의 개혁 개방과 동시에 학자들에게 고구려사 연구가 양성화되면서 고구려 연구가 활기를 찾게 되었다. 이것은 1980년 이후 본격화된 소위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는 중국의 민족 정책의 확립 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이 시기에 와서 그 전과 달리 한족의 왕조가 아닌 원(元)나라나 청(淸)나라도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게 된다.

- 역사학계에서도 역사적으로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는 중국이거나 아니면 중국의 판도 안에 들어 있다는 주장(譚其驤, 孫進己)이 각광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고구려의 원류가 무엇인가(고구려가 고이(高夷)와 부여, 예맥 가운데 어디서 출발하였는가)라는 문제에 초점이 주로 있었고, 고구려는 중국사라는 주장은 아주 미약한 단계였다. 당시 중국 내의 조선족 학자들도 고구려가 독립된 고대국가라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楊昭全, 1991, 『중국 조선 고대사 연구 개술(中國朝鮮古代史研究概述)』, 한국상고사학보(韓國上古史學報) 5 참조).

(3) 1990년대 이후: 고구려 귀속 문제의 본격화

- 1990년대에 들어와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이념화, 고구려사를 전면적으로 중국사의 일부로 보려는 학자들의 견해가 비등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이를 국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수용, 사회과학원 주도하에 ‘동북공정’이 추진되기에 이른 것이다.

- 1991년 심양시동아문화연구소(1992년 심양동아연구중심으로 개명. 주임 손진기)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고구려사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 1993년까지는 “고구려=조선사(한국사)”라는 주장과 “고구려=중국사”라는 주장이 병립했다.

- 중국 학자들이 고구려사를 중국사 입장에서 연구하기 시작하여 나름대로 상당한

연구 성과를 쌓고 있었으나 우방 국가인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고려하여 내놓고 발표를 하지는 못하였다. 중국 당국이 고구려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북한을 자극할 만한 연구 발표를 삼가 달라는 권고조차 있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1993년이 될 때까지는 고구려 귀속 문제가 양성화되지 못하고 음성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었다.

• 양국간에 이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예기치 못한 사건 때문이었다. 중국이 개방되면서 그 동안 가볼 수 없었던 중국 땅에 한국인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으며, 1992년 국교가 수립되면서 양국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기획되고 실행되었다. 그 중 하나가 1993년에 열린 고구려 국제 학술대회다.

※ 1993년 고구려 국제 학술대회

- 주최 해외한민족연구소, 중국조선사연구회, 조선일보사.
 - 방청석에서 고구려의 귀속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온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경철화(耿鐵華; 당시 집안박물관 부관장) -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서기 427년부터는 고구려가 조선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고구려 문화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의 용(龍) 문화(文化)에 속한다는 것이다.”
 - 박시형(朴時亨; 당시 84세, 북한 김일성대학 교수, 역사학계 원로) - “한 나라의 역사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법이다. 과거의 고조선·고구려 땅이 지금 중국 영토가 되었다고 해서 그 역사를 어떻게 중국사에 갖다 붙여 중국 소수민족 운운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 고구려야 옛날부터 고조선·부여와 함께 중국인들 스스로가 역사책에서 ‘동이족(東夷族)’이라고 독립해 지칭했고, 중국의 한 소수민족이란 서술은 역대 어느 사서에도 없다.”고 반박하였다.
 - 손진기(孫進己; 중국 심양동아연구중심 주임) - “우리들이 고구려를 중국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의 국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상 고구려는 오랫동안 중국의 중앙 황조(皇朝)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인의 후에는 조선족이라고 할 수 없고 대부분은 오늘날 중국의 각 민족이 되었다.”
- 이런 중국 학자들의 발언에 한 번도 고구려사가 한국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참가 한국 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러한 놀라움은 당시까지 “고구려사=중국사” 인식이 주류를 이루지 못했던 중국의 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 학술회의 이후 한·중 양국에서 고구려 귀속 문제가 커다란 역사적 화두가 되었으며, 많은 중국 학자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재가 되었다.

• 1994년 이후 중국에서 고구려 연구는 르네상스를 맞이하는데, 통화사범대학 고구려연구소(通化師範大學 高句麗研究所), 길림성사회과학원 고구려연구중심(吉林省社會科學院 高句麗研究中心),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1995년부터 고구려사 연구에 개입) 내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研究中心) 등이 중심이 되어 연구 활동과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2001년 북한이 고구려 고분벽화를 유네스코에 세계 유산으로 신청하였는데, 만일 북한의 고구려 고분벽화가 세계 문화 유산이 되면 고구려사가 한국의 역사라는 사실이 전세계에 알려지게 될 것이었다. 이에 당황한 중국은 문화부 차관을 평양에 급파, 북한과 중국의 공동 신청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이 거절하자, 중국은 다음해인 2002년 2월 ‘동북공정’이란 특별 프로젝트를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에 설치하게 된 것이다.

- ‘동북공정’이 본격화된 이후 중국 학계의 입장은 평양 천도(427년) 이후까지 고구려의 모든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사이며,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양춘길·경철화 주편, 2001, 『고구려귀속문제연구(高句麗歸屬問題研究)』, 길림문사출판사 참조).

3. ‘고구려사 = 중국사’: 중국의 주장과 문제점

- 중국에서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파악하고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보려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이며 타당성은 있는가.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고구려사가 중국사라는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다양한 관점을 표명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되는 중국의 논거와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고구려 민족은 중국 고대의 한 갈래 민족이다. 조선족이 아니다.

- 고구려를 세운 종족은 중원 민족의 한 갈래이다. 고구려를 세운 종족은 한국사와 무관한 중국 내의 소수민족, 나아가 중국 민족의 일부라는 논리이다.

- 고구려의 족원(族源)에 대한 중국 학계의 견해는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이다.

- | | |
|-------------------------|--------------|
| 가) 예맥족(백족) | 나) 부여족의 일부 |
| 다) 염제(炎帝), 고이(高夷) 등의 후예 | 라) 상인(商人) 후예 |

- 가), 나)는 전통적 견해를 계승한 것으로 일견 우리 학계의 논의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예맥족을 우리의 이해와는 달리 중국 여러 민족의 한 갈래로 본다는 점이다.

- 전통적인 견해를 계승한 예맥 기원설이나 부여 기원설은 중국 민족의 한 갈래로 보려고 노력하더라도 종래의 학설에 따라 그 고유성과 한국사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단절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반성 위에 고구려의 중원 민족과의 관련성을 보다 강조한 다), 라)의 견해가 근래에 대두하게 된 것이다.

- 고구려의 선조는 중국 산둥 지방을 근거로 하였다는 전설상의 존재인 염제족계(炎帝族系)의 지파(介族, 萊族)로서, 염제족계가 중원의 황제족계(黃帝族系)에 밀려 동북 지방으로 이주하여 고구려를 세웠다는 중국 본토 기원설을 제기하게 된다(이덕산, 1992, 『고구려족칭급가족속고변(高句麗族稱及其族屬考辨)』, 사회과학전선 1992-1).

- 고구려 건국 집단의 중원 민족 출자설을 강화하기 위해 『일주서(逸周書)』(왕회해편)에 나오는 ‘고이(高夷)’를 고구려 선인(先人)으로는 보는 견해를 주장하기도 한다. 고이는 중국 전설상 삼황오제의 하나로 전해지는 전욱 고양씨(顓頊 高陽氏)라는 데서 기원한 것으로 상(商)의 건국 전후(혹은 상인이 중원으로 이주할 무렵)에 이들이 동북방으로 이동했다는 것으로, 고구려 왕실이 고양씨의 후예임을 자처해서 ‘고(高)’씨를 성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마대정 주편, 2003, 『중국동북변강연구(中國東北邊疆研究)』, 중국사회과학출판사 참조).

- 고구려의 중심지인 요동 지역의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해 기자(箕子)의 조선봉국설(朝鮮封國說; 기자조선설)을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조선과 위만조선이 연(燕)과 진(秦)의 ‘속국’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마대정 · 이대룡 · 경철화 · 권혁수, 2003, 『고대중국고구려역사속론(古代中國高句麗歷史續論)』, 중국사회과학출판사 참조).

- 다), 라)의 견해는 최근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새로이 제기 강화된 것으로 고구려 민족의 구성설을 예맥족에서 떠나 오제 시대의 전설이나 기자동래설을 빌려 중원내의 민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려는 주장이다.

- 결국 중국 학계는 고구려의 족원은 예맥(濊貊), 부여(夫餘), 염제(炎帝), 고이(高夷), 상인(商(殷)人)설 중에서 이들 모두 고대 중국 경내의 민족이기 때문에 고구려 민족의 귀속성은 바뀔 수 없는 것으로 논단하고 있다.

- 반면 오늘날 조선족의 선조는 주로 고대의 삼한(三韓), 즉 신라인으로 고구려 후에는 극소수라고 보고 있다.

(2) 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졌다.

- 고구려의 건국은 중국의 영토에서 진행, 오늘날의 조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 고구려는 중국 땅에서 건립되었으며, 중국의 통치 질서 아래에서 발전된 국가이다.

- 고구려는 중원 왕조의 통치 질서 즉, 한군현(漢郡縣)의 하나인 현토군(玄菟郡)에서 국가를 세웠으며 중국 군현 안에서 발전하였으므로 고구려사는 중국사의 일부이다.

- 심지어 고구려의 평양 천도를 염두에 두고 한군현의 지배력을 확대 해석하여 한반도 서북부의 연고권을 주장하고 고구려의 발전이 모두 중국 군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고구려는 중국사의 일부라는 것으로 주장한다.

- 그러나 위만조선(衛滿朝鮮)을 멸망시킨 후 설치한 현토군은 식민지 군현으로 장기간 기능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존재한 변방 군현에 불과하다. 초기에는 그 지역에서 흥기하는 토착민(고구려)을 견제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하는 데 지나지 않았는데, “군현의 동쪽 경계에 작은 성을 쌓고서 조복(朝服)과 의책(衣幘)을 그 곳에 두어 해마다 고구려인이 그 성에 와서 그것을 가져가게 하였는데 이를 책구루(幘溝婁)라고 했다고 한다. 구루(溝婁)는 고구려 사람들이 성(城)을 부르는 말이라고 한다.”(『삼국지』 동이전 고구려)는 기사에서 현토군이 고구려를 직접 지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漢)이 군현을 통해 대외 유화 외교책을 전개한 것은 오히려 흥기하는 고구려를 무마하기 위한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 요컨대 고구려가 중국 영토 안에서 건국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출발한 것으로 파악하는 한편, 평양 천도 이후의 고구려는 중국 왕조와 ‘책봉(冊封)-조공(朝貢)’ 관계를 맺고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사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현토군은 어디까지나 한(漢)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것으로, 압록강 중류 일대가 본래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였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 더욱이 압록강 중류 일대에 설치되었던 현토군은 이 지역 주민 집단(高句麗)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서기전 75년 이후 중국 내륙(신빈, 무순) 쪽으로 계속 쫓겨갔다. 그 결과, 종래의 한군현설(漢郡縣說)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한은 대략 30여 년 정도만 압록강 중류 일대에 군현 지배를 제한적으로 실시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3) 고구려는 독립국가가 아니고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고구려는 중원왕조의 신속국이다.

- 중국의 고구려 귀속 논거의 대표적인 견해가 고구려가 중원 왕조의 신속국(臣屬國)이라는 주장이다.

- 중국 학계에서는 고구려가 처음부터 중원 왕조에 신속된 존재이며 건국 이후 시종일관 중원 왕조와 종속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사료의 조공-책

봉 관계를 그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조공-책봉 관계야말로 중국 학계에서 가장 자신 있게 제기하는 이론이다.

- 전체 역사 과정을 통해 보면 고구려는 시종 중국의 한 지방 민족 정권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할거를 가지고 전 역사 기간 동안 중국에 귀속되었던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조공 관계란 정치적 신속을 전제로 경제적 종속과 연호의 차용 등 의례적 행위가 수반되는 형식적 관계를 이룸하는데, 실제 그 이상과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전근대 외교 관계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 특히 고구려와 중원 왕조와의 경우 그러한 점이 현저한데, 남북조 시기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에서 ‘조공’의 표현이 가장 빈번하나 장수왕과 문자명왕의 봉어 후에 북위 황실이 오히려 거애(舉哀)하였다는 표현을 통해 당시 외교의 진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대를 포함한 어느 시기에 고구려가 “영락(永樂)·건흥(建興)·연가(延嘉)·영강(永康)”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고구려가 중원의 신속국이 아니라 중원 왕조에 대응하는 동방의 패자임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실이다.

- 오히려 고구려는 당대 동아시아에서 북연(北燕) 등 중원의 일부 국가를 신속시키는 동시에 초원으로 진출하여 북방 유목 민족과 연계하여 중원 왕조에 대응하는 한편, 독자적인 연호를 갖고 천손족(天孫族)임을 자처한 독특한 천하관(天下觀)을 통해 동방의 패자임을 천명한 당당한 대국이었다.

- 동북공정에서는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을 국제간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 국내의 중앙과 지방의 분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외국 학계에서는 수·당과 고구려의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전쟁을 중국의 팽창을 막아낸 동아시아의 국제 전쟁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4. 고구려사에 대한 중·한 양국의 사료

고구려사에 대한 서술이 중국측 자료와 한국측 자료에서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가. 고구려가 존재했을 당시인 BC 1(3)세기에서 AD 7세기까지의 기록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전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새로 서술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도 모두 한문으로 정리되어 전승되고 있다.

(1) 중국 측 사료

• 고구려사를 비롯한 우리 겨레의 역사는 중국 정사(正史)인 『사기(史記)』와 『한서(漢書)』에는 ‘조선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삼국지』 이후에는 대부분 ‘동이전(東夷傳)’이라 하여 중국사와는 별도로 따로 정리되어 있다. 중국은 자기의 나라를 천하의 중심으로 보고 그 주변의 존재들을 야만으로 보았는데, 『예기(禮記)』로부터 나오는 “동이(東夷), 서융(西戎), 북적(北狄), 남만(南蠻)”의 표현이 그것이다. 그들은 고구려사를 중국의 정사에 넣어 정리한 적이 없고 ‘동이전’에 넣어 기술했다. 자기들과는 다른 이민족 즉 동이의 역사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중국 학자들은 선대들의 정사 기록이 잘못 되었다거나 또는 단지 문화사의 시각에서 정리된 것일 뿐이라고 한다.

• 한 번도 그들의 역사 체계 속에서 정리한 적이 없는 고구려사를 갑작스럽게 그들의 역사 체계 속에 넣으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몇 가지 학설로써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2) 한국 측 사료

• 한국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처음부터 고구려사를 분명히 한국사의 일부로서 정리하고 있다. 『삼국사기』가 1145년에 성립되었고, 『삼국유사』는 1280년대 무렵에 편찬된 것으로 보아 고려 후기까지만 하더라도 고구려 계승 의식은 뚜렷했다고 생각된다.

• 특히 중국 측은 고구려의 고려로의 계승 관계는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삼국사기』 등을 통해 보아 오히려 뚜렷하다고 생각된다. 고려 초기의 고구려 계승 의식은 평양을 서경으로 활용하고 북진 의식을 가졌다는 것에서도 확실히 나타난다.

따라서 ‘고구려사=중국사’의 논리에서 출발한, “고구려족은 중국 동북지방의 소수민족이며, 고구려는 중국 역사의 일부분이다.”라는 중국 학자들의 주장은 사료적인 측면에서 객관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이룩해 놓은 우리 학계의 연구 성과와 논의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료에 근거한 객관적, 논리적인 학문 연구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세계 학계에 널리 알려 타당한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동북공정의 논리 구축의 목적은 중화적(中華的) 세계 질서의 재현을 원하고 이를 실현시키려는 명분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또 주변 국가들에 대한 통제력 강화 및 동북 3성(만주) 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현재보다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는 남·북한 혹은 통일 한국이 만주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거나 영향력을 증대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향후 중화 중심의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의 정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중국 동북공정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고구려사 왜곡 현상은 일종의 ‘신중화 제국주의(新中華帝國主義)’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면서 근린국에 대해 정치 경제적 측면은 물론 역사(학)적인 측면에서도 ‘통일적 다민족 국가’ 이론은 근거로 하여 중화주의를 노골화하는 것은 일종의 제국주의적 발상이요 패권주의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 이념에서는 타기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 중국 당국의 “동북공정” 사업에는 역사 연구 이상의 정치적 의도를 내포해 있고 효과를 노리고 있는 듯하다. 고구려·발해 역사의 중국사 편입은 동북(만주) 지역에 대한 한민족의 역사적 연고권 혹은 연고 의식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점증하고 있는 조선족의 민족 의식을 말살하며, 통일 이후 한국과의 영토나 민족 문제를 예방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 사업에는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서 하나의 대원칙(“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확립하고, 일체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 동북공정의 이면에는 19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대한 이 지역에서의 한국인들의 활동과 조선족들에 대한 영향력 및 국내의 통일 운동에 영향받았다는 느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2002년 북한에서 평양 일대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 신청한 것도 큰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유네스코 신청에 자극 받아 중국은 집안 일대의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 신청하여 2004년 7월 초, 북한이 신청한 것에 앞서 등재시킨 바 있다.

* 동북공정에서 나타난 대로 고구려사가 중국사에 귀속된다면, 한국사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게 될 것이다. 우선 한국사의 인식 체계에 심각한 혼선을 주게 된다. 한국사는 고조선, 부여·고구려를 포함한 삼국시대 내지는 오국시대, 발해·신라의 남북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로 계승된다고 인식해 왔다. 고구려사의 중국 귀속은 한국사에서 고구려사가 삭제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조선·부여와 발해·통일신라를 매개해 주는 연결 고리의 삭제를 의미하며, 따라서 통일신라 이후의 한반도

지역의 역사만이 한국사로 남게 된다. 이것은 한국사의 시간적·공간적인 축소를 의미하는 한편 한국사의 정체성에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며, 나아가 종래의 한국사를 근거로 형성된 한국인(한민족)의 주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고구려사의 문제는 학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국책 과제라고 인식되며,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연구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한 것이다.

* 현재와 같은 중화사상 위주의 학문 연구는 패권주의의 발로로서 당분간 아시아나 세계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료와 논리성의 부족으로 중국 자체의 역사 연구에 상처를 안겨 줄 것이다. 중화사상을 내건 중국 역사가 끝없는 정복과 피정복의 과정으로 집철되지만, 이민족에 지배당한 역사가 오랜 기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 진나라 이후 통일 제국으로 300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북송 한 나라뿐이라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4세기 초부터 시작된 5호 16국이나 남북조 시기의 북위(149년)를 비롯한 북조·요(210년)·금(120년)·원(109년)·청(297년)은 사실상 이민족의 지배였으나 이 모든 역사를 중국(또는 중화인) 역사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지나친 중화사상의 부작용이라고 판단된다.

* 현대 중국의 영역이 고대의 고구려나 발해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에 중국이 고구려사나 발해사를 연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때 현재의 중국 영토를 차지했던 어느 나라(또는 민족)라는 관점과 범주에서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제는 역사의 변동성과 계기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역사 상황을 고대로 소급하여 영토 주권에 내재되어 있는 시간적인 단절성을 무시한 채 그것을 역사 주권에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은 학문적 태도가 아니다. 그 반대로 역사 주권을 고집하는 연장선상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영토권의 현재성을 무시한 채 영토 주권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태도임을 유념해야 한다.

Ⅲ. 고구려의 살수대첩과 신라의 대당 통일 전쟁

1. 고구려의 살수대첩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승리를 안겨준 대외 투쟁은 단연코 고구려의 살수

(薩水)대첩을 들 수 있다. 살수대첩은 612년 고구려가 중국 수나라의 약 30만 군을 오늘날의 청천강에서 섬멸시킨,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승리를 가리킨다. 우리는 고구려가 거둔 살수대첩의 배경과 경과, 그리고 그것이 당시 동북 아시아의 국제 관계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구려는 미천왕(300~331) 때로부터 광개토왕(391~413)을 거쳐 장수왕(413~491)에 이르기까지 약 2백여 년 동안 영토를 광대하게 넓히며 동북 아시아에 군림하였다.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한반도 안의 백제와 신라에 압박을 가하는 한편 중국 대륙에 대하여도 자주 외교를 당당하게 펼쳤다. 고구려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있을 때 중국 대륙은 4세기에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중국 북쪽에 산재하면서 아직 민족적 결집력을 갖지 못했던 흉노·선비·갈·강·저의 ‘다섯 오랑캐 민족’이 전열을 정비하여 남쪽의 중국(晉)으로 쳐 내려 와서, 약 130년 간에 걸쳐 16 나라를 교체하였다(五胡十六國). 이어서 양자강을 경계로 남조와 북조로 나누어졌던 중국 대륙은 수(隋, 581~618)나라가 589년 남조의 진(陳)을 멸망시킴으로 ‘오호십육국’ 이래 270여 년 만에 통일을 맞게 되었다.

중국이 통일되었다는 소식은 그 이듬해(590) 고구려에 전해졌다. 평원왕(平原王)은 이 통일제국(隋)이 고구려를 침략해 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왕은 진나라가 망하였다는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군사를 정비하고 곡물을 축적하며 수에 대한 방어책을 강구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이를 보여준다. 고구려는 또 중국인 무기 기술자를 초빙하여 무기를 개조하였고, 정탐을 목적으로 파송한 수나라 사신을 유폐시키기도 하였다. 이렇게 고구려가 수나라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자, 수문제(文帝)는 고구려를 협박하는 국서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중국에 통일 왕조가 출현한 것을 계기로 동북 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반도 안에서는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가 고구려·백제의 협공을 받게 되자 수나라와 동맹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신라를 사이에 두고 고구려와 백제도 손을 잡게 되었다. 이 때 고구려는 돌궐과, 백제는 일본과 이미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동북 아시아는 수-신라의 동서 동맹과 돌궐-고구려-백제-일본의 남북 동맹의 두 세력으로 크게 나뉘어 있었으며, 두 동맹 세력의 맹주는 수나라와 고구려였다.

수나라와 고구려 사이의 긴장 관계가 전쟁 관계로 돌입하게 된 것은 597년 경이다. 수문제는 30만 군을 동원, 그의 넷째 아들인 양량(楊諒)으로 육군 총사령관을 삼아 임유관으로 진격하도록 하고, 주라후를 해군 총사령관으로 삼아 산둥반도에서 평양을

공격토록 하였다. 그러나 임유관을 거쳐 공격하던 육군은 홍수를 만나 굶주리고 질병에 걸렸고, 해군은 풍랑을 만나 대부분의 병선들이 표몰되어, 이 해 9월 침략군은 퇴각하고 말았는데 죽은 군사가 십중 팔구였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은 수나라 군사의 패전의 원인을 기후 변화에 돌려 자신들의 수치를 은폐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 이 전쟁을 ‘수 문제의 고구려 침입’이라고도 하고 민족주의 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임유관 전쟁’이라고도 한다.

수문제의 뒤를 이어 즉위한 양제(楊帝)는 야망에 찬 군주였다. 그는 수도를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기고 장려한 궁전을 짓기 위하여 200만의 백성을 동원하였으며 100만 명을 징발하여 낙양에서 장주에 이르는 대운하를 만들었다. 한편 그는 국내의 이 같은 인력 동원과 국력 축적을 기반으로 주변의 민족을 제압하려 하였는데 그 첫 목표가 고구려였다. 이를 눈치 챈 고구려는 돌궐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였다.

수양제는 611년 2월 고구려 토벌 조서를 내려 전국의 군인을 탁군에 모이게 하고 그 이듬해 좌우군 각각 12군씩 총 24군으로 고구려 침략을 시작하였다. 전투 병력이 113만 3천8백으로 2백만이라 과시하였고 군량미와 무기 운반자 등 병참 지원자가 그 두 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들은 매일 1군씩 출발시키되 40리의 간격을 두도록 하여 총 960리에 이르렀으며 부대마다 군기의 색깔을 달리하였다고 한다. 24군은 육군과 해군으로 편성되었다. 육군은 수양제가 직접 거느리는 어영군과 우문술(宇文述), 우중문(于仲文)이 이끄는 9군으로 나누고, 전자가 요동의 각 성을 치도록 하였으며 후자는 평양을 직공(直攻)하도록 하였다. 해군은 내호아(來護兒)와 주법상(周法尚)이 이끌고 대동강으로 들어가서 우문술·우중문의 육군과 합류하여 평양을 치도록 하였다.

수의 침략을 맞은 고구려는 을지문덕(乙支文德)이 육군 사령관으로 평양 직공군을 맡고, 왕의 동생이자 뒷날 영류왕(榮留王)으로 등장하는 건무(建武)가 근위 사령관으로 수나라의 해군을 맡았으며, 육해군 병력은 합하여 약 30만으로 추산되었다. 수나라에 비해 거의 10분의 1에 불과한 병력을 가지고서는 맞대어 싸우는 전략을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고구려가 적을 유인하여 피로케 한 후에 공격하며 게릴라전을 펼친 것은 이 때문이다.

612년 2월 수나라 군대는 요하(遼河)를 건너는 데서부터 고구려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많은 장수와 병졸을 잃었다. 개전 이틀 후 부교를 이용하여 도강한 수군은 수양제의 독전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이나 요동성 하나를 격파하지 못했으며 요동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다. 이때 우중문·우문술이 거느린 30만 5천 명의 평양 직공부대는 압록강 서쪽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이들은 1백여 일의 군량을 지급받았으나 각

중 개인 무기 등의 운반 때문에 군량미를 땅에 파묻기까지 하였으므로 중도에서 굶주리게 되었다.

고구려는 수군의 허실을 정탐하기 위하여 을지문덕을 적진에 파송하였다. “만약 고구려 왕이나 을지문덕이 오면 사로잡으라.”는 수양제의 명령이 있었지만, 위무사 유사룡(劉士龍)의 만류로 을지문덕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을지문덕은 수군의 진중에 주린 빛이 가득한 것을 보고 적을 유인하여 피로하게 하는 작전을 계속하였다. 어떤 때는 하루에 일곱 번 싸워서 일곱 번 패하면서 수군을 고구려 깊숙하게 유인하였다. 수군은 고구려의 유인 작전에 말려들고 있음을 의식하면서도 지휘 계통의 불일치로 공격을 중지하지 못하고 평양성 30리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때 을지문덕은 적장에게 야유조의 오언시(五言詩)를 보냈다.

신이한 그대의 책략, 하늘의 글월을 궁구했고 (神策究天文)
기묘한 그대의 전술, 땅의 이치를 꿰뚫었구려 (妙算窮地理)
전쟁에 승리한 공이 이미 높으니 (戰勝功既高)
족한 줄 알겠거든 원컨대 이르노라 “그쳐라”. (知足願云止)

사태를 비로소 직시하게 된 수군은 퇴각하기 시작했다. 살수(청천강)에 이르자 고구려군의 맹공을 받아 신세웅 등이 전사하는 등 수군의 주력이 궤멸되었고, 패잔병들은 1일 1야에 압록강까지 달아났다. 처음 출발할 때 30만 5천 명이던 수군이 요동성 밖에 이르러 점검해 보니 2천7백 명에 불과하였다. 30만 명 이상의 병력과 물자를 이 싸움에서 잃었던 것이다. 수양제는 더 이상 싸울 의욕을 잃고 우문술 등을 쇄로 엮어 가지고 퇴각하고 말았다. 이것이 세계 전사에 빛나는 살수대첩이다.

그 뒤 수양제는 여러 차례 다시 고구려를 침략하려 했으나 오히려 백성들의 거센 반전(反戰) 의식만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 결과 이연·이세민 부자에 의해 수나라는 무너지고 당(唐, 618~907) 왕조가 일어나게 되었다. 한편 고구려도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국력을 소모한 나머지 한반도에서는 신라에 밀리는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고구려가 5백여 리의 땅을 신라에 빼앗기게 된 것도 이 때다.

2. 신라가 당 세력을 한반도에서 물리침

여러 차례에 걸친 수(隋)·당(唐)의 침략을 물리친 고구려도 오랜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 국력이 피폐하게 된 데다가 연개소문(淵蓋蘇文)의 독재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는

조짐조차 보이고 있었다. 거기에는 한반도 안의 삼국간에 얽힌 갈등 관계는 국제 관계를 변모시켜, 동북 아시아에는 수(당)와 신라가 연결되는 ‘동서 세력’과 고구려·백제가 주축이 되고 돌궐과 왜가 합세하는 ‘남북 세력’이 각각 느슨하지만 연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 질서 속에서 ‘동서 세력’을 주도하던 당과 ‘남북 세력’의 맹주인 고구려가 대결한다. 그러나 당·신라의 동맹 세력은 백제,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룩한 후, 당은 한반도를 그들의 지배 아래 두고자 하여 신라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된다. 당의 야심을 눈치 챈 신라는 약 6년 간(670~676)이나 싸워서 당나라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게 되었다.

한반도에 대한 당의 야심: 신라가 당의 도움을 받아 백제에 출병한 것은 660년이다. 이 때부터 당은 신라를 병합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다. 『삼국사기』 ‘김유신전’에는, 백제의 패망 후에 당이 사비성에 군사 본부를 두고 신라를 침략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음이 보인다. 이를 눈치 챈 신라는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당과의 일전을 불사하자는 결연한 태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무열왕은 결단을 주저하였다. 그러자 김유신은 “개는 그 주인을 두려워하나 주인이 다리를 밟으면 무는 것이니, 어찌 환난을 당하여 자구(自救)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왕께서는 허락하소서.” 하고 간청하며 당과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당나라의 간첩들이 신라의 이런 논의를 엿듣고 본부에 알리자 당은 신라를 칠 계획을 중지하였다.

당이 이런 야심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신라에 트집을 잡으려 하였다. 신라와 당 연합군이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치기 직전의 일이다. 신라군이 나당 연합 작전회의에서 약속한 날짜보다 만 이틀 늦게 사비성에 도착했다. 그것은 황산 전투에서 계백이 거느린 백제군과의 전투가 예상을 넘어 치열했기 때문이다. 이 때 당의 총사령관 소정방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라의 선봉장 격인 김문영(金文穎)을 참형하려 하였다. 이 때 김유신은 소정방을 향해 결연한 태도로 “대장군은 황산 전투를 보지 않고 기일에 늦었다 하여 논죄하려 하나 나는 죄 없이 옥을 받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먼저 당군과 더불어 결전한 후에 백제를 파하리라.”고 하였다. 김유신의 이 같은 태도를 본 당나라 장수들은 무슨 ‘변란’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아 소정방을 만류, 김문영을 풀어주도록 하였다. 이 또한 당의 신라 견제 책략이 드러난 것이다.

한반도를 그들의 지배 아래 두고자 하는 야심은 여러 사례에서 보인다. 백제 출병 후 소정방이 귀국하자 당의 고종은 “왜 신라를 정벌하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소정

방은 “신라는 그 임금의 어질어 애민(愛民)하며 그 신하는 충성으로써 나라를 섬기며 백성들이 그 임금 섬기기를 부형같이 하므로 비록 소국이지만 도모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그 야심을 엿볼 수 있다.

나당 양국이 백제를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웅진 도독부’를 두고 백제에 대한 당의 독점적 영유권을 표시하였고, 신라에 대하여는 전승국 대우는커녕 패전국 백제와 동등한 입장에 놓고 신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였다. 즉, 백제 부흥군이 거의 종말을 고할 무렵인 663년 당은 신라에 ‘계림 도독부’를 두고 신라 문무왕을 ‘계림 도독’이라는 내신(內臣)적 직함을 부여하였고, 또 이 무렵부터 신라를 백제와 동등한 자격으로 지위를 격하시켜 당의 속국(藩邦)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었던 것이다.

신라를 따돌리고 한반도를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당의 의도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에 더욱 노골화하였다. 선봉이 되어 용맹하게 싸운 신라군은 오히려 화를 입을 형편이었다. 이러한 당의 처사들에 대하여 신라가 얼마나 분노하였으며 그 결과 왜 당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은 「설인귀에 답한 신라의 국서」(『삼국사기』 권7 수록)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신라가 당을 축출함: 당의 야심이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데에 있다고 판단한 신라는 670년경 고구려의 검모잠이 ‘부흥 운동’을 일으켜 신라에 원조를 청하던 무렵부터 대당(對唐) 전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이 해에 신라는 당이 장악하고 있는 백제의 80여 성을 공취하였고, 그 이듬해 초에는 군사를 일으켜 백제로 쳐들어갔다. 당군도 말갈병을 동원하여 신라병을 막았으나 300여 명이 전사하였다. 6월에는 당의 군사 5,300여 명이 신라군에게 전사하였고, 백제의 장군 2명과 당의 장군이 신라에 사로잡혔다. 이 무렵이면 당과 백제가 신라에 대항하기 위해 서로 돕고 있었다.

일찍이 백제와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 관계를 맺었던 신라와 당은 상반된 이해 관계를 두고 급속히 적대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되자 당의 백제 주둔군 사령관 격인 설인귀(薛仁貴)는 671년 7월에 신라 문무왕(文武王)에게 위협적인 경고문을 보낸다.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조에 실린 요지는 이렇다. 신라가 당과 싸우기 위해 전력을 강화하고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는데, 군기를 녹여 없애고 전투를 중지하며 당에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신라는 자신들이 당에 대항하여 꺾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위를 유려한 필치로 작성하여 전달했다. 문무왕대 최고의 문장가로 알려진 강수(强首)가 초한 것으로 알려진 이 외교 문서는,

당에 대한 신라의 주체적인 자세를 당당하게 펼치고 있다. 신라는 이 국서를 전달함과 동시에 부여에 소부리주를 설치하여 자신들의 영토에 편입시키고 그 곳을 다스리기 위한 도독(都督)을 임명하였다.

671년 9월부터 당의 반격이 본격화되었다. 당은 고간 등의 장수에게 4만 명의 말갈병을 붙여 평양으로 파견하였다. 이 해 10월, 신라는 당의 함선 70여 척을 격파하는 한편 장군과 군사 100여 명을 사로잡고 수많은 병사들을 수장(水葬)시켰다. 따라서 그 이듬해부터 신라와 당의 전쟁은 백제의 옛 땅과 오늘날의 임진강 한강 일대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신라는 강국 당을 맞아 그야말로 혈투를 벌였다. 때로는 석문(石門) 전투에서의 패배와 같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승리하였다. 672년 9월경에는 그때까지 사로잡은 당의 장병들을 돌려보내는 여유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673년에 들어서서 병선 100여 척으로 서해를 순시하게 되면서 신라는 백제 옛 땅에 대한 지배권을 거의 장악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백제 지역에서는 거의 육전(陸戰)이 보이지 않고 2회에 걸쳐 해전(海戰)만 보이고 있다. 이 무렵부터는 고구려 옛 영토에서 전투가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신라의 당 축출 전쟁과 고구려 부흥 운동과의 관계이다. 검모잡의 부흥 운동 때부터 신라는 고구려의 부흥 운동군을 도왔다. 특히 672년경부터 부흥 운동이 예성강·임진강 유역의 한시성·마읍성·백빙산·석문 등지에서 전개되었는데, 이 때 신라가 원군을 파견하고 있다. 673년 5월 마전과 우잠성에서 싸우던 고구려 부흥군은 이근행(李謹行)이 인솔하는 당군에게 쫓기게 되자 신라로 달아났다. 이렇게 고구려 부흥 운동은 자연스럽게 신라에 연합 내지는 흡수당하게 되었다. 이는 고구려 부흥 운동이 신라의 당 축출 전쟁과 연결되어 신라의 전력과 사기를 진작시켰을 뿐 아니라 그 민족사적 의의를 높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 무렵 신라 문무왕은 고구려의 왕족 안승을 맞아들임으로 고구려 부흥군에 대한 신라의 입장이 공식화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당 고종은 문무왕의 관작을 삭탈하고, 당에 억류하고 있던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을 신라왕에 임명, 귀국케 하였으나 입국하지 못하고 중로에서 다시 당으로 귀환하고 말았다.

신라가 당을 축출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지금의 의정부 근처의 매초(소)성 전투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675년 9월 29일, 당의 이근행(李謹行)이 거느린 20만 군을 상대로 싸워 신라는 당의 전마(戰馬) 3만 8백80필 등의 많은 병기구를 획득하였다. 그 뒤에 대소 18회의 전투에서 신라는 6천여 명을 참획하는 전공을 세웠는데, 이 싸움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이가 김유신의 아들 김원술이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의 승리로 석

문 전투에서 실패한 치욕을 씻게 되었다. 종래 국사학계에서는 당의 20만 군을 물리친 매소성 전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싸움은 당을 물리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던 것으로, 당은 이 전투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맛보았으므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게 되었다. 그 이듬해 기벌포 앞바다에서 치러진 신라의 승리는 당을 완전히 축출하는 축제가 되었다.

종래 국사에서 신라의 당 축출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라가 외세인 당을 끌어들이 동족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신라의 이 같은 당 축출은 신라를 비판하는 학자들도 민족의 주체성을 지킨 쾌거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신라가 이같이 6년 간의 혈투를 통해 당의 야심을 꺾어 그 세력이 땅에서 축출하는 데는 지도자와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된 많은 사례들을 역사 기록은 잘 보여주고 있다. 신라의 당 축출은 외민족으로부터 민족의 주체성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삼국 통일’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다.

IV. 독도 영유권 문제

경·위도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 속했으나, 2000년 4월 8일부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17번지로 바뀌었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92km(약49해리) 지점에 있고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인 시마네현 오키도(隠岐島)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160km(약 86해리) 떨어진 지점에 있다. 본토에서 볼 때는 동해안 울진군 죽변항으로부터 215km 지점에, 일본의 시마네현 사카이고(境港)로부터 220km 지점에 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라는 두 개의 섬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36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고, 독도의 총면적은 18만 6121㎡(5만 6301평)이고 서도의 산 높이는 174m, 동도가 99.4m이다.

‘독도’라고 표기한 기록은 20세기 초에 비로소 등장한다. 일본 군함 신고호(新高號)의 행동 일지에 의하면, 1904년 9월 25일조에 “송도(울릉도)에서 리앙코르를 한국인은 독도라고 쓰고 본방(일본)의 어부들은 리앙코도”라 한다는 기록이 있다. 한국측 기록에서는 1906년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낸 울도군수 심홍택 보고서의 “본군 소속독도”라는 구절이 처음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이 ‘독도’를 한국 고문헌에 나타나는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등의 명칭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독도는 원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로 주장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어떠한 영토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일반 국민들도 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독도는 긴 역사 속에서 한국의 영토였으며 근대 이후 확정된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해서도 분명한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한일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독도를 지키자는 운동(한국)과 다케시마(竹島)를 찾아오자는 운동(일본)이 제법 맹렬하게 펼쳐져 왔다. 또 해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항의성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민간은 그런 일본 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독도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경위] 1905년 독도를 강제로 그들의 영토로 편입한 일본은 그들의 패망 후 미국 등 연합국과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될 즈음인 1952년 1월 18일 한국이 ‘평화선’(인접 해안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실히 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같은 달 28일에 한국의 그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고, 매년 외교적인 항의를 계속하는 한편 최근에는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썼다. 일본은 어떻게든 독도를 영토 분쟁화하여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하고 있다. 국제 사법재판소에 가는 것은 양측이 동의해야만 갈 수 있다. 한국 측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일 뿐만 아니라 실효적으로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이런 주장을 묵살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우리측 인지와 영유] 우리나라가 지금의 울릉도를 영토로 편입한 것은 꽤 오래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왕(智證王) 13(서기 512)년에 이사부(伊斯夫)를 파견하여 우산국(于山國)을 복속시켰음이 보인다. 고려 때에도 울릉도는 고려에 복속하며 조공을 바쳤다. 고려 말부터 군역과 부역을 피해 그 곳으로 도망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조에 이르러서서는 한때 그 섬에 사람이 살지 않도록 하는 ‘공도 정책(空島政策)’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일본 측은 이러한 ‘공도 정책’을 들어 한국측이 일찍부터 울릉도를 영토에서 포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도 정책’은 일본과 다른 나라도 취했으며, 이를 영토 포기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조선 정부의 ‘공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육지의 어부들은 계속 그 곳으로 출어하고 있었다.

학자들은 독도가 울릉도와 별개의 섬으로 인식되어진 것이 세종 때에 편찬된 『고

려사』(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조)에서라고 지적한다. 비슷한 시기에 편찬(1432)된 『세종실록 지리지』(“于山・武陵 두 섬은 현의 정동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의 거리는 머지 않아 바람 부는 맑은 날에는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함.)와 중종 때(1531)에 편찬된 역사지리책인 『동국여지승람』에도 나타나고 있다. 19세기 초 왕이 정사를 위해 항상 옆에 두고 참고로 하는 『만기요람(萬機要覽)』(군정편)에도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이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이다.”라고 하여 일본의 인식까지도 지적해 놓고 있다.

1880년대에 와서 조선 정부는 종래의 소극적인 공도 정책을 폐기하고 울릉도를 행정구역으로 정식 편입하게 되었다. 이것은 명치유신 후 ‘정한론(征韓論)’이 대두되는 때를 전후하여 일본인들이 다시 불법으로 출어하고 삼림을 벌채하는 것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서였다. 조정에서는 1882년 ‘울릉도 검찰사’로 이규원(李奎遠)을 임명, 그를 울릉도에 다녀오게 한 후에, 그가 파악한 실태를 근거로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입을 금지토록 하였다.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입은 그 뒤에도 계속되어 1899년에는 내무관원 우용정(禹用鼎)을 ‘울릉도 시찰위원’에 임명, 울릉도의 실태를 조사하게 하였다. 대한제국은 우용정의 보고서를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여, 1900년에는 의정부 회의에서 전문 6조로 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통과시켰는데, 제2조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할 것”이라고 명기한 가운데 보이는 석도(石島)가 바로 독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에 관해 최초로 인식한 것은 1667년에 간행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인데, 이 책은 송도(松島)・죽도(竹島)가 고려의 영토이고 일본의 경계는 은주(隱州)까지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이보다 앞서 울릉도에 출입하고 있었다.

17세기에 들어서서 대마도주는 울릉도가 일본의 판도에 속한다는 것을 주장한 적이 있으나 조선 조정은 이를 거부했다. 대마도주가 이렇게 주장한 것은 도쿠가와 막부가 1618년에 내준 죽도 도해 면허(竹島渡海免許)와 1661년에 내준 송도 도해 면허(松島渡海免許) 때문이다. 죽도 도해 면허는 일본의 백기주(白耆州)에 거주하던 대곡심길(大谷甚吉)이 태풍을 만나 울릉도에 피신한 일이 있었는데, 그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이후에 공도 정책으로 울릉도를 비워둘 때이므로 이 섬이 무인도인 줄 알고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들과 친분이 두터운 촌천시병위(村川市兵衛)와 함께 1616년에 죽도 도해 면허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려고 운동하였다. 그 결과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로 백기주 태수직을 맡고 있던 송평신태랑광정(松平新太郎光政)이 1618년에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에 죽도 도해 면허를 내주었다. 이들은 1661년에는 “죽도근변 송도도해 건(竹島近邊松島渡海件)”을 청원하여 송도(독도) 도해 면허도 받았다. 이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다. 만약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면 자국민이 자국의 영토를 출입하는데 무슨 면허가 필요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동래 어부 안용복 사건이 일어났다. 안용복은 1693년에 동료 40여 명과 함께 울릉도에 출어하였다가 일본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일본에까지 잡혀갔다 돌아왔다. 안용복은 3년 후(1696) 울릉도에서 조업하고 있던 일본 어부들을 쫓아서 일본의 옥기도(玉岐島)와 백기주에까지 따라가서 ‘울릉·우산 양도감세관’이라 칭하고 태수로부터 다시는 불법으로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왔다. 일개 어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안용복은 자기 나라의 영토를 지키려는 용감한 백성이었다.

일본에 보이는 지도 중에서도 독도를 조선령으로 보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임자평(林子平)이 그린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1785)인데,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깔인 황색으로 표시했고, ‘조선의 소유’라는 글도 써 놓았다. 따라서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 정권이 끝날 때(1868)까지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서 존중해 왔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본은 명치유신 후에도 독도를 계속 한국 영토로 인정하였다. 명치유신으로 그들이 새 정부를 수립하자 그 이듬해인 1869년에 한국 사정을 내탐하기 위해 외무성의 고위 관리들(森山茂 등)을 부산에 파견하였다. 그들이 올린 북명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도 죽도와 송도가 ‘조선 부속’임을 밝힌 내용이 있는데, 일본 정부의 최고 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이를 확인하였다. 또 1877년경에는 일본의 내무성과 태정관이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조선 영토이며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의 해군성이 1876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발행한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라는 지도에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그려 놓고 있다.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 일본이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만든 것은 1905년 일·러 전쟁 기간 동안인데 그 경위는 이렇다. 1904년 2월 10일 일본은 러시아에 선전포고하고 23일에는 ‘제1차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한국의 영토를 전쟁에 징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러시아와의 해전 때문에 일본은 울릉도와 독

도의 전략적인 가치를 더욱 인정하게 되었다. 동해안에 망대를 세워 두고 통신 시설을 서두른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무렵에 도근현(島根縣)에 사는 어업가 나가이(中井養三郎)가 독도(이때도 프랑스 포경선이 발견했을 때 명명한 리앙꾸르도로 알려져 있었음)에 대한 독점적인 어업 출어권을 일본 해군성에 신청하였다. 원래 그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줄로 믿고 대한제국 정부에 이 독점권을 신청하려고 일본 정부 관리들과 접촉하였다. 여러 관리들과 접촉하는 동안 그는 해군성으로부터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과 독도 사용권을 한국 정부에 신청하는 대신 차라리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과 그 차용 신청원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다. 일본 정부의 중용에 따라 그는 1904년 9월 29일에 「리앙코르 도령토편입병대하원(島領土編入並貸下願)」을 내무성·외무성·농상공부에 제출하였다. 이 때 내무성은 이 청원에 반대하였으나 외무성이 적극 추진하였다. 이유는 독도가 일·러 전쟁 수행에 지극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출된 청원서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일본 내각은 회의를 거쳐 1905년 1월 28일 독도(리앙코르)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던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편입한 후 이 사실을 한국에 통보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관보에 신지도 않았으며 더구나 이런 중대한 사건을 언론에 보도하지도 않았다. 일본은 독도의 영토 편입을 도근현의 현청에서 고시(1905. 2. 22.)하는 방법으로 공시했다. 따라서 한국인은 당시 이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일본이 한국에 ‘독도 편입’ 사실을 알린 것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후,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 관리가 한국의 지방 관리에게 알리는 방법을 취하였다.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해 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무)부를 완전 폐지하였다. 1906년 2월 1일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의 행정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그 해 3월 28일에야 슬그머니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왔다. 그것도 일본 정부가 조선 정부에 직접 알린 것이 아니었고, 일개 지방에 불과한 도근현의 관리(隱岐島司 東文輔 및 事務官 神西由太郎과 稅務監督局長 吉田平吾 分署警部 影山岩八郎長 등 일행)들이 독도(竹島)를 시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울릉도를 방문하여 군수 심홍택에게 독도가 자기들의 현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형식이었다. 한 마디로 비열한 방법이었다. 이 사실을 듣고 놀란 군수 심홍택은 곧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에게 보고하여 정부(당시 내부대신 이지용)도 알게 되었다.

이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일본의 주장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심홍택의 반응은 “本郡所屬 獨島가 在於本郡外洋百餘里許이옵드니 … 日本官人一行이

到于官舍하여 自云獨島가 今爲日本領地…”였고, 내부(대신)의 반응은 “獨島之稱云日本屬地는 必無其理”라고 하였으며, 의정부 참정대신(당시 박제순)은 지령 3호에서 “獨島領地之說은 全屬無根”이라고 하였다. 이 사실은 『대한매일신보』 등에도 알려져 많은 지식인들도 알게 되었는데, 황현은 『오하기문(梧下記聞)』에서 “鬱陵島百里外 有一屬島 曰獨島 倭人稱今爲日本領地 審査以去”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와 한국의 지식인들은 일본의 이 같은 영토 침탈에 대하여 항론을 전개할 뿐, 항의 문서를 일본 정부에 보내거나 국제 사회에 알리지 못했다. 이때는 이미 외교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뒤였기 때문에 일본에 항의하거나 국제 사회에 알릴 기구나 절차를 가질 수 없었다. 이것이 독도를 일본에 강제로 빼앗기게 된 경위다.

[독도의 한국 귀속 문제]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은 일본에 대해 “일본은 그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도 축출될 것”(카이로 선언)이라고 하였고, “일본의 주권은 본주 북해도 구주 사국 및 우리들이 결정하는 제소도에 한정한다.”(포츠담 선언)고 하였으며, 일본도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 항복하였다. 일본은 일·청 전쟁과 일·러 전쟁에서 빼앗은 영토를 러시아와 중국에 돌려주어야 했고,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돌려주어야 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항복 문서의 영토 부분 시행을 위한 결정으로서 1946년 1월 29일 일본 정부에 SCAPIN(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제667호(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관한 각서)를 지시하였다. 이 각서에서 일본의 통치권으로부터 제외되는 지역은 울릉도·리앙코르(독도)·제주도 등이라고 명시했다. 연합군최고사령부는 리앙코르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시켜 한국의 영토로 돌려주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주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또 지령 제1033호(1946. 6. 22일자)를 통해 일본 선박 및 승무원의 독도 12해리 접근을 금지시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對日講和條約)에서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로 한 조항에서 ‘독도’가 거론되지 않았음을 들어 일본은 독도에 대해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다. 1951년의 ‘대일 강화 조약’에서는 제1차 초안(1947. 3. 20.)과 제2차 초안(1947. 8. 5.), 제3차 초안(1948. 1. 2.), 제4차 초안(1949. 10. 13), 제5차 초안(1949. 11. 2.)까지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기되었지만 일본의 미국인 고문인 시볼드의 “이 섬에 기상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으

며”, 미 국무부에 ‘독도를 일본 땅에 명시할 것을 건의’한 결과로 결국 제6차 초안(1949. 12. 29.)부터 ‘독도가 한국 땅이란 명시’가 빠지게 되었고, 제8차 초안(1950. 9. 14.)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수정 표시하는 단계에까지 갔으나 합동 초안(1951. 5. 3.)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 조항과 한국 영토 조항에서 모두 삭제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철저히 국익 차원에서 독도 문제에 임한 미국의 자세와 일본의 치밀한 계획이 합작된 것을 엿볼 수 있다.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케시마(죽도)를 본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는 1905년 2월 22일자 시마네현의 고시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이 외에 몇 가지로 요약되는데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도 문제에 있어 일본은 선점 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아직 어느 국가 영역에도 속하지 않은 지역을 어느 국가가 처음으로 자국 영토로 하는 것을 국제법상 선점이라고 한다.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선점 취득이다. 일본 측 주장에 의하면, 조선이 6세기의 신라시대부터 울릉도를 지배했으나 1438년부터는 도민을 조선 본토로 철수시켰고, 1696년 이후는 3년마다 순찰사만을 파견, 공도 정책을 1884년까지 취한 데 비해, 일본은 17세기에도 울릉도 경영을 하면서 독도를 중계지로 썼는데 1696년 울릉도를 포기한 뒤에도 독도는 계속 내왕 영유했으며,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현역에 편입, 토지대장에도 기재했고 어로도 하고 토지 사용료도 징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점을 했다면서 이해 관계국에 통고한 사실이 없고, 선고의사의 표시가 단순히 국내적인 지방행정 구역 내의 것이고, 또 1905년 당시는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때이므로 한국의 무항의를 일본측에만 유리하게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05년 이전 실효적 지배에서도 그렇고 1905년 이후의 선점 주장에서도 그렇고, 일본 주장의 근거는 매우 희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고로 선점 취득에 관한 국제법상 요건은 통상 자국이 무주의 지역을 자국령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을 실효적 지배하에 두면서 이해 관계국에 통고하는 것이다.

둘째,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 땅이었다. 일본은 1618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오오다니(大谷)와 무라카와(村川) 두 가문에게 울릉도 연해에서 조업해도 좋다는 도해면허를 허가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80년 동안 울릉도 주변 어장에서 경제적 이익의 독점을 근거로 원래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주인을 하사하면서 이것을 가진 어민들로 하여금 다케시마(울릉도) 지역에 출어하게 했

다.”고 일본 측 자료는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인’은 외국 무역을 공인하는 증명서이므로 일본이 다케시마를 외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으며, 만일 국내에서의 항해라면 굳이 ‘도해 면허’를 허락 받을 이유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

셋째, 1905년에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독도를 국제법에 합당한 절차에 따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으므로 독도에 대한 한국 점령을 ‘독도 강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1) ‘편입’이라는 것은 스스로 독도가 이전에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2) 일본 결정이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1900년 10월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며, 3) 국제법에 합당한 절차에 따르기 위해서는 영토 편입에 관한 충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일본은 일개 지방자치 단체의 고시로 독도 편입을 고시하였으며, 이해 당사국인 한국에는 그로부터 1년 후인 1906년 3월에 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당시 울릉군수 심홍택에게 별일 아닌 듯이 알렸다는 것이다. 이를 접한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편입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한제국의 외교권의 박탈로 인해 당시 일본 정부에게 효과적인 항의가 불가능하였다.

넷째,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 일본은 『세종실록지리지』 등 한국의 고문헌에 명기된 우산도가 독도가 아닌 울릉도임을 주장한다. 즉, 고문헌에서 독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과 무릉(울릉도) 이도가 울진현 정동의 바다 가운데 있으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현재의 독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함께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 관측이 가능하지만 일본의 오키도로부터는 불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 등의 고문헌에 의하면 독도는 조선 초기 그 이전부터 우산도 또는 삼봉도로 불리면서 울릉도와 함께 한국 측에 소속되어 있었다.

다섯째,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문서에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현재 첨예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1946년 1월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후 처리로 일본에 보낸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대한 각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에 포함되었지만,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분리되는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다.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5차 협상까지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되었지

만, 일본의 미국인 고문인 시볼드의 “이 섬에 기상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미 국무부에 ‘독도를 일본땅에 명시할 것을 건의’한 데다 한국 또한 ‘독도가 한국 땅이란 것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양측에서 모두 빠지게 되었다.

[주요 쟁점] 한국이 일본의 식민 치하에서 해방됨으로써 독도가 옛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도 1950년대 이래 지금까지 독도는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관할 아래 놓여 있다. 그럼에도 독도는 늘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일 간의 외교적 갈등이 계속되는 이 시점에 이 사안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몇 개만 들어보자.

1. 고문헌과 고지도의 우산도(于山島)는 독도인가:
2.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석도(石島)는 독도라고 확인할 수 있는가:
3. 안용복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가:
4. 17세기 말 울릉도와 함께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확정되었는가:
5. 일본의 명치 정부는 1870년 이후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보았는가:
6. 대한제국은 독도를 정부의 관할 아래에 정식으로 포함시켰는가: 조선 정부의 공식적 통치 행위가 독도에까지 미쳤는가 하는 문제이며, 독도 영유권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7. 일본 각의의 편입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는 유효한가: 이는 일본 정부는 근대적 도서 편입인 소립원제도(小笠原諸島) 편입 당시, 관련 12개국에 일일이 통고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은 독도가 ‘주인 없는 섬’(무주지)이었기 때문에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관할 지방청에서 고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 심흥택 보고서 및 의정부 지령을 한국 정부의 이의 제기로 볼 수 있는가:
9. 해방 후 독도 영유권은 한국 측으로 귀속되었는가:

V. 일제의 식민지화, 합법적인가 강점인가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시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로, 이때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로서 노예적인 삶을 살았다. 일제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래 여러 가지 조약을 통해 외교권·내정권 등 한국의 주권을 강탈해 갔는데, 이 같은 조약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가에 대한 의혹이 최근 국사학계에서 대두되었다. 조약의 체결 과

정이 합법적이 아니라면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는 국제법적으로 원천적 무효라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마치 강도가 남의 집을 강탈하듯이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점하였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한·일 양국이 과거사를 정리하고 미래의 선린 관계를 정립함에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일본과 맺은 조약은 거의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 1904년 2월 23일 체결된 ‘의정서’는 국외 중립을 선언한 한국을 협박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언제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조약이었다. 전황이 유리해지면서 8월 22일자로 강제한 ‘한일 협약’은 일제가 고문 정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을사조약’의 전단계의 것으로, 한국 황제와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야욕대로 진행시켰다.

위의 두 조약은 “서울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일본 측의 일방적 입장이 시종 작용한” 불법적인 것으로 쌍방 교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체결 당시에는 제3국 언어(영어)로 작성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조약법상으로 볼 때 두 개의 협정들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조약의 강제성과 절차상의 불법성은 1905년 11월 17일에 낙약된 ‘을사조약’에서 한층 노골화된다. 일제는 ‘을사조약’을 통해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해 갔는데, 이 조약이 일본군의 무력 시위와 이토오(伊藤博文)의 협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국제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 조약은 무효에 해당된다.

거기에다 이 조약은 조약의 형식과 체결 과정에서도 불법 투성이다. 첫째, 이 조약은 조약의 명칭이 없다. 우리가 ‘을사조약’, ‘을사오조약’ 혹은 ‘을사보호조약’이라 하지만 그것은 정식 명칭이 아니고 편법으로 붙여 놓은 이름에 불과하다. 한국 측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한국 외부대신의 날인을 받기에 급급했던 일본 측은 조약의 제목을 쓸 자리를 메우지 못했다. ‘을사조약’을 ‘한일 신협약’ 등으로 부르는 것은 공식 문서에 명기된 명칭은 아니다.

둘째로, 이 ‘을사조약’이 한 나라의 외교권을 이양하는 조약으로서 마땅한 격(수준)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외교 협정의 문서는 그 수준에 따라 각서(Memorandum), 협약(Agreement), 협정(Convention) 그리고 조약(Treaty)의 형식으로 남는데, 한 나라의 외교권 이양을 담는 ‘을사조약’이,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협정(Convention)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약법 또는 그 관례상으로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정식 조약(Treaty)의 형식을 빌어야 했다는 뜻이다.

셋째, 이 협정은 사안이 지극히 중대한 만큼 체결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했다. 이 같은 협정이 성립·발효되기 위한 절차로는 첫째, 협상을 맡은 대표에 대한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 둘째, 협정문을 작성하고 날인해야 하며, 셋째, 협정문에 대한 비준이 있어야 했다. 비준은 당시 국회가 따로 없었으므로 황제의 비준을 필요로 했다.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만 ‘을사조약’이 발효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을사조약’은 제목조차 붙이지 못한 협정문밖에는 없다.

이 같은 몇 가지 문제로 ‘을사조약’은 원천적으로 효력을 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점은 조약 직후에 발표된 프란시스 레이(Francis Rey)의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지위』라는 논문에서 이미 지적되어 있다. 그는, 조약 대표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점과 일제가 1904년 2월의 ‘의정서’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사조약’에서는 이를 무시하였다는 점을 들어 ‘을사조약’은 절대로 효력을 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927년 미국 국제법학회는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에 ‘국제 조약법 제정에 관한 법률안 기초’를 의뢰했는데,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은 1935년 완료된 보고서에서 “조약 강제에 대해서는 거의 레이의 이론을 따르면서 다섯 가지 잘못된 예 중에 ‘을사보호조약’도 들었다.”는 것이다.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조약법에 관한 보고서도 하버드 보고서의 논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1907년 11월 18일 이후 한국 황제가 재가하는 조칙과 모든 공문서에는 황제의 공식적인 인감인 어새(御璽)와 황제의 이름자 서명이 함께 있어야 유효하였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일제가 1910년 8월부터 35년간 한국을 지배한 법적 근거였던 ‘병합 조약’도 1905년 외교권을 빼앗아간 ‘을사조약’ 못지않게 조약 비준상의 하자를 갖고 있다. ‘병합 조약’에서는 대표 위임장과 조약문 서명은 있으나, 비준서에 해당하는 한국 황제의 조칙에 하자가 있다. ‘병합 조약’의 경우, 조약의 공포와 함께 한 나라가 없어짐으로 비준은 양국 황제의 조칙으로 대신하기로 했는데, 한국 측 조칙에는 국새(國璽) 대신 어새가 찍혀 있고 황제의 이름자 서명이 빠져 있었다. 당시의 공문서법에 따르면 황제의 서명이 빠진 이 서류는 가짜이거나 황제가 비준을 거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제법적으로 말한다면, 일제가 조약을 통해서 정당하게 한국의 외교권과 주권을 이양해 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때 일제 35년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종종 망언(妄言)하는 대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한국을 식민지화한 것이 아니고 군사적으로 강점한 것이다. 국사학계에서 을사조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더 나아가 일제 시기를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한국 문학의 이해

오동춘

〈차례〉

1. 고전문학의 이해
2. 현대문학의 이해
 - 가. 현대시의 이해
 - 나. 소설문학의 이해

1. 고전문학의 이해

한국 문학은 한국사람이 한국말과 글로 한국 사상과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조 초기엔 한글 반포 이전이기 때문에 한사군 무렵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보는 한자 표기로 한국 문학이 기록되었다. 한역되어 전해지는 고대문학으로 「황조가」, 「구지가」, 「공무도하가」 등이 있고 신라는 『삼국사기』, 『균여전』에 「서동요」, 「처용가」, 「보현십원가」 등 25수의 향가를 남겼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에 막혀 중국 대륙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지리적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문학 창작에 외래문화 흡수에는 다소 여유가 있었다. 신라 고유문화와 외래문화를 융합하여 신라는 새로운 서정 문화를 형성했다. 화랑제도로 신라인의 교양과 인격을 형성하여 불교 중심의 향가 25수가 승려, 화랑 등이 창작한 것이다. 그 공통적인 특징은 영원한 세계로의 탐구, 불교 사상의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의 신라 사상이 잘 표현되어 있다.

고구려는 웅혼하고도 용감한 서사문학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동명왕의 건국 신화」, 「온달설화」, 「미천왕설화」, 「호동왕자」, 「유리태자」 등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들은 오늘의 영화나 연극 소재로 쓰이고 있다.

서남쪽에 자리잡은 백제는 「정읍사」 중심의 백제 시가가 있다. 가사가 전해지지 않는 「선운산」, 「무등산」, 「방등산」, 「지리산」 등의 작품이 이름만 전해진다. 백제 문학은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신라 시대는 유학생을 당나라에 보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불교는 귀족층인 승려와 화랑도의 정신생활을 지배한 것이다. 불교는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향가를 비롯한 예술 활동의 중추가 된 것이다. 「헌화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등의 신라 향가 뒤를 이어 「가시리」, 「청산별곡」, 「서경별곡」, 「정석가」, 「정과정」 등의 고려가요가 나오게 된다. 먼저 고려가요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국문으로 기록된 평민문학으로 구전되다가 조선조에 들어와 『악학궤범』, 『시용향악보』, 『악장가사』에 실려 전한다.

(2) 「정과정」을 제외하고는 작품 모두 작자 연대를 알 수 없다.

- (3) 연장체가 많고 후렴구가 있고 분장할 수 있다.
- (4) 3·4조 음보이며 3·3·2조, 4·4·4조의 비정형시이다.
- (5) 현실적 향락적인 내용이 많다.
- (6) 작품의 분량은 많지 않으나 고려 국민의 생활 감정을 그대로 그린 점에서 문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 (7) 고려가요 ‘속요’는 음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문헌에 실리지 않은 작품도 많다.
- (8) 고려가요는 ‘향가-향가계 여요(정과정곡, 도이장가)-속요-시조’로 발전하는 데 중간 구실을 하게 된다.

위와 같은 특징을 고려가요 중에 양주동(1903~1976)은 「가시리」 평설에서 모두 67자 20수 어의 소박미, 함축미, 그 절절한 애원, 그 면면한 정한, 아울러 그 구법, 그 장법을 따를 만한 어느 작품도 없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가장 으뜸 가는 작품으로 「가시리」 고려가요 작품을 높이 평가 했다. 이 「가시리」의 사랑의 정한은 1920년대 한의 정서와 사랑을 깊게 승화시킨 소월시, 만해시에 잘 드러나고 있다. 「가시리」 본문에서 “나는 위 증줄가 태평성대”라는 후렴구를 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는 어찌 살라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불잡아 둘 일이지마는
선하게 생각하시면
아니 오실까
서러운 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다시 오소서 <악장가사 소재>

3·3조의 가시리는 순우리말 시어로 사랑의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를 양주동 박사 평가처럼 미적 특질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말이 잘 표현된 고려가요에 쓰인 그 후렴 언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다롱디리 <정읍사>
아으 동동다리 <동동>

위 증즐가 태평성대 <가시리>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청산별곡>
위 덩더똥성 <사모곡>
더러똥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쌍화점>

고려가요 후렴 언어에서 보듯 고려의 시가 시어가 소박한 우리말로 쓰이어 시적 미감의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낄 수 있다.

조선조 전기(조선건국-임진왜란)에 한글이 반포되어 한글문학의 계기를 이룬다. 1446년에 반포된 훈민정음의 세종 서문은 우리 문학의 사상적, 과학적 문학 방향까지 보여 준다. 곧 자주, 민주, 문화의 세 정신이 바로 문학정신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악장시형이 발생하여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같은 작품이 창작되고 고려 때 발생한 「경기체가」는 유생들의 여가문학으로 이어지다가 곧 사라진다. 발전 기반이 좁은 악장이나 별곡체 문학에 비해 조선조는 고려 중엽에 발생한 시조와 정극인의 「상춘곡」으로 효시가 되는 가사문학이 활기를 띠게 된다.

우리 한국인의 숨결에 맞는 시조는 여말 「회고가」를 비롯하여 유교 이념, 자연, 인사 관계의 시조가 사육신, 생육신, 정철, 윤선도, 박인로, 황진이, 김천택, 김수장, 박효관, 안민영 등의 작가들이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황진이, 윤선도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시조 작품에서 잘 보여 주고 있으며 이황이나 이율곡은 「도산십이곡」, 「고산구곡가」 등의 연시조로 유가 사상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읊고 있다.

가사문학은 정극인의 「상춘곡」으로 출발하여 정철의 「성산별곡」, 「사미인곡」, 「속사미인곡」, 「관동별곡」, 박일로의 「누항사」, 「선상탄」 등의 몇 작품이 조선조 가사문학에 절정을 이룬다. 후기에 허난설헌을 중심으로 내방가사가 여류가사의 꽃을 보여 준다. 가사문학도 4·4조 반 산문 반 운문 형태로 역시 우리 겨레의 숨결과 성정에 부합되는 시대적 장르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조 후기 문학의 분수령이 되는 임진왜란은 한국 문학, 조선왕조, 조선문화의 역사를 바꿔 놓는 획기적인 시기가 된다. 조선조 전기가 악장, 시조, 가사 등의 시가문학이 중심이라면 조선조 후기는 옛소설이 중심이 되는 산문문학의 발전기로 볼 수 있다. 사상적으로 유교 사상이 물러 가고 실학 사상이 대두되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비판 정신이 요구된 시기가 된 것이다.

양반의 권위 의식이 보이는 평시조는 고산 윤선도에 이르러 그 절정을 맞는다. 「오우가」, 「산중신곡」, 「어부사시사」 등의 대표 시조에서 보이는 시조 시어의 문학적 구사 능력이나 시어 선택의 솜씨에서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하며 형상적인

시의 구조를 창조했던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나라의 위기를 맞이하여 서민의 자각 의식이 싹트고 새로운 시조 장르로 양반의 권위에 저항하는 사실 시조가 발생한 것이다. 문학의 주류가 양반에서부터 평민으로 옮겨 오는 단계이며 산문문학이 새롭게 등장하는 계기가 된다.

조선조 후기에 김천택의 『청구영언』, 김수장의 『해동가요』, 박효관·안민영의 『가곡원류』는 고대 3대 시조집이 된다. 정철, 박인로, 윤선도는 조선조 3대 시조작가가 된다. 조선조 시조를 남긴 작가로 황희, 맹사성, 성삼문, 박팽년, 이현보, 이양원, 박태보, 이순신, 이항복, 신흙, 정충신, 김상용, 송시열, 효종대왕, 이정보 등이 있다. 그 대표적 작가로는 정철, 박인로, 윤선도, 황진이, 김수장, 김천택, 박효관, 안민영, 이황, 이율곡을 들 수 있겠다.

여류 시조 작가로는 황진이, 소춘풍, 한우, 소백주, 매화, 계량, 홍량, 술이 등이 작품을 남겼다. 옛시조는 작자 연대 미상의 작품도 많이 있다. 심재완 교수가 엮은 시조 사전에는 3,300여 수가 보인다.

시조는 간결하고 소박한 것을 즐기는 유가의 서정성을 표현하는 데 알맞은 시의 형태였기 때문에 고려말부터 조선조 선비들이 즐겨 창작한 시 형식인 것이다. 신분 계층에 관계 없이 평민, 기생에서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시조는 온 국민이 즐기는 국민문학이었던 것이다. 그 시조 장르는 현대에 와서도 활발하게 창작되고 좋은 작품이 많이 창작 되고 있다. 현재 시조시인만도 일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조선조 가사는 현실적이고 설복적인 유교 이념을 표현하는 데 알맞은 우리 겨레의 문학 형태였다. 안빈낙도와 군자의 미덕, 군신간의 충의 이념, 남녀간의 애정을 내용으로 다루었다. 조선조 후기 작품으로 「누항사」를 비롯하여 7편을 남긴 박인로 작품을 중심으로 김인겸의 「일동장유가」, 홍순학의 「연행가」 등의 작품이 남아 있다. 내방가사, 평민가사도 많이 창작되었다.

영·정조 시대 실학 사상이 대두될 무렵 허균의 『홍길동전』을 위시하여 작자 연대 미상의 『춘향전』, 『심청전』 등의 고대소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어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 『사씨남정기』, 박지원의 『양반전』, 『호절』 등의 한문소설이 실학사상을 잘 보여 준다. 이 고대소설은 개화기 신소설을 거쳐 현대소설로 이어진다.

고대수필은 조선조의 「제침문」, 「규중철우쟁론기」, 「동명일기」 세 편의 여류 수필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보이는 백미라 말할 수 있겠다.

2. 현대문학의 이해

갑오경장(1894) 이전은 고전문학, 그 이후를 현대문학으로 구분한다.

갑오경장을 현대문학의 출발점으로 보는 까닭은 첫째는 조선조 500년의 봉건사회가 근대적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갑오경장 때부터 근대문학이 나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학이 시작되는 갑오경장 이후를 현대문학 시기로 잡으나 그 가운데 1894년부터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시기까지를 개화기 문학 시기로 잡는다.

개화기 문학의 특성은 보수와 진보의 이중 요소가 있는 시기라는 점이다. 이 무렵 창가, 신체시, 신소설이 나온다. 내용은 예술성보다 교시적 기능이 강조 되었으며 개화기는 사실상 진정한 현대문학과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현대문학의 개념은 현대인의 생활과 감정을 현대적인 수법으로 표현한 문학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3·1 운동 이전의 리얼리즘 소설과 자유시에서부터 현대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시와 현대소설의 형성 과정과 발전 단계 및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한국 현대시의 이해

한국 현대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시의 시작은 5세기 한국인의 재질을 보여 준 25수의 신라 향가로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 10세기 초반 한 고령가요(속요)로 이어진다. 고령가요는 그 시가의 감정 표현과 수사 기교는 결코 현대시에 떨어지지 않는다. 고령가요 뒤에 13, 14세기에 융성한 3장의 완성된 형식미를 보이는 시조가 발생한다. 시조는 유교 사회, 양반 계층이 즐긴 형식이다. 15세기에 오면 가사문학이 등장한다. 유교이념 구현에 알맞은 장르로 4.4조 자유로운 리듬을 타는, 반은 산문 반은 운문이다. 우리의 고유 장르로 시조의 간결성과 정형성을 개혁한 것이다. 평시조와 가사문학을 거쳐 17, 18세기에 오면 새로운 장르로 사설시조가 발생한다.

실학시대를 맞이하여 서민의 자각과 양반에 대한 저항 의식이 싹튼 것이다. 가사 형식과 민요풍이 도입된 사설시조 내용은 자기 폭로, 강렬한 애정, 재담, 욕설, 말장난

등이 담긴 사설조의 시조 형식이다. 현대에 이어져 있으나 창작 행위는 저조한 편이다. 19세기 개화기를 맞이하여 개화 가사, 창가, 신체시가 등장한다. 이 개화기 문학 사상은 압제자에 대한 저항 의식이 주류를 이룬다. 일본이 중국, 러시아와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자 한국을 침략하여 끝내 1910년 치욕의 경술국치를 이루고 만다. 이 때문에 현대시가 전통성을 띠고 형성될 무렵 자연히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을 보이는 시대적 상황이 노래되지 않을 수 없었다. 개화가사, 창가는 주로 예술성보다 사회 이념이 강한 참여 저항시가 핵심 시 사상이 된 것이다.

개화기 초기에 『독립신문』 기타 잡지, 신문 등에 애국가 유형의 글만 해도 1896년 4월 11일자 ‘최돈성의 글’을 필두로 하여 27편이 발표되어 있다. 애국가 유형의 시가와 개화기 시가들이 그 시대의 사상과 생활 감정을 잘 드러낸 작품으로 우리 근대시의 출발을 보여 준다. 사실상 비시적, 역사적 시가를 남긴 사람들은 모두 비전문적인 그 시대의 선각자나 엘리트들이 글을 쓴 것이다. 이들은 개인 감정이나 시적 영감, 표현의 예술성만으로 시대의 위기나 문명 의식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육당 최남선은 『소년』지에 최초의 신체시 「해(海)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하여 신선한 충격을 안겨 준다. 최남선은 이 작품 말고도 「구작 삼편」, 「꽃 두고」 등을 발표한다. 육당 최남선은 일본 유학시 유학생 회지인 『대한유학생회보』에 「국풍 4수」를 발표했다. 이를 최초 현대 시조 작품으로 논의하기도 한다. 육당은 자기가 주간하는 『소년』, 『청춘』 등의 잡지에 매호마다 창가, 신시, 시조를 발표하여 우리 시의 현대화에 앞서 갔다. 이런 경향은 서구, 일본 등의 영향에 기인되는 외부적 분위기가 창작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본다.

역시 일본에 유학한 주요한(1900~1979)은 아직 완전히 정형성을 벗어나지 못한 「해에게서 소년에게」보다 훨씬 자유로운 시 형식과 내용이 조화되는 「불놀이」를 『창조』에 발표하여 우리 현대시의 최초 발표시로 평가 받고 있다.

일년 앞서 김억(1893~?)이 발행한 『태서문예신보』에 「봄」, 「봄은 간다」 등의 서정시가 실려 「불놀이」보다 앞선다는 논란도 없지 않다. 아무튼 1910년대는 시의 자율성, 예술성보다 일종의 계몽적, 교훈적 사회 운동의 한 수단으로 창작되었던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시는 대체적으로 관념적인 경향을 보여준 것이다.

사회 국가 의식의 계몽성, 교훈성이 주류를 이루던 1910년대가 가고 1920년대에 오면 시는 전문성을 가진 문인 중심의 동인지 시대가 된다. 『창조』(1919), 『폐허』(1920), 『장미춘』(1921), 『백조』(1922), 『영대』(1923), 『금성』(1923) 등의 동인지가 나온 것이다. 1920년대 특징은 서구 19세기 낭만주의 시와 사실주의 소설을 받아들인 것이다. 비로

소 전문적인 문인이 등장하여 사회 이념적인 시 세계에서 개인적인 서정시가 창작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대의 시단 개황을 보면 초창기에 김억은 번역 시집 『오뇌의 무도』(1921)와 최초 개인 시집 『해파리의 노래』(1923)를 발간하며 『태서문에신보』에 프랑스 시를 번역, 소개하였다. 이런 김억의 시 창작 활동과 「불놀이」를 발표한 주요한의 창작 활동이 우리 초기 시의 공로로 인정된다. 김동환은 최초 서사 시집 『국경의밤』(1925)을 발간했고, 소월 김정식(1902~1934)은 1920년대 한의 정서를 내면화하여 시의 전통적인 형식을 개발하고 스승 김억의 영향으로 민요조 시를 쓰며 1925년 첫시집 『진달래 꽃』을 발간했다. 1926년 연작시 『님의침묵』이란 시집을 발행하여 혜성같이 등단한 만해 한용운은 불교적 수법으로 형이상학적 시를 발표하며 한국시의 언어 공간을 넓힌 시인이다. 민족 대표의 하나로 승려 시인이다. 1920년대 중반에 3·1 운동의 실패로 인하여 감상주의에 빠진 문학 경향 때문에 김기진, 박영희에 의해 카프문학이 형성되고 임화, 김형원, 박세영, 박팔용, 김창술, 김남천 등이 활동하다가 1935년 박영희가 경기도 경찰부에 해산계를 냈으므로 막을 내리게 된다. 이때 박영희는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잃은 것은 예술이다.”라는 뜻깊은 말을 남겼다.

1920년대 대표적인 시를 보면 박종화의 「흑방비곡」,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의침실로」, 김소월의 「진달래꽃」, 「산유화」, 「가는 길」, 「초혼」, 「먼 후일」, 「산」, 한용운의 「님의 침묵」, 「나룻배와 행인」, 「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오상순의 「방랑의 마음」, 홍사용의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장희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박영희의 「월광으로 잔 병실」, 변영로의 「논개」, 정지용의 「향수」 등의 자유시가 있다.

1920년대 현대시조 활동은 1926년 최남선이 최초 현대 시조집 『백팔번뇌』를 발간하며 구별시조의 첫모습을 보여 주었다. 가람 이병기는 시조 창작과 이론에 앞장섰고 노산 이은상은 민족시인으로 「가고파」, 「옛 동산에 올라」 등의 좋은 작품을 남겼다. 위당 정인보는 조선의 얼을 부르짖는 시조작가로 대표작에 간접적으로 일제에 항거한 시조 「자모사」 40수의 연시조가 있다. 가람과 노산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쓴 시조시인으로 그 생활을 노래한 시조도 남겼다. 가람의 「홍원저조」, 노산의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 2자」 등의 작품이 바로 옥중 체험의 시조인 것이다. 한문학자면서 한글을 남달리 사랑한 정인보의 북한 납치와 그의 죽음은 애석하기 그지 없다.

1920년대는 이광수, 정인보, 이병기, 양주동 등이 주장하는 국민문학 운동과 김기진, 박영희 등이 주장하는 계급문학과와의 문학 논쟁이 열을 올렸던 시대이다. 그리고 최남선, 이병기, 이은상 등이 시조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도 민족정기를 살리는 문

학운동이다. 조선어연구회(현 한글학회) 주최로 민족 정기의 구심점을 잡기 위해 독립 운동의 일환으로 한글날을 가갸날로 한글반포 480주년을 기념하며 정한 것도 1920년대의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1926년 양력 11월 4일(음력 9월 29일)로 가갸날을 잡고 한글날 기념식을 장안 식도원에서 지식인 400여 명이 모여 거행했던 것이다. 만해는 기뻐서 1926년 12월 7일자로 한글날 축시 「가갸날」을 발표 했다. 그 첫 연을 보면,

아아, 가갸날
참되고 어질고 아름다워요
축일 제일
데이 시즌 이 위에
가갸날이 났어요 가갸날
끝 없는 바다에 쭉 솟아 오르는 해처럼
힘 있고 빛나고 뚜렷한 가갸날 <만해의 「가갸날」 일부>

이 시에서 우리는 만해의 한글 정신, 세종 정신, 조선 정신의 나라사랑의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있다.

1930년대로 오면 시대와 시의 특징은 근대시로부터 본격적인 현대시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예술성을 강조하는 순수시가 등장하고 또 주지시의 발생과 시론도 전개되기 시작했다. 서구시의 번역과 서구 시론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문학과, 주지파, 전원파, 생명파, 자오선, 청록파 등의 동인 활동이 펼쳐지기도 했던 시기이다. 1930년 3월 김영랑, 박용철, 신석정, 정지용, 정인보 등이 동인이 되어 조직된 시문학과는 카프의 반발로 조직된 시의 유파이며 순수문학을 옹호하고 시를 언어예술로 자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김영랑은 시의 순수성과 음악 구조와 언어 조탁을 통하여 「모란이 피기까지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등의 순수시를 썼다. 주지파의 대표로는 김광균이 「외인촌」, 「추일서정」, 「설야」, 「와사등」 등의 회화적 수법의 대표작을 남긴 것이다. 1930년대 시인으로 생명파 시인인 유치환이 「생명의 서」를 남겼고 서정주는 「귀족도」를 은유적으로 창작했다. 전원파의 신석정은 「임께서 부르시면」, 「자오선」, 동인의 이육사는 「절정」, 「광야」, 「청포도」 등의 작품을 남겼다. 청록파 시인 박두진은 「묘지송」으로 죽음의 허무를 극복하는 시를 자연 친화적 이미지로 창작했다. 정지용의 시 언어 방법을 고양한 시인은 김기림, 김광균, 박남수 등이 있다. 김기림은 「기상도」와 「태양의풍속」에서 모더니즘 이론에 입각한 실험시를 시도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현대시의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한 이론을 소개한 시 평론을 썼던 것이다.

『초롱불』, 『새』를 대표작으로 가진 박남수는 시의 심상을 다각도로 변화시켜 나간 시인이기도 하다.

일제 최후 발악의 1940년대 초기는 완전히 암흑기요 후반기는 광복후 좌우 대립의 혼란기였다. 조선어 말살 정책으로 우리말과 글로 시를 쓸 수 없었다. 그래도 일제에 맞서 민족시를 쓴 시인은 순국시인인 이육사와 윤동주가 있다. 일제에 동조하지 않으려는 시인은 붓대를 꺾고 시작을 그만 두거나 전원적 목가풍의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자연파 시인들, 청록파 시인, 정인보, 김상용 등이 자연을 소재로 목풍 시를 읊은 것이다. 일본 정책에 동조한 시인들은 친일문학의 오명을 남긴 시인들이다. 광복 후 육사 『유고시집』(1946), 『청록집』(1946), 윤동주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 정인보 『담원 시조집』(1948), 김상옥의 『초적』(1947), 유치환의 『울릉도』(1948), 신석정의 『슬픈목가』(1947), 모운숙의 『속 렌의 애가』(1947), 김용호의 『해마다 피는 꽃』, 김광섭의 『마음』(1949), 박두진의 『해』(1949) 등이 대표적 시집이 될 것이다. 1940년대 후반에 등단 시인으로 김춘수, 조병화, 박인환, 구상, 정한모, 김경린, 조향, 설창수, 김종문, 이경순, 신동집, 김윤성, 한하운 등이 있다.

1950년대 현대시는 6·25 전란을 겪고 전쟁문학, 전선문학이 시나 소설에 지배적으로 그 내용에 주류를 이룬 것이다. 이때 대표 문예지로 『문예』(1949~1954.3. 통권 21호, 발행인 모운숙), 『현대문학』(1955~현재. 초기 주재자 조연현·오영수), 『자유문학』(1956.1.~1963.8. 통권 71호, 주재자 김팔봉·송지영·김광섭), 『사상계』(1953.4.9.~1970.9. 주재자 장준하) 등의 잡지가 나와 문인 배출을 하며 문학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1950년대 등단한 시인으로 김구용, 김요섭, 장호, 김남조, 홍윤숙, 이인석, 이원섭, 이동주, 송옥, 전봉건, 이형기, 한성기, 박양균, 천상병, 이수복, 문덕수, 황금찬, 김광림, 전영경, 이성교, 김지향, 박재삼, 유경환, 정공채, 왕수영 등이 있다. 시조시인으로서는 최승범, 박병순, 장순화, 김해성 등이 활동했다.

6·25 동족 상잔의 전쟁을 맞이하여 전쟁 소재의 격정적인 시가 쏟아지던 그 때 1·4 후퇴 무렵에 문충구국대가 조직 되었다. 육군에 구상, 박인환, 유치환, 양명문, 장만영, 조영암 등이 활동했다. 공군에 김윤성, 박두진, 박목월, 이상노, 이한직, 조지훈 등이 참여했다. 9·28 수복을 해 보니 이광수, 김동환, 김억, 정지용, 김기림, 정인보 등의 문인이 납치되어 북한으로 갔다. 설정식, 이용악이 자진 월북했는데 남한으로 광복 직후 김동명, 구상이 월남하고 1·4 후퇴 때 박남수, 이인석, 김영삼, 양명문 등이 월남했다.

전쟁 현장을 직접 노래한 시집으로 이영순의 『연회고지』(1951), 장호강의 『총검부』

(1952), 김순기의 『용사의 무덤』(1953), 조영암의 『시 屍山을 넘고 혈해 血海를 건너』(1951), 유치환의 『보병과 더불어』(1951), 조지훈의 『역사 앞에서』(1959) 등의 시집은 종군 체험을 시로 승화시켜 창작한 것이다. 모운숙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의 시는 “나는 광주 산곡을 해매다가 문득 혼자 죽어 넘어진 국군을 만났다”의 부제가 붙어 있다. 1950년 8월에 쓴 시로 모두 12연 90행으로 창작되어 있다. 그 첫연을 보면,

산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 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모운숙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의 일부〉

이 시에서 우리는 민족적 비극과 현장의 고통을 깊이 느낄 수 있다.

1960년대는 4·19, 5·16의 혁명과 구태타가 있었던 시기로 자연히 시도 사회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시가 많이 창작되었다. 전통적 정서를 계승하는 시의 경향을 보이면서 내면 의식의 탐구와 언어에 관심이 깊었던 순수시가 창작되기도 했다. 그리고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문명 비판 시도 많이 창작된 것이다. 이 시대의 주요 동인지와 문예지로 『현대시』(1962), 『신춘시』(1963), 『창작과 비평』(1966), 『월간문학』(1968) 등이 있다.

1960년대의 활동 시인들은 현대문학 잡지나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시인 대부분이다. 김수영(1921~1968)이 「풀」을 위시하여 『푸른 하늘을』 등의 참여시가 있다. 현대문학을 통해 강우식, 강위석, 김석규, 김재호, 문병란, 오규원, 오세영, 유승우, 이건청, 이성부, 이승훈, 정현중, 이수화, 이규호 등 약 60명 정도가 등단했다. 신춘문예 등단 시인은 중앙 지방지를 합하여 약 50명 정도 등단 했다. 『조선일보』에 신세훈, 신대철, 최하림 등이 등단하고 『동아일보』에 신명석, 이탄, 김광협, 마종하 등이 등단했다. 『경향신문』 조태일, 노익성, 김종해 등이 등단하고 『한국일보』에 박이도, 이근배, 문효치, 채규관, 이유식 등이 등단했다. 『서울신문』에 장운우, 강희근, 이수익 등이 등단하고 『중앙일보』에 조상기, 오택번, 석지현, 배미순 등이 등단했다. 신춘 대표 시조는 『조선일보』에 실린 정완영의 「조국」, 이은방의 「다도해변경」, 『동아일보』에 발표된 이근배의 「보신각중」, 윤금초의 「안부」가 대표 현대시조로 볼 수 있겠다.

1970년대 이후는 문학의 대중시대로 문단 저변 확대가 되어 가며 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문학 단체 동인지 홍수로 문학의 정화가 필요한 시대로 흘러 가고 있다.

나. 소설문학의 이해

고대소설과 현대소설의 다리 역할을 하는 신소설이 1906년부터 약 10년간 창작된다. 옛소설에 비하여 새로운 내용 형식, 문체로 개화기 계몽주의 사조를 반영한 우리나라 새로운 소설이 신소설, 또는 개화기 소설인 것이다.

최초 신소설은 이인직(1862~1916)이 쓴 『혈의 누』(1906)이다. 경기도 이천 출생인 이인직은 이완용의 비서를 거치며 친일 행위를 하며 『혈의 누』도 친일 경향의 소설로 비판 받는다. 이 작품은 『만세보』에 1906년 7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연재한 소설이다. 7세의 옥련이가 1894년 청일전쟁으로 고난을 겪는 이야기로 어린 딸을 잃은 어머니의 피 눈물을 그린 작품이나 소원 성취로 끝난다. 인직은 이 밖에도 『귀의 성』(1906), 『치악산』(1908) 등이 있다. 이해조, 최찬식, 안국선 등이 신소설을 남긴 작가들이다.

신소설은 운문 문체를 탈피하고 산문체로서 언문일치에 가까운 문장을 보였다. 그리고 묘사적, 사실적인 서술 형식을 취했다. 제재도 설화를 떠나 그 시대의 현실에서 취한 점이 특이하다. 내용도 자유 독립사상의 고취, 신교육 권장, 인습 타파 등으로 근대적인 개화 계몽 사상을 고취한 것이다. 신소설은 순수 창작에 의한 것, 외국작품 번안에 관한 것, 고대소설을 개작한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신소설은 권선징악의 주제, 소원 성취 등의 고대소설의 틀을 완전히는 벗어나지 못한 약점도 있다.

신소설 단계를 거쳐 1910년대 현대소설 단계에 오면 춘원 이광수 초기 소설을 만나게 된다. 『어린 희생』(1910, 소년 제14, 15호), 『헌신자』(1910, 소년 제20호), 『김경』(1915, 청춘 6호), 『소년의 비애』(1917, 청춘 8호), 『어린 벗에게』(1917, 청춘 9호), 『윤광호』(1917, 청춘 19호), 『방황』(1918, 청춘 12호) 등의 습작 수준의 단편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1917년 1월 1일부터 『매일신보』에 연재한 이광수의 장편소설 『무정』에서 현대소설의 본격적인 출발을 본다. 자유 계몽사상, 자유 연애, 인습 타파 등의 계몽적 주제로 소설을 다룬 것이다. 1917년 6월 14일까지 126회 연재했던 우리의 최초 현대 장편 소설이다.

『무정』은 언문일치 문장의 산문성과 취재의 현실성, 자아의 각성, 자유 연애 등이 신소설과 확연히 다른 것이다. 현대소설의 면모를 잘 보여 준다. 김동인은 춘원의 계몽적 소설에 대하여 ‘사회 교화 기관’을 만드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광수는 우시고메 여의전 부속 병원에 가슴 앓이로 입원하여 허영숙과 사귀고 백

해숙 본처와 이혼하고 허영숙과 상해로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인다. 상해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 주간을 맡는다. 다시 간 일본에서 백관수, 김도연, 최팔용 등과 조선독립단을 조직하고 ‘2·8독립선언서’를 썼다. 최남선의 독립선언서보다 20일 앞서 낭독된 것이다. 상해에서 귀국하여 조선일보 부사장(1933~1934), 동아일보 편집국장(1923) 등의 직책에 일하면서 언론 활동을 하며 『마의태자』(1925), 『단종애사』(1929), 『이순신』(1931), 『원효대사』(1940) 등의 역사소설과 『유정』(1935), 『흙』(1932), 『사랑』(1939) 등의 소설을 이상주의 입장에서 창작한 것이다. 최남선과 이광수는 우리 현대 문학 초기에 두 사람이 이룬 공로는 크게 인정된다. 그러나 일제 말기 친일로 기운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창조』 동인지를 만든 김동인(1900~1951)은 1920년대부터 작고할 때까지 많은 작품을 남기며 자연주의 사실주의 소설의 기수가 되었다. 『약한자의 슬픔』(1919), 『감자』(1925), 『마음이 열린 자』(1920), 『배따라기』(1921) 등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소설을 남겼다. 민족주의 작품으로 『붉은산』(1932), 『운현궁의 봄』(1933) 등의 작품이 있다. 이 외에도 전영택(1894~1968)의 『화수분』, 염상섭(1897~1963)의 『표본실의 청개구리』(1921), 현진건(1900~1943)의 『운수 좋은 날』(1924), 나도향의 『물레방아』(1925) 등의 사실주의 작품이 1920년대의 대표적 작품이다. 그리고 박종화(1901~1981)는 최초 역사소설로 『목매는 여인』(1923)을 발표했다. 카프소설로 최서해(1901~1932)의 『탈출기』, 주요섭의 『인력거꾼』(1925) 등의 작품이 있다.

1930년대 소설로 농촌 계몽소설인 이광수의 『흙』, 심훈의 『상록수』, 이무영의 『흙의 노래』, 박영준의 『모범작생』 등이 있다. 역사와 현실 풍자 해학 소설로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 김유정의 『봄봄』 등이 있다.

인간의 운명과 삶의 본질을 탐구한 인생과 소설로는 김동리의 『화랑의 후예』(1935), 『무녀도』(1936), 계용묵의 『백치 아다다』(1935) 등이 있다.

초현실주의 소설은 이상(1910~1937)의 『날개』(1936), 『종생기』(1937) 등이 인간의 자의식 세계를 잘 그려 나갔다. 이 밖에 주요 작가로 이효석(1907~1942)은 계급주의 동반작가로 소설을 출발했으나 『돈』(1933) 발표 이후 자연과 성의 순수를 탐색하는 작품을 썼다. 대표작에 『매밀꽃 필 무렵』(1936), 『산』, 『들』, 『벽공무한』 등이 있다. 유진오(1909~1988)는 이효석과 함께 동반작가였다. 고민하는 지식인상을 그렸다. 대표작에 『김강사와 T교수』(1935), 『화상보』 등이 있다.

1940년대는 일제 치하의 암흑기로서 이렇다 할 소설이 없다. 채만식의 『논 이야기』(1946), 김동리의 『역마』(1948), 황순원의 『목념이 마을의 개』(1948), 염상섭의 『두 파산』

(1948) 등으로 광복 후에 쓴 작품이다.

1950년대는 6·25 전쟁으로 인해 전쟁소설, 전선소설이 그 사회상을 잘 그려 주었다. 9·28 수복 휴전이 되면서 『현대문학』, 『자유문학』 등의 문예지와 『신천지』, 『신태양』, 『사상계』, 『새벽』 같은 대중매체가 쏟아져 나왔다. 1950년대 발표된 대표적인 작품을 보면 정한숙의 「고가」(1956), 안수길의 「제3인간형」(1953), 황순원의 「학」(1953), 「소나기」(1953), 「카인의 후예」(1953), 하근찬의 「수난시대」(1957), 오상원의 「유예」(1955), 서기원의 「암사지도」, 이호철의 「파열」(1959) 등이 있다. 신문소설로 정비석의 「자유부인」, 김래성의 「애인」 작품이 흥행을 이루었다.

1960년대로 오면 4·19 혁명, 5·16 군사 구테타 등의 격변하는 사회 혼란 속에 소설도 각박한 군사 정치에 대한 내용이나 현실을 묘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표소설 몇 편만 들면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전광용의 「꺼삐딴 리」, 최인훈의 「광장」,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박경리의 「토지」,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남정현의 「분지」, 정을병의 「유의촌」, 선우휘의 「아버지」, 유주현의 「6인 공화국」,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 강용준의 「철조망」, 오영수의 「은넷폴 이야기」 등이 있다.

유신 정권으로 비판이 많던 1970년대, 1980년대, 민주화 투쟁시대, 1990년대의 문민시대, 2000년 21세기 산업정보 속도시대, 인터넷시대에 문학의 대중화 시대를 맞아 많은 소설이 쏟아지고 있다. 좀더 예술성 짙은 많은 소설이 기대된다. 

〈참고 문헌〉

- 『국문학 신강』, 국문학신강편찬위원회 엮음, 새문사, 1988.
- 『한국 대표시 평설』, 정한모·김재홍 편저, 문학세계사, 1983.
- 『현대시의 해석과 감상』, 문덕수, 이우출판사, 1985.
- 『한국 현대시사』, 김해성, 대광문화사, 2000.
- 『한국 현대문학사』, 김우중 외, 현대문학사, 1991.
- 『한국 문예사전』, 어문각, 1991.
- 『세계 문예대사전』, 문덕수 엮음, 성문각, 1975.
- 『한국시 대사전』, 구상·문덕수 감수, 을지출판공사, 2002.
- 『국문학 개설』, 조운제, 탐구당, 1979.
- 『한국 문학사』, 김윤식·김현, 민음사, 1992.

한국 음악의 갈래와 특징

송혜진

〈차례〉

- | | |
|--------------------------------|--------------------------------|
| I. 한국 음악의 갈래 | 1. 움직이며 지속하는 음-농현(弄絃) |
| 1. 궁중음악-예악(禮樂)과 충정(忠情)
의 표상 | 2. 소리 맛을 좌우하는 시김새 |
| 2. 선비 풍류와 정악-선비 정신의
승화 | 3. 말을 짧게 소리는 길게-어단성장
(語短聲張) |
| II. 한국 음악 이해를 돕는 세 가지 말 | 강의를 마치며 |

I. 한국 음악의 갈래

전통음악을 분류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음악이 생성된 연원을 따져서 궁중음악과 민속음악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궁궐과 민가의 집 모양새가 다르고, 궁중 의상과 민간 의상의 차림새가 다르듯 음악도 궁중과 민속음악이 각각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궁중음악과 민속음악과 달리, 마치 그림의 문인화(文人畵)처럼 선비들 사회에서 전승된 정악(正樂)이라는 갈래가 있습니다. 정악은 다른 말로 ‘선비 풍류’라고도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오늘날 전통음악은 궁중음악과 선비풍류음악, 민속음악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제가 들려 드리는 음악을 듣고 이것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 줄 그기를 하며 맞춰 보면서 한국 음악의 느낌을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음악의 갈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관악영산회상 중 상영산 | ● 민속음악 |
| ● 거문고 독주 상영산 | ● 궁중음악 |
| ● 시나위 | ● 선비풍류음악 |

1. 궁중음악－예악(禮樂)과 충정(忠情)의 표상

오늘날 궁중음악이라고 불리는 갈래는 궁중 문화가 사라진 오늘날 주로 공연장에서 감상을 중심으로 연주됩니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 궁중음악들은 각기 연주되는 기능과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 특별한 기능이란 하늘과 땅, 왕실의 조상, 선현의 제사에 연주하는 제례가 있고 또 궁중의 크고 작은 연향, 또 왕과 왕세자 그리고 왕실 식구들이 참여하는 국가의 경축행사, 군대의 예와 상례 등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는 반드시 음악과 노래, 춤이 때와 장소와 계기에 따라서 적합하게 운영이 되었는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7세기 이래로 궁중음악 연주를 위한

국가 음악 기구를 두고 이러한 전통을 지속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음악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중음악은 국가음악으로서 국가의 안위와 태평, 왕실의 권위, 백관과 백성의 충정 등의 표상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조상에 예를 갖춰 올리는 제례라든가, 군왕과 백관이 국가의 경축일을 맞아 하례를 올리는 예연(禮宴), 왕의 출입에 따랐던 갖가지 음악들은 단순히 ‘귀에 즐거운 음악’이 아니라 한번 움직이고, 한번 멈추는 일동일정(一動一停)에 갖가지 의미와 상징이 내포된 것들이었습니다. 고대국가에는 고대국가대로, 조선왕조에는 조선왕조대로 궁중에서 연주된 음악 내용들은 각기 달랐지만 국가에서 음악을 필요로 한 목적과 궁중음악의 기능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 궁중음악의 가장 중요한 기능 셋—제례 연향, 행차

① 제례음악

국가의 제례는 궁중의 가장 엄숙한 행사를 위하여 일찍부터 음악을 사용해 왔습니다. 조선조에서 정기적으로 거행하였던 제례는, 풍운뇌우(風雲雷雨)·산천(山川)·성황(城隍)을 모신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조선왕조의 선조들을 모신 종묘(宗廟), 토지와 곡식의 신을 모신 사직(社稷), 신농씨(神農氏)를 모신 선농단(先農壇), 양잠(養蠶)의 창시자를 모신 선잠단(先蠶壇), 공자 및 유교의 선현들을 모신 문묘(文廟), 왕실의 왕비나 그밖에 조상을 모신 문소전·연은전·경모궁 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풍운뇌우·사직·선농·선잠·문묘에서는 아악을 연주하였고, 종묘에서는 세종 때 창제되고 세조 때 제례악으로 채택된 정대업·보태평을 연주하였으며, 그 밖의 제례에서는 당악과 향악이 혼용되었습니다.

제례악은 등가와 헌가라는 두 개의 악대(樂隊)와 제례에서의 춤(佾舞)을 담당한 무원(舞員)들이 제례의 절차에 따라 번갈아 음악과 노래, 춤을 공연하는 독특한 구성을 갖습니다. 아악의 전통을 유일하게 보여주는 문묘제례악은 세종대에 중국 고제(古制)를 참작하여 새로 정비한 한국적인 아악으로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살아 있는 아악의 역사와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극히 단순한 음악 구조에 담긴 전통의 무게와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진 예술미가 절묘하게 융합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묘제례악인 정대업·보태평은 아악기·당악기·향악기를 모두 사용하여 고려 이래의 향악과 고취악에 기초하여 창작한 선율을 연주하는데, 이 음악은 우리의 음악 전통과 외래의 음악 요소를 가장 이상적으로 조화시킨 조선조 대작(大作) 중의 하나입니다.

▶ 종묘제례악과 문묘제례악 감상

② 국가 경축행사와 음악

국가 경축행사의 핵심은 ‘조하’입니다. 조하가 있는 날에는 임금이 행사장으로 거동할 때 악대가 연주를 하고, 또 문무백관이 임금에게 사배를 올리며 절하는 절차, 그밖에 신하들이 축하를 올리는 예식과 임금이 메시지를 발표하는 순서가 이어지는데, 이 주요 절차에는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신하는 신하로서, 임금은 임금으로서 서로 예를 다하게 되는데 이 예가 더 엄숙하고 장중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여민락>이나 <낙양춘>, <보허자> 등의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식적인 궁중 연향은 정월 초하루나 동짓날에 조화가 끝난 후에 벌이는 회례연, 국왕과 여러 왕실 어른들에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올리는 진풍정과 진연, 국가의 원로들을 위해서 벌이는 기로연과 양로연, 외국의 사신으로 파견되는 분들을 위한 송별연이라든가 반대로 외국에서 오는 외교 사절들을 위한 환영연 등의 크고 작은 잔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각각의 규모와 격에 맞는 음악이 따랐는데 이 연회의 목적은 군신화합 즉 임금과 신하가 화합한다는 그 목적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군신화합은 백성들 간의 화합을 이끄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궁중 잔치를 예를 갖춘 잔치이며 중요한 잔치라고 해서 ‘예연(禮宴)’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중 연향에서는 음악의 격식도 갖추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화락하게 이끌 수 있을 만큼 화려하고 장중한 공연이 연출되었습니다. 궁중 연향에서는 대규모 연주단의 기악 연주와 노래, 무용수들의 춤이 공연되었는데요,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레퍼토리는 조선시대의 궁중음악 유산들입니다. <여민락>, <관악연산회상>, <수제천>, <보허자> 등의 음악, 그리고 <헌선도>, <포구락> 등의 당악 스타일의 궁중무용, 또는 <춘앵전>, <가인전목단>, <학무>, <처용무> 등의 향악 스타일의 궁중 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 옛 궁중의례는 궁중 기록화 또는 보기

③ 행차의 종류와 행악(行樂)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임금과 고급 관리들이 행차할 때 연주하던 음악과 그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행차는 그 의장대의 규모에 따라서 대가, 법가, 소가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통해 비교적 익숙하게 보아온 정조의 <능행도>의 행차가 ‘소가’라고 하니, 임금의 대가 행렬이나 법가 행렬의 규모는 정말 대단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가와 법가는 주로 국왕이 수도의 사대문 안에서 이동할 때 따랐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왕이 종묘나 사직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행차할 때, 외국사신을 맞이할 때, 왕이 활쏘기를 하기 위해서 성균관으로 나설 때 등이었습니다. 한편, 행차에 따른 연주를 살펴보면 악대의 편성은 당비파, 통소, 피리, 당적, 대금, 장구, 방향, 북, 장구 등의 악기가 쓰였습니다. 이 밖에 나발과 태평소, 바라, 북으로 편성되는 대취타 편성도 함께 따랐는데요, 행차 음악의 규모는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한편, 이 같은 왕의 거동 외에도 행렬에 따르는 음악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조선 후기에 일본 왕래가 잦았던 통신사 일행 중에는 반드시 취고수(나발, 나각, 태평소, 자바라, 징) 일행과 세악수(해금, 북, 젓대, 장구, 피리, 징)가 따랐던 것이라든지, 지방 관리들이 부임할 때에는 반드시 삼현육각 연주가 따랐던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왕가의 거동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리만큼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적인 기능이나 악곡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행악의 전통을 보여 주는 음악은 <대취타>입니다. 이 대취타는 태평소·징·자바라·장고·용고·나각·나발 등의 악기로만 편성되는데, 음악은 여러 타악기와 단음을 내는 나각과 나발이 행진에 적합한 일정한 장단에 맞추어 연주하며, 여기에 유일한 선율 악기인 태평소가 시원스런 가락을 장단 사이를 이어나가는 장쾌한 음악입니다.

▶ 대취타 감상 및 궁중기록화 보기

2) 궁중음악의 특징

궁중의 의례음악은 국가와 사상, 문화의 상징으로 전승되어 온 만큼 연주 형태와

연주 규모, 악곡의 빠르기, 내용 면에서 서민음악이나 선비 풍류와 차이가 있습니다. 연주단은 일정한 격식에 맞는 악대 편성으로 규정에 맞는 연주 의상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연주했습니다. 악대는 관현악기와 타악기를 고루 갖추었으며 의례의 격에 따라 차등 있게 편성되었는데 대체로 의례의 엄숙함과 웅장함을 나타내는 크고 화려한 타악기 종류와 편종, 편경 등이 악기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독주나 병주 등의 단출한 편성보다는 합주나 악가무 종합 연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음악의 속도는 대체로 느린 경향을 보이며, 의례의 진행에 따라 빠르거나 연주 방법 등이 융통성 있게 운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제천이나 관악영산회상의 상영산, 해령 등에 삽입된 ‘연음’도 의례 음악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중음악은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음악이라기보다 예의 엄숙함과 국가지도자나 연장자를 향한 충성과 효,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농현이나 시김새를 통한 감정 표출은 민속음악에 비해 절제된 편입니다.

아울러 궁중음악은 일정한 법에 따라 국가 음악원에 속한 전문 음악인들에 의해 교육과 연주가 전승되었기 때문에 그 전통이 비교적 보수적으로 이어져 온 점도 궁중음악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중음악은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이양되는 되는 과정에서도 역시 국가적인 보호, 정책 아래 오늘날까지 그 맥이 단절 없이 이어졌습니다.

2. 선비 풍류와 정악—선비 정신의 승화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궁중의 의례음악과 서민들의 일상 음악과 다른 고유의 음악 갈래를 발전시켰습니다. 글 읽는 선비들은 성장 과정에서 학문과 예술을 중히 여기는 교육을 받았고 경우에 따라 거문고 등의 악기를 직접 배우며 일상 속에서 풍류를 즐겼습니다. 선비들은 공부하는 틈틈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때로는 친구와 어울리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홀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이때 선비들이 추구한 것은 악기의 아름다운 소리나 선율, 장단의 변화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평정’과 ‘바름(正)’과 ‘맑음(淸)’을 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자학을 공부한 조선의 선비로서 음악을 통해 중화지기(中和之氣)를 기르고 중용지도(中庸之道)를 얻는 데 음악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음악 생활을 학문의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음악을 했던 것이지요.

한편, 이러한 풍류 문화와 음악은 오직 선비들 사회에서만 통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물론 선비들은 혼자서 명상하듯 거문고를 연주했지만, 때로는 자신들의 거문고 스승이기도 한 거문고 악사들을 초청해 함께 연주하는 기회도 많았습니다. 선비와 음악가들은 일반 사회의 신분이나 지위를 떠나 음악을 통해 특별한 친분을 유지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비들은 전문 연주가들의 음악 기량을 습득하고, 악사들은 선비들이 도달하고자 한 탈속(脫俗)과 정인심·양성정의 정신성을 배우고 공감하면서 ‘정악’이라고 하는 특별한 음악 전통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조선 후기에 이르면 선비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정악이 선비들의 생활을 동경한 중인층의 호사가들에게까지 널리 유행하게 됨에 따라 금객과 가객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그들의 음악 활동에 합류하게 되고, 그 결과 선비들의 풍류는 생활음악 수준을 넘어서서 독자적인 예술의 경지를 이룩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비들의 음악문화에서는 오늘날 고악보라 불리는 음악 기록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 풍류 장면 그림 보면서 음악 듣기

1) 선비 풍류 음악의 종류

선비들의 풍류 문화에서는 거문고, 가야금, 비파, 젓대, 통소를 독주하거나 두세 가지 악기로 함께 연주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양금과 생황 등이 더 첨가되었지요. 그리고 전문 악사들을 초청한 풍류에서는 가야금, 거문고, 비파, 피리, 대금, 해금에 장구가 어울린 줄풍류 합주가 연주되었습니다. 이런 기악 연주에는 가곡과 가사 등의 노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문 가객의 노래에 선비들이 한두 악기로 반주하거나 여기에 전문 연주가들이 함께 어울린 음악 모임은 풍류문화의 전형적인 형태였습니다.

이제 선비 풍류 음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여러 고악보에 거의 빠지지 않고 수록되는 대표 레퍼토리는 기악곡인 <보허사>와 <여민락>, <영산회상> 그리고 노래의 거문고 반주 선율을 기보한 가곡 등입니다. 곡의 종류 수가 너무 간단해서 의외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조선의 풍류 선비들과 금객·가객들은 이 네 가지 음악에 기초한 정악곡을 연주하면서, 새로운 레퍼토리를 찾기보다는 그 전에 알고 있던 가락을 타고 또 타서 음악에 완전

히 동화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오래 연주해 오던 음악이 마치 세
포가 분열하듯 그 음악과 아주 닮은, 그러나 조금 ‘다른’ 파생곡이 탄생되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산회상’이나 ‘가곡’ 같은 음악은 원곡의 분신처럼 새로운 악곡이 탄
생되면 그것을 독립된 악곡으로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원곡과 잇대어 연주하는 ‘연속
연주’ 형식으로 음악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2) 선비 풍류 음악의 특징

이번에는 선비들이 즐겨 연주한 음악의 특징을 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비 풍류 음악의 특징은 민속음악과 대비하면 더욱 뚜렷합니다. 사물놀이나 시나위
남도잡가, 판소리, 경기민요, 수심가, ... 몇 가지 대표적인 민속음악을 떠올려 보면 신
명이나 슬픈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그리고 연주 모습을 보더라도 연주자가 음악의 흐
름에 따라 자유롭게 몸짓을 하면서 흥과 시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악은 이에 비해 연주자가 바른 자세(正坐)로 앉아 연주하거나 노래하고,
음악의 속도는 대부분 느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악의 경우 전곡의 진행이
느린 것에서 점차 빨라 진다 해도 그 음악의 변화가 느리게 진행되는 점이 민속악과
다릅니다. 그리고 장단의 변화도 그리 급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악을 통해
슬픔이나 기쁨을 표현한다기보다 오히려 감정을 절제하는 음악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비 풍류 음악, 정악은 자연 속에서 시서화(詩書
畫)를 즐기는 것을 학문과 짝하는 예술로 받아들이는 학예일치(學藝一致) 정신의 선비문
화에서 나온 것인 만큼 음악의 느낌은 정적(靜的)이고 명상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정악의 음악적 특징을 말하자면 정악은 대체로 속도가 느리고, 음
과 음 사이의 여백을 소리로 꽉 채우기보다는 비워 두거나 잔잔한 농현(弄絃)으로 자
연스럽게 처리하기 때문에 맑고 단아한 기품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
습니다.

3. 신명과 한의 음악—민속음악

모내기가 한창인 철, 들판에서 마시는 텁텁한 농주(農酒)의 맛과 같이 흙의 냄
새를 담은 농사 소리와 생활 속에서 회자되었던 토속 민요, 화사한 옷차림을
한 여러 명의 젊은 여자 명창들이 텔레비전에 나와 팔 춤사위를 곁들여 부르는

도회풍의 통속 민요, 소박하고 꾸밈없는 장단과 춤이 그대로 ‘뗏’이 되는 농악에서부터 국내외의 크고 작은 공연장을 휘어잡는 사물놀이 가락까지.

또 웬만한 이들이면 알고 있는 <춘향전>이니 <심청전>이니 하는 이야기를 고도의 세련된 남도 음악어법으로 부르는 극적인 노래 판소리와 판소리의 선율을 거의 그대로 기악 연주로 바꾸어 놓은 듯한 독주곡 산조. 그밖에 판소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노래 단가나, 가야금 병창, 강릉의 ‘단오 굿’이니 진도의 ‘씻김 굿’이니 하는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으면서 가장 오랜 옛날부터 민속음악의 보물창고 역할을 해 온 ‘무속음악(巫俗音樂)’에 이르기까지. 민속음악 범주에 드는 음악의 종류와 가짓수는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민속음악을 만들어낸 토양과 그것을 생활 주변에 묶어 두고 같이 살아온 백성들의 삶이 제각기 달랐던 것처럼 여기에서 배태된 음악의 모습도 제각기 다릅니다. 마치 각 지방의 말투가 다르고 각 지방의 음식 맛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로 남도는 남도대로, 서도는 서도대로, 강원도와 경상도는 또 그 지역대로 제각기 다른 음악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민속의 음악 언어는 다양합니다.

1) 민속음악의 두 갈래

이처럼 다양하고 폭넓은 민속음악의 세계는 우선 전문가의 예술 음악과 누구나 듣고 부르던 서민들의 생활 음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민속음악을 배태시킨 토양은 하나라 해도 음악성과 예술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입니다. 가령 민요와 판소리는 다 같이 민속음악의 갈래에 속하지만, 민요는 비교적 매우 단순한 음악 구조를 가지고 있어 평범한 이들조차 어느 정도의 관심을 기울이면 어렵지 않게 자기화(自己化)시켜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판소리는 고도로 다듬어진 노래의 짜임새와 특별한 창법을 익히기 위해 오랜 시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입을 떼기 어려운 노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갈래의 민속음악은 공연성을 의식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있어 큰 차이가 납니다. 모 심을 때 부르거나 베를 위에 앉아 부르는 민요 한 자락은 공연을 위한 소리가 아닙니다. 즉 일을 위해 부르는 소리이며 일 중에 부른 소리입니다. 설혹 동네의 잔치자리나 상여소리의 선소리꾼으로 자주 불러 다니는 ‘동네 명창’의 소리라 해도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삶의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휴식으로, 삶의 여백으로 생활 속에 자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전문 예술가들의 판소리나 가야금산조 등은 들어주는 돈을 내고 음악을 들어주는 청중들의 후원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전문 예술가들에 의해 발전되어 온 민속음악은 각 시대마다 청중들의 취향에 따라 변화하며 영고성쇠(榮枯盛衰)의 변동을 겪었습니다. 한편, 농경사회였던 우리의 전통 생활 방식이 근세에 들어 크게 바뀔에 따라 일과 생활 양식 테두리 안에 있던 일노래와 생활 음악들이 크게 쇠퇴해 버리자, 오늘날은 이런 생활 음악들이 전문인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탄생되고 전승된 음악은 그냥 민속음악이라고 하고, 오랜 세월동안 전문인들이 특별한 예술 정신과 기능으로 다듬어 온 음악들은 민속 예술 음악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일노래와 판소리 비교 감상

2) 서민 생활과 음악문화

먼저 서민들의 생활 속에서 전승되어 온 음악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생활문화는 상층사회의 문화에 비해 문헌 기록이 적지만 보통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 곧 민속음악 전승의 무대였다고 생각해 보면 서민들의 음악문화를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민문화와 발달해 온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통사람의 생활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면서 겪는 이별의 슬픔과 만남의 기쁨, 노동과 휴식, 축제와 의례의 현장에서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던 소망의 말들은 그대로 서민 음악 문화가 탄생하는 중요한 배경들입니다.

서민들의 생활 터전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국의 농촌과 어촌, 산촌에 살던 사람들은 각각의 생활무대에서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절기에 따라 일을 하며 힘든 노동을 노래로 잊고,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거나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는 축제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 전통에서 생활 민요가 탄생했고, 무당굿이나 마을 굿과 같은 의례와 풍물놀이 등이 생성되었습니다.

2) 민속음악의 특징

민속음악은 서민들의 생활문화에서 생성되고, 향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생

활 철학이나 삶에 대한 사유 방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중음악이나 선비 풍류 음악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요, 궁중음악이나 선비들이 즐겼던 정악(正樂)이 될 수 있는 대로 감정 표출을 삼가는 편이라면 민속음악은 ‘기쁘고, 노엽고, 슬프고, 즐거운’ 마음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풀어질 수 있는 데까지 풀어져 보고, 직접 음악에 뛰어들어 보는 현실적인 음악성을 추구하며, 흥과 신명은 드러내고 한(恨)은 풀어냄으로서 팍팍한 삶의 고비를 흥겹게 넘게 하는 음악, 이것이 민속음악이 지닌 큰 미덕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민속음악의 특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민속음악은 일정한 격식이나 외적인 연주 조건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악대의 편성과 공연 방식이 매우 개방적입니다.

일상에서는 한두 가지 악기로 장단과 가락에 맞추어 노래하거나 춤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음악에서 격식이나 사상을 표출하기보다는 개인의 생활과 감정을 음악에 담기 때문에 음악의 표현도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의 농현이나 시김새를 변화있게 사용하여 흥과 한, 신명을 마음껏 표현합니다. 음을 떨어내는 농현(弄絃)을 격렬하게 해서 음악을 극적으로 유도하며 음의 진행에 나타나는 ‘조이고 푸는’ 과정을 뚜렷하게 내보입니다.

음악의 속도는 느린 것과 빠른 것이 짝을 이루기도 하고, 음악의 진행에 따라 속도가 조절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느리고 엄숙한 이미지를 지닌 궁중음악이나 선비 풍류 음악에 비해 빠르고 발랄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속음악에서는 곱고 예쁘게 다듬어내는 음보다 힘있고 역동적으로 표출되는 음이 ‘아름다움’으로 여깁니다. 판소리 명창이 고함치듯 질러대는 높은 소리에 청중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얼씨구’라는 추임새로 호응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특성은 서양 클래식이나 정악의 개념에서 볼 때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20세기 초반,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Boots 여사라는 프랑스 여성이 정정렬 명창의 심청가 공연을 보게 되었는데 명창은 목청껏 큰 소리를 내지르며 소리를 하고, 청중들은 맞대응하며 추임새를 하자 ‘저 사람들이 왜 화가 났느냐’고 물었다는 예에서 보듯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아주 색다른 미감이 우리의 민속음악 전통에 배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속음악은 또 즉흥적인 신명성을 추구합니다. 악보나 작곡자의 뜻이 강하게 반영되는 음악과 달리 우리의 민속 음악가들은 어느 정도의 음악적 틀을 지키는 가운데 그때 그때의 흥(興)을 실어 즉흥적인 음악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청중의

음악적 기대 면에서도 상통합니다. 즉 민속음악을 듣는 데 귀가 튼 귀 명창들은 판소리 명창들이 매번 똑 같이 연주하는 것을 ‘사진(寫眞) 소리’라 하여 생명력 없는 음악으로 여겼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점은 산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나위 연주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민속음악은 ‘배운 대로 잘하면 대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음악을 자유자재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민속음악의 어법에 완전히 달통한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좋은 연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민속음악이 지닌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지역에 따라 음악의 표현 요소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각 지역의 방언이 다르듯, 민속음악은 서도와 남도, 동부, 경기 지역에 따라 다른 음악언어를 갖습니다. 민요와 풍물, 무속음악을 말할 때 반드시 지역을 앞에서 구분하는 것은 민속음악이 지닌 지역적 특징 때문입니다.

II. 한국 음악 이해를 돕는 세 가지 말

이번에는 한국 음악 이해를 도와주는 중요한 말을 몇 가지 음악 감상과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꼽은 키워드는 열두 가지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움직이며 지속하는 음—농현(弄絃)

움직이며 지속하는 음, 농현은 거문고나 가야고 같은 현악기(絃樂器)의 왼손 기법(技法) 중의 하나입니다. 농현은 서양음악의 장식음처럼 어떤 음에 부수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음 자체입니다. 하나의 음 높이(pitch, 音高)와 음색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다양한 음색을 갖습니다. 『청성자진한입』을 부는 젓대소리나 평시조의 첫 음을 내는 소리는 처음에 깨끗하게 밀어 나가다가 갑자기 약해지면서 가만히 떠는 소리, 산조(散調)에서처럼 어떤 음은 처음부터 떨기도 하고, 또 어떤 음은 꺾어서 아래로 흘러내리며 떨기도 합니다. 농현은 음악의 갈래와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연주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연주자가 같은 곡을 연주한다 해도 매 순간마다 달라집니다. 마치 생명체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농현을 느끼고 안다는 것은 곧 국악을 안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양음악의 바이브레이션과 비교해 볼 수 있겠지만, 서양의

경우 일정한 지속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국 음악의 농현에 따른 지속음이 우연적이라면 서양음악의 바이브레이션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음악을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악을 들으시면서 농현의 다양한 형태를 느끼고, 구분해서 인식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그런 방법 중의 하나로 음의 움직임에 따라 선(線)을 그어 보는 이미지를 연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를 대고 반듯하게 긋는 선이 아니라 먹물 머금은 붓을 쥐고 구불구불 긋는 선이 농현처럼 느껴 보는 것도 국악 감상의 시각화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곡에 따라 세필의 느낌, 굵은 붓의 느낌이 나는 것도 구분하실 수 있을 것이고, 붓자국이 지나는 속도에 따라 먹의 농담(濃淡)이 달라지는 느낌도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붓글씨를 쓸 때는 단번에 주-옥 긋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힘을 주고 빼면서 몇 번이고 머뭇거리다가 죽 힘을 빼면서 긋는 것이라든지, 마지막에 와서 또 힘을 모아 정지시키는 것을 연상시켜 주는 표현들도 나옵니다. 같은 한 일 자라도 어떻게 운필(運筆)했느냐에 따라 무한한 변화가 일듯이 국악에서 음의 움직임은 매번 달라집니다. 이것이 곧 국악감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즐거움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음악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 수제천/ 대금독주 청성곡/ 평시조 - 청산리 감상

2. 소리 맛을 좌우하는 시김새

시김새는 원래적 선율을 꾸며 준다는 의미에서 흔히 “장식음”이라고 설명됩니다. 그런데 시김새의 음악 현상을 좀 더 엄밀히 따져보면 음가를 짧게 쪼개는 것뿐만 아니라, 본래의 음높이를 흐리게 만드는 요소들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끌어 올리는 소리’, ‘끌어내리는 소리’ ‘미끄러져 내리는 소리’, ‘떠는 소리’와 같은 연주 방식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런 음들은 음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불분명한 음들입니다. 이 음들이 어느 높이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위 아래로 향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김새는 어떤 특정음에서 특정음으로 옮겨 가는 방식을 피하고 오히려 어떤 음높이의 주변에서 맴돌며 가락에 맛을 더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시김새란 ‘삭다’라는 말에서 나온 음악 개념입니다. ‘삭다’라는 말은 시간이 오래 흘러 본바탕이 변화한 것, 걸죽하고 뽀뽀하던 것이 묽어진 것, 김치나 젓갈 등의 음식물이 익어서 맛이 든 것 등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지요. 또 ‘분이나 미움을 삭이다’라는 말처럼 성난 마음이 풀려 부드러워진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시김새는 ‘날 것의 음을 익히는 과정’처럼 꺾거나, 밀어 올리거나, 내리는 등의 수법으로 음악에 맛을 짓들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김새를 설명할 때면 종종 김장 김치 담그는 과정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무나 배추를 소금에 절여 숨을 죽이고 갖은 양념을 해서 일정기간 숙성시켜 맛을 내고, 익히는 과정처럼 음악의 주재료인 소리를 농현으로 간을 하고, 전성이나 퇴성 등의 기법으로 양념을 하고, 이를 최적의 상태로 일정 기간 숙성시키듯 음악가가 손과 마음으로 익혀냈을 때 맛이 드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배추나 무의 원 재료를 생생한 상태로 먹는 방법(샐러드)이 아니라, 끓는 물에 데치거나 볶는 방법(더운 야채 요리)으로 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맛을 변화시키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지요. 더욱이 같은 재료를 썼는데도 집집마다 김치맛이 다르고, 지방에 따라 양념을 고르는 법이 달라 다른 맛을 내듯 시김새는 음악 표현의 질감(質感)을 달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같은 음계를 쓰더라도 어떤 시김새를 썼느냐에 따라 남도음악과 동부음악이 다르고, 시조와 산조가 달라지니까요. 또 앞에 들려 드린 음악에서처럼 삭인 정도에 따라 ‘아직 덜 삭은 소리’와 ‘잘 삭은 소리’의 미감이 달라지고, 음악가의 예술적 완성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니 국악 감상에서 시김새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으랴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제 음악을 들으시면서 소리가 얼마나 잘 익었는지, 얼마나 간이 잘 배었는지, 얼마나 향기로운지 등등, 한국의 음식 맛을 연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 말은 짧게 소리는 길게—어단성장(語短聲張)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어단성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비교 감상부터 해 보시겠습니다. 평시조 ‘동창이’를 두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 평시조 ‘동창이’와 가곡 초삭대엽 ‘동창이’ 비교 감상 : 노래: 이동규

평소에 시조창도 ‘참 느린 노래구나’ 하셨던 분들께서는 가곡 ‘동창이’를 들으면서 더 느린 노래가 있었다는 점에서 놀라고, 느린 노래 부르는 방법에 저절로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또 감탄을 자아내시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 노래를 처음 듣는 분들의 감탄은 음악적으로 너무 멋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저렇게 숨이 길까라는 점에서 놀라게 되지요. 이제 두 가지 노래를 비교해 보셨으니 제가 말씀드리려는 ‘어단성장’이 무슨 의미인 줄 다 아셨을 것입니다. ‘동창이’라는 노랫말을 부르는데 ‘동창’이라는 의미 단어는 짧게 하고, 뒤에 붙이는 소리는 길게 하는 것이지요. 뜻이 있는 말은 가능한 빨리 붙여 의미를 전달하고, 그 뒤에 붙이는 소리는 길게 하면서 갖가지 음악적 표현으로 미감을 더하기 위한 방법인 셈입니다. 이때 소리를 길게 하기 위해서는 한 글자에 여러 음을 붙이는데 이것을 ‘한 글자(字)를 여러 음(音)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일자다음(一字多音)이라고 합니다. 한 글자에 여러 음이 붙으니 자연이 장식이 많은 선율이 연상되지 않겠지요.

노래를 할 때 ‘어단성장’하는 방법은 국악의 느린 특징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고 예술적으로 완성도 높다고 정평이 나 있는 음악은 대부분 느린데, 음악을 분석해 보면 선대 음악가들이 음악을 느리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곡이나 판소리 등의 성악곡의 노랫말과 선율의 관계, 노래와 반주의 관계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어단성장의 방법은 주로 느린 음악에서 두드러지는데 ‘길게 끝다가 서서히 구불구불 흔들리며 굴곡을 짓는 선율의 진행’은 아름다운 다이내믹을 느끼게 해 줍니다. 이러한 느린 음악의 다이내믹은 농현과 시김새 등의 기법만으로는 제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음악 전체를 이끌어가는 큰 움직임이 엇갈리는 일 없도록 해야 하는데 긴장과 이완이 적절히 안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국악이 너무 느려서 듣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느리게 흐르는 선율 속에 숨어 있는 맛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느린 음악의 매력에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음악가가 음을 어떻게 늘어 가는지, 자연스럽게 음과 음을 이어 가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커다란 긴장과 이완의 틀 안에서 음악의 작은 단위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였는지를 알아 가는 것, 이것도 역시 국악 감상에서 꼭 알아야 할 요소입니다.

이제 어단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음악과 한 곡 안에서 어단과 성

강의 예가 재미있게 구성된 음악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범패 짓소리 중 ‘영산회상불보살’ - 범패: 송암
- ▶ 정선아리랑 - 노래: 김옥심

강의를 마치며

지금까지 한국 음악의 갈래와 특징을 음악도 듣고, 그림 자료도 보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린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만, 오늘 한국 음악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거나 관심이 생기셨다면 훗날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그리고 한글을 더 많이 알아 가는 동안 우리 음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 음식의 이해와 한국 문화

천성옥

〈차례〉

- ▶ 한국 음식의 종류
- ▶ 한국 음식의 기본적 특성
 1. 자연적 특성
 2. 사상적 특성
 3. 형식적 특성
 4. 문화적 특성
- ▶ 한국 음식의 자체적 특성
 1. 곡물 위주의 음식
 2. 국물 음식
 3. 발효 음식
 4. 저장 음식
 5. 절기 음식
 6. 향토 음식의 발달
 7. 다양한 조리법의 발달
- ▶ 한국 음식의 맛과 색
- ▶ 한국 음식의 상차림 예법
- ▶ 식사 예절
- ▶ 식사 도구 사용법
- ▶ 한국인 좋아하는 한국 음식

▶ 한국 음식의 종류

1. 주식류: 밥, 죽, 면.
2. 부식류: 국, 찌개, 탕, 전골, 찜, 조림, 볶음, 구이, 전, 나물, 찜, 젓갈, 김치.
3. 장류: 된장, 간장, 고추장.
4. 간식류: 떡, 한과, 엿.
5. 음청류: 차, 음료, 술.

▶ 한국 음식의 기본적 특성

1. 자연적 특성

- 삼면이 바다: 육류, 어류, 채소류가 다양하게 생산.
- 사계절의 변화: 절기 음식, 저장 음식의 발달.
- 지역 구분: 향토 음식의 발달.

2. 사상적 특성

- 식약동원(食藥同源): 한국 음식은 예로부터 ‘밥보다 좋은 약은 없다’라는 식생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밥이 보약’이기 때문에 올바른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약과, 약식, 약주, 약념(양념).
- 불교 및 유교의 영향: 농경을 중시하여 곡식과 채식 위주의 식생활이 발달하였고 불교의 영향을 받아 차 문화가 성행하였으며 이후 유교의 영향으로 궁중음식, 양반들의 반가음식, 서민음식으로 각각의 특성을 살린 음식과 관혼상제에 따른 음식 문화 및 예법 중시한 상차림이 생활화되었다.

3. 형식적 특성

- 주식과 부식의 분리: 밥과 반찬으로 나뉜다.
- 한 상차림: 한꺼번에 모두 차려 놓고 먹는다.
- 일상 음식과 행사 음식의 차별화: 일상적인 식생활과 통과례로 불리는 특별한 행사 음식이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4. 문화적 특성

- 찜 문화: 내포형 문화, 보쌈, 보자기, 한복(장옷, 두루마기), 울타리(담).
- 비빔문화: 더불어, 다같이, 개별적인 요소들의 조화와 융합을 중시.
- 다과 문화: 손님 접대 문화 및 삶의 여유.
- 잔치 문화: 좋은 일이 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 먹고 즐기며 축하.
- 통과례 문화: 통과례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하는 의식으로 혼허관, 혼, 상, 제를 들 수 있는데 성년이 되는 의식을 관례, 결혼식을 혼례, 죽었을 때의 상례, 죽고 난 후의 제례로 각기 다른 식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다. 흔히 가장 많이 행하는 의식은 첫 돌(만 1살), 혼례(결혼), 회갑(만 60세), 상례, 제례(제사) 등이다.

▶ 한국 음식의 자체적 특성

1. 곡물 위주의 음식

주식과 부식의 구별이 확실하지 않은 서양 음식이나 중국 음식과 달리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경 문화가 발달하여 쌀과 보리 등으로 지은 밥을 주식으로, 채소나 생선, 육류 등으로 만든 여러 가지 반찬을 부식으로 하였다.

2. 국물 음식

한국인의 식탁에는 국이나 찌개가 꼭 있어야 하며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식사 도구로 숟가락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음식을 담는 그릇이 입체적이어야 하고 한 그릇에 한 가지 음식만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 발효 음식

한국 음식에는 김치나 젓갈, 장류 등 발효성 음식이 많다. 채식 위주의 전통적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콩으로 만든 된장 등으로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조미료이자 필수 반찬이 되었다.

4. 저장 음식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김치가 그 대표적이며 추운 겨울에도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독특한 저장법으로 인한 발효 음식으로서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5. 절기 음식

절기란 1년을 24절기로 나누어 농사에 활용을 하였는데 한국은 오래전부터 벼농사 등 농경 위주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식생활도 이러한 계절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계절에 나는 재료로 만들어 먹는 음식이 발달을 하였으며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을 포함하여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도 달랐다. 설에는 떡국을, 음력 정월 대보름에는 가족들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오곡밥과 나물, 그리고 견과류를 즐겼으며 한 여름 무더위를 ‘삼복더위’라고 하여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추석에는 새로 수확한 쌀로 만든 송편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건강과 풍요를 중요시하였다.

<대표적 절기 음식>

- 설날: 떡국, 만두, 전, 식혜, 수정과, 햇김치.

음력 1월 1일로 이날은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날이므로 깨끗해야 한다는 뜻으로 흰 떡국을 먹었으며 이로써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하였다.

- 대보름: 오곡밥, 나물, 견과류.

음력 1월 15일로 달의 밝기에 따라 그 해 농사를 예상하였으며 5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밥과 여러 가지 말린 나물을 준비하고 호두, 잣 등의 견과류를 먹으며 한 해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였다.

- 추석(한가위): 송편, 토란국.

음력 8월 15일을 추석이라 하고 설날과 함께 2대 명절로 지켜오고 있으며 그 해 수확한 곡식으로 감사의 의미를 담아 반달 모양으로 떡을 빳어 술잎을 깔고 찌서 먹었다. 술잎을 활용하는 이유는 향기를 좋게 하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식생활의 지혜가 담겨있다.

6. 향토 음식의 발달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고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북쪽이나 산간 지방, 바닷가에 있는 해안 지방 등 각 지역마다 그곳의 날씨나 관습, 문화 등의 차이로 그 지

방이 가지고 있는 특산물과 조리법을 이용한 향토 음식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향토 음식에는 그 고장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이 그대로 담겨 있어 지역 문화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감자나 옥수수가 많이 나는 산간 지방인 강원도에는 감자떡이나 옥수수밥, 유교의 영향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경북 안동 지방의 헛제삿밥과 전주의 육회 비빔밥, 충남의 바닷가 서산 지방의 새우젓과 간장 계장, 부산 동래 지방의 해물파전, 여수의 갯김치, 제주의 옥돔 구이 등이 있다.

7. 다양한 조리법의 발달

양념 및 고명을 사용하여 식재료 자체의 맛보다 복합적인 맛을 즐김.-탕, 찜, 조림, 볶음, 부침, 구이, 무침, 생채 등

▶ 한국 음식의 맛과 색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우주를 인식하고 사상의 중심이 되는 원리로 음양오행설이 있는데 음과 양의 두 기운이 ‘화(火), 수(水), 목(木), 금(金), 토(土)’라는 다섯 가지의 원소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섯 방향이 설정되며 오방색이란 다섯 방향을 상징하는 색으로 동쪽은 청색, 서쪽은 흰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 가운데는 황색이다.

모든 것이 우주, 즉 천지만물을 상징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 음식에도 이러한 자연과 우주를 품는 원대한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다.

1. 맛: 오미(五味)	2. 색: 오색(五色)
짠 맛: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단 맛: 설탕, 꿀, 조청, 엿 신 맛: 식초 매운 맛: 고추, 겨자, 후추, 생강 쓴 맛: 생강	붉은색: 고추, 당근, 대추 녹 색: 호박, 오이, 미나리, 파 노란색: 계란 노른자 흰 색: 계란 흰자, 무, 배, 밤 검정색: 표고버섯, 검은 깨, 김

▶ 한국 음식의 상차림 예법

1. 밥이 주가 되고 반찬이 부가 된다.
2. 밥그릇은 왼쪽에, 국그릇은 오른쪽에 놓는다.
3. 국물 있는 그릇은 오른쪽 방향으로 놓고 수저는 반드시 오른쪽에 놓는다.
4. 상은 네모이거나 둥근 것으로, 음식을 담을 때에는 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한다.

▶ 식사 예절

1. 웃어른이 수저를 드신 후에 식사를 시작한다.
2.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지 않는다.
3. 수저로 음식을 뒤적거리지 않는다.
4. 음식의 양념을 털어내고 먹지 않는다.
5. 밥그릇 국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지 않는다.
6.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
7. 식탁에서 턱을 괴지 않는다.
8. 식사 중에 책이나 신문 등을 보지 않는다.
9. 기침이나 재채기가 날 때는 고개를 돌린다.
10. 어른 앞에서 술을 마실 때는 두 손으로 잡고 고개를 돌린다.

▶ 식사 도구 사용법

1. 숟가락과 젓가락은 한꺼번에 들고 사용하지 않는다.
2. 식사 중 숟가락과 젓가락은 반찬 그릇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
3. 밥과 국물이 있는 음식은 숟가락을, 다른 찬은 젓가락을 사용한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1위: 된장찌개[doenjang jjigae/Soybean Paste Stew]

한국 음식하면 떠올리는 몇몇 대표적인 음식 중의 하나가 된장찌개이다. 된장은 김치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발효 음식이며 한국 서민층에서 즐겨 먹는 전통 음식이기도 하다. 된장찌개는 특히 빨리 식지 않는 떡배기에 끓이는 것이 좋다. 된장을 물에 풀고, 쇠고기는 잘게 썰고 버섯도 잘게 썰어서 된장물에 넣어 한번 끓으면 두부를 넣고 파와 다진 마늘, 생강을 넣어 마무리한다.

2위: 김치찌개[kimchi jjigae/Kimchi Stew]

김치찌개는 대표적인 한국 요리 중 하나로, 김치를 넣고 얼큰하게 끓인 찌개이다. 재료가 간단하고 만들기 쉽기 때문에 한국 가정의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김치찌개에는 배추김치와 채소, 두부, 육류, 어패류 등이 들어가는데, 보통 육류와 해산물은 동시에 들어가지 않는다. 육류는 주로 돼지고기나 참치를 넣는다. 다른 한국 요리처럼 반찬과 밥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다. 김치찌개에는 어느 정도 발효가 되어 신맛이 나는 김치를 사용하는데, 담근 지 얼마 안 된 김치를 사용하면 특유의 맛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배추김치를 꼭 짜서 5cm 길이로 썰거나 또는 김치 잎이 넓은 것은 길이대로 2~3 갈래로 찢는다. 냄비에 김치와 돼지고기를 잘게 썰어서 담고 썰뜨 물을 붓고 끓인다. 한 번 끓인 다음 간을 보아 싱거우면 묽은 장으로 간을 맞추고, 참기름을 넣어 양념하고 파를 썰어 넣는다. 대부분 김치 자체의 맛으로 간이 맞는다.

3위: 김치[kimchi]

한국 특유의 채소가공 식품으로 무·배추 및 오이 등을 소금에 절여서 고추·마늘·파·생강·젓갈 등의 양념을 버무린 후 발효된 식품으로,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이다. 2001년 7월 5일 식품 분야의 국제표준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김치가 일본의 기무치를 물리치고 국제 식품 규격으로 승인받았다. 김치의 종류로는 크게 보통김치와 김장김치로 나눌 수 있는데 김장김치는 겨울 동안의 부족한 채소의 보충으로 준비하는 것으로서 오랫동안 저장해 두고 먹는 김치인데, 종류로는 통배추김치·보쌈김치·동치미 등이 있다.

4위: 불고기[bulgogi/Korean-Style Barbecued Beef]

쇠고기 등을 얇게 저며서 양념에 재었다가 불에 굽는 한국식 바비큐로 지금은 불고기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너비아니’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고기를 불고기감보다 조금 도톰하게 썰어서 갖은 양념에 재운 후 구워 먹는 너비아니는 넓적하게 썰어 구웠다 하여 너비아니로 불린다. 현재와 같이 얇게 썰어 달달하게 양념한 불고기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쇠고기만 해도 부위별로 각각 다르게 조리해 먹는 특별한 입맛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미식가이다.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채소 샐러드나 쌈을 곁들여 먹어야 좋다.

5위: 비빔밥[bibimbap/Rice Mixed with Vegetables and Beef]

밥에 나물, 고기, 고명과 참기름, 양념을 넣어 비빈 밥으로 골동반(骨董飯)이라고도 한다. 전주비빔밥이 가장 유명하며, 계절에 따라 재료를 변화 있게 하여 만든다. 한해의 마지막 날인 선달 그믐날 저녁에는 남은 음식을 해를 넘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밥을 고슬고슬¹⁾하게 지어서 보기 좋게 대접에 담고 그 위에 미리 만들어 둔 여러 가지 나물, 고기, 달걀 등을 모양 있게 색을 맞추어 얹어 내면 먹을 때에 각자 양념을 넣어 비벼서 먹는다. 물김치와 장국을 곁들이면 좋다. 나물은 계절에 맞추어 고르는데 되도록 색채와 영양소의 배합이 좋도록 한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만들 때에는 밥을 먼저 비벼서 간을 맞춘 다음, 고명으로 달걀지단과 김가루를 얹기도 하는데, 이때 오래 두면 밥이 붙어서 맛이 없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

1) 밥 따위가 되지도 질지도 아니하고 알맞은 모양. 예) 물을 적당히 맞추었더니 밥이 고슬 고슬 아주 잘되었다. 자료 출처: 코리안넷 [http://www.korean.net/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사이트](http://www.korean.net/재외동포_한국어_교육_사이트).

광고 수업의 예2)



광고로 배우보는 한국 (KOREA)

- 질문 : 1.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2. 고추장으로 만든 음식의 종류를 말해 보세요.

태양초 고추장 - 낙지볶음 -

남 자 : 여기 전 좀 더 갖다 줘.
시어머니 : 야 저녁엔 뭘 해먹냐?
여 자 : 종일 기름 냄새만 맡았더니...
며느리 : 어머니 매콤한 거 어때요?
시어머니 : 매콤? 좋지.
며느리 : 여보~ 낙지볶음은 자기가 최고잖아. 응?
모 두 : 와아... 맛있겠다. 그치?
시어머니 : 음... 아이고. 제대로네. 제대로야~

아내가 매워야 집안이 산다~♪

맛있게 맵죠?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

☞ 관련 어휘 및 표현

전[명] 생선이나 고기, 채소 따위를 얇게 썰거나 다져 양념을 한 뒤, 밀가루를 묻혀 기름에 지진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종일[명]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말: 온종일.

매콤하다[형] 냄새나 맛이 가볍게 맵다.(새콤/달콤)

제대로[부사] 제 격식이나 규격대로/마음먹은 대로/알맞은 정도로/본래 상태 그대로.

살다[동] 1 생명을 지니고 있다. 2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난다. 3 성질이나 기운 따위가 뚜렷이 나타난다. 4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나다.

☞ 맛을 표현하는 어휘를 써 보세요.

활동자료 1: 인터뷰 질문지³⁾

♠ 고추장이 들어 간 한국 음식에 대하여

날 짜: _____

인터뷰 대상: _____

1. 고추장이 들어 간 한국 음식을 먹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오 (7번으로)

2. 고추장이 들어 간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네 아니오

3. 좋아하는/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 (좋아한다면) 고추장이 들어 간 한국 음식을 자주 먹습니까?

네 아니오 (이유: _____)

5. 고추장이 들어간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 _____ 씨 나라에도 한국의 고추장과 같이 매운 음식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음식인지 설명해 주세요.

7. 고추장이 들어간 한국 음식을 먹어 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오 (이유: _____)

♣ 마지막 두 질문은 학습자가 직접 만들어 봅니다.

8.

_____?

9.

_____?

3) 자료 출처: 셰프한국어.

활동자료 2: 식당 계획서⁴⁾

식당 계획서

1. 어떤 종류의 식당을 하고 싶어요?

2. 어떤 음식을 팔고 싶어요? (음식의 종류)

3. 식당의 이름은?

4. 어디에서 식당을 하고 싶어요?
(예: 대학가 근처, 회사 근처, 시장 근처, 전철역 근처, 경치 좋은 곳)

5. 식당을 어떻게 꾸미고 싶어요?
♠ 식당 전체의 분위기 _____
♠ 테이블과 의자의 수 _____
♠ 식당 벽과 천정의 색깔 _____
♠ 기타 _____
6. 어떤 음악을 틀고 싶어요?

7.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닫고 싶어요?

8. '오늘의 특별 메뉴'로 무엇을 하고 싶어요?

9. 식당 광고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광고 문구)

4) 자료 출처: 셰프한국어.

간추린 한글학회 발자취

- 1907.07.01~09.03. 주시경 선생이 제1회 “하기 국어 강습소”를 운영함.
- 1908.07.07~08.31. 제2회 “하기 국어 강습소” 운영.
- 1908.08.31. “국어연구학회” 창립.
- 1909.11.07.~1910.06.30. 국어연구학회에서 “국어강습소” 제1회(강사: 주시경)를 운영함(졸업생 20명).
- 1910.10.~1911.06.27. 제2회 국어강습소를 운영함(졸업생 51명).
- 1911.09.03. 학회 이름을 “배달말글문음(朝鮮言文會)”으로 바꾸고, “강습소”도 “조선어강습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넓힘.
- 09.17.~1912.03. 조선어강습원 제1회 중등과를 운영함(수업생 126명).
- 1912.04.21.~1913.03.02. 조선어강습원 제1회 고등과(졸업생 33명) 및 제2회 중등과(수업생 38명)를 운영함.
- 03.23. 학회 이름을 “한글모”로 바꾸고, 주시경 선생이 회장이 됨.
- 1913.04.22.~1914.03.01. 조선어강습원 제2회 고등과(졸업생 21명), 제3회 중등과(수업생 39명), 제1회 초등과(진급생 8명)를 운영함.
04. 조선어강습원의 이름을 “한글배곧”으로 바꿈.
- 07.27. 주시경 선생이 돌아가심.
- 1915.03.07. 한글배곧 제3회 고등과 졸업식(졸업생 23명) 및 제4회 중등과 수업식(수업생 39명)을 가짐.
- 1916.03.20. 한글배곧 제4회 고등과 졸업식(졸업생 21명) 제5회 중등과 수업식(수업생 7명)을 가짐.
- 04.30. 임시총회를 열어 학회 조직을 정비하고 회장으로 남형우를 선출함.
- 1917.03.11. 한글배곧 제5회 고등과 졸업식(졸업생 14명) 및 제6회 중등과 수업식(수업생 17명)을 가짐.
- 1917.04.~1919. 학회 활동이 침체됨.
- 1919.가을. “조선어연구회”로 다시 일어섬.
- 1921.12.03. 조선어 연구회의 확대·강화를 위한 총회를 열어 임경재, 장지영, 최두선을 간사로 선출함(간사장: 임경재). 사무실: 휘문고등보통학교.
- 1924.02.01(음력 1923.12.27.). 휘문고등보통학교에서 훈민정음 창제 8번째 회갑(480돌) 기념회를 가짐.
- 1926.11.04(음력 09.29.). ‘훈민정음 반포 기념일’(『세종 실록』 권 113의 “세종 28년 9월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란 기록에 따름)로 “가갸날”로 정하고, 신민사와 함께 각계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경성의 식도원에서 첫 기념 축하회를 가짐.
- 12.04. 정기총회 열어 임원을 새로 뽑음(대표 간사: 이병기, 간사: 신명균·정열모).
- 1927.01.03.~06. 05.23~28. 06.13.~18. 조선어 강습회를 열.

- 02.08. 동인지 『한글』 첫호를 펴냄.
- 10.24.(음력 09.29.) 한글사와 함께 경성의 명월관 지점에서 가갸날 기념 축하회를 가짐.
- 11.09. 한글사와 함께 가갸날 기념 강연회를 엮.
- 1928.04. 경성부 수표동 42번지의 조선교육협회 회관으로 사무실(수표동 회관)을 옮김.
- 10.12. 동인지 『한글』 제9호로 폐간함.
- 11.11(음력 09.29.). 가갸날을 “한글날”로 이름을 바꾸어 기념 축하회를 가짐.
- 1929.10.31. 조선교육협회 회관 강당에서 483돌 한글날 기념 축하회를 열고, 각계 인사 108명이 발기하여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함.
- 1930.01.05. 총회를 열어 장지영, 이극로, 최현배를 간사로 뽑음(간사장: 장지영).
- 02.08. 03.08. 04.12. 06.14. 07.12. 09.13. 10.11. 11.08. 12.13. 월례 “강연회”(연구 발표회)를 엮.
- 05.10. 월례 모임에서 한글 가로풀어쓰기에 대하여 토론함.
- 07.31.~08.09. “한글 강습회”를 엮.
- 11.19. 명월관에서 484돌 한글날 기념 축하회를 가짐.
- 12.13. 학회 안에 “조선어철자 통일 위원회”를 구성함.
- 1931.01.10. 정기총회에서 학회 이름을 “조선어학회”로 고치고, 이극로, 최현배, 장지영을 간사로 뽑음(간사장: 이극로).
- 01.24. 학회 안에 “외래어 표기법 및 부수 문제 협의회”를 구성함.
- 02.14. 03.14. 04.11. 05.09. 06.13. 07.11. 10.10. 11.14. 12.12.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 07.09. 조선어철자 통일 위원회에서 ‘초안 60개 항목’의 작성을 완료함.
- 07.25.~08.28. 전국 37곳을 순회하며 “조선어 강습회”를 엮.
- 10.29. 종래의 한글날인 ‘음력 9월 29일’을 양력(율리우스력)으로 환산하여 이 날을 한글날로 삼고, 명월관 본점에서 485돌 한글날 기념 축하회를 가짐.
- 1932.01.09. 정기총회에서 규칙을 대폭 개정하고, 신명균, 이극로, 김윤경을 간사로 뽑음(간사장: 신명균).
- 03.02. 05.14. 06.11. 07.09. 12.10.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 05.01. 기관지 『한글』 첫호를 펴냄.
- 08.01.~08.20. 전국 33곳을 순회하며 “조선어 강습회”를 엮.
10. 언해본 『훈민정음』을 영인·간행함.
- 10.29. 486돌 한글날 기념 축하회를 가짐.
- 12.26. 기관지 『한글』 제6호를 펴냄.
- 12.27.~1933.01.04. 개성에서 조선어철자 통일 위원회 전체회의(제1 독회)를 가짐.
- 1933.01.14. 05.13. 06.10. 11.11. 12.09.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 03.10. 기관지 『한글』 제7호를 펴냄.
- 07.26.~08.03. 고양군 수유리 화계사에서 조선어철자 통일 위원회 전체회의(제2 독회)를 가짐.
- 10.19. 임시총회를 열어, 조선어철자 통일 위원회에서 최종 보고한 표기법을 『한글마춤법 통일안(조선어철자법 통일안)』이란 이름으로 채택함.
- 10.29.(한글날) 487돌 한글날 기념 축하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한글마춤법 통일안』을

발표함.

12. “조선어학회 출판부”를 설립함.

1934.01.03.~08. 한글 강습회를 엮.

01.25. 『한글』 제10호를 펴냄.

04.14. 『한글』 제11호를 펴냄.

05.12. 07.07. 09.08. 11.10.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10.27.~29. 488돌 한글날 기념으로 제1회 “조선어학 도서 전람회”를 엮.

10.28. 양력 환산을 그레고리력으로 다시 하여 한글날의 날짜를 이 날로 바꾸고, 경성의 천향원에서 488돌 한글날 기념 축하회를 가짐.

12.02. 임시총회를 열어 학회 안에 “표준어사정 위원회”를 두기로 결의함.

1935.01.01. 크기를 5×7판으로 바꾸어 『한글』 제20호를 펴냄.

01.02.~06. 온양에서 표준어사정 위원회 전체회의(제1 독회)를 가짐.

02.23. 05.11. 06.08. 09.14. 10.12. 11.14. 12.23.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07.11. 경성부 화동 129번지로 학회 사무실(화동 회관)을 옮김.

08.05.~09. 고양군 우이리 봉황각에서 표준어사정 위원회 전체회의(제2 독회)를 가짐.

10.28. 명월관에서 489돌 한글날 기념 축하회를 가짐.

1936.01.01. 『한글』 제31호를 펴냄.

01.11. 06.13. 11.18. 12.19.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03.20. 조선어사전편찬회를 해산하고 그 일을 조선어학회에서 맡음.

07.30.~08.01. 인천 우각리 제일공립보통학교에서 표준어사정 위원회 전체회의(제3 독회)를 가짐.

10.28.(한글날) 표준어사정 위원회에서 확정한 내용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으로 펴냄. 천향원에서 490돌 한글날 기념 축하회를 열고, ‘조선어 표준말’을 발표함.

11.28. 임시총회에서 “한글 가로풀어쓰기 안”(조선어학회 임시안)을 채택함.

1937.01.01. 가로짜기로 바꾸어 『한글』 제41호를 펴냄.

01.11.~16. 한글 강습회를 엮.

05.10. 『한글맞춤법 통일안』 고친판을 펴냄(통틀어 제5판).

07.08.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재판을 박아냄.

12. 언해본 『훈민정음』을 활자본으로 간행함.

1938.01.01. 『한글』 제52호를 펴냄.

03. 『(2주일 속성) 계몽야학회 속수 독본』을 엮어 펴냄.

05.05. 『훈민정음 운해』를 단행본으로 간행함.

가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일본어음 표기법』, 『조선어음 라마자 표기법』, 『조선어음 만국음성기호 표기법』의 원안을 전체적으로 완성함.

1939.01.01. 『한글』 제63호를 펴냄.

12.01. 『한글』 제73호를 펴냄.

1940.03.03. 조선총독부로부터 조선어사전(나중의 『조선말 큰사전』)의 출판을 허락받음.

- 06.25.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일본어음 표기법』, 『조선어음 라마자 표기법』, 『조선어음 만국음성기호 표기법』을 확정·공표함.
- 11.01. 새로 발견된 『훈민정음』 원본의 “정통 9월 상한”이라는 기록에 근거하여, 한글날의 날짜를 10월 9일로 고쳐 발표함.
- 10.20. 『개정한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펴냄.
- 12.01. 『한글』 제82호를 펴냄.
- 1941.01.15. 위의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비롯한 4개의 표기법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으로 펴냄.
- 1942.01.01. 『한글』 제92호를 펴냄.
- 봄. 『조선말 큰사전』 활자 조판을 시작함.
- 05.01. 『한글』 제93호를 펴냄.
- 10.01. ‘조선어학회 수난’이 시작됨. 학회의 임원과 중요 회원이 모두 구속되어 함경남도 함흥과 홍원으로 불잡혀 가고, 학회의 모든 일이 중단됨.
- 1943.12.08. 이운재 선생이 함흥감옥에서 별세함.
- 1944.02.22. 한 징 선생이 함흥감옥에서 별세함.
- 1945.08.18. 광복과 더불어 조선어학회 수난으로 고생하던 회원이 풀려나 서울로 돌아옴.
- 08.19. 임원과 직원이 모여 조선어학회 재건 문제를 의논함.
- 08.25.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이극로, 최현배, 김병제, 이회승, 정인승, 김윤경을 간사로 뽑아 학회 조직을 정비함(간사장: 이극로). “국어교본 편찬 위원회”를 구성함.
- 09.08. 조선어사전 원고를 서울역 창고에서 찾음.
- 09.10. 서울 청진동 188번지로 학회 사무실(청진동 회관)을 옮김.
- 09.11.~24. 제1회 “국어과 지도자 양성 강습회” 개최. 사범부 659명 수료.
- 10.09. 오전 10시 반부터 천도교당에서 499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이어서 조선어학회 수난으로 옥사한 이운재 선생과 한징 선생 추도식을 가짐. 그리고 거리행진을 벌임.
- 10. 『한글 첫걸음』을 편찬하여 미국 군정청 학무국에 무상으로 넘겨 줌.
- 11.~1947.01. 『초등국어 교본』 상, 중, 하, 『중등국어 교본』 상·중·하, 『초등 공민』 1·2, 3·4, 5·6, 『중등 공민』 1·2, 3·4 등 11종의 교과서를 편찬하여 미국 군정청 학무국에 무상으로 넘겨 줌.
- 1946.01.09.~18. 제3회 “국어과 지도자 양성 강습회” 개최. 132명 수료.
- 02.03. 3.10. 연구 발표회를 열.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의 명칭 “간사(장)”를 “이사(장)”로 바꾸는 등, 회칙을 고치고, 장지영, 이극로, 최현배, 이회승, 김병제, 정인승, 김윤경을 이사로 뽑음(이사장: 장지영).
- 02.12. 조선어학회 부설 기구로 “한글사”를 설립함.
- 04.01. 4년 동안 중단되었던 『한글』을 되살려 제94호를 펴냄.
- 04.06. 이운재 선생 묘비(경기도 광주군 방이리)를 세움.
- 10.09. 『훈민정음』 원본(해례본) 영인하여 펴냄. 덕수궁에서 500돌 한글날 기념식을 성대히 벌임. 500돌 한글날 기념 강연회를 열.

- 10.16.~31. 500돌 한글날 기념으로 제2회 조선어학 도서 전시회를 엮.
 12.26. 학회 창립 ‘옛25돌’ 기념식을 가짐.
- 1947.03.20. 『한글』 제99호를 펴냄.
 10.09. 『조선말 큰사전』 제1권을 펴냄. 천도교당에서 501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11.09.~12.28. “사범부 3과 지도자 양성 강습회”를 통하여 국어과 지도자 배출.
 12.14. 연구 발표회를 엮.
- 1948.01.11. 02.08 03.14. 05.16. 06.14. 07.14. 10.16. 12.12.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02.29. 『한글』 제103호를 펴냄.
 04.10(음력). “세종날”을 제정하고, 숙명여자중학교 강당에서 551돌 세종날 기념식을 함.
 07.18. 국회에 ‘한글로 된 헌법을 정본으로 삼기’로 한 것에 대한 감사문 보냄.
 07.24. “한글전용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문교·후생 위원회에 건의문 제출.
 08.08. “세종 중등국어교사 양성소” 설립 인가를 문교부로부터 받음.
 08.28. 서무부 이사 이극로의 사표를 수리함.
 10.01. 세종 중등국어교사 양성소 제1회 입학식을 가짐.
 10.09. 숙명여중 강당에서 502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개정한 한글맞춤법 통일안』 한글판을 펴냄(제235판).
- 1949.01.09. 11.27. 연구 발표회를 엮.
 01.08. 『한글』 제105호를 펴냄.
 03.24. “재단법인 한글집”의 설립을 허가받음.
 05.05. 『조선말 큰사전』 제2권을 펴냄.
 05.15. 552돌 세종날 기념식을 가짐.
 06.04.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이 됨(대통령령 제124호).
 06.12. “한글전용촉진회”를 만듦.
 09.01. 세종 중등국어교사 양성소 제2회 입학식을 가짐.
 09.25.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개선함(이사장: 최현배).
 10.02. 정기총회를 속개하여 학회 이름을 “한글학회”로 바꿈.
 10.09. 부민관(오늘날의 세종문화회관)에서 503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이승만 대통령이 ‘한글맞춤법 간소화’를 언급함. 그로써 ‘한글맞춤법 간소화 파동’이 촉발됨.
- 1950.04.01. 세종 중등국어교사 양성소 제3회 입학식을 가짐.
 06.01. 『큰사전』 제3권을 펴냄.
 06.11. 서울 중구 을지로 119번지(을지로 회관)로의 이사를 마침.
 06.24. “한글맞춤법 간소화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함. 세종 중등국어교사 양성소 제1회 졸업식(졸업생 88명)을 가짐.
 06.25. 6·25 전쟁으로 학회가 비상사태로 빠져듦.
 11.11. 서울 종로구 화동 129번지로 학회 사무실을 다시 옮김.
- 1951.01.04. 1·4 후퇴로 학회를 다시 비상체제로 운영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010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교재

- 03.01. 피난 수도인 부산의 묘심사에 임시 연락소를 차림.
- 10.09. 부산에서 부산시와 공동으로 505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952.02.20. 전쟁 중에 잃었던 책 2,000권을 되찾음.
- 03.11. 정태진 선생 1주기 추모식을 가짐.
- 10.09. 부산시와 공동으로 506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953.05.11. 연구 발표회를 엮.
- 05.24. ‘한글맞춤법 간소화 안’을 담은 『국무총리 훈령』 제8호(1953.04.27.)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함.
- 10.09. 서울대학교 강당(동승동)에서 507돌 한글날 기념식을 대한교육연합회와 공동으로 가짐.
- 1954.05.02. 06.06. 07.04. 09.12. 12.05.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 07.07. 한글맞춤법 간소화 추진에 대하여 반박 성명을 냄.
- 09.29. 서울 종로구 관훈동 151번지로 학회 사무실을 옮김.
- 10.09. 풍문여고 강당에서 508돌 한글날 기념식을 갖고, 식이 끝난 후에는 한글타자 경기 대회를 엮.
- 1955.02.06. 04.10. 06.12. 07.10. 09.11. 11.22.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 04.01. 『한글』 제110호(표지 108)를 펴냄.
- 09.19. 이승만 대통령이 ‘한글맞춤법 간소화’를 철회함.
- 10.09. 문교부, 대한교련, 국어국문학회 등과 공동으로 509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956.03.01. 『한글』 제116호를 펴냄.
- 04.29. 07.08. 09.16. 10.14. 10.28. 11.18.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 10.09. 경기여고 강당에서 510돌 한글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식후에 그 자리에서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발기·창립함.
- 10.28. 대통령의 한글전용 강조 담화에 대해 감사장을 내고, “한글전용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함.
- 1957.02.20. 『한글』 제120호를 펴냄.
- 06.23. 09.22. 11.10. 12.03.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 06.30. 『큰사전』 제5권을 펴냄.
- 08.30. 『큰사전』 제4권을 펴냄.
- 10.09. 『큰사전』 제6권을 펴냄. 그로써 6권 완간. 『큰사전』 완간 기념식을 겸하여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511돌 한글날 기념식을 시공관에서 가짐.
- 10.24. 『큰사전』 편찬 순직자 다섯 분—이운재, 한 징, 권덕규, 이중화, 정태진—을 기리는 추도식을 가짐.
- 11.01. 중사전 편찬 위원회를 구성함.
- 1958.02.25. 『개정한 한글맞춤법 통일안』 용어 수정판을 펴냄(제251판).
- 04.28.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58-14의 터(신문로 회관, 오늘날의 한글회관)와 건물을 사서 학회 사무실을 옮김.
- 06.15. 『중사전』을 펴냄.

- 09.20. 『소사전』 편찬을 결의함.
- 10.09. 『한글』 제123호를 펴냄. 512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0.23. 한글날 국경일 지정 건의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함.
- 12.07. 연구 발표회를 엮.
- 1959.03.08. 06.20. 연구 발표회를 엮.
- 10.09. 『한글』 제125호를 펴냄. 513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960.04.30. 『소사전』을 펴냄.
- 05.01. 『중사전』 수정 작업을 시작함.
- 09.01. 학회 안에 “지명 조사부”를 둬. 남한만의 지명 조사 사업을 계획함.
- 10.01. 주시경 선생 묘소를 양주군 장현리로 이장하고 묘비를 세움.
- 10.09. 『한글』 제127호를 펴냄. 진명여고 삼일당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514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0.29. 12.04. 연구 발표회를 엮.
- 1961 05.19. 연구 발표회를 엮.
- 06.10. “한글전용 시행 촉진 건의서”를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제출함.
- 09.09. 재단법인의 이름을 “재단법인 한글학회”로 고침.
- 10.09. 윤보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515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1.15. 『한글』 제128호를 펴냄.
- 1962.01.14. 문교부에 한글전용을 건의함.
- 03.27. 학회 안에 “한글기계화연구소”를 부설함.
- 04.01. 정부의 보조로 “한글전용 특별심의회”를 만들.
- 05.30. 『한글』 제129호를 펴냄.
- 06.23. 한글기계화연구소에서 『한글타자기 글자판 통일안』을 문교부에 냄.
- 07.23. 『한글전용 특별심의회 회보』 제1집을 펴냄(2,761개 낱말).
- 10.09. 서울시민회관(오늘날의 세종문화회관)에서 516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2.05. 연구 발표회를 엮.
- 1963.04.30. 12.07. 연구 발표회를 엮.
- 04.30. 『한글』 제131호를 펴냄.
- 05.16. “학교말본 용어에 제정에 대한 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함.
- 08.10. 『한글전용 특별심의회 회보』 제5집을 펴냄(2,724개 낱말).
- 10.09. 517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964.03.20. 청원서 “학교말본 통일 방안의 시정에 대하여”를 제출함.
- 05.30. 『한글』 제133호를 펴냄.
- 07. 문교부에 지명 조사 사업을 위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함.
- 10.09. 518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1.15. “한글전용에 관한 한글학회의 주장”을 발표함.
- 11.30. 학교문법 통일안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함.
- 12.19. 연구 발표회를 엮.

- 1965.01.11. 부산지회 창립.
- 03.15. 『한글』 제134호를 펴냄.
- 04.09. 전북지회 창립.
- 04.10. 정기총회에서 한글학회 회칙을 전면 개정함.
- 04.15. 『중사전』을 수정하여 『새한글사전』으로 다시 펴냄.
- 05.15. 06.19. 09.18. 11.20. 연구 발표회를 엮.
- 10.09. 519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966.01.16. ‘한글전용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한글전용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처에 냄.
- 02.20. 10개 단체와 함께 한글날 국경일 지정 촉구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함.
- 02.28. 『한국지명 총람』 서울편을 펴냄.
- 03.23. 05.15. 06.24. 08.26. 09.23. 11.24.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 03.31. 『한글』 제136호를 펴냄.
- 04.20. 학교문법 통일안과 관련하여 국회 의장에게 진정서를 냄.
- 05.27. 경북지회 창립.
- 10.09. 520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1.27. 한글기계화연구소에서 제1회 한글타자원 기능검정을 실시함.
- 12.01. “학교말본 시비에 대한 성명서”를 4개 단체와 함께 발표함.
- 1967 01.30. 『쉬운말 사전』을 펴냄.
- 03.31. 『한글』 제139호를 펴냄.
- 04.28. 06.23. 10.27. 연구 발표회를 엮.
- 07.05. 이우식 선생 묘비를 세움.
- 10.09. 521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2.07. 학회 창립 ‘옛46돌’ 기념행사로 한글전용을 주제로 강연회를 엮.
- 12.20. 『한국지명 총람』 강원편을 펴냄.
- 1968.02.28. “한글기계화연구소”를 재단법인으로 독립시킴.
- 04.06. 민족문화협회 등 21개 단체와 공동으로 “한글전용의 계단적 실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함.
- 05.15. 덕수궁에 세운 세종대왕 동상 앞에 꽃바치기를 함.
- 06.30. 『한글』 제141호를 펴냄.
- 09.13. 10.26. 연구 발표회를 엮.
- 10.08. 대전지회 창립.
- 10.09. 세종대왕기념관 기공식을 겸하여, 홍릉 터에서 522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부산지회와 경북지회가 함께 제1회 부산·경북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엮.
- 12.21. “한글전용국민실천회”를 세움.
- 1969.05.03. 07.05. 09.20. 10.25. 11.29.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 05.15. 『한글』 제143호를 펴냄.
- 10.03. 제2회 부산·경북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엮.

- 10.09. 홍릉 터에서 523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970.03.23. 최현배 이사장 세상 떠남.
- 04.20. 『한글』 제145호를 펴냄.
- 05.01. 문교부 의뢰로 “국어 조사·연구 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을 시작함.
- 06.27. 10.23. 11.14. 연구 발표회를 엮.
- 09.28. 『한글』 제146호를 ‘최현배 선생 기념’ 특집으로 펴냄.
- 10.09. 세종기념관 앞뜰에서 524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0.24. 제3회 부산·경북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엮.
- 11.25. 『한국지명 총람』 충북편을 펴냄.
- 1971.03.23. 서울 장충단공원에 최현배 선생 기념비를 세움.
- 03.25. 『한글』 제147호를 펴냄.
- 04.11.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대폭 개정하고 임원을 개선함(이사장: 허웅).
- 06.08. 09.25. 연구 발표회를 엮.
- 08.23. “국어와 한문 교육에 관한 건의서”를 37개 단체와 함께 냄.
- 09.24. 37개 대표들과 의논하여 “한글전용에 대한 건의서”를 청와대에 냄.
- 10.09. 세종기념관 앞뜰에서 525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0.16. 제4회 부산·경북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엮.
- 12.03. 학회 창립 ‘옛50돌’ 기념식을 가짐.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50돌 기념 논문집』과 『한글전용으로의 길』을 펴냄.
- 12.03.~04. 학회 창립 옛50돌 기념으로 제1회 국제 한국어 학술대회를 엮.
- 12.03.~07. 학회 창립 옛50돌 기념으로 한글도서 전시회, 한글붓글씨 전시회, 한글기계 전시회를 엮.
- 1972.03.30. 『한글』 제1~19호를 1책으로 묶어 영인하여 펴냄.
- 04.30. 『한글』 제149호를 펴냄.
- 07.03. “글자 정책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함.
- 08.18. “한글전용 건의서”를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의장에게 냄.
- 09.05. 월간신문 『한글 새소식』 첫 호를 펴냄(다블로이드판, 4쪽).
- 09.13. 연구 발표회를 엮.
- 10.09. 세종대왕기념관 뜰에서 526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그 때부터 한글학회 이사장 이름으로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을 함.
- 10.15. 제5회 부산·경북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엮.
- 1973.01.05. ‘정부는 강력한 언어 정책을 세워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에서 끌어당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냄.
- 03.23. 최현배 선생 3주기 추도식을 가짐.
- 04.30. 『한글』 제151호를 펴냄.
- 05.12.~13. 576돌 세종날 기념 전국 연구 발표대회를 엮.
- 10.09. 527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한말글운동 유공자를 표창함.
- 10.21. 제6회 부산·경북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엮.

- 12.05. 『한글 새소식』 제16호를 펴냄.
- 1974.04.30. 『한글』 제153호를 펴냄.
 - 05.12. 06.26, 07.26, 09.14. 연구 발표회를 엮.
 - 05.15. 『한국지명 총람』 충남편(상)을 펴냄.
 - 07.11. “국어교육에 대한 성명서”를 냄.
 - 07.22. 한글학회 병설로 “한글문화협회”를 결성함.
 - 08.03. 한글문화협회 대전지부를 결성함. 연이어 인천지부, 부산지부, 전북지부를 결성함.
 - 07.27. 주시경 스승 돌아가신 60돌 추모 행사를 벌임. 홍상 조성, 추모식, 추모 강연.
 - 08.05. 호소문 “언어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당국, 그리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께”를 소책자로 만들어 정부 당국을 비롯한 여러 곳에 배포함.
 - 10.08. 한글문화협회 주최로 서울에서 528돌 한글날 기념 “한글문화 대강연회”를 엮.
 - 10.09. 528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0.12. 김해지회 창립.
 - 10.24. 제7회 부산·경북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엮.
 - 10.26. 인천지회 창립.
 - 11.30. 『한국지명 총람』 충남편(하)를 펴냄.
 - 12.05. 『한글 새소식』 제28호를 펴냄.
- 1975.02.22. 한글문화협회 아래에 “전국 국어운동 고등학생연합회”를 둠.
 - 04.30. 『한글』 제155호를 펴냄.
 - 05.22. 박정희 대통령에게 “글자 정책에 대한 진언서”를 냄.
 - 05.30. 06.27. 한글문화협회 주최로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한글문화 대강연회”를 엮.
 - 07.01. “글자 정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함.
 - 10.04.~05. 광복 50돌 및 529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함.
 - 10.05. 성명서 “우리 모두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밀어가는 일꾼이 됩시다”를 2개 단체와 함께 발표함.
 - 10.08. 서울에서 “한글문화 대강연회”를 한글전용국민실천회와 함께 엮.
 - 10.08.~14. 한글기계화연구소에서 한글기계화 전시회를 엮.
 - 10.09. 덕수궁 세종대왕 동상에 꽃바치기를 함. 529돌 한글날 기념식을 갖고 한말글운동 유공자를 표창함.
 - 10.19. 제8회 부산·경북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엮.
 - 11.29. 12.14. 연구 발표회를 엮.
 - 12.05. 『한글 새소식』 제40호를 펴냄.
- 1976.01.25. 02.29. 03.28. 04.25. 05.30. 06.27. 07.25. 09.26. 11.18. 12.19. 월례 연구 발표회(국어학 연구 분과 모임)를 엮.
 - 01.27. 한글문화협회 울산지부를 결성함.
 - 04.29. 한글기계화연구소 주최로 한글기계화 세미나를 엮.
 - 04.30. 『한글』 제157호를 펴냄.

- 05.03.~04. 서울에서 국어순화 대강연회를 엮. 연이어 7월 15일까지 부산, 전주, 청주, 광주, 대전, 춘천, 수원, 마산에서 엮.
- 05.09. 579돌 세종날 기념으로 제1회 글짓기 대회를 세종 대왕기념사업회와 함께 마련함.
- 05.15.~16. 579돌 세종날 기념 전국 연구 발표대회를 엮.
- 08.15. 이인 선생으로부터 한글회관 건립 성금으로 돈 3,000만 원을 받음.
- 08.20. “한글회관 건립 위원회”를 조직하고, 한글회관 건립 성금 모으기를 대대적으로 벌임.
- 09.16. 한글문화협회 진주지부를 결성함.
- 10.08. 530돌 한글날 기념 ‘국어순화’ 강연회를 엮.
- 10.09. 서울시민회관 별관에서 530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한말글운동 유공자를 표창함. 한글회관 건립 기공식을 가짐.
- 10.16. 마산지회 창립.
- 10.17. 부산·경북·김해·마산지회가 공동으로 제9회 영남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엮.
- 11.06.~07. 주시경 스승 나신 100돌 기념 전국 연구 발표대회 및 추모 강연회를 엮.
- 12.05. 『한글 새소식』 제52호를 펴냄.
- 1977.02.25. 『한글』 제159호를 부산지회에서 특집으로 펴냄.
- 03.27. 04.24. 05.29. 06.26. 07.31. 09.17. 11.27. 12.26.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 04.26. 재단법인 한글기계화연구소를 해산하고, 한글학회에서 다시 넘겨받음.
- 05.05.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356판 간행함.
- 09.30. 『한글』 제160호를 펴냄.
- 10.08. 한글회관 낙성식을 가짐.
- 10.09. 531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0.15.~16. 한글회관 건립 기념 국어국문학 합동 연구발표회를 엮.
- 10.16. 경남지회에서 제1회 국어순화 경시대회를 엮.
- 10.23. 제10회 영남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엮.
- 12.05. 『한글 새소식』 제64호를 펴냄.
- 1978.03.26. 04.30. 06.25. 07.27. 11.19.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 04.05. 『한글 새소식』 제68호의 모양새를 4×6배판으로 바꾸어 펴냄.
- 04.30. 『한글』 제161호를 펴냄.
- 05.13.~14. 581돌 세종날 기념 전국 연구 발표대회를 엮.
- 09.24. “초등학교 영어 교육”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엮.
- 10.04. 일본분회 창립.
- 10.07. 첫 번째 한글기계화 연구모임(발표회)을 가짐.
- 10.09. 532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0.21.~22. 532돌 한글날 기념 전국 연구 발표대회를 엮.
- 10.29. 제11회 영남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엮.

- 12.05. 『한글 새소식』 제76호를 펴냄.
- 12.28. 『한국지명 총람』 경북편 1, 2를 펴냄.
- 1979.01.25.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수정을 결의하고 수정 위원회를 구성함.
- 03.24. 04.28. 06.30. 07.29. 09.29. 11.24. 12.15.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열.
- 03.30. 『한글』 제163호를 1979년 봄치로 펴냄. 이로부터 계간으로 펴냄.
- 05.26. 582돌 세종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열.
- 05.26. 19개 단체와 함께 ‘국민학교 한자교육을 백지화하는 문교부의 방침을 유지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대통령과 문교부 장관에게 냄.
- 09.08. 한글 글자꼴 연구모임을 가짐.
- 09.30. 전남지회 창립.
- 10.09. 533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0.13. 두 번째 한글기계화 연구모임을 가짐.
- 10.20.~21. 533돌 한글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열.
- 10.28. 10.31. 『한국지명 총람』 경남편 1과 경북편 4를 각각 펴냄.
- 11.28. 『한국지명 총람』 경북편 3을 펴냄.
- 10.30. 경북지회에서 『한글 경북』을 창간함.
- 1980.01.04. 03.29. 04.04. 04.26. 06.28. 09.27. 11.29. 연구 발표회를 열.
- 01.28. 제5차 헌법 개정에 즈음하여 “개정 헌법 조문의 표기 및 표현에 대한 건의서”를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냄.
- 03.23. 최현배 선생 10주기 추모식을 가짐.
- 03.30. 『한글』 제167호를 펴냄.
- 04.05. 이인 선생 묘비를 세움.
- 05.10. 583돌 세종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 열.
- 05.17. ‘개정 헌법 표현 문제 협의회’를 열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함.
- 07.30. 『한글맞춤법 통일안－원본 및 고침판 모음－』을 영인하여 펴냄.
- 08.28. 『한글맞춤법 통일안』 수정 위원회의 수정·검토·결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한글 맞춤법』이란 이름으로 펴냄.
- 09.01. 핀란드분회 창립.
- 09.10. 부산지회에서 소식지 『부산 한글소식』을 펴냄.
- 10.09. 534돌 한글날 기념식을 가짐.
- 10.11. 세 번째 한글기계화 연구모임을 가짐.
- 10.25.~26. 534돌 한글날 기념 전국 연구 발표대회 열.
- 10.28. 『한국지명 총람』 경남편 2를 펴냄.
- 11.16. 제12회 영남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열.
- 12.03. 『한글 새소식』 제100호 펴내는 기념식을 가짐.
- 12. 『쉬운말 사전』을 증보하기 위하여 “말다듬기 위원회”를 구성함.
- 12.28. 『한국지명 총람』 경남편 3·부산편을 펴냄.
- 1981.01.24. 말다듬기 위원회 첫 모임을 가짐.

- 03.28. 04.25. 05.16. 06.27. 09.26. 10.31.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 03.30. 『한글』 제171호를 펴냄.
- 10.08. 제13회 영남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엮.
- 10.09.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서울특별시 주관의 535돌 한글날 기념식에 참석한 다음에, 한글회관에서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을 가짐. 대통령에게 한글전용법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기를 바라는 건의서를 냄.
- 10.18. 경남지회에서 제5회 국어순화 경시대회를 엮.
- 12.03. 창립 ‘옛60돌’ 기념식을 가짐. 『50돌 뒤 10년의 한글학회 발자취』를 펴냄.
- 12.03.~04. 창립 옛60돌을 기념하여 제2회 국제 한국어 학술대회를 엮.
- 12.03.~09. 창립 옛60돌을 기념하여 국어학 도서 전시회, 한글서에 작가 초대전을 엮.
- 12.05. 『한글 새소식』 제112호를 ‘학회 창립 옛60돌 기념’ 특집으로 펴냄.
- 12.12. 주시경 선생의 무덤을 국립묘지(서울시 동작동) 제2 국가유공자 묘역으로 옮김.
- 12.16. 창립 옛60돌을 맞이하여 “우리 말과 글을 키우신 스승들(18위)을 위한 합동 추모제전”을 가짐.
- 12.23. 12.28. 『한국지명 총람』 전북편 (상)과 (하)를 각각 펴냄.
- 1982.03.27. 04.24. 06.26. 09.25. 11.27.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 03.30. 『한글』 제175호를 펴냄.
- 05.10. 부산지회에서 논문집 『부산 한글』 창간.
- 05.15. 한글날이 법정 기념일 됨(대통령령 제10824호).
- 05.15.~16. 585돌 세종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엮.
- 08.07. 제14회 영남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엮.
- 08.11. “일본의 역사 교육 거짓꾸미기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나흘 뒤에는 그 성토대회를 가짐.
- 08.15. 『한글맞춤법 통일안(붙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영인하여 펴냄. 『한글 새소식』 합본 2(제68~120호)를 펴냄.
- 09.04. 『한글 새소식』 창간 10돌 기념식을 가짐.
- 09.30. 12.20. 『한국지명 총람』 전남편 (1)과 (2)를 각각 펴냄.
- 10.09. 문화공보부 주관의 536돌 한글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한글회관에서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 및 조선어학회 수난 40돌 기념식을 가짐.
- 10.17. 536돌 한글날 기념 학술 발표대회를 엮.
- 12.03. 학회 안에 “한글풀어쓰기 연구모임”을 만듦.
- 12.05. 『한글 새소식』 제124호를 펴냄.
- 12.22. 건의서 “로마자 표기법은 현행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를 정부에 냄.
- 1983.03.26. 05.28. 06.25. 09.24. 11.26.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 03.30. 『한글』 제179호를 펴냄.
- 05.01. 586돌 세종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엮.
- 06.28. 『한글 새소식』 제1~67호를 1책으로 합본하여 펴냄.
- 08.15. 『한국지명 총람』 전남편(3)을 펴냄.

- 10.09. 537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 및 국어학 연구보조비 전달식을 가짐.
- 10.16. 537돌 한글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엮.
- 11.16. 제15회 영남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엮.
- 12.05. 『한글 새소식』 제136호를 펴냄.
- 1984.01.20. 학회 자체로 “로마자 적기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함.
- 02.21. 『우리말 로마자 적기』를 발표함.
- 03.30. 『한글』 제183호를 펴냄
- 04.27. 06.29. 09.28. 11.30.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 05.13. 587돌 세종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엮.
- 07.06.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대한 종합 의견서”를 발표하고, 문교부에 제출함.
- 09.10. 『고치고 더한 쉬운말 사전』을 펴냄.
- 10.09. 538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 및 국어학 연구보조비 전달식을 가짐.
- 10.14. 538돌 한글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엮.
- 10.20. 『한국지명 총람』 전남편(4)·제주편을 펴냄.
- 11.11. 제16회 영남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엮.
- 12.5. 『한글 새소식』 제148호를 펴냄.
- 1985.03.05. 『한글 새소식』 제151호를 ‘한글전용’ 특집으로 펴냄.
- 03.27. 04.26. 06.28. 09.21. 09.26. 11.28.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 03.30. 『한글』 제187호를 펴냄.
- 05.19. 588돌 세종날 기념 학술 발표대회를 엮.
- 07.25.~27. 제1회 우리 말글 연수회를 엮.
- 10.06. “일제하 국어국문학 5대 저서에 대한 재인식”을 주제로 전국 학술 발표대회를 엮.
- 10.09. 539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 및 국어학 연구보조비를 전달식을 가짐.
- 10.27. 제17회 영남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엮.
- 11.28. 『한국지명 총람』 경기편(상)을 펴냄.
- 12.05. 『한글 새소식』 제160호를 ‘한힌샘 주시경 선생 추모’ 특집으로 펴냄.
- 1986.03.15. 장지영 선생 돌아가신 10돌 추모식을 가짐.
- 03.30. 『한글』 제191호를 펴냄.
- 04.30. 06.26. 08.02. 09.25. 연구 발표회를 엮.
- 05.25. 589돌 세종날 기념 학술 발표대회를 엮.
- 08.05.~08. 제2회 우리 말글 연수회를 엮.
- 08.20. 『한국지명 총람』 경기편(하)·인천편을 펴냄. 이로써 20책 모두를 펴냄.
- 08.30. 『한글 새소식』 합본 3(제121~160호)을 펴냄.
- 09.05. “국어연구소의 ‘한글맞춤법 개정안’ 설문에 대한 성명서”를 냄.

- 10.05. 540돌 한글날 기념 학술 발표대회.
- 10.09. 540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회관에서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과 국어학 연
구보조비 전달식을 가짐.
- 10.09. “주시경 선생 말씀비”를 독립기념관 뜰에 세움.
- 10.09. 『새한글사전』 고친판 제1쇄를 찍어 냄.
- 10.19. 경남지회에서 제10회 국어순화 경시대회를 벌임.
- 11.15. 29개 단체와 함께 “국어교육과 한자 문제”를 주제로 강연회를 엮. 건의서도 냄.
- 12.05. 『한글 새소식』 제172호를 펴냄.
- 12.22. 학회 안에 “한힌샘 (주시경) 연구모임”을 구성함.
- 1987.03.29. “한글전용과 기계화”를 주제로 강연회를 엮.
- 03.29. 정기총회에서 학회 세운 날을 “1908년 8월 31일”로 올려 잡기로 결의함.
- 03.30. “국민학교 한자교육에 대한 건의서”를 냄.
- 04.16. “한글문화단체 모두모임”을 창립함.
- 04.30. 06.25. 09.24. 11.26.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엮.
- 05.04. 한글풀어쓰기 연구 발표회를 엮.
- 05.05. 『한글 새소식』 제177호를 ‘한글전용’ 특집으로 펴냄.
- 05.21. 1,036명이 서명한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대한 건의서”를 정부에 냄.
- 05.30. 590돌 세종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엮.
- 07.05. “개정 헌법의 표기 및 표현에 대한 건의서”를 냄.
- 08.10.~13. 제3회 우리 말글 연수회를 엮.
- 09.30. 『한글』 제197호를 펴냄.
- 10.09. 한글회관에서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과 연구보조비 전달식을 가짐.
- 10.18. 541돌 한글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엮.
- 11.15. 제18회 영남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엮.
- 12.03. 『문학 한글』 첫 호를 펴냄.
- 12.05. 『한글 새소식』 제184호를 펴냄.
- 12.21. 『우리말본』과 『조선 문자급어학사』 펴낸 50돌 축하잔치를 가짐.
- 12.22. 『주시경 선생에 대한 연구논문 모음 1』을 펴냄.
- 1988.02.10.~13. 제4회 우리 말글 연수회를 엮.
- 03.20. 정기총회에서 회칙의 일부를 고쳐 평의원회를 두기로 함.
- 03.31. 04.28. 06.30. 09.29. 11.24. 11.26. 연구 발표회를 엮.
- 05.14. 591돌 세종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
- 05.15. 『한힌샘 연구』 첫 호를 펴냄.
- 06.05. 성명서 “국민학교에서의 한자교육 부활은 천부당만부당하다”를 발표함.
- 06.15. 학회 창립 80돌을 기념하여 “동요 큰잔치”를 엮.
- 06.30. 『한글』 제200호를 ‘제200호 기념’ 특집으로 펴냄.
- 07.07. “한글만 쓰기와 초등학교 국어 교육”을 주제로 특별 연구 발표회를 엮.
- 10.09.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542돌 한글날 기념하여 한말글운동 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010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교재

- 로 표창식과 연구보조비 전달식을 가짐.
- 10.09. 오전 11시에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학회 창립 80돌 기념식을 가짐.
- 10.10.~11. 학회 창립 80돌을 기념하여 제3회 국제 한국어 학술대회를 열. 주제: 세계 각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
- 11.20. 제19회 영남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열.
- 12.05. 『한글 새소식』 제196호를 펴냄.
- 12.07. 울산지회 창립.
- 12.20. 『교육 한글』 첫 호를 펴냄.
- 12.30. 『한글』 제201·202호를 ‘학회 창립 80돌 기념’ 특집으로 펴냄.
- 1989.02.01. ‘한글전용의 문교 정책을 유지하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문교부 장관에게 보냄.
- 02.03. 김윤경 선생 가신 20돌 추모식을 가짐.
- 02.10. 첫 평의원회(51명)를 열.
- 02.15.~17. 제5회 우리 말글 연수회를 열.
- 02.20. “우리 말글 교육 정책 강화에 관한 청원서”를 냄.
- 03.26. 04.26. 05.20. 06.29. 09.28. 11.23. 월례 연구 발표회를 열.
- 04.05. 『한글 새소식』 제200호를 ‘제200호 기념’ 특집으로 펴냄.
- 05.20. “한헌샘의 후계 학자들에 대한 재검토”를 주제로 592돌 세종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열.
- 07.30.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1980)』 합본을 펴냄.
- 10.05. 543돌 한글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열.
- 10.09. 543돌 한글날 기념하여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과 국어학 연구보조비 전달식을 가짐.
- 11.05. 제20회 영남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열.
- 12.05. 『한글 새소식』 제208호를 펴냄.
- 1990.03.23. 최현배 선생 20주기 추모식을 가짐.
- 03.29. 연구 발표회를 열.
- 04.25. ‘한글날을 법정 공휴일에서 빼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대통령에게 냄.
- 05.19.~20. 593돌 세종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열.
- 06.20. 성명서 “민주자유당 최고위원들의 한자교육 강화 발언을 개탄한다”를 발표함.
- 08.09.~11. 제6회 우리 말글 연수회를 열.
- 08.31. 한글학회 창립 82돌 기념 발표대회를 열.
- 10.08. “판소리 사설에 나타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544돌 한글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치름. “우리 말과 글을 위하여 애쓰신 스승(28분)에 대한 추모의 밤”을 열.
- 10.09. 544돌 한글날 기념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 및 연구보조비 전달식을 가짐. 계몽 자료집 『우리 말살이의 바른 길』, 『겨레의 글자살이는 한글만으로!』, 『반문

- 화적·반민족적 처사를 견어치우라』를 펴냄.
- 11.15.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됨(대통령령 제13155호).
- 12.05. “국어학 연구보조비” 제도를 “우수 논문상” 제도로 바꾸기로 결의함.
- 12.05. 『한글 새소식』 제220호를 펴냄.
- 1991.03.23.~24. 정기총회 기념으로 “북한 언어학 연구”를 주제로 연구 발표대회를 열.
- 05.18. 594돌 세종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열.
- 08.31. “옛시가에 나타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연구 발표대회를 열.
- 09.11. 한글날 공휴일 배제를 반대하는 청원서를 노태우 대통령에게 냄.
- 09.30. 『북한 언어학 연구』를 펴냄.
- 10.09.~10. 545돌 한글날 기념하여 제4회 국제 한국어 학술대회를 열. 주제: 외국사람
에 대한 한국어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10.09.~15. “한글도안 상품 큰잔치”를 열.
- 10.13. 경남지회에서 제15회 국어순화 경시대회를 벌임.
- 11.02. ‘10월의 문화 인물’ 주시경 선생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열.
- 12.03. 『한국 땅이름 큰사전』을 펴냄.
- 12.05. 『한글 새소식』 제232호를 펴냄.
- 12.10. “온겨레 한말글이름 큰잔치”를 심사함.
- 12.22. 『우리말 큰사전』 제1권을 펴냄.
- 12.30. 『한글』 제214호를 ‘옛시가에 나타난 우리말의 아름다움’ 특집으로 펴냄.
- 12.30.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펴냄.
- 1992.01. 『우리말 큰사전』 제2권을 펴냄.
02. 『우리말 큰사전』 제3권을 펴냄.
- 02.01. “국민학교 한자교육 반대 건의서”를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등 관계 기관에 냄.
- 03.21. “한자 섞어 쓰기 주장에 대한 비판 대회”를 열.
04. 『우리말 큰사전』 제4권을 펴냄.
- 04.25. 『우리말 큰사전』 출판 기념회 베품.
- 05.29.~30. “초창기 『한글』에 실린 논문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주제로, 595돌 세종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열.
- 08.30. 학회 창립 84돌 기념 연구 발표회를 열.
- 08.30. 학회 창립 84돌 기념식과 함께 『한글』 창간 60돌 및 『한글 새소식』 창간 20돌
기념식을 가짐.
- 09.05. 『한글 새소식』 제241호를 ‘창간 20돌 기념’ 특집호로 펴냄.
- 09.30. 『한글』 제217호를 펴냄.
- 10.01. “조선어학회 수난 50돌 되새김의 밤”을 가짐.
- 10.09. 546돌 한글날 기념 표창식 및 시상식을 가짐.
- 10.31. “미래의 한글”을 주제로 546돌 한글날 기념 연구 발표회를 열.
- 12.05. 『한글 새소식』 제244호를 펴냄.
- 12.20. 『교육 한글』 제5호를 “말하기·듣기 교육”을 주제로 하여 펴냄.

- 1993.01.29. “김영삼 차기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서”를 냄.
- 01.30. 조선어학회 수난 50돌 기념 글모이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흘러』를 펴냄.
- 03.27. 정기총회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엮.
- 04.23. 새 나라 건설을 위한 말글 정책 강연회를 엮.
- 05.15. 596돌 세종날 기념 연구 발표회를 엮.
- 07.01. 특별 연구 발표회를 엮.
- 07.29.~31. 제7회 우리 말글 연수회를 엮.
- 08.20. 『한힌샘 주시경 연구』 제5·6호를 ‘김두봉 선생 연구’ 특집으로 펴냄.
- 08.31. 학회 창립 85돌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엮.
- 10.09. 한힌샘 주시경 선생 얼굴상(흉상)을 한글회관 출입문 옆에 세움.
- 10.09. 547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과 각종 시상식을 가짐. 제1회 ‘한힌샘 주시경 상’을 시상함.
- 10.09. 흑룡강분회(중국) 창립.
- 10.16. “외술의 국어학과 그 영향”을 주제로 547돌 한글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엮. 최현배 선생 글모이 『앞으나 서나 겨레 생각』을 펴냄.
- 11.06. 제2회 온겨레 한말글이름 큰잔치 시상식을 가짐.
- 11.27. 한글풀어쓰기 연구 발표회를 엮.
- 12.05. 『한글 새소식』 제256호를 펴냄.
- 12.23. 성명서 “21세기 위원회의 어문정책 건의를 반박한다”를 발표함.
- 12.30. 『한글』 제222호를 ‘북한 언어학 연구’ 두 번째 특집으로 펴냄.
- 1994.02.28. “지금 이 어느 땐데 한자타령이냐!”라는 주제로 21세기 말글정책 강연회를 엮.
- 03.26. 정기총회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엮.
- 03.26. 정기총회에서 회칙의 일부를 고쳐, 학회 이사장을 ‘회장’이라 부르고 ‘부회장’ 약간 명을 두기로 함.
- 05.01. 홍보 자료집 『‘고통의 문자’ 왜 부활시키려 하는가?』를 펴냄.
- 05.14. 597돌 세종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엮.
- 05.25. “서울 시청 현판에 대한 건의서”를 서울시장에게 냄.
- 05.27. 국민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을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냄.
- 06.09. 김윤경 선생 나신 100돌 기념 강연회를 엮.
- 07.20. 『훈민정음』 해례본 영인본을 새로 찍음. 1946년 초판의 인쇄상의 잘못을 바로 잡고 이용에 편리하게 함.
- 07.28.~30. 제8회 우리 말글 연수회를 엮.
- 08.31. 한글학회 창립 86돌 기념 연구 발표회를 엮.
- 09.25. 『교육 한글』 제7호를 ‘수학능력 시험에 관한 평가와 전망’ 특집으로 펴냄.
- 09.30. 『한글』 제225호를 ‘한글학회 부산지회 창립 30돌 기념’ 특집으로 펴냄.
- 10.06. “외술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주제로 최현배 탄생 100돌 기념 강연회를 엮.
- 10.08.~12. 중국 상하이 외국어대학교에 한국어과가 설치됨에 따라 관계자 5명을 초청하여 교류 방안 협의함.

- 10.09. 548돌 한글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열. 548돌 한글날 기념하여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 및 시상식을 가짐. 『한글』 영인본 새로 간행함.
- 10.19.~31. ‘한글학회 한글정보’(PC통신 ‘하이텔’) 개설 기념으로 누리그물(인터넷)에서 “우리말 짜맞추기(우리말 퍼즐) 큰잔치”를 열.
- 10.29. “옛소설에 나타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특별 연구 발표회를 열.
- 12.05. 『한글 새소식』 제268호를 펴냄.
- 12.22. 한글풀어쓰기를 주제로 연구 발표회를 열.
- 12.30. 『한글』 제226호를 펴냄.
- 12.31. 『문학 한글』 제8호를 ‘이병기 선생 연구’ 특집으로 펴냄.
- 1995.01.25. 『한힌샘 주시경 연구』 제7·8호를 ‘최현배 · 김윤경 선생 나신 100돌 기념’ 특집으로 펴냄.
- 03.25. 정기총회 기념 연구 발표회를 열.
- 03.25. 정기 평의원회 및 총회를 열어 임원을 개선함.
04. ‘국민학교 영어교육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함.
- 05.12. 598돌 세종날 기념 연구 발표회를 열.
- 06.30. 『국어학 사전』을 펴냄.
- 07.30. 『교육 한글』 제8호를 전국 현장연구 대회에서 뽑힌 국어과 우수 논문들을 모아 특집으로 펴냄.
- 08.10. 재단 이사회를 열어 이진우를 새 감사로 선임함.
- 08.31. 학회 창립 87돌 기념 연구 발표회를 열.
- 09.30. 『한글』 제229호를 펴냄.
- 10.08. 제21회 영남지구 합동 연구발표회를 열.
- 10.09.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 우수 논문상 시상식, 한힌샘 주시경 상 시상식, 온겨레 한말글이름 큰잔치 시상식을 가짐.
- 10.9.~15. 549돌 한글날 및 광복 50돌을 기리어 “한글사랑 나라사랑 전시회”를 열. 이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한글 타자 속도 자랑하기” 대회도 함께 베풀.
- 10.13. 549돌 한글날 기념 발표대회를 열.
- 12.26.~28. 제9회 우리 말글 연수회를 열.
- 12.27. “초창기 『한글』(제10~30호)에 실린 글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주제로 연구 발표대회를 열.
- 1996.01.01. 국어와 사회과 교과서에서 괄호 안에 한자를 넣기로 한 교육 개혁 방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성명서를 냄.
- 02.01. 전자 한국어사전 『훈글 우리말큰사전』(시디-롬)을 펴냄.
- 03.29. 장지영 선생 가신 20돌 추모 강연회를 열. 평의원회에서 평의원 10명을 보충함. 모두 54명이 됨.
- 05.17. 599돌 세종날 기념 연구 발표회를 열.
- 05.25. 『한힌샘 주시경 연구』 제9호를 ‘한글사랑 나라사랑’ 특집으로 펴냄.
- 06.10. 광복회와 함께, ‘옛 조선총독부 청사를 이전 · 복원하려는 일부 세력의 움직임’

- 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성명서를 냄.
08. 대전지회에서 『한발 한글』을 창간함.
- 08.31. 학회 창립 88돌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열.
- 10.09. 누리그물(인터넷)에 한글학회 누리집(<http://www.hangeul.or.kr>)을 열.
- 10.09. 550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 온겨레 한말글이름 큰잔치, 우수 논문상 시상식, 한헌샘 주시경상 시상식을 가짐.
- 10.13. 경남지회 주최 제20회 국어순화 경시 대회를 열.
- 10.14.~15. 550돌 한글날 기념으로 제5회 국제 한국어 학술대회를 열. 주제: 세계 각국의 한국어 연구 현황과 교육 방향.
- 10.29. '10월의 문화 인물'로 선정된 정인승 선생 기념 강연회를 열.
- 12.08. “국어학 연구 성과와 미래의 연구 방향”이란 주제로 부산·경북·김해·마산지회와 전남·전북지회가 공동으로 동아대학교에서 영남·호남지구 합동 연구 발표대회를 열.
- 12.10. 국어 교육에 관한 건의서를 냄.
- 12.16. 『국어학 자료은행 편람』 I~IV권을 펴냄(국어학 논문 20,375편). “국어학 자료은행 찾아보기”(시디-롬 타이틀) 만들. 누리집에 자료 실음.
- 1997.03.29. 정기총회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열.
- 05.05. 『한글 새소식』 제297호를 ‘세종 대왕 나신 600돌 기념호’로 펴냄.
- 05.23. 세종대왕 나신 600돌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열.
- 06.01. 건의서 “각급 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를 제출함.
- 07.07.~19. 제1회 “국외 한국어교사 연수회”를 열. 16개 나라에서 36명 참가.
- 08.05. 『한글 새소식』 제300호를 ‘제300호 기념’ 특집으로 펴냄.
- 08.30. 학회 창립 89돌 기념 연구 발표대회 개최. 『한글 새소식』 제300호 펴낸 기념식을 가짐.
- 09.30. 『한글』 제237호를 ‘북한 언어학 연구’ 세 번째 특집으로 펴냄.
- 10.09. 551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과 우수 논문상 시상식, 온겨레 한말글이름 큰잔치 시상식을 가짐.
- 10.13.~14. 세종대왕 나신 600돌 기념으로 제6회 국제 한국어 학술대회를 열.
- 11.01.~12.31. 중국 동포에게 책 보내기 운동을 펼침.
- 11.14. ‘10월의 문화 인물’로 뽑힌 장지영 선생 기념 강연회를 열.
- 12.25.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영인본과 『훈민정음: 옮김과 해설』을 펴냄.
- 1998.01.22. 성명서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자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를 발표함.
- 02.26. 정기 평의회에서 임원을 개선함.
- 06.05. 『문학 한글』 제11·12호를 ‘정병욱 선생 연구’ 특집으로 펴냄.
- 07.13.~25. 제2회 국외 한국어교사 연수회를 열. 18개 나라에서 35명 참가.
- 09.30. 『한글』 제240·241호를 ‘한글학회 창립 90돌 기념’ 특집으로 펴냄.
- 10.09. 552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 우수논문상 시상식, 온겨레

- 한말글이름 큰잔치 시상식을 가짐.
- 10.09.~22. 특별 전시회 “한글의 역사와 미래”를 ‘예술의 전당’에서 옴.
- 10.17.~18.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를 옴.
- 10.30. 『한힌샘 주시경 연구』 제10·11호를 ‘정태진 선생 연구’ 특집으로 펴냄.
- 12.30.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한국 땅이름 전자사전』(시디-롬)을 냄.
- 1999.02.10. 정부 종합청사와 문화관광부 앞에서 한자병용 반대 시위를 가짐.
- 03.01.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마산에서 동시에 “우리 말글문화 독립 선언 선포식”을 가짐.
- 03.27. 진주시회 창립.
- 05.21. 602돌 세종날 기념 연구 발표회를 옴.
- 07.05. 청원서 “법률도 이제 한글전용을 해야 합니다”를 냄.
- 07.09. “한글날 국경일 제정 공청회”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옴.
- 07.12.~24. 제3회 국외 한국어교사 연수회를 옴. 24개 나라에서 46명 참가.
- 08.27. “초등학교 한자 교육의 문제점”을 주제로 연구 발표대회를 옴.
- 09.05. 제1회 ‘외국인 한국어 발표대회’를 옴. 21명 참가.
- 10.09. 『교육 한글』 제11·12호를 “초등학교 한자 교육의 문제점” 특집으로 펴냄.
- 10.09. 553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과 각종 시상식을 가짐.
- 10.28. ‘10월의 문화 인물’로 뽑힌 최세진 선생 기념 특별 발표회를 옴.
- 12.30. 『깊고 더한 쉬운말 사전』을 펴냄.
- 2000 03.23. 최현배 선생 30주기 추모식 및 강연회를 옴.
- 05.13. 황현정(아나운서)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하고 홍보 활동을 펼침.
- 05.15. 영어 공용화 반대 성명서 “우리 말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를 발표함.
- 05.25. ‘한글날 국경일 제정’ 청원서를 28개 단체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냄.
- 05.27. 603돌 세종날 기념 연구 발표회를 옴.
- 06.10. 오미희(연기자)를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하고 홍보 활동 펼침.
- 06.19. 성명서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은 절대 안 된다”를 발표함.
- 07.03.~15. 제4회 국외 한국어교사 연수회를 옴. 25개 나라에서 45명 참가.
- 07.10. 정은아(방송인)를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07.20. 국어사랑 전국 어린이 웅변 대회를 한글회관 강당에서 옴.
- 08.16. 한국 가곡 작사가협회를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08.24. 한글학회 창립 92돌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옴.
- 09.19. 세종 한글서에 큰뜻모임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09.22. 국제 한글음성기호를 주제로 특별 발표회를 옴.
- 10.08. 정재환(방송인)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10.09. 554돌 한글날을 맞아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 한힌샘 주시경 상 시상, 온겨레 한말글이름 큰잔치 시상 등의 식을 가짐.
- 10.30. ‘10월의 문화 인물’로 뽑힌 유희 선생 기념 특별 발표회를 옴.
- 11.17. 배한성(성우)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11.30. 국회도서관에서 ‘한글날 국경일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엮.
- 12.16.~23. 중국 상하이 외국어대학 국제교류단 일행을 초청함.
- 12.18. 남·북한 언어 문제 토론회를 한글회관 강당에서 엮.
- 12.28. 한글날 국경일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이홍렬(방송인)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12.30. 『교육 한글』 제13호를 ‘남북한 언어 문제’ 특집으로 펴냄.
- 2001.03.12. 성명서 “EBS는 교육 방송이 아니라 영어 방송인가?”를 발표함.
- 03.17. 정기 평의원회 및 총회를 열어 임원을 개선함. 우리말 살리는 거래모임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05.12. 604돌 세종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엮. 누리그물 한말글 모임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05.26. 음식점 “섬마을밀밭집”(서울시 세종로)에 첫 번째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이름’ 선정패를 달아 줌.
- 06.02. 제1회 “세계 한국말인증시험”을 치름.
- 06.21. 음식점 “샘이깊은물”(화성시)에 두 번째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이름’ 선정패를 달아 줌. 연이어 9월 25일에는 음식점 “주거니만거니”(대전시 가수원동), 10월 13일에는 신발·가방가게 “신고메고”(진주시 신안동), 12월 6일에는 음식점 “비둘기둥지”(서울시 마포구), 12월 21일에는 운동화끈 제조 회사 “매니푸니”(춘천시 동면)에 선정패를 달아 줌.
- 07.02.~14. 제5회 국외 한국어교사 연수회를 엮. 28개 나라에서 46명 참가.
- 09.14. 중국 상하이에서 “제2회 중국 대학생 한국어 연설 대회”를 엮.
- 09.27. 555돌 한글날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엮.
- 09.30. 『한글』 제253호를 펴냄.
- 10.07.~13. 중국 대학생 한국어 연설 대회 수상자들을 초청함.
- 10.09. 555돌 한글날을 맞아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 아홉째 온겨레 한말글이름 큰잔치 시상식을 가짐. 우리사상연구소를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10.28. 제3회 외국인 한국어 발표대회를 엮. 11개 나라 사람 33명 참가.
- 12.15. 『우리 토박이말 사전』을 펴냄.
- 12.15.~16.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를 엮.
- 12.28. 송년 잔치를 겸하여 『우리 토박이말 사전』 출판 기념 모임을 가짐.
- 2002.01.29. 한글 인터넷 주소 추진 총연합회(<http://www.hiau.org>) 출범에 참여함.
- 02.22.~03.05. 유럽 지역 한국어학교 순회 강연회를 엮.
- 04.10. 건의서 “어린이에게 한자의 명예를 썩우려는 망동을 중단하라!”를 대통령에게 냄. 학회 누리집에 대화방을 설치함.
- 05.10. 605돌 세종날을 기념하여 “초등학교 한자교육이 웬 말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엮. 한글문화연대와 한말글사랑 한말모임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05.18. 세계 한국말인증시험을 실시함.
- 06.30. 『한글』 제256호를 ‘창간 70돌 기념’ 특집으로 펴냄.

- 07.08.~20. 제6회 국외 한국어교사 연수회 열. 30개 나라에서 44명 참가.
- 07.12. 이금희(방송인)를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07.30. 음식점 “술내음”(고양시)에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이름’ 선정패를 달아 줌. 9월 10일에는 “하늘과 땅 사이”(광주광역시 쌍촌동), 9월 28일에는 안경점 “낮엔 해 처럼 밤엔 달처럼”(부산시 주례3동), 10월 12일에는 음식점 “에나 만나”(진주시), 12월 9일에는 출판사 “씨앗을 뿌리는 사람”(서울시 논현동), 12월 28일에 “이야기 마을”(인천시 운연동)에 선정패를 달아 줌.
- 08.31. 한글학회 창립 94돌 기념식 및 『한글』 창간 70돌, 『한글 새소식』 창간 30돌 기념식과 발표회를 열. 이 자리에서 정갑주(한글운동가)를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10.09. 556돌 한글날을 맞아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과 열 번째 온겨레 한말글이름 큰잔치 시상식, 외국인 한국어 발표 대회, 전국 어린이 글쓰기 대회 시상식을 가짐. 박병순(시조시인)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11.02. 한겨레신문사와 함께 “21세기 언어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
- 11.25. 『한힌샘 주시경 연구』 제14·15호를 ‘신숙주 선생 연구’ 특집으로 펴냄.
- 11.28. 국어 관련 단체, 학자·출판인들과 함께 영어 회사이름을 규탄하고 관련 회사 ‘KT’·‘KB’ 등을 법원에 소송함.
- 11.30.~12.01. 부산대학교에서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를 열.
- 12.30. 『한글』 제258호, 『교육 한글』 제15호, 『문학 한글』 제15·16호를 펴냄.
- 2003.01.28. 스위스 취리히 한국학교 교사와 학부모, 한인회 관계자들이 “한글을 세계로!” 운동 성금 2,158,732원을 보내 음.
- 05.31. 606돌 세종날 기념 연구 발표회를 열. 신기남(국회의원)과 정의순(수녀)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06.28. 세계 한국말인증시험을 실시함.
- 06.30. 『한글』 제260호를 펴냄. 『한힌샘 주시경 연구』 제16호를 ‘양주동 선생 연구’ 특집으로 펴냄.
- 06.30.~07.12. 제7회 국외 한국어교사 연수회를 열. 28개 나라에서 45명 참가.
- 07.30. 음식점 “맑은 바닷가의 나루터”에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이름’ 선정패를 달아 줌. 9월 5일에는 생활한복집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서울시 회기동), 10월 11일에는 “돌실나이”(진주시), 10월 31일에는 “소꼴 베너 가는 날”(의정부시), 12월 9일에는 종합식품회사 “해찬들”(논산시), 12월 24일에는 음식점 “호박이 넣 쿨쎄”(경북 의성군)에 선정패를 달아 줌.
- 09.26.~27. 한글학회 창립 95돌 기념 연구 발표대회를 열.
- 10.09. 557돌 한글날을 맞아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 열한 번째 온겨레 한말글이름 큰잔치 시상식 등을 가짐. 김태웅(법제처 서기관)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10.26. 제5회 외국인 한국어 발표대회를 열. 9개 나라 사람 25명 참가.
- 11.07. 성명서 “법률의 한글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를 발표함.
- 12.20. 우수 논문상 시상식을 가짐. 이판정(네티피아닷컴 대표이사)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12.26. 겨울철 정기 연구 발표회를 엮.
- 12.30. 『한글』 제262호와 『문학 한글』 제17호를 펴냄.
- 2004.01.14. 경제 5단체 한자 시험 추진 반대 성명서인 “경제 5단체는 한자 시험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를 발표함.
- 01.26. 눈피 허 웅 회장 돌아가심.
- 01.30. 『한한샘 주시경 연구』 제17호를 ‘유길준 선생 연구’ 특집으로 펴냄.
- 02.05. 재단법인 한글학회에서 이사회를 열어 김계곤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허 황을 새 이사로 뽑음.
- 03.13. 정기 평의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개선하고,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김계곤 이사를 새 회장으로 뽑음.
- 03.23. 이사회를 열어 부회장에 김석득·김승곤을 뽑음.
- 03.27. 봄철 한글학회 정기 연구 발표회를 엮.
- 04.05. 성명서 “‘서울시의 영어 공용화 추진’ 당장 중단하라!”를 발표함.
- 05.14. 이수열(국어순화연구소 소장)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05.15. 『주시경에 대한 연구논문 모음 2』를 펴냄.
- 05.24. 성명서 “서울시 버스를 로마자로 꾸미는 데 대해”를 발표함.
- 06.03. 건의서 “국회 보람(배지)을 한글로 바꾸어 주십시오!”를 경제정의실천연합과 공동으로 냄.
- 06.24.~25. 한말대학교에서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를 엮. 이종태(아나운서)를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07.05.~17. 제8회 국외 한국어교사 연수회를 엮. 29개 나라에서 46명 참가.
- 07.08. 어린이집 “아이꿈터”(서울시 우이동)에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이름’ 선정패를 달아 줌. 8월 23일에는 음식점 “들뢰바다”(서울시 여의도동), 10월 9일에는 “나또래 어린이집”, 12월 17일에는 “생각이 자라는 숲”(강원 평창군 봉평면)에 선정패를 달아 줌.
- 08.31. 창립 96돌 기념식을 가짐. 박인숙(아나운서)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09.04. 서울 여의도공원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제1회 “전국 한글이름 가진 이 글짓기 대회” 엮.
- 09.10. 중국 상해외대 강당에서 “2004년 중국 대학생 한국어 연설 대회”를 엮.
- 09.22. 영어 상용화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냄.
- 09.30. 『한글』 제265호를 펴냄.
- 10.09. 558돌 한글날을 맞아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과 전국 한글이름 가진 이 글짓기 대회 상 드리는 식 등 각종 시상식을 가짐. 김명수(전북 주산우체국장)를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10.16. 건국대학교(서울)에서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를 엮.
- 10.24. 제6회 외국인 한국어 발표대회를 엮. 19개 나라 사람에서 38명 참가.
- 10.31. 세계 한국말인증시험 치름.

- 12.04. 겨울철 정기 연구 발표회와 우수 논문상 시상식을 가짐. 이상만(고양문화재단 총감독)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12.20. 학회 부설 세계 한국말인증시험 위원회(KLPT)가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서 일본의 전교신 그룹과 함께 ‘케이.엘.피.티. 일본지부’ 설립 기념식을 가짐. 그 자리에서 가수 류(본명: 민관홍)를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12.30. 『한글』 제266호를 펴냄. 『한글』이 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됨.
- 2005.01.26. 허웅 선생 1주기 추모식을 갖고 묘비를 세움.
- 02.21. 세종문화회관에서 “광화문 한글 현관 지키기 토론회”를 엮.
- 03.25. 추모 문집 『눈피 허웅 선생의 삶』을 펴냄.
- 04.02. “세계 한국말인증시험 위원회”가 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제 시행에 따른 ‘한국어 능력 시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됨.
- 05.14. 권혁채(전직 초등교장)를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05.15. 한글문화단체 모두모임의 이름으로 ‘겨레 말글의 건강한 발전을 기원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함.
- 05.21. 건국대학교(서울)에서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를 엮.
- 06.02.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국어상담소 운영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엮.
- 07.04.~16. 제9회 국외 한국어교사 연수회를 엮. 32개 나라에서 45명 참가.
- 07.13. 이참(참스마트 대표이사)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07.25. “저녁바람이 부드럽게”(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이름’ 선정패를 달아 줌. 9월 28일에는 미용실 “머리에봄”(서울시 내수동), 10월 8일에는 “예뻐”(진주시 신안동), 11월 09일에는 미술학원 “하얀 종이 위에”(대전시 도마1동), 12월 15일에는 동물병원 “보드미”(충주시 교현동), 12월 29일에는 음식점 “언덕말”(경기 여주군 교리)에 선정패를 달아 줌.
- 08.31. 한글학회 창립 97돌 기념식을 가짐. 참말로(인터넷 신문)를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또 ‘한글학회 창립 100돌 기념사업회’의 부서와 인적 구성 확정하고 학회 부설 “한말글문화협회”가 다시 일어섰음을 공포함.
- 09.11. 인도네시아와 몽골에서 세계 한국말인증시험을 치름.
- 10.05. 한샘닷컴과 함께 세종문화회관 분수대 광장에서 ‘한글무늬옷’ 입기 운동을 펼침.
- 10.09. 559돌 한글날을 맞아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 및 각종 시상식을 가짐. 송귀현(한국학원총연합회 전북지회장)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10.15. 상명대학교(서울)에서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를 엮.
- 10.26. 한글날 국경일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의장에게 냄.
- 11.27. 몽골에서 세계 한국말인증시험을 치름.
- 12.17. 학회 부설 한말글문화협회가 “한말글문화협회 다시 일으키는 잔치”를 엮. 그 자리에서 서영진(한샘닷컴 대표이사)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12.18.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한국말인증시험을 치름.
- 12.29. 『우리말사전』 간행함.

- 12.29. 한글날이 법정 국경일이 됨(법률 제7771호).
- 12.30. 『한글』 제270호를 펴냄.
- 2006.03.08. 행정자치부 ‘행정언어 운용실태 진단’ 용역 사업을 시작함.
- 03.25. 정기 평의원회 및 회원총회를 열어 회칙을 전면 개정함.
- 04.09. 베트남에서 세계 한국말인증시험을 치름.
- 04.15.~16. 한말글문화협회가 평택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임직원과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2006년 봄 모꼬지’ 행사를 가짐.
- 04.23. 베트남에서 세계 한국말인증시험을 치름.
- 05.13. 경기대학교(서울)에서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를 열.
- 05.14. 덕수궁 안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관련 단체들과 함께 꽃바치기 행사를 가짐.
- 05.23. 성명서 “초등학교 영어교육 확대 방안은 교육과 나라를 망치는 잘못된 교육정책이다”를 발표함.
- 06.02.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연구 용역 사업을 시작함.
- 06.03.~04. 몽골에서 세계 한국말인증시험을 치름.
- 06.16. 한샘닷컴과 함께 ‘한글무늬옷’ 입기 운동으로 제8회 한글무늬옷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가짐.
- 06.23.~25.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와 함께 ‘취업 및 유학 박람회’(중국 청도)를 열. 그 자리에서 장나라(가수 겸 영화배우)를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07.02.~15. 제10회 국외 한국어교사 연수회를 열. 30개 나라에서 41명.
- 07.13. 이광연(뉴스진행자)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07.18. “뚝배기 탁배기”(서울시 대치동)에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이름’ 선정패를 달아 줌. 9월 28일에는 출판사 “글나라”(서울시 연지동), 10월 9일에는 “햇빛 속으로”(진주시 평거동), 10월 20일에는 음식점 “버금자리”(부산시 장전동), 12월 15일에는 도자기 공방 “흙이랑”(인천시 수산동), 12월 19일에는 문구점 “우리누리”(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선정패를 달아 줌.
- 08.30. 한글회관 지하 강당 ‘얼말글교육관’을 개관함.
- 08.31. 얼말글교육관에서 학회 창립 98돌 기념식을 가짐. 정두언(국회의원)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10.09. 국경일로 승격한 뒤 첫 한글날(560돌)을 맞아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식과 전국 한말글이름 가진 이 글짓기 대회 시상식, 제2회 휴대전화 쪽글 자랑 한마당 시상식 등 각종 시상식을 가짐. 박주웅(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10.09. 경남지회에서 제30회 국어순화 경시대회를 열.
- 10.21. 부산대학교에서 560돌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를 열.
- 11.8. 법제처 용역 과제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수행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함.
- 12.02. 홍콩 중문대학교 전업진수학과와 함께 홍콩 중문대학교 교정에서 “제2회 한국

- 어 말하기 대회”를 엮.
- 12.18. 김리박(일본 오사카 거주)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2007.02.24. 전남대학교에서 전남지회와 대구지회가 공동으로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를 엮.
- 02.25.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한국말인증시험을 실시함.
- 03.17. 정기 평의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개선함. 이어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김승곤 이사를 회장으로, 김석득 이사를 부회장으로 뽑음.
- 03.30. 『한글』 제275호를 펴냄.
- 04.28. 충남지회 창립.
- 04.30. 우리 학회와 한글문화연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노원구의 영문자 간판 의무 시행령 철회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 05.14. 손범규(아나운서)를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05.26. 공주대학교에서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를 엮.
- 07.01.~14. 제11회 국외 한국어교원 연수회를 엮. 23개 나라에서 35명이 참가.
- 07.24. 음식점 “숲속의 산새둥지”(전남 영암읍 개신리)에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이름’ 선정패를 달아 줌. 8월 29일에는 음식점 “달의 뒤편”(서울시 인사동), 10월 6일에는 전통옷집 “우리옷 고우리”(진주시 대안동), 10월 23일에는 어린이집 “아이자 람터”(부산시 장전동), 11월 9일에는 식물원 “꽃내음 풀내음”(대구시 서변동), 12월 26일에는 “해가빛”(포천시 이동교리)에 선정패를 달아 줌.
- 08.31. 창립 99돌 기념식을 가짐. 그 자리에서 성제훈(농촌진흥청 연구사)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09.05. 『한글 새소식』 첫 쪽에 실는 “우리의 주장”을 고쳐 실음.
- 09.11.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외솔회와 함께 “561돌 한글날 대한민국 큰잔치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치름.
- 09.12.~21. 2007년 국외 한국어교원 초청 교육을 실시함. 9개 나라에서 34명 참가.
- 09.30. 『한글』 제277호를 펴냄.
- 10.09. 561돌 한글날을 맞아 한말글운동 공로 표창, 전국 한말글이름 가진 이 글짓기 대회 시상, 휴대전화 쪽글 자랑 한마당 시상 등의 식을 가짐. “두 번째 국경일을 맞는 한글날에 밝히는 시국 성명서”를 국립국어원 등과 발표함. 그 자리에서 배상복(중앙일보 어문연구소 부장)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10.13. 우리말의 토씨를 주제로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를 엮.
- 11.10. 경북대학교에서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를 엮.
- 11.25.~12.05. 2007년 국외 한국어교원 초청 교육을 실시함.
- 11.26.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진주시회에서 모두 4200여 가게이름을 조사하여 실태를 분석한 『2007 가게이름 조사 보고서』를 펴냄.
- 12.20.~2008.01.11. 한글학회 교양강좌 제1기 과정을 엮.
- 12.27. 강제형(아나운서)을 우리 말글 지킴이로 위촉함.
- 2008.01.30. ‘한글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제1편으로 『주시경』을 펴냄.
- 02.04. 건의서 “과격하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의 폐해를 우려하며”를 제17대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함.

- 02.12.~21. 한글학회 교양강좌 제2기 과정을 엮.
- 03.25. 성명서 “제18대 국회 의원 후보와 정당에 바란다”를 발표함.
- 03.25.~05.13. 한글학회 교양강좌 제3기 과정을 엮.
- 04.23. 학회 창립 100돌을 맞이하여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짐.
- 05.10. 611돌 세종날과 학회 창립 100돌을 기념하여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를 엮. 주제: 한글학회 100년을 빛낸 학자들의 학문 세계.
- 05.14. 덕수궁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관련 단체들과 함께 꽃바치기 행사를 가짐.
- 05.24. 제5회 전국 한말글이름 가진 이 글짓기 대회를 전국 4개 도시에서 동시에 엮.
- 06.30. 『한글』 제280호를 펴냄.
- 07.27.~08.09. 제12회 국외 국어교원 연수회를 엮. 26개 나라에서 34명 참가.
- 08.22. 학회 창립 100돌을 맞이하여, 한글회관에서 “한글학회를 이끈 스승 추모전”을 엮.
- 08.25.~10.15. 학회 창립 100돌 기념으로, 세종대왕기념관에서 국어학 자료 특별전과 한글 서예전을 엮.
- 08.26. “쌈지길”(서울시 관훈동)에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이름’ 선정패를 달아 줌. 10월 9일에는 “흙담”(사천시 흑벽동), 10월 17일에는 음식점 “아랫목 김밥”(전주시 덕진동), 11월 2일에는 “예다움”(제주시 이도동), 12월 16에는 “해든터”(과주시 광탄면), 12월 30일에는 “고마나루돌쌈밥”(공주시 금성동)에 선정패를 달아 줌.
- 08.29.~30.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에서 학회 창립 100돌 기념으로 제7회 국제 한국어 학술대회를 개최함. 주제: 한글학회 100돌과 우리 말글의 미래.
- 08.30. 학회 창립 100돌 기념식을 가짐.
- 08.31. 한글학회 창립 100돌을 맞이하여, 국어연구학회 창립총회(1908년 8월 31일)를 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봉원사 경내에 한글학회 창립 기념 표지석을 세움.
- 10.05. “제10회 외국인 한국어 발표 대회”를 엮. 6개 나라에서 22명이 본선에 올라 겨룸.
- 10.09. 562돌 한글날을 맞아 얼말글교육관에서, 한글학회 재단 발전 공로 기립, 우리 말글 공로 표창, 내가 만든 한글사랑 작품(UCC/표어 공모) 잔치 시상, 휴대전화 쪽글 자랑 한마당 시상 등의 식을 가짐.
- 11.23.~12.03. “2008년 국외 한국어교원 초청 교육”을 엮. 7개 나라에서 18 사람이 참가함.
- 12.01. 서울시 삼청각에서 캐슬린 스티븐스(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하여 3명을 한글 홍보대사로 위촉함.
- 12.03.~07. 일본 오사카 한국문화원 전시실에서, “한글, 피어나다”를 주제로 한글사랑 국외 순회 전시회를 엮.
- 12.12.~17. 일본 도쿄 신주쿠 파크타워에서 한글사랑 국외 순회 전시회를 엮.
- 2009.01.05. 한글학회 누리집(www.hangeul.or.kr)을 정비하여 새롭게 엮.
- 01.13. “초등학교 한자교육 반대 성명서”를 발표함.

- 03.16.~04.30. “제1회 우리말 화장품 이름 공모전”을 엮.
- 03.30. 『한글』 제283호를 펴냄.
- 05.12. 한글 관련 단체들과 함께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한글문화관을 건립해서 새 민족문화 부흥 시대를 열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한글문화관 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 05.16. “북한 언어 연구”라는 주제로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를 엮.
- 05.18. 학회 부설 한말글문화협회의 새 대표로 이대로를 임명함.
- 05.30. 한글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2편 『외술 최현배』, 3편 『건재 정인승』을 펴냄.
- 06.20. 07.18. 09.08. 11.21. 12.19. 한말글문화협회에서 월례 정책 토론회 ‘한말글 사랑 이야기 마당’을 엮.
- 06.30. 한글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3편 『고루 이극로』를 펴냄.
- 08.24.~09.20.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과 함께 “한글 상상 순수제작물(UCC)” 공모전을 엮.
- 08.31.~10.31. 학회 창립 101돌 기념식을 올리고 한글서에 전시 및 한글을 빛낸 스승 전 개막식을 가짐.
- 09.02.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공공기관 누리집의 잘못된 언어 사용을 조사하여 바로잡을 “한글사랑 지원단”(전국의 젊은 일꾼 50여 명) 발대식을 가짐.
- 09.15.~18. 제5회 휴대전화 쪽글자랑 한마당을 엮.
- 10.06.~16. 제13회 국외 한국어 교원 연수회(18개 나라에서 28 사람이 참가)와 2009년 국외 한국어교원 초청 교육(24 사람이 참가)을 함께 엮.
- 10.08.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한글상상 순수 제작물(UCC) 공모 시상식을 가짐. 그 자리에서 한글문화관 건립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짐.
- 10.09. 563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 말글 운동 공로 표창, 휴대전화 쪽글 자랑 한마당 시상, 제1회 우리말 화장품이름 한글맵시 공모전 시상의 식을 가짐.
- 10.10. “키큰나무 작은풀숲”(진주시 금산면)에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이름’ 선정패를 달아 줌.
- 10.31. 동의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어 문화”라는 주제로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를 엮.
- 11.23. 학회와 한글 관련 단체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을 ‘한글 우선 사용 지역’ 선포식을 가짐.
- 2010.01.16. 한글문화단체 모두모임과 함께 “2010년 한말글 지키기 다짐 모임”을 가짐.
- 01.22. 『한글학회 100년사』 출판 기념회를 가짐.
- 02.10. 『국외 한국어 교원 초청 연수 백서』를 펴냄.
- 02.10. 건의문 “새로 짓는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달아 주십시오.”를 문화재청에 건의함.
- 02.20. 03.25. 04.23. 06.26. 07.31. 한말글문화협회에서 월례 정책 토론회 ‘한말글 사랑 이야기 마당’을 엮.
- 02.28. 『공공기관 누리집 말쑥함이 살펴보기』를 펴냄.

- 03.20. 정기 평의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개선하고,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김종택 이사를 회장으로, 김차균 이사를 부회장으로 뽑음.
- 03.25. 한말글문화협회에서 ‘한말글 사랑 이야기 마당’을 끝낸 뒤 교육과학기술부 청사 후문에서 규탄 대회 및 기자회견을 가짐.
- 04.20. 한글 관련 단체들과 함께 행정동 이름 ‘관평테크노동’을 반대하는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대전시 유성구 의회를 방문함.
- 05.14.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관련 단체들과 함께 꽃바치기 행사를 가짐.
- 05.29. “한국어 어휘의 연구와 교육”이란 주제로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를 엮.
- 06.03. 새로 짓는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달아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문화재청에 냄.
- 06.09. 정정호(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무총장)를 ‘한글학회 홍보대사’로 위촉함.
- 06.30. 『한글』 제288호를 펴냄.
- 07.13. 한글 관련 단체들과 함께 광화문 한글 현판 축구를 위해 문화재청에 항의 방문을 함.
- 07.22. 김종택 회장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청원’ 고 유제를 지냄.
- 07.28. 재단 이사회 임원을 개선함. 김종택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장지익을 새 이사로, 이종수를 새 감사로 뽑음.
- 07.31. 한말글문화협회에서 ‘한말글 사랑 이야기 마당’을 연 뒤에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을 바라는 기자 회견’을 가짐.
- 08.09.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새 광화문 현판은 한글로 걸어야 합니다!”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가짐.
- 08.15.~28. 제14회 국외 한국어 교원 연수회(15 나라에서 26 사람이 참가)를 엮.
- 08.31. 학회 창립 표지석 참배와 창립 102돌 기념모임을 가짐.
- 09.11. 한말글문화협회에서 “한국어 논문의 현주소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한말글 사랑 이야기 마당’을 엮.
- 09.30. 『한글』 제289호를 펴냄.
- 10.02. 대전지회 주관으로 충남대학교에서 “우리말 땅이름·기관 이름을 지키는 뜻”이라는 주제로 564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를 엮. 이 날 영어식 행정동명인 ‘관평테크노동’(대전시 유성구)을 ‘관평동’으로 바로잡는 데 힘쓴 대전시 유성구의회 이은창 의원에게 표창패를 드림.
- 10.09. 564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학회 공로 표창, 제6회 휴대전화 쪽글 자랑 한마당 시상식을 가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010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교재

2010년 10월 13일 박음

2010년 10월 18일 펴냄

엮고 펴낸 이: **한글 학회**
국립국어원

펴낸 데: **한글 학회**

주소: [110-061]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58-14.
전화: 02)738-2236~9.
전송: 02)738-2238.
누리집: 한글학회 또는 <http://www.hangeul.or.kr>
누리편지: webmaster@hangeul.or.kr

등록한 날: 1955. 2. 14.
등록 번호: 제1-440호.

* 이 책은 팔지 않음 *
